

# 리아후나

## 연차 대회 말씀

넬슨 회장이 가족들에게 승영을  
구하라고 당부하다

칠십인과 본부 주일학교 회장단이 새로  
부름받고 지지받다

새로 건축될 성전 8곳이  
발표되고, 초기 개척  
시대의 성전들이  
개보수될 예정이다







“2000여 년 전에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사람들에게 성역을 베푸시고 당신의 교화와 복음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은 사도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 으라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19]

오늘날 주님의 교회가 회복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현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우리는 오래전에  
 사도들이 나누었던 것과 똑같은 메시지를, 곧 하나님은 살아 계시며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메시지를 오늘도 나누고 있습니다.

—러셀 엠 벨슨 회장, 지난 3월 이탈리아 로마 성전 헌납식에 참석하기 위해 이탈리아를 방문 중에

# 2019년 5월호 목차

제56권, 제5호

## 토요일 오전 모임

- 6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울리세스 소아레스 장로
- 9 세심함 vs. 소홀함  
베키 크레이븐
- 11 기도에 대한 응답  
브룩 피 헤일즈 장로
- 15 선교 사업: 마음속 소중한 것을 나누는 일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장로
- 19 그분께서 하신 것처럼  
더블유 크리스토퍼 와델 감독
- 22 주님의 영이 거하는 가정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 토요일 오후 모임

- 26 교회 역원 지지  
달린 에이치 옥스 회장
- 27 2018년 교회 감사부 보고서  
케빈 알 저건슨
- 28 참되고 순수하며 단순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엠 러셀 벨라드 회장

- 31 영으로 지식을 구하십시오  
마티아스 헬드 장로
- 34 신앙의 눈  
닐 엘 앤더슨 장로
- 38 그리스도의 말씀을 흡족히 취함  
다카시 와다 장로
- 41 그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데이비드 피 호머 장로
- 44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 신권 총회

- 47 여러분의 신권 전략서  
게리 이 스티븐슨 장로
- 51 정원회: 소속되어 하나가 되는 곳  
칼 비 쿡 장로
- 54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김 비 클라크 장로
- 58 지지하는 신앙을 통해 받는 힘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 60 선택의 결과  
달린 에이치 옥스 회장
- 67 우리는 더 잘할 수 있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러셀 엠 넬슨 회장

## 일요일 오전 모임

- 70 복이 많으니  
데일 지 랜런드 장로
- 73 그리스도: 어둠에 비치는 빛  
쉐런 유뱅크
- 76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향한 깊은 사랑  
쿠엔틴 엘 쿡 장로
- 81 주께서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함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
- 85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태드 알 폴리스터
- 88 “와서 나를 따르라”  
러셀 엠 넬슨 회장

## 일요일 오후 모임

- 91 회개를 통하여 정결하게 됨  
달린 에이치 옥스 회장
- 95 영적 근육을 단련시킴  
후안 파블로 비야르 장로
- 97 선한 목자, 하나님의 어린 양  
게릿 더블유 공 장로
- 101 모든 필요한 것을 얻도록 준비되어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 105 하나님의 직접적인 선하심  
카일 에스 맥케이 장로
- 107 영성과 보호의 요새를 지으십시오  
로널드 에이 래스번드 장로
- 111 폐회 말씀  
러셀 엠 넬슨 회장

- 64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총관리 역원 및 교회 본부 역원
- 112 2018년 통계 보고서
- 113 연차 대회에서 소개된 일화 색인
- 114 교회 소식
- 127 와서 나를 따르라—연차 대회 메시지를 통해 배우기





# 제189차 연차 대회

## 2019년 4월 6일 토요일 오전 모임

사회: 델린 에이치 옥스 회장  
 개회 기도: 스티븐 이 스노우 장로  
 폐회 기도: 윌포드 더블유 앤더슨 장로  
 음악: 템플 스퀘어 태버네클 합창단. 지휘: 맥 윌버그, 라이언 머피. 오르간 반주: 리차드 엘리엇, 앤드루 언스워스, "우리 구원의 날을 함께 다 즐기세", 찬송가, 32장. "전진하세 주 예수 믿으니", 찬송가, 55장, 윌버그 편곡. "내 영혼이 햇빛을 받아", 찬송가, 153장, 윌버그 편곡. "이스라엘 구속주", 찬송가, 27장. "사랑하는 자녀들아", 찬송가, 40장, 윌버그 편곡. "난 하나님의 자녀", 찬송가, 187장, 머피 편곡. "기뻐하라 너희 주는 왕이시라", 찬송가, 36장, 머피 편곡.

## 2019년 4월 6일 토요일 오후 모임

사회: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개회 기도: 브렌트 에이치 닐슨 장로  
 폐회 기도: 리사 엘 하크니스 자매  
 음악: 브리검 영 대학교 연합 합창단. 지휘: 로잘린 홀, 앤드류 크레인. 오르간 반주: 린다 마켓츠와 보니 굿리프. "오래 기다리던 만왕의 왕", 찬송가, 14장, 케이슨 편곡. "예수께서 베푸신 사랑", 찬송가, 111장, 제섭 편곡. "전지 전능하신 주님께", 찬송가, 56장. "구유에서 나신 예수", 찬송가, 121장, 케이슨 편곡. "Jesus, Lover of My Soul," Hymns, no. 102, arr. Staheli.

## 2019년 4월 6일 토요일 저녁 신권 총회

사회: 델린 에이치 옥스 회장  
 개회 기도: 존 시 핑그리 이세 장로  
 폐회 기도: 브라이언 케이 테일러 장로  
 음악: 유타 레이튼 스테이크 아론 신권 연합 합창단. 지휘: 스티브 생크. 오르간 반주: 브라이언 마티아스. "위대하신 여호와여", 찬송가, 43장, 윌버그 편곡.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휩쓸어", 찬송가, 142장, 케이슨 편곡. "이스라엘 시온 군대", 찬송가, 156장. "Beautiful Savior," Children's Songbook, 62, arr. Schank.

## 2019년 4월 7일 일요일 오전 모임

사회: 델린 에이치 옥스 회장  
 개회 기도: 브래들리 디 포스터 장로  
 폐회 기도: 진 비 빙엄 자매

음악: 템플 스퀘어 태버네클 합창단. 지휘: 맥 윌버그, 오르간 반주: 앤드루 언스워스, 브라이언 마티아스. "Sing Praise to Him," Hymns, no. 70. "군도다 그 기초", 찬송가, 35장, 윌버그 편곡. "주 사랑 느껴요", 어린이 노래책, 42쪽, 카돈 편곡. "오라 주의 자녀들", 찬송가, 13장. "예수님은 구원 반석", 찬송가, 181장, 윌버그 편곡. "날 따르라", 찬송가, 65장, 윌버그 편곡.

## 2019년 4월 7일 일요일 오후 모임

사회: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개회 기도: 타니엘라 비 와콜로 장로  
 폐회 기도: 클라우디오 알 엠 코스타 장로  
 음악: 템플 스퀘어 태버네클 합창단. 지휘: 맥 윌버그, 라이언 머피. 오르간 반주: 보니 굿리프, 린다 마켓츠. "나의 하나님 나의 왕", 찬송가, 63장, 머피 편곡. "예수께 오라", 찬송가, 77장, 머피 편곡. "들으라 만방 하늘 음성", 찬송가, 167장. "I Know That My Savior Loves Me," Creamer and Bell, arr. Murphy. "늘 함께 하소서", 찬송가, 97장, 윌버그 편곡.

## 대회 말씀 자료

연차 대회 말씀을 온라인에서 여러 언어로 시청 또는 청취하고 싶다면 [conference.ChurchofJesusChrist.org](http://conference.ChurchofJesusChrist.org)에 접속해서 해당 언어를 선택한다. 연차 대회 말씀은 복음 자료실 모바일 앱에서도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연차 대회 후 6주 이내에 배부 센터에서 영상 및 음성 자료를 구할 수 있다. 장애가 있는 회원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된 연차 대회 자료는 [disability.ChurchofJesusChrist.org](http://disability.ChurchofJesusChrist.org)에서 찾아볼 수 있다.

## 표지

앞표지 사진: 레슬리 닐슨.  
 뒤표지 사진: 매튜 라이어.

## 대회 사진

솔트레이크시티에서의 연차 대회 사진 촬영: 코디 벨, 저네 빙엄, 메이슨 코벌리, 랜디 폴리어, 웨스턴 콜튼, 애슐리 라슨, 레슬리 닐슨, 매튜 라이어, 크리스티나 스미스.





2019년 5월호, 제56권 제5호

리아호나 18605 320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한국어판 잡지

제일회장단: 러셀 엠 넬슨, 달린 에이치 옥스, 헬리 비 아이어링

심이사도 정원화: 엠 러셀 벨라드, 제프리 알 홀런드, 디미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쿠엔틴 엘 쿡,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닐 앨 앤더슨, 로널드 에이 래스번드, 게리 이 스티븐슨, 테일 지 랜런드, 개릿 더블유 공, 윌리세스 소아레스

편집자: 렌디 다 펠코

고문: 브라이언 케이 애쉬턴, 랜들 케이 베네트, 베키 크레이븐, 크리스티나 비 프랑코, 쉐런 유뱅크, 도널드 엘 홀스트롬, 래리 에스 캐저, 애릭 더블유 코우피쉬케, 린 지 로빈스

관리 책임자: 리처드 아이 하트

교회 집지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비즈니스 관리자: 가르 캐넌

관리 편집인: 애덤 시 울슨

관리 부편집인: 라이언 카

출판 보조: 카밀라 카스트리온

기사 작성 및 편집 팀: 데이비드 덕슨, 데이비드 에이 에드워즈, 매튜 디 플리튼, 개릿 에이치 가르, 존 라이언 잰슨, 애런 존스턴, 샬럿 라카발, 마이클 알 모리스, 애릭 비 머독, 조슈아 제이 퍼키, 잰 핀보로우, 리처드 엠 롬니, 민디 셸루, 로리 플라 소사, 차를 워들레이, 머리사 위디슨

편집 인턴: 알렉산드라 파머

관리 미술 책임자: 제이 스킳트 크누센

미술 책임자: 데드 알 피터슨

디자인: 제렛 앤드류스, 페이 피 앤드러스, 맨디 벤틀리, 시 킴볼 보트, 토머스 차일드, 조슈아 데니스, 데이비드 그린, 콜린 힐클러, 애릭 피 존슨, 수잔 로프그렌, 스콧 엠 무이, 에밀리 치에코 레밍턴, 마크 더블유 로빈슨, 브래드 데이, 케이 니콜 워큰호스트

디자인 인턴: 소피아 스파너스

자적 재산 코디네이터: 콜레트 네베커 오윤

제작 관리자: 제인 앤 피터슨

제작팀: 아이라 글렌 여더어, 줄리 버넷, 토머스 지 크로닌, 브라이언 더블유 지기, 지니 제이 날슨, 머리사 엠 스미스

사진 인쇄: 조슈아 데니스

인쇄 책임자: 스티븐 티 루이스

배부 책임자: 트로이 알 바커

우편 주소: Liahona, Fl. 23,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0023, USA.

통관: 제638호, 제56권, 제5호

등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19년 4월 1일(월간지)

발행인: 이호상

편집 및 번역 책임자: 최봉선

발행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서울특별시 중로구 자하문로 152

인쇄인: 한국학술정보(주) 채중준

리아호나 신성 및 문의

홈페이지: <http://liahona.kr>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전화: 리아호나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십시오.(전화 080-238-8000)

구독료: 1년 구독료는 7,000원, 권당 가격은 700원입니다.(해외 구독은 개별 문의 바랍니다.) 아래 계좌로 입금해 주십시오.

예금주: (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신한은행 100-001-389810

리아호나("나침반" 혹은 "지시기"를 뜻하는 물론경 용어)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될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마셜어, 말라가시어, 몽골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비슬라미어, 사모어, 세부어, 스와힐리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알바니아어, 에스토니아어, 영어, 우르두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중국어(간체자),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키리바티어, 타갈로그어, 타히티어, 태국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헝가리어 (발행 횟수는 언어에 따라 다름)

© 2018 Intellectual Reserve, Inc.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저작권 정보: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리아호나에 실린 자료는 교회 및 가정에서 (교회 부름을 포함하여)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복사할 수 있습니다. 이 권한은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습니다. 시각 자료는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 복사를 금합니다. 판권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 North Temple St., FL 13, Salt Lake City, UT 84150, USA; 이메일: [cor-intellectualproperty@ldschurch.org](mailto:cor-intellectualproperty@ldschurch.org)

For Readers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June 2019 Vol. 43 No. 6. LIAHONA (USPS 311-480) English (ISSN 1080-955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2.00 plus applicable taxes.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Credit card orders (American Express, Discover, MasterCard, Visa) may be taken by phone or at store.lds.org.(Canada Post Information: Publication Agreement #40017431)

POSTMASTER: Send all UAA to CFS (see DMM 5071.5.2)NONPOSTAL AND MILITARY FACILITIES: Send address changes to Distribution Services,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USA.



연사 색인

게리 이 스티븐슨, 47  
개릿 더블유 공, 97  
닐 앨 앤더슨, 34  
다카시 와다, 38  
달린 에이치 옥스, 26, 60, 91  
더블유 크리스토퍼 와델, 19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101  
데이비드 피 호머, 41  
테일 지 랜런드, 70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81  
디미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15  
러셀 엠 넬슨, 67, 88, 111  
로널드 에이 래스번드, 107  
마티아스 헬트, 31  
베키 크레이븐, 9  
브룩 피 헤일즈, 11  
쉐런 유뱅크, 73  
엠 러셀 벨라드, 28  
윌리세스 소아레스, 6  
제프리 알 홀런드, 44  
카일 에스 맥케이, 105  
칼 비 쿡, 51  
캐빈 알 저건슨, 27  
쿠엔틴 엘 쿡, 76  
김 비 클라크, 54  
태드 알 폴리스터, 85  
헬리 비 아이어링, 22, 58  
후안 파블로 비야르, 95

주제 색인

가르침, 6, 28, 76  
가정, 22, 101, 107  
가족 역사, 76, 81  
가족, 34, 58, 76, 88  
간증, 107  
개인의 가치, 38  
개종, 19, 31, 38  
경건, 44  
경전 공부, 38  
계시, 31, 38, 41  
교회 지도자, 58  
구원, 105  
구원의 계획, 60  
그리스도의 빛, 73  
기도, 11, 22, 58, 70  
기쁨, 28, 60, 88  
기적, 15  
모범, 6  
물문경, 51, 81  
미디어, 76  
받아들임, 73  
배움, 6, 28, 101  
변화, 67  
봉사, 19  
부활, 81, 91  
사랑, 11, 15, 22, 28, 58, 73, 76  
선교 사업, 15, 22, 51, 76, 95  
선지자, 34  
선택, 60  
성신, 22, 31, 38, 41  
성약, 9, 54, 73, 88, 101  
성역, 19, 28, 54, 97  
성전 사업, 76, 81, 101  
성전, 22, 111  
성찬, 44  
소망, 6, 91, 105  
속죄, 44, 85, 91, 97  
순종, 70  
승영, 88  
신권 정의회, 47, 51  
신권, 54, 58, 67

신성한 본질, 60  
신앙, 6, 22, 34, 58, 70, 95, 107  
심판, 91, 111  
아론 신권, 19, 47, 51  
아버지의 본분, 22, 58  
안식일, 28  
역경, 34, 73, 85  
영감, 31, 41  
영성, 70, 47, 95, 107  
영적 사망, 85  
예수 그리스도, 6, 19, 22, 28, 34, 38, 44, 54, 67, 73, 81, 85, 88, 91, 95, 97, 101, 105, 107  
용기, 15  
용서, 22  
우정 증진, 51  
위안, 105  
유혹, 47  
육체적 사망, 85  
의식, 85, 88  
인내, 70, 105  
자비, 91  
재림, 81  
제자 됨, 6, 9, 15, 28, 47, 54, 67, 107, 111  
조셉 스미스, 22, 85, 101  
주일학교, 101  
준비, 101, 107  
지식, 31, 41  
지지함, 58  
진리, 34, 107  
집합, 81, 97  
축복, 70, 105  
친절, 105  
평화, 28  
하나님 아버지, 11  
행복, 9, 22  
형제애, 51  
활동 촉진, 19  
회개, 22, 67, 73, 85, 91  
희생, 60



## 제189차 반연차 대회 하이라이트

러셀 엠 넬슨 회장이 교회 회장으로  
지지받은 이후 여러 가지 중요한 변화가  
발표되었다.

그래서 회원들이 이번 연차 대회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 예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교회 지도자들은  
다른 변화 즉 구구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심으로써 오게 되는 변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 선지자의 호소

넬슨 회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셨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변화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 회개를 막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십시오. 그런 다음, 바꾸고  
변화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우리는 모두  
전보다 더 잘할 수 있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 넬슨 회장이 한 권유를 읽는다.(67쪽)
- 회개의 축복을 누리는 방법에 관해 더

자세히 알려면 다음 말씀을 읽는다.

-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91쪽)
-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22쪽)
- 태드 알 콜리스터(85쪽)

### 교회의 변화

많은 연사가 이전에 발표된 변경 사항에  
관해 말했다. 엠 러셀 벨라드 회장은 “변화  
자체에 너무 들뜬 나머지, 이러한 변경  
사항의 영적인 목적을 간과하지 않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 복음의 단순한 진리에 초점을 맞추라는  
벨라드 회장의 권고를 읽는다.(28쪽)
-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부터 모임  
일정의 변경을 통해 성찬에 대한  
우리의 초점을 어떻게 향상해야 하는지  
배운다.(44쪽)
-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의  
말씀에서 가정이 중심이 된 학습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얻게 되는 결과를  
찾아본다.(101쪽)
- 넬슨 회장이 교회 회장으로 지지받은

이후 발표된 변경 사항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이 변화의 영적인 목적을  
생각해 본다.(121쪽)

### 새로운 성전과 재단장되는 성전

넬슨 회장은 8개의 새로운 성전과 개척  
시대에 건립된 성전을 위한 주요 변경  
사항을 발표함으로써 연차 대회를 마감했다.  
그러나 넬슨 회장은 개인적인 쇄신도  
강조했다. “그분에 대한 신앙과 신뢰를 통해  
우리 삶도 개보수되고 새롭게 단장되기를  
바랍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 넬슨 회장의 폐회 말씀을  
읽는다.(111쪽)
- 새롭게 발표된 성전의 목록을  
찾아본다.(124쪽)
- 솔트레이크 성전에 관한 계획은  
[ChurchofJesusChrist.org/go/05194](http://ChurchofJesusChrist.org/go/05194)에서  
찾아볼 수 있다. ■







울리세스 소아레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우리가 진지하고, 열정적이며, 확고하게, 진심을 담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우고 서로 가르칠 때, 이러한 가르침은 마음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선지자 러셀 엠 넬슨 회장님의 지시 아래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연차 대회가 열리는 이곳에서 다시 함께할 수 있어서 참으로 기쁩니다. 저는 우리가 이 대회에서 우리 시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기도하는 분들과 노래하는 분들, 그리고 말씀하는 분들의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께 간증드립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에 따르면, 전도자 빌립은 에디오피아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이었던 한 에디오피아 사람에게 복음을 가르쳤습니다.<sup>1</sup> 그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영의 강권하심을 받은 빌립은 그에게 가까이 가서 물었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 내시가]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sup>2</sup>

이 에디오피아 사람이 제기한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우고 서로 가르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우리 모두의 신성한 의무를 일깨워 줍니다.<sup>3</sup> 복음을 배우고 가르치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들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 에디오피아 사람과 같이 충실하고 영감에 찬 교사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빌립과 같이 다른 이들이 개입할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치고 강화해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우고 가르치기 위해 노력할 때,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과 그분의 행복의 계획 및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회생을 믿는 신앙을 키우고 지속적인 개심을 이루는

것이여야 합니다. 강화된 신앙과 개심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성약을 맺고 그것을 지키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의 소망은 강해지고, 우리 안에서 진정한 영적인 변화를 이루게 됩니다. 즉, 사도 바울이 고린도도의 성도들에게 쓴 서한에서 가르친 대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sup>4</sup> 이 변화를 통해 우리는 더 행복하고, 생산적이며,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영적인 관점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디오피아 내시가 구주에 관해 배우고, 그분의 복음으로 개종한 후에 경험했던 일이 아니겠습니까? 경전에는 그가 “기쁘게 길을 [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sup>5</sup>

복음을 배우고 서로 가르치라는 계명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 역사 초기부터 꾸준히 반복해서 주어졌습니다.<sup>6</sup> 특히 모세와 그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머무는 동안, 주님께서 모세에게 영감을 주셔서 백성들에게 그들의 책임을 일깨우게 하셨습니다. 그 책임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규례와 성약을 배워, 그것을 직접 흥해를 건너거나 시내산에서 주어진 계시를 증거하는 경험을 하지 못했던 많은 후손에게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sup>7</sup>

모세는 백성에게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sup>8</sup>

모세는 말씀을 마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와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 없이 오래 살리라”<sup>9</sup>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sup>10</sup> 또한, “빛과 진리”로 가족을 양육하라고 계속해서 가르쳐 왔습니다.<sup>11</sup> 벨슨 회장님께서도 최근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도덕과 중독적인 외설물이 창궐하는 오늘날, 부모는 자녀에게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성을 가르칠 거룩한 책임이 있습니다.”<sup>12</sup>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해 신성한 행복의 계획을 마련하신 하늘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구속주이시며, 구원은 그분의 이름을 믿는 신앙을 통해 온다는 사실을 배우고 이를 가족에게 가르치기 위해 노력할 개인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선지자의 경고는 이 책임을 한 번 더 일깨워 줍니다.<sup>13</sup> 우리의 삶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가족으로서 우리만의 영적인 느낌을 우리 가슴에 새기게 되고, 이는 우리가 신앙 안에서 견딜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sup>14</sup>

여러분은 침례 요한의 두 제자가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자 메시아라고 증언하는 것을 듣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선한 남성들은 “와서 보라”는 예수님의 권유를 받아들였으며, 그날 그분과 함께 거했습니다.<sup>15</sup> 그들은 예수께서 메시아이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남은 생애 동안 그를 따랐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와서 보라”는 구주의 권유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경전에 몰두하면서 그 안에서 기뻐하고, 그분의 교리를 배우며, 그분이 사셨던 방식으로 살기 위해 노력하면서 그분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런 후에야, 우리는 그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분의 음성을 인식하게 되며,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고 그분을 믿는다면 결코 주리거나 목마르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sup>16</sup> 우리는 그날 예수님과 함께했던 두 제자와 같이 언제나 진리를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런 일은 우연히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지극히 숭고하고 거룩한 영향력에 우리의 주파수를 맞추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두는 법을 배울 때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모든 것을 가르치는 성신의 영향력이<sup>17</sup> 우리 마음과 생각에 진리를 불어넣어 주고 그것을 증거할 것임을 약속합니다.<sup>18</sup>

에디오피아 사람이 제기한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은 우리가 배운 복음 원리들을 실천에 옮겨야 하는 우리의 개인적인 책임을 생각해 볼 때, 또 다른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예를 들어, 이 에디오피아 사람의 경우에서 보면, 그는 빌립으로부터 배운 진리를 행동에 옮겼습니다. 그는 침례를 받고자 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sup>19</sup>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는 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자신의 믿음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좋은 모범이 가장 훌륭한 교사입니다. 우리가 생활에서 진정으로 실천하는 것을 가르칠 때, 우리가 가르치는 이들의 마음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가족이든 아니든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경전의 말씀과 우리 시대의 살아 있는 사도 및 선지자의 가르침을 기쁘고 소중하게 간직하게 하고 싶다면, 우리가 먼저 그렇게 하며 영혼에 기쁨을 얻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 주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러셀 엠 벨슨 회장님이 우리 시대의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고 싶다면, 우리가 먼저 손을 들어 그분을 지지하고 그분의 영감에 찬 가르침을 따르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 주어야 합니다.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라는 유명한 미국 속담이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는 이 시점에 스스로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소아레스 장로님, 저는 개인적으로 또한 가족으로서 이 모든 것을 실천해 왔고, 이 본보기를 따랐지만, 불행하게도 저의 친구나 제가 사랑하는 이들 중 몇몇은 주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이러한 슬픔, 고통, 후회를 겪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들은 아직 온전히 잃어버려지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도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며 그들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들 역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몇몇 사람들이 다른 길을 택한 이유를 다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저 그들을 사랑하고 받아들이 주며, 그들의 복리를 위해 기도하고, 무엇을 하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도록 주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해 주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며 그들에게서 좋은 점을 찾으십시오. 우리는 그들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며, 그들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절대로 그들을 외면하거나,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저 사랑해 주십시오! 탕자의 비유는 자녀들이 자신의 처지를 깨닫게 될 때, 종종 집으로 돌아오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들이 그렇게 돌아오게 된다면 탕자의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측은한 마음으로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십시오.<sup>20</sup>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계속해서 합당하게 생활하고, 여러분이 믿는 바에 대한 훌륭한 모범이 되어 주며,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깊은 슬픔과 고통을 알고 계시며 이해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들에 대한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인생에서가 아니라 내세에서라도 말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소망은 복음 계획에서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교회에서 수년간 봉사하면서 저는 충실한 회원들이 이 원리를 그들의 삶에 부단히 적용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알고 지내 온 홀어머니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분을 “메리”라고 부르겠습니다. 애석하게도 메리는 비극적인 이혼을 겪었습니다. 그 당시에, 메리는 가족들에 관해 자신이 내려야 할 가장 중요한 결정은 영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기도하고, 경전을 공부하며, 금식하고, 교회 및 성전에 참석하는 것이 그녀에게 계속해서 중요했을까요?

메리는 항상 신앙에 충실해 왔으며, 그 중대한 기로의 순간에도 그녀는 자신이 이미 참되다고 알고 있는 것을 굳게 붙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녀는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의 많은 훌륭한 원리 가운데 부모는 자녀를 사랑과 의로움으로 양육하고 항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도록 가르쳐야 할 거룩한 의무를 지니고 있다는 가르침에서 힘을 얻었습니다.<sup>21</sup> 그녀는 계속해서 주님으로부터 답을 구했으며, 받은 응답을 가정에서 네 아이와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자주 복음을 토론하고, 질문하며, 자신의 경험과 간증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자녀들은 슬픔을 견뎌 내야 했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사랑을 키웠으며, 봉사하면서 그것을 다른 이들과 나누겠다는 소망도 키웠습니다. 그들 중 세 명이 전임 선교사로 충실히 봉사했으며, 막내는 현재 남미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는, 굳건한 신앙을 지녔으며 이제 결혼한 큰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엄마가 혼자서 저희를 양육하셨다고 느껴 본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에는 항상 주님이 계셨거든요. 엄마는 항상 우리에게 그분에 대한 간증을 나누셨기 때문에,

우리도 각자 질문이 있을 때면 그분께 여쭙기 시작했어요. 저는 엄마가 복음을 삶에 적용하는 법을 보여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훌륭한 어머니는 가정을 영적인 학습의 중심으로 삼았습니다. 메리는 에디오피아 사람이 했던 것과 유사한 질문을 여러 차례 자문해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지도해 주지 않으면 내 자녀들이 어찌 깨달을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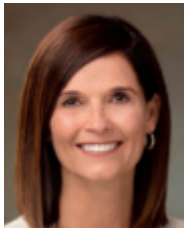
사랑하는 복음 안의 동료 여러분, 우리가 영의 영향력 아래에서 진정한 목적을 지니고, 진지하고, 열정적이며, 확고하게, 진심을 담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우고 서로 가르칠 때, 이러한 가르침은 마음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 살고자 하는 소망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구주이심을 간증드립니다. 그분은 구속주이시며, 살아 계십니다. 저는 그분께서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들을 통해 당신의 교회를 인도하심을 압니다. 저는 또한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을 간증드립니다. 그분은 그분이 계신 곳으로 우리가 모두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십니다. 이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 주

1. 사도행전 8:27 참조.
2. 사도행전 8:30~31, 35.
3. 교리와 성약 88:77~78, 118; 130:18~19; 131:6 참조.
4. 고린도후서 5:17 참조.
5. 사도행전 8:39.
6. 모세서 6:52, 57~58; 신명기 4:5, 14; 5:1; 교리와 성약 43:8~9; 130:18~19; 136:32 참조.
7. 신명기 4:10 참조.
8. 신명기 4:1, 9.
9. 신명기 4:40.
10. 에베소서 6:4, 이노스서 1:1 참조.
11. 교리와 성약 93:40.
12. 러셀 엠 넬슨, “구원과 승영”, *리아호나*, 2008년 5월호.
13. 모사이사서 3:9 참조.
14. 힐라맨서 5:12 참조.
15. 요한복음 1:38~39 참조.
16. 요한복음 6:35 참조.
17. 요한복음 14:26 참조.
18. 요한복음 16:13 참조.
19. 사도행전 8:37~38 참조.
20. 누가복음 15:20 참조.
21.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아호나*, 2017년 5월호, 145쪽.





베키 크레이븐  
본부 청년 회장단 제2보좌

# 세심함 vs. 소홀함

세상의 영향력이 점점 더 악과 결탁할수록, 우리는 구주께로 안전하게 인도하는 길에 굳건히 남아 있도록 전력을 다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저는 한 상점 창문에 이런 글귀가 붙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행복, 15달러.” 저는 15달러로 행복을 얼마만큼 살 수 있는지 호기심이 생겨 상점 안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값싼 장신구와 기념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중 어떤 것도 글귀에서 암시한 종류의 행복을 제게 줄 수 있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수년 동안 저는 그 글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값싸거나 일시적인 것에서 행복을 찾기가 얼마나 쉬운지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으로서, 진정한 행복을 어디서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이자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복음을 세심하게 실천하고, 그분을 닮아 가도록 더욱 노력하는 데서 행복을 찾습니다.

제 친한 친구 중 한 명은 열차 기관사였습니다. 어느 날 늘 다니던 노선으로 열차를 운행하던 그 친구는 앞쪽 선로에 차 한 대가 멈춰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차가 선로에 끼여서 건널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곧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즉시 열차를 비상 모드로 전환했고, 6,500톤의 화물을 싣고 기관차 뒤를 따르던 화물 차량 하나하나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화물 차량들의 전체 길이는 1.21킬로미터에 달했습니다.

물리적으로 자동차와 충돌하기 전에 열차가 멈출 가능성은 없었고, 결국 열차는 자동차를 들이받았습니다. 다행히도 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열차의 경적을 듣고 충돌이 있기 전에 차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기관사가 수사하러 온 경찰과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잔뜩 화가 난 한 여인이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여인은 큰 소리로 자신이 사고를 전부 다 목격했다며, 기관사가 자동차를 피하려고 방향을 틀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만약 기관사가 사고를 피하기 위해 방향을 틀어 선로를 벗어났더라면, 분명히 열차 전체가 탈선했을 것이며, 전진하던

열차는 급정차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다행히 그 열차 바퀴는 선로의 레일 덕에 앞에 있던 장애물과 관계없이 목적지를 향해 계속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다행스럽게도 선로 위에 있습니다. 그 선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으로 침례 받았을 때 맺었던 성약의 길입니다. 도중에 장애물을 만날 때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 길에 굳건히 남아 있는다면 그 길은 우리의 소중한 영원한 목적지로 우리를 계속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생명나무의 시현은 우리가 성약의 길을 소홀히 여길 때 성약의 길에서 어떻게 멀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 줍니다. 험착하고 좁은 길, 즉 성약의 길과 쇠막대는 충실한 자들이 구주와 그분의 속죄가 가져다주는 모든 축복을 얻을 수 있는 생명나무까지 곧바로 이어져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시현에는 세상의 더러움을 상징하는 “물이 흐르는 강”도 등장합니다. 경전에 따르면 이 강은 길을 따라 “흘러가”긴 했지만, 나무 “가까이에” 있었을 뿐, 나무까지 흐르지는 않았습니다. 이 세상은 택함받은 자들도 미혹할 수 있는 방해 요소들로 가득합니다. 미혹당한 이들은 성약에 따라 생활하는 데 소홀하게 되어 나무 가까이 가는 가더라도 나무까지 가지는 못합니다. 정확하게 성약을 지키기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는 소홀함으로 결국 금단의 길로 떨어지거나, 이미 크고 넓은 건물에 들어간 사람들과 함류할지도 모릅니다. 주의하지 않으면 더러운 깊은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습니다.<sup>1</sup>

복음대로 생활하는 것을 포함하여 모든 일을 하는 데는 세심한 방식과 소홀한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주와 맺은 약속을 세심하게 행합니까? 아니면 소홀하게 여깁니까? 우리가 지닌 필멸의 본성 때문에 때로 자신의 행동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나쁘지도 않다고 하거나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적당히 섞어 가며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지는 않습니까? 선지자이신 지도자들의 권고를 따르는 일이나 세심하게 복음을 실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하지만”이라든가 “~를 제외하고”라는 조건을 붙인다면, 그때마다 우리는 “그 권고는 나에게 해당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옳지 않은 일을 하는 올바른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2019년 청소년 주제인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가 주장하는 것처럼 정말 그분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계명을 좀 더 세심하게 실천함으로써 그 사랑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요?

세심하게 복음을 실천한다는 말이 꼭 엄격하거나 고리타분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에 걸맞은 생각과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을 세심하게 실천하는 것과 소홀히 대하는 것의 차이를 곰곰이 생각해 볼 때 몇 가지 고려해 볼 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주 안식일 예배에 임하고 성찬을 취할 준비를 할 때 세심한 주의를 기울입니까?

우리는 더욱 세심한 태도로 기도와 경전 공부를 하거나 **와서 나를 따르라—개인 및 가족** 학습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성전 예배를 드릴 때 세심한 주의를 기울입니까?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맺은 성약과 성전에서 맺은 성약을 세심하고 진지하게 지킵니까? 우리는 특히 성스러운 장소와 상황에서 외모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정숙한 옷차림을 합니까? 우리는 성스러운 성전 가먼트 착용과 관련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유행에 이끌려 소홀히 여기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성역을 베풀고 교회 부름을 수행할 때 세심한 주의를 기울입니까? 아니면 부름에 무관심하거나 부름을 소홀히 여깁니까?

우리는 무엇을 읽는지, 그리고 텔레비전 및 모바일 기기에서 무엇을 보는지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입니까? 아니면 부주의합니까? 우리는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를 세심하게 선택합니까? 아니면 상스럽고 저속한 것들을 별생각 없이 받아들입니까?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소책자에는 세심히 따르면 풍성한 축복을 가져다주고

계속해서 성약의 길을 따라가도록 도와줄 표준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책자는 청소년들의 유익을 위하여 쓰였지만, 거기에 나온 표준들은 청남 청년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표준은 우리 모두에게 항상 적용됩니다. 이 표준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더욱 세심하게 복음 생활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거나 누군가의 마음을 편하게 해 주려고 우리의 표준을 낮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더욱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높고 거룩한 곳으로 그들을 끌어올리고 고양하는 일을 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자신이 맺은 성약을 더욱 세심하게 부응하기 위해, 삶에서 어떤 부분을 변화시켜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성신의 인도를 구하기를 권유합니다. 또한 이 여정을 함께하는 다른 이들을 비판하지 않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심판이 내 것이요[라고], …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sup>2</sup> 우리는 저마다 성장과 변화의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저는 물문경에 나오는 에블리씨어인에 대한 이야기가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이마에 뚜렷한 붉은 표시를 했습니다.<sup>3</sup> 이와 반대로, 우리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떤 표시를 할 수 있을까요? 다른 이들이 우리의 얼굴에서 쉽게 그분의 형상을 볼 수 있을까요? 신중하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누구를 대표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성약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불렸습니다.<sup>4</sup> 이 얼마나 멋진 찬사입니까! 세상의 영향력이 점점 더 악과 결탁할수록, 우리는 세상의 영향으로부터 더욱 멀어져 성약에 따라 생활하면서, 우리 구주께로





브룩 피 헤일즈 장로  
칠십인 정원회

안전히 인도하는 길에 굳건히 남아 있도록  
전력을 다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저는 영속적인 행복을 얻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가끔 잘못된 선택을  
합리화할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성약의 길을 걸어갈 때 어둠의 안개는  
피할 수 없습니다. 유혹과 소홀함은 우리의  
경로를 미묘하게 돌려 성약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여 우리를 세상의 어둠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선지자  
러셀 엠 넬슨 회장님은 만일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신속히 성약의 길로 다시  
돌아오라고 강력하게 권고하셨습니다.  
저는 회개의 은사와 구주의 속죄의 권능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완벽한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한 분만이 이 지상에서 온전한  
삶을 사실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비록 완전하지는 못할지라도  
성찬을 취하고, 성전 축복을 받고,  
개인적인 계시를 받기에 합당해질 수  
있습니다.

베냐민 왕은 세심하게 구주를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과 행복에 대해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또 더욱이 나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의  
복되고 행복한 상태를 깊이 생각해 보기를  
바라고자 하노니, 이는 보라, 그들은  
현세적이거나 영적인 모든 일에 복됨이요,  
만일 그들이 끝까지 충실히 견디면 하늘에  
영접되나니, 그로 인해 하나님과 함께 결코  
끝이 없는 행복한 상태에 거하게 되리라.”<sup>5</sup>

15달러로 행복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목적의식을 지니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생활할 때 비로소 충만하고 영속적인  
행복이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니파이전서 8장, 15장 참조.
2. 물몬서 8:20.
3. 엘마서 3:4 참조.
4. 베드로전서 2:9.
5. 모사이야서 2:41.

# 기도에 대한 응답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에 품고 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며 우리를  
완전하게 도우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중요하고도  
위안을 주는 교리 중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에 대해  
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완전한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과 필요 사항에 따라서만이  
아니라 그분의 무한한 지혜에 따라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선지자 니파이가 간결하게  
표현한 것처럼 “[저]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사랑하심을 [압니다.]”<sup>1</sup>

그 완전한 사랑을 보여 주는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사소한 부분에도  
관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눈치채거나 이해하지 못할 때도 말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해 드리는 진심 어린

기도를 통해 하늘에서 오는 인도와 도움을  
구합니다. 우리가 맺은 성약을 지키고  
구주를 닮아 가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성신의 영향력과 영감을 통해 지속적으로  
하늘의 인도를 받을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sup>2</sup>

경전에는 이런 가르침이 나옵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sup>3</sup>  
또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데], 이는  
모든 것이 [그분의] 눈 앞에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sup>4</sup>

선지자 물몬은 이 가르침의  
본보기입니다. 생전에 그는 자기 일의  
결과물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자신을 세심하게 인도하심을





알았습니다. 물론은 니파이의 작은 판을 자신의 기록에 포함해야 한다는 영감을 받았을 때 이렇게 적었습니다. “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한 현명한 목적을 위함이니, 이는 내 안에 있는 주의 영의 역사하심을 따라, 이같이 내게 속삭이는 바가 있음이라. 이제 나는 만사를 다 알지 못하나, 주께서는 장차 이를 일을 모두 아시나니, 그런즉 그는 그의 뜻대로 행하시고자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도다.”<sup>5</sup> 물론은 116쪽의 원고가 분실될 줄 몰랐으나 주님은 이를 아셨기에 그 일이 있기 한참 전에 이 장애물을 극복할 방법을 마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에 품고 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며 우리를 완전하게 도우실 것입니다. 때때로 하늘에서 오는 도움은 간구하는 즉시, 또는 간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주어집니다. 때로는 우리가 열렬히 바라는 합당한 소망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응답되지 않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마련해 두신 것을 알게 됩니다. 또 때로는 우리의 의로운 소망이 인생에서 이루어지지 않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진심어린 청원에 그분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 보여 드리겠습니다.

제 막내 아들은 프랑스 파리 선교부에서 봉사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임지로 떠날 준비를 하면서 우리는 아들과 함께 셔츠와 양복, 넥타이, 양말, 외투와 같은 기본 물품을 사러 갔습니다. 아쉽게도 아들이 원한 외투는 맞는 치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점원이 말하길, 몇 주만 기다리면 그 사이즈의 외투가 들어올 테니 아들이 프랑스로 떠나기 전에 외투를 프로보 선교사 훈련원으로 보내 주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옷값을 치렀고 그 뒤론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6월에 선교사 훈련원에 들어갔고, 외투는 아들의 출발 예정일 며칠 전인 8월에 전달했습니다. 아들은 외투를 입어 보지 않고 다른 옷가지 및 소지품과 함께 서둘러 짐을 쌌습니다.

임지인 파리에 겨울이 다가오자 아들은 외투를 꺼내 입어 봤는데, 그 코트가 작아도 너무 작다고 저희에게 편지로 알려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파리에서 다시 외투를 사도록 아들 계좌에 돈을 부쳐 줬야 했고, 아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탐탁치 않은 마음으로 아들에게 편지를 적으며 먼저 샀던 그 작은 외투는 어차피 입을 수도 없으니 누군가에게 주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아들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여기는 정말 정말 추워요. ... 새 외투는 두툼하고 너무 좋지만, 여전히 바람이 뺏속까지 관통하는 것 같아요. ... 예전 외투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다른 선교사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이 장로는 더 따뜻한 외투가 생기기를 기도하고 있었대요. 이 장로는 개종한 지 몇 년 안 됐는데, 선교 사업을 지원해 주는 사람이 자기를 침례 준 선교사랑 자기 어머니뿐이래요. 그래서 제 코트가 기도의 응답이였대요. 그 말을 들으니 참 기뻐요.”<sup>6</sup>

하나님 아버지는 집에서 일만 킬로미터

떨어진 프랑스에서 봉사하고 있던 이 선교사가 파리에서 추운 겨울을 내려면 그에게 새 외투가 꼭 필요하지만 그가 사 입을 형편이 안 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제 아들이 유타주 프로보에 있는 옷가게에서 작아도 너무 작은 외투를 받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분은 이 두 선교사가 파리에서 함께 봉사할 것이며, 이 외투가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한 이 선교사의 소박하고 간절한 기도에 응답이 되리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구주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앉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sup>7</sup>

우리의 합당한 소망이 우리가 바라는 방식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오히려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야곱의 아들들은 동생 요셉을 질투하고 시기하여 그를 죽이려 꾀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대신, 그들은 요셉을 애굽에 노예로 팔았습니다.<sup>8</sup> 기도가 자기가 바란 방식대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느낀 사람이 있다면 그건 바로 요셉일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자명한 그의 불행 때문에 그는 큰 축복을 받았으며 그의 가족은 굶주림에서 구제됐습니다. 훗날 요셉은 애굽의 신임받는 지도자가 된 후에 큰 신앙과 지혜를 가지고 형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 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이 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오 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라.”<sup>9</sup>

대학 시절, 제 큰아들은 학생들을 고용하는 몹시 선망받는 시간제 직장에 채용됐는데, 그 일은 졸업 후 멋진 정규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아들은 이 직장에서 4년 동안 열심히 일했고 자격 조건을 두루 갖췄으며 동료들과 상사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았습니다. 4학년 말에, 마치 하늘에서 마련해 준 것처럼 (적어도 제 아들 눈엔 그랬습니다.) 정규직 채용 공고가 났으며, 제 아들이 가장 유력한 후보였습니다. 상황으로 보나 분위기로 보나 모든 면에서 아들이 뽑힐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뽑히지 않았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잘 준비되었고, 면접도 잘 봤고, 그 자리에 가장 적합한 후보였으며, 큰 희망과 기대감을 품고 기도했는데 말입니다! 아들은 좌절했고 낙담했으며, 우리 모두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제 아들의 의로운 소망을 저버리셨을까요?

몇 년이 지나서야 그 답이 분명해졌습니다. 졸업하면서 꿈에 그리던 그 직장을 얻었더라면, 제 아들은 오늘날 자신에게 영원한 유익이자 축복임을 분명히 알게 된, 인생을 바꿔놓은 중대한 기회를 놓쳐 버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그러시듯) 시작부터 끝을 아셨으며, 이 경우 여러 의로운 기도는 거절이라는 응답으로 돌아왔지만 이것은 그보다 훨씬 큰 축복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몹시 의로운 가운데 절박하고 간절히 기다리는 기도의 응답이 인생에서 주어지지 않기도 합니다.

패트리샤 파킨슨 자매는 정상적인 시력을 갖고 태어났으나 일곱살 때부터 시력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아홉살이 되자, 팻은 유타주 옥든에 있는 유타 시청각 장애인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학교가 집에서 145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 있어서 기숙사 생활을 할 수 밖에 없었던 팻은 아홉살짜리가 겪을 수 있는 온갖 향수병을 다 겪었습니다.

열한 살에 팻은 시력을 모두 잃었으며, 열다섯 살 때, 가까운 고등학교에 다니기 위해 완전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팻은 대학에 들어가 의사소통 장애 및 심리학 학위를 받고 졸업했습니다. 그러고선 입학 관계자들이 던지는 불신의 눈초리에 굳게 맞선 끝에 대학원에 들어가 언어 병리학 석사 학위를 마쳤습니다. 현재 팻은 초등학교 53명을 대상으로 일하며, 소속 학교의 언어 병리학자 네 명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팻에게는 집도 있고, 필요할 때 친구와 가족들이 운전해 주는 자가용도

있습니다.

팻이 열 살 때, 그녀는 조금씩 잃고 있던 시력을 되찾기 위해 한 가지 기술을 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팻의 부모님은 언제나 치료 계획에 관해 빠짐없이 팻에게 알려 주셨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이 기술에 대한 일정은 팻에게 말해 주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부모님에게서 이 일정에 대해 들었을 때, 어머니 말씀으로는 팻이 굉장히 흥분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팻은 다른 방으로 뛰고 가버렸다가 나중에 돌아와 격양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제가 알고 하나님도 아시고 두 분도 아실 거예요. 저는 남은 평생 장님으로 살게 될 거예요.”

몇 년 전, 팻은 캘리포니아에 사는 가족들을 보러 여행을 갔습니다. 그녀가 세





살배기 조카와 있는 동안 조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모, 왜 하나님께 그냥 새 눈을 달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부탁하면 고모가 원하는 건 뭐든 주실 텐데요. 그냥 그분께 구하면 돼요.”

팻은 그 질문에 어안이 병병했지만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그게 말야, 때때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 가끔은 하나님께서 네가 뭔가를 배우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네가 원하는 걸 다 주시진 않아. 어떤 땐 기다려야 해. 하나님과 구주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게 뭐고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가장 잘 아서. 그래서 네가 원하는 모든 걸 네가 원하는 순간에 다 주시진 않을 거야.”

저는 오랜 세월 팻과 알고 지냈는데 최근에 저는 팻에게 한결같이 긍정적이고 행복한 모습을 존경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팻이 말했습니다. “글쎄요, 저랑 같이 집에 계시 본 적 없죠? 저도 힘들어 할 때가 있답니다. 극심한 우울증에도 빠져 봤고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그러곤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할 때부터 저는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께서 저와 제 가족과 함께 계신다는 걸 느꼈어요. 우리는 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제가 보기에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간 것 같아요. 저는 충분히 성공했고 전반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왔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모든 일에 임하신 것을 알아요. 제가 장님이라 화가 나고 묻는 사람에게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누구에게 화를 내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런 어려움을 함께해 주고 계세요. 전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곁에 계세요.’”

이 경우, 시력을 되찾고픈 팻의 소망은 인생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팻이 아버지께 배운 좌우명은 “이 또한 지나가리”입니다.<sup>10</sup>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금 바로 이 순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이들의 영적, 현세적 필요 사항을 알고 계십니다.”<sup>11</sup> 이 위대하고도 위안을 주는 진리는 제가 전해 드린 세 경험에 녹아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기도는 빠르게 응답되며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수반합니다. 이따금씩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되지 않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우리는 애초에 우리가 바랐던 것보다 더 큰 축복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의로운 청원이 인생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sup>12</sup> 닐 에이 맥스웰 장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앙에는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신뢰하는 것이 포함됩니다.”<sup>13</sup>

우리는 하나님이 그분의 방식대로, 그분이 정하신 시간에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며,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근심과 불공평과 실망을 어루만져 주시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베냐민 왕의 말씀을 인용하겠습니다. “또 더욱이 나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의 복되고 행복한 상태를 깊이 생각해 보기를 바라고자 하노니, 이는 보라, 그들은 현세적이거나 영적인 모든 일에 복됨이요, 만일 그들이 끝까지 충실히 견디면 하늘에 영접되나니, 그로 인해 하나님과 함께 결코 끝이 없는 행복한 상태에 거하게 되리라. 오 기억하라, 이러한 것들이 참됨을 기억하라. 이는 주 하나님께서 이를 말씀하셨음이니라.”<sup>14</sup>

저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압니다.<sup>15</sup> 전지하고 사랑이 많은 아버지로서, 하나님은 그분이 지니신 무한한 지혜에 따라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는 방법으로 우리 기도에 완벽하게 응답하십니다. 이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 주

1. 니파이전서 11:17; 또한 요한1서 4:8 참조.
2. 러셀 엠 넬슨, “교회를 위한 계시와 우리 삶을 위한 계시”, *리아호나*, 2018년 5월호, 93~96쪽 참조.
3. 마태복음 6:8.
4. 교리와 성약 38:2.
5. 물문의 말씀 1:7.
6. 개인 서한.
7. 마태복음 10:29~31.
8. 창세기 37:20, 26~28 참조.
9. 창세기 45:5-8.
10. 2018년 12월 10일에 패트리샤 파킨슨과 개인적으로 한 접점에서.
11. 헨리 비 아이어링, “그분의 영광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리아호나*, 2018년 5월호, 88~89쪽.
12. 제프리 알 홀런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 *리아호나*, 2000년 1월호, 42~45쪽 참조.
13. 닐 에이 맥스웰,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성도의 빛*, 1991년 7월호 88쪽.
14. 모사이야서 2:41.
15. See “Power of Prayer,” [mormon.org/beliefs/power-of-prayer](http://mormon.org/beliefs/power-of-prayer).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 선교 사업: 마음속 소중한 것을 나누는 일

이 지상 어디에 있건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좋은 소식을 나눌 기회가 넘칩니다.

지난달, 저희 십이사도는 사랑하는 선지자 러셀 엠 넬슨 회장님의 초대로 그분과 함께 이탈리아 로마 성전 헌납식에 참석했습니다. 로마로 여행하는 길에, 저는 사도 바울과 그의 여정을 떠올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가려면 약 40일 정도가 걸렸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비행기를 타면 세 시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그의 서한 다수를 로마에서 작성했다고 믿습니다. 그 서한들은 당시에, 그리고 지금도 교회 회원을 강화하는 일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고대 교회의 다른 회원들, 즉 초기 성도들은 모두 희생에 익숙했습니다. 많은 성도가 심한 박해로 죽음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지난 2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교회의 회원인 후기 성도들 또한 다양한 형태로 박해를 경험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박해에도 불구하고(때로는 그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계속 성장해 왔으며 오늘날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케이크를 굽고 색종이 조각을 뿌리며 성공을 축하하기에 앞서, 우리는 이 성장을 제대로 보아야 합니다.

전 세계의 75억 명 인구와 비교하면, 약 1600만 명의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은 실로 아주 작은 무리입니다.<sup>1</sup>

한편, 세계의 몇몇 지역에서는 기독교인의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sup>2</sup>

심지어 주님의 회복된 교회에서조차, 비록 전체 회원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정기적인 교회 참석에서 오는 축복을 누리지 않고 있는 회원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이 지상 어디에 있건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이 만나고, 함께 공부하고, 함께 사는 사람들, 또는 함께 일하고 어울리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좋은 소식을<sup>3</sup> 나눌 기회가 수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동안, 저는 교회의 범세계적 선교 활동에 깊이 참여하는 가슴 뛰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저는 구주께서 그의 제자들, 즉 그분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신 다음과 같은 위대한 임무에 대해 종종 숙고하고 기도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sup>4</sup>

저는 이런 질문과 씨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교회 회원이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러한 위대한 명을 일상 속에서 어떻게 가장 잘 이행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여러분도 이 질문을 깊이 숙고해 보시기를 권유합니다.<sup>5</sup>

## 선교 사업에 필요한 재능

교회 지도자들은 “모든 회원은 선교사”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수십 년간 강조해 왔습니다.<sup>6</sup>

과거에나 지금 시대에나 예수 그리스도 교회 회원은 열정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친구 및 지인에게 복음을 나누어 왔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으로 타올랐으며, 다른 이들도 자신이 구주의 복음에서 찾은 것과 같은 기쁨을





느끼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어떤 회원들은 이렇게 복음을 나누는 일에 재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대표자가 되는 것을 사랑합니다. 그들은 회원 선교사로서 담대하게 기꺼이 봉사하며 솔선합니다.

하지만, 우리 중 일부는 이 일을 좀 망설입니다. 교회 모임에서 선교 사업에 대해 논의할 때면 그들은 고개를 점점 숙여 앞 의자 등받이에 몸을 숨기고, 다른 회원과 눈이 마주칠까 봐 급히 경전을 쳐다보거나 아예 눈을 감은 채로 깊은 명상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행동할까요? 아마 우리는 더욱 힘써 복음을 나누지 않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복음을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지에 대해 확신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저 편안하고 익숙한 일상을 벗어나 불편한 상황을 마주하기가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단 한 번도 전문적이고 흠이 없는 선교 사업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주(님은) 진심과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을 요구하십니다.<sup>7</sup>

여러분이 이미 기쁘게 선교 사업을 하고 있다면, 계속해서 다른 사람의 본이 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여러분이 복음 메시지를 나누는 일에서 오랫동안 주저해 오셨다면, 이스라엘의 집합을 도우라는 구주의 위대한 명에 참여하기 위해 누구나 죄책감 없이 실천할 수 있는 다섯 가지 방법을 제가 제안해도 되겠습니까?

#### 다섯 가지 간단한 제안

**첫째,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십시오.**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sup>8</sup> 이는 우리가 지상에 온 주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문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가?”

“나는 그분을 사랑하고 신뢰하는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께 더 다가갈수록, 그의 더 많은 빛과 기쁨이 여러분 안에서 발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독특하고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챌 것이고, 그것에 관해 물어볼 것입니다.

**둘째, 여러분의 마음을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채우십시오.** 이것은 크고 둘째 되는 계명입니다.<sup>9</sup>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을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로 보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들의 이름이 여러분의 성역 대상자 명단에 있는지와는 상관없이,

그들에게 성역을 베푸십시오.

그들과 함께 웃으십시오. 함께 기뻐하십시오. 함께 슬퍼하십시오. 그들을 존중하십시오. 그들을 치유하고, 고양하고, 강화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고 이웃에 대한 연민을 갖도록 노력하십시오. 심지어는 여러분에게 불친절하고, 여러분을 놀리며, 해하려는 이웃에게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들을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대하십시오.

**셋째, 제자의 길을 걷고자 힘쓰십시오.**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를 향한 여러분의 사랑이 깊어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여러분의 결심도 강화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을 흡족히 취하고, 현대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고 적용함으로써 그분의 길에 관하여 배웁니다. 여러분이 가르침 받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할 때, 그분의 길을 따르는 데 필요한 자신감과 용기가 커집니다.

제자의 길을 걷는 일에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은혜에 은혜”를,<sup>10</sup> “교훈에 교훈”을 더해야 합니다.<sup>11</sup> 때로는 이보 전진했다가 일부 후퇴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잘 해낼 때까지 계속 노력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은 더 나아지고 행복해지며, 더욱 진정한 제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관해 다른 사람과 이야기 나누는 일이 일상이 되고 더욱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사실, 복음이 우리 삶의 필수적이고 소중한 일부가 되어서, 사람들과 그것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즉시 일어나지 않을 수 있으며, 평생의 노력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변화는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넷째, 마음속에 있는 소중한 것을 나누십시오.** 저는 여러분께 거리 한구석에 서서 확성기를 들고 물몬경의 구절을 외치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요청드리는 것은, 사람들과 직접 만나서나 온라인상에서, 평범하고 자연스레 여러분의 믿음에 관해 이야기할 기회를 늘 찾으시라는 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느 때이나 복음의 권능에 대한 “증인이 되어”<sup>12</sup> 행동하고, 필요하다면 말로써도 나누기를 요청합니다.<sup>13</sup>

“그리스도의 복음은 ...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에, 그것을 나눌 때 여러분은 자신감을 얻으며, 대담해지고, 겸손해집니다.<sup>14</sup> 자신감, 용기, 그리고 겸손은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속성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속성들은 복음의 가치와 원리들을 숨기지 않고, 여러분의 빛을 비추게 하여 여러분의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라는 구주의 권유를 반영합니다.<sup>15</sup>

이를 실천하기 위한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방법은, 평소에 친절하게 행동하는 것부터 유튜브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또는 트위터에 개인적인 간증을 올리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과 간단한 대화를 나누는 것까지 아주 많습니다. 이번 해에 우리는 가정과 주일학교에서 신약전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친구와 이웃을 교회나 집으로 초대하여 구주에 관해 함께 배울 수 있는 얼마나 훌륭한 기회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 복음 자료실 앱에서 『와서 나를 따르라』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알려

주십시오. 여러분이 만약 청소년과 그 가족을 알고 있다면, 그들에게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책자를 선물하고, 우리의 청소년들이 그런 원리에 따라 어떻게 살아가는지 와서 보도록 권유하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의 주말 계획을 물어본다면, 여러분이 교회에서 무엇을 하고 배우는지를 나누는 일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주 예수를 닮으려고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회중 앞에서 열심히 노래했던 어린아이들에 관해 이야기하십시오. 양로원에 계신 어른들이 개인적인 역사 기록을 모으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청소년들에 관해 얘기하십시오. 일요일 모임 일정의 변화와 그것이 여러분의 가족에게 가져다준 축복에 관해 이야기하십시오. 아니면,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강조하는 이유, 그리고 고대의 교회 회원들이 **성도**라고 불렸던 것처럼 우리도 후기의 **성도**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여러분에게 자연스럽게 일상적으로 느껴지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가 여러분에게 중요한 이유를 사람들과 나누십시오. 그들에게 **“와서 보라”**고 권유하십시오.<sup>16</sup> 그런 뒤 그들이 **와서 돕도록** 격려해 주십시오.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도움을 줄 기회는 아주 많습니다.

선택된 자들을 선교사들이 찾을 수 있게 해 달라고만 기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와서 보고, 와서 도우며, 와서 떠나지 않고 남을** 사람을 찾을 수 있도록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십시오. 이 모든 과정에 항상 전임 선교사를 참여시키십시오. 선교사들은 마치 천사처럼 언제나 도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좋은 소식,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눌 때, 사랑과 인내를 보이시길 바랍니다. 만약 사람들이 곧 흰 침례복을 입고 나타나 가장 가까운 침례탕이 어디냐고 묻기만을 기다리며 그들과 교류한다면, 우리는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와서 보는 사람 중 일부는 교회에 절대 가입하지 않을 수도 있고, 혹은 나중에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무슨 선택을 하든, 그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과 가족에게 **와서 보고, 와서 도우며, 와서 남으라고** 계속해서 권유하는 우리의 열정적인 노력도 변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주님께서 그분의 기적을 행하시리라는 것을 신뢰하십시오.** 사람을 개종시키는 것은 여러분의 일이 아님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성신의 역할입니다. 여러분의 역할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소중한 것을 나누고, 여러분이 믿는 바와 일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이 복음 메시지를 즉시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낙담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개인과 하나님 아버지 사이의 일입니다.

여러분의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자녀인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고, 사랑하고, 행하십시오.

이 길을 따를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그분의 소중한 자녀들에게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 제언은 여러분이 고대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해 왔던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줄 것입니다. 그분의 복음과 그분의 교회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정체성,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일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와서 보고, 와서 도와라고 권유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그분의 구원 사업을 행하실 것이고, 그들은 와서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잘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것을 다 하더라도 사람들의 반응이 좋지 않다면요? 그들이 교회에 비판적이면 어떡하죠? 저와 친구 관계를 끊으면 어떡하죠?”

네,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자주 박해를 받아 왔습니다.<sup>17</sup>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sup>18</sup> 초기 성도들은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짐]을” 기뻐했습니다.<sup>19</sup>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불가사의한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거절하는 자들에게 여러분이 보인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으로 인해 강박한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저는 여러분이 복음의 가치에 대한 살아 있는 간증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도록 축복하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용기**를 갖도록 축복하며,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자녀에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서 그분의 사업을 돕는 데 필요한 **겸손함**을 지니도록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여러분은 “권능과 큰 영광으로 옷을 입고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더불어”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도록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오랫동안 예언되어 온 이스라엘 집합의 중요한 일원임을 알고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sup>20</sup>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 사업은 그분께서 제정하신 사업입니다. 여러분은 이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해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주**

1. 위대한 선지자 니파이는 어린 양의 교회가 “은 지면 위에” 퍼져 있으나, 세상의 간악함으로 인하여 그 “수가 적을” 것임을 시현으로 보았다.(니파이전서 14:12; 또한 누가복음 12:32 참조)
2. 예를 들어, 퓨 리서치 센터의 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자신을 기독교인으로 묘사한 어린(만 18세 이상)의 비율이 2007년 78.4%에서 ... 2014년 70.6%로 7년 사이에 8% 가까이 줄었다. 같은 기간 동안, 자신을 무신론자, 불가지론자, 또는 ‘특정한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묘사하며 종교와 무관하다고 밝힌 미국인의 비율은 16.1%에서 22.8%로 6% 이상 증가했다.”(“America’s Changing Religious Landscape,” Pew Research Center, May 12, 2015, pewforum.org)
3. 복음(gospel)이란 “좋은 소식”을 의미한다. 좋은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를 무덤에서 구속하고 또 각 개인에게 그 행함에 따라 보상하기

위해 완전한 속죄를 하셨다는 것이다. 이러한 속죄는 전세에서 그분의 임명과 함께 시작되었고, 그분이 지상에 머무시는 동안 계속되었으며, 그분의 영화로운 부활과 함께 끝이 났다. 그분의 필멸의 삶과 성역, 그리고 회생에 관한 성경의 기록은 복음서로 불린다. 복음서에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이 있다.

4. 마태복음 28:19.
5. “그리고 또, 진실로 내가 나의 친구 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이 말을 너희에게 남겨두어 너희 마음에 깊이 생각하게 하거니와 ...”(교리와 성약 88:62)  
“그러나 보라,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네 생각으로 그것을 연구해야만 하느니라. 그리고 나서 그것이 옳은지를 내게 물어야 하니, 만일 그것이 옳으면, 내가 네 가슴을 네 속에서 뜨겁게 할 것이라.”(교리와 성약 9:8)
6.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은 1922년부터 1924년까지 유럽 선교부를 감리할 때 “모든 회원[에게] 선교사[가 되라고] 격려했고, 일찍이 1952년부터 연차 대회에서 전체 교회에 같은 메시지를 나누었다.(see “Every Member a Missionary” Motto Stands Firm Today,” Church News, Feb. 20, 2015, news.ChurchofJesusChrist.org)
7. 교리와 성약 64:34.
8. 마태복음 22:37~38 참조.
9. 마태복음 22:39 참조.
10. 교리와 성약 93:12.
11. 이사야 28:10.
12. 모사야서 18:9.
13. 이 생각은 종종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의 가르침으로 여겨진다; 또한 요한복음 10:36~38 참조.
14. 로마서 1:16.
15. 마태복음 5:15~16 참조.
16. 요한복음 1:46; 강조체 추가.
17. 요한복음 15:18 참조.
18. 베드로전서 4:13, English Standard Version; 또한, 복음을 위해 고통받는 것을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어떤 관점으로 이해해야 하는지 더 알고 싶다면 1~19절 참조.
19. 사도행전 5:41.
20. 교리와 성약 45:44.





더블유 크리스토퍼 와델 감독  
감리 감독단 제2보좌

# 그분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분께서 하신 것처럼 성역을 베풀고자 할 때, 자신을 잊고 다른 이들을 들어 올릴 기회들이 생길 것입니다.

약 1년 반 전인 2017년 가을, 제 형 마이크는 64세의 나이로 채식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형은 가정 복음 교사에게서 신권 축복을 받았고, 감독님을 만나 뵈었다고 제게 말해주었습니다. 후에 문자 메시지로 치료실에서 찍은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성전 사진을 제게 보내며 “내 병실에서 뭐가 보이는지 볼래?”라고 덧붙였습니다.<sup>1</sup>

저는 형이 가정 복음 교사, 신권 축복, 감독님, 성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보고는 암 소식을 들었을 때만큼이나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마이크 형은 아론 신권의 제사로, 교회에 잘 나오지 않은 지 50년 가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족은 형의 암의 차도에 관심을

두는 만큼 형의 영적 성장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형이 몰몬경, 인봉의 권능, 내세에 관해 자주 물어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 암이 전이되었고, 더 전문적인 추가 치료를 받기 위해 형은 결국 유타 헌츠먼 암 센터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존 홀브룩 형제가 형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마이크 형이 머무는 치료 시설을 관할하는 와드의 선교 지도자였습니다. 이후에 존은 “제게는 마이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금세 유대감과 우정을 키웠고, 존은 마이크의 형제 성역자나 다름없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선교사 방문을 받아 보라는 권유에 대해서는 형이 정중히 거절하였지만, 우정을 쌓은 지 한 달이 되었을 때 존은 “자네가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면 좋아할 거라 생각해”라며 다시 한번 권유하였습니다.<sup>2</sup> 이번에는 형이 승낙하여 선교사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존 샤프 감독님도 방문하였는데, 감독님과 대화 끝에 형은 축복사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침례를 받은 지 57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작년 12월 초, 형은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던 수개월 간의 암 치료를 중단하고 경과를 지켜보기로 하였습니다. 형을 담당하던 의사는 형이 3개월 정도 살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형은 복음에 관한 질문을 계속했고, 형의 지역 신권 지도자들의 방문과 지지 또한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회복, 신권 열쇠, 성전 의식 및 인간의 영원한 본질에 대하여 토론하는 동안, 형의 침대 옆 탁자에 몰몬경이 펼쳐져 있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12월 중순에는 이제 축복사의 축복문을 받은 형은 실제로 체력을 회복하는 듯했고, 적어도 3개월은 더 살 수 있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우리는 형이 크리스마스 새해, 그 이후의 행사를 우리와 함께 보낼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12월 16일, 샤프 감독님께서 제게 전화하셔서 감독님과 스테이크 회장님께서 형과 접견을 하였고, 형이 멜기세덱 신권을 받기에 합당하다고 판단하셨음을 알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식에 참여할 수 있는 날짜를 물어보셨습니다. 그러고는 12월 21일에 그 의식을 집행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의식을 받기로 한 날, 저는 아내 캐럴과 함께 치료 시설을 찾아갔습니다. 형의 병실 근처 복도에 도착했을 때, 그의 심장 박동이 멈추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우리는 방에 들어가서 축복사님, 감독님, 스테이크 회장님께서 이미 와서 기다리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형이 눈을 떴습니다. 그는 저를 알아보고는, 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으며, 신권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론 신권 제사로 성임받은 지 50년이 지나, 저는 형의 지역 지도자들의 도움을 받아, 그에게 멜기세덱 신권을 부여하고 장로 직분에 성임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5시간 후, 형은 눈을 감았고,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로서 부모님을 만나기 위해 휘장 지편으로 떠났습니다.

1년 전 러셀 엠 넬슨 회장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우리 형제 자매들을 “더 훌륭하고 더 거룩한 방식으로” 보살피라고 요청하셨습니다.<sup>3</sup> 넬슨 회장님께서는 구주에 관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이 교회는 그분의 교회이므로, 그분의 종인 우리는 [그분께서 하신 것처럼] 한 명 한 명에게 성역을 베풀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권능과 권세로, 그분의 사랑과 친절로 성역을 행할 것입니다.”<sup>4</sup>

하나님의 선지자께서 주신 권유에 응하여, 전 세계에서 많은 분들이 개개인에게 성역을 베풀고자, 실로 놀라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회원들이 충실히 성역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순간에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을 보이는 경우로, 말하자면 “즉흥적인” 성역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저희 가족이 가까이서 본 성역도 후자의 경우였습니다.

마이클 형의 친구이자 형제 성역자였던 존은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했었는데,

선교사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만약 ‘관심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변화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마이크는 크게 변화하였습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sup>5</sup> 존은 처음에는 친구로서 필요한 격려와 지지를 보내 주었지만 그의 성역이 다정한 방문으로만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존은 성역자가 친구 이상의 존재라는 점과 우리가 성역을 베풀 때 우정이 더욱 깊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의 형처럼 누군가가 생명을 위협받는 질병에 걸려야만 성역이 필요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역이 필요한 경우는 다양합니다. 한부모 가정, 저활동 부부, 어려움을 겪는 십 대 청소년, 심신이 지친 어머니, 신앙의 시련, 재정적, 건강, 결혼에서의 문제를 겪는 경우 등 나열하자면 끝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 형 마이클의 경우처럼, 구주의 사랑을 받기에는 너무 멀어졌거나 너무 늦어버린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교회 웹사이트의 성역 페이지에 이러한 가르침이 나와 있습니다. “성역을 베푸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더 깊이 개심하고 좀 더 구주와 같이 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소망을 품고 성역에 임해야만 한다.”<sup>6</sup> 닐 엘 앤더슨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누군가의 타이어 수리를 돕거나, 룸메이트를 병원에

데려가거나, 슬퍼하는 누군가와 점심을 먹거나, 누군가의 기분이 좋아지도록 미소를 짓고 인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첫째 되는 계명을 따르는 이들은 자연스럽게 이런 중요한 봉사의 행위 이상의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sup>7</sup>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에 따라 성역을 행할 때, 사랑하고, 복돋우며, 봉사하고, 축복하고자 노력하신 그분에게는 당장 필요한 도움을 주는 것 이상의 더 높은 목표가 있었음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은 치유하시고, 먹이시고, 용서하시고,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매일 필요로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셨고, 그들이 당시에 겪고 있는 고통에 연민을 느끼셨습니다. 하지만 구주께서는 오늘 당장의 필요 사항을 해결해 주는 것 이상의 일을 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분은 주변 사람들이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알고, 그들의 신성한 잠재력에 다다르기를 원하셨습니다.<sup>8</sup>

우리가 그분께서 하신 것처럼<sup>9</sup> 성역을 베풀고자 할 때, 자신을 잊고 다른 이들을 복돋을 기회들이 생길 것입니다. 이러한 기회들은 불편할 수도 있으며, 주님을 더 닮고자 하는 우리의 소망을 시험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하신 가장 큰 봉사인 그분의 무한한 속죄는 결코 편안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직면하고 있는 시련과 어려움을 우리가 간과하기 쉽지만,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것들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바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감정을 가지시는지에 대해 기억하게 됩니다.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아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 ... 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 ... 나이까 ...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sup>10</sup>

우리가 형제 혹은 자매 성역자로 임무를 받아 봉사하든, 아니면 단순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알게 되었든 간에, 우리는 영의 인도와 지시를 구하도록, 그리고 나서는 행동하도록 권고받습니다. 어떻게 해야 가장 잘 봉사할 수 있는지 우리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아시며, 그분의 영을 통해 우리는 노력하는 가운데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미리 알지 못한 채 영에 의해 이끌”린 니파이처럼<sup>11</sup>, 우리도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일에서 그분의 손에 들린 도구가 되고자 애쓸 때 영에 의해 이끌리게 될 것입니다. 영의 인도를 구하고 주님을 신뢰함에 따라, 우리는 행동을 하고 축복을 줄 수 있는, 즉 성역을 베풀 수 있는 상황과 환경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다른 이의 필요 사항을 발견하였어도,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여, 그 필요에 응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하신 것처럼<sup>12</sup>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줄 수 있는 만큼 주어 성역을 베풀고, “필멸의 여정에서 우리의 동료 여행자들을” 축복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주님께서 영화롭게 하시리라고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sup>13</sup> 이는 어떤 이들에게는 시간과 재능의 은사를 나눠 주는 것을 의미하고, 어떤 이들에게는 친절할 말을 하거나 물리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불충분하다 느낄 수 있으나, 델린 에이치 옥스 회장님께서 “작고 단순”함에 관한 중요한 원리를 나누셨습니다. 옥스 회장은 “작고 단순한 행동이 강력한 이유는 주는 자와 받는 자 모두를 축복하는 ‘성신을 동반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sup>14</sup>

제 형 마이크는 자신이 곧 죽으리라는 것을 알고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취장암 덕분에 가장 중요한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는 것이 참 놀라워.”<sup>15</sup> 필요 사항을 발견하고, 재단하지 않고, 구주처럼 성역을 행한 훌륭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마이크는 구주의 사랑을 받기에 너무 늦어버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변화가 더 일찍 찾아오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휘장 저편에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속죄는 그 기간이나 범위에 한계가 없고, 따라서 속죄의 능력이 닿지 않을 정도로 너무 늦어버릴 수도 없고, 너무 멀리 벗어나 버린 사람도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 10월 연차 대회에서 데일 지 렌랜드 장로님은 “길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벗어나 있었든 ... 우리가 변화를 결심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도록 도와주십니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sup>16</sup> 그러나 변화하려는 결심은 권유의 결과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테면, “자네가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면 좋아할 거라 생각해”와 같은 권유 말입니다. 너무 늦은 것이 구주께 불가능하듯, 우리의 권유가 너무 이른 것도 불가능합니다.

이 부활 절기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속죄 희생에 대해서, 또한 그분이 그런 엄청난 대가를 치르면서 우리 각자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되새겨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가 치르신 대가가 “만유 가운데 가장 큰 자(이신) [그분]을 고통으로 말미암아 떨게” 하였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러할지라도 ... 나는 마셨고 사람의 자녀들을 위한 나의 준비를 마쳤느니라.”<sup>17</sup>

주님께서 당신의 준비를 “마치셨기” 때문에, 언제나 희망이 있음을 간중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개인적인 대화.
2. 존 홀브룩과의 대화.
3. 러셀 엠 넬슨, “개회 말씀”, *리아호나*, 2018년 11월호, 8쪽.
4. 러셀 엠 넬슨,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로 성역을 행함”, *리아호나*, 2018년 5월호, 69~70쪽.
5. 존 홀브룩과의 대화.
6. “성역의 원리: 우리의 성역을 변화시키는 동기”, *리아호나*, 2019년 1월호, 8쪽; 또한 ministering.ChurchofJesusChrist.org 참조.
7. Neil L. Andersen, “A Holier Approach to Ministering” (Brigham Young University devotional, Apr. 10, 2018), 3, speeches.byu.edu.
8. “우리의 성역을 변화시키는 동기”, 8~10쪽 참조.
9. 제3니파이 17:9~10, 20~21 참조.
10. 마태복음 25:34~35, 37~38, 40.
11. 니파이전서 4:6.
12. 제3니파이 17:9~10, 20~21 참조.
13. 토마스 에스 몬슨, “사랑-복음의 정수”, *리아호나*, 2014년 5월호, 91쪽.
14. 델린 에이치 옥스, “작고 단순한 일”, *리아호나*, 2018년 5월호, 91쪽.
15. 개인적인 대화.
16. 데일 지 렌랜드, “오늘 택하라”, *리아호나*, 2018년 11월호, 106쪽.
17. 교리와 성약 19:18~19.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 사랑의 감정을 지키고, 더 나아가 그것을 키우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이 가져다준 완벽한 평화 속에서 200년을 산 후에 나타난 퇴보의 패턴은 이렇습니다.

- 교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더 이상 나누지 않습니다.
- 그들은 사회적, 경제적 지위에 따라 계층을 나누고 서로 위, 아래를 따지기 시작합니다.
-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의 신앙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 온갖 종류의 죄를 범하기 시작합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므로, 가족에게 이런 징후가 나타나면 그것을 알아챌 것입니다. 그들은 당연히 걱정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 모든 문제의 저변에는 선한 사람들을 죄의 길로 이끌어 성신의 영향력을 잃게 만들려는 사탄의 영향이 있음을 알 것입니다. 그리하여 지혜로운 부모는 주님께 나아오라는 그분의 권유를 자신과 자녀들이 더욱 온전하게 받아들일도록 인도할 기회가 있음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녀에게 예를 들어 교만과 같은 죄를, 회개하라고 일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성공이라고 여기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가진 것을 더 관대하게 나누도록 설득하려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그들에게 자신이 다른 가족 구성원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권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제가 앞서 말한 다음의 징후를 맞닥뜨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의 신앙이 약해지기 시작한다.”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이 바라는 영적인 경지에 오르고, 또 여러분 자신도 그곳에 함께하도록 이끄는 열쇠는 바로 이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는 구속주라는 신앙을 가족들이 키우도록 도울 때, 그들은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을 느낄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겸손이 교만을 대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깨닫기 시작할 때, 그들은 더 관대하게 나누고 싶어질 것입니다. 주목받고 인정받기 위한 경쟁이 줄어들 것입니다. 사랑이 미움을 몰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베냐민 왕에 의해 개종했던 사람들처럼, 선을 행하고자 하는 소망이 죄에 대한 유혹을 이겨 낼 것입니다. 베냐민 왕의 백성은 “더 이상 악을 행하고자 하는 의향이 없[다]”고 간증했습니다.<sup>3</sup>

따라서, 여러분의 가족과 가정에서의 영적 퇴보를 되돌리는 일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퇴보의 각 징후에 대해 훈계하는 것보다 이런 신앙이 회개를 가져올 가능성이 더 큼니다.

여러분은 모범을 보임으로써 가장 잘 이끌 수 있습니다. 가족과 다른 사람들은 반드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에 대해 여러분만의 신앙을 키우는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최근에 여러분에게

훌륭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가 제공되었습니다. 개인과 가족을 위한 영감 받은 교과 과정은 교회의 부모들에게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것을 활용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과 자녀들의 신앙이 강화될 것입니다.

### 신앙의 성장

물론경을 다시 읽으라는 러셀 엠 넬슨 회장님의 제안을 따르면서 여러분의 신앙은 성장했습니다. 여러분은 구주를 언급하는 성구와 단어들을 표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식물처럼, 만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신앙을 키우기 위해 숙고하고 기도하기로 지속해서 결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시들해질 것입니다.

당장 모든 가족이 신앙을 키우는 여러분의 모범을 따르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엘마 이세의 경험에서 용기를 얻으십시오. 고통 속에서 회개와 용서를 간절히 바라던 중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버지의 신앙을 기억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회개가 간절히 필요한 순간에 구주를 믿는 여러분의 신앙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엘마는 그 순간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었더니 내가 이같이 괴로움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내가 내 많은 죄의 기억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동안, 보라 내가 또한 나의 부친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세상의 죄를 위하여 속죄하시러 오실 것에 관하여 백성에게 예언하시는 것을 들은 것을 기억하였느니라.

이제 내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내가 내 마음 속에서 부르짖기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쓰디쓴 담즙에 빠져 있고, 사망의 영원한 사슬에 둘러싸여 있는 나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리고 이제 보라, 내가 이 생각을 하였을 때, 내가 더 이상 내 고통을 기억할 수 없었노니, 참으로 나는 더 이상 내 죄의 기억으로 괴로움을 당하지 아니하였느니라.”<sup>4</sup>

#### 사랑으로 기도함

신앙을 키우는 여러분의 모범에 더하여, 여러분이 가족과 함께 기도하는 것은 가정을 성스러운 곳으로 만드는 일에서 중대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가족을 위해 기도하도록 선택됩니다.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듣고 있는 가족을 위해 올리는 그 기도가 분명하게 하나님을 향할 때, 모두의 신앙이 자라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표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도하는 사람이 둥글게 모여 무릎 꿇고 있는 가족 중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의 이름을 언급할 때, 모두가 서로 사랑을 느낄 것입니다.

가족들이 같이 살지 않을 때도, 기도는 사랑의 유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기도는 전 세계를 가로질러 그 영향을 끼칩니다. 저는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이 저와 동시에 같은 것에 대해 기도하는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제 경우엔, “함께 기도하는 가족은 하나가 된다”라는 속담을 “함께 기도하는 가족은 떨어져 있을 때도 하나가 된다”로 확대할 수도 있겠습니다.

#### 일찍 회개하도록 가르침

우리는 모두 불안전하고 서로의 감정에 쉽게 상처를 낼 수 있으므로, 우리가 일찍 그리고 진심으로 회개할 때에만 가정이 신성한 안식처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는 모범을 보일 수 있습니다. 거친 말이나 불친절한 생각은 빨리, 진심으로 회개하십시오. “미안해”라는 단순한 말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용서와 사랑을 초대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악랄한 공격과 배신자들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불화에도 대처하면서 우리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그는 공격자가 다시 공격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공격자를 빨리 용서했습니다. 조셉은 용서를 구했으며, 또 너그럽이 용서했습니다.<sup>5</sup>

#### 선교사의 영을 함양함

모사이야의 아들들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이러한 열망은 회개에 관한 그들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느 누가 자신들처럼 죄의 영향으로 고통받으리라는 생각조차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의 적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년간 거절과 고난, 그리고 위협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용서의 기쁨을 경험하는 것을 보며 모사이야의 아들들은 기쁨을 찾았습니다.

우리의 가족이 용서의 기쁨을 느낄 때, 복음을 나누고자 하는 그들의 소망도 커질 것입니다. 그 기쁨은 그들이 성찬을 취하면서 성약을 새롭게 할 때에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성찬 의식에서 용서의 기쁨을 느낄 때, 선교사의 영이 우리의 가정에서 자라날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는 모두 경건의 모범을 보임으로써 서로가 그런 기쁨을 느끼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용서의 기쁨은 우리의 가정을 선교사 훈련원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가족 모두가 선교사로 봉사하지는 않더라도, 모두 용서와 평안을 느끼도록 자신들을 이끌어 준 복음을 나누려는 소망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임 선교사이든 아니든, 부모와 자녀는 모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권하는 일에서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 성전 방문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있어서, 성전은 성스러운 장소에 대한 경험을 얻고 사랑을 키울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줍니다. 특히 자녀들이 어릴 때 더욱더 그렇습니다.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빛을 지니고 태어났습니다. 심지어는 어린 아기도 성전이 성스럽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모는 어린 자녀를 사랑하기에, 성전은 그들이 영원토록, 영원한 가족 안에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할 수 있다는 희망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집에 성전 사진이 있을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성전이 추가로 건축됨에 따라, 많은 부모가 가족과 함께 성전 경내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어떤 가족들은 성전이 지어지면 성전 일반 공개에도 참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는 성전 안이나 성전 가까이에 있을 때 자녀들이 어떻게 느꼈는지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모든 부모는 성전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간증할 수 있습니다. 성전을 사랑하셨던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님은 어머니께서 성전복을 조심스럽게 다림질하시던 모습을 지켜보았던 추억에 관해 자주 말씀하셨습니다.<sup>6</sup> 그분은 어린 시절, 성전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서던 가족을 지켜보았던 기억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벤슨 회장님께서서는 교회 회장이셨을 때 매주 같은 요일에 성전을 방문하셨습니다. 회장님은 항상 조상을 위한 성전 사업을 하셨습니다. 성전을 대하는 그분의 태도는 많은 부분 부모님의 모범을 통해 형성되었습니다.

### 나의 간증

여러분은 가정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거하는 곳이자 사랑, 즉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이 가득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면서 가장 큰 기쁨을 얻을 것입니다. 복음의 회복은 어느 겸손한 가정에서 한 가지 질문을 겸손히 숙고하면서 시작되었으며, 이는 우리가 가정 안에서 계속해서 복음의 원리를 확립하고 실천할 때 우리 각자의 가정에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영이 거하는 가정을 만드는 것은 어린 소년 시절부터 품어 온 저의 희망이자 가장 깊은 소망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영으로 충만한 가정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이 주님의 도움으로 그러한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몇몇 분은 그 같은 축복을 위해 온 마음을 다해 노력해 왔지만, 아직 그것을 받지 못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께 드리는 제 약속은 언젠가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셨던 한 장로님이 제게 주신 약속입니다. 저는 그분께 저의 대가족 중 몇몇 사람이 한 선택 때문에, 우리가 장차 올 세상에서 영원히 함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분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형제님이 고민해야 할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그저 해의 왕국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그러면 형제님 가족의 상황은 형제님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더 훌륭하게

변화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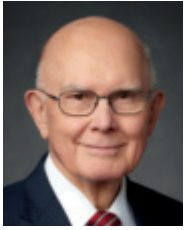
저는 그분께서 자신과 가족의 영생을 위해 필멸의 삶에서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인 모든 사람에게 이 행복한 희망을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 행복의 계획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분의 계획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한 우리가 각자 영원히 가족에게 인봉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증합니다.

저는 조셉 스미스에게 회복되었던 신권 열쇠들이 신권 권세권을 통하여 끊이지 않고 러셀 엠 넬슨 회장님께서 전달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 열쇠들은 오늘날 가족의 인봉을 가능하게 합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의 자녀인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덕분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 깨끗하고 합당하게 되어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랑이 넘치는 가정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 주

1. 로마서 8:6.
2. 제4니파이 1:15~18.
3. 모사이야서 5:2.
4. 엘마서 36:17~19.
5.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 391~398쪽 참조.
6.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에즈라 태프트 벤슨(2014), 167쪽 참조.





토요일 오후 모임

달린 에이치 옥스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 교회 역원 지지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교회의 총관리 역원과 지역 칠십인, 본부 보조 조직 회장단에 대한 지지를 묻겠습니다.

러셀 매리언 벨슨을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장으로, 달린 해리스 옥스를 제일회장단의 제1보좌로, 헨리 베니언 아이어링을 제2보좌로 지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린 해리스 옥스를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으로, 엠 러셀 벨라드를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대리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으로 엠 러셀 벨라드, 제프리 알 홀런드, 디이터 에프 우호트도르프,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쿠엔틴 엘 쿡,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닐 엘 앤더슨, 로널드 에이 래스벤드, 게리 이스티븐슨, 데일 지 랜런드, 게릿 더블유 공, 그리고 올리세스 소아레스를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회장단 보좌들과 십이사도들을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들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다음 분들을 지역 칠십인에서 해임할 것을 제의합니다. 빅토리아노 에이 바비다, 엘 토드 버지, 피터 엠 존슨, 존 에이 맥균, 마크 엘 페이스, 제임스 알 래스벤드, 벤저민 엠 지 타이 장로.

이분들의 헌신적인 봉사에 감사를 표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깊은 감사와 더불어 태드 알 콜리스터, 데브 지 듀란트, 브라이언 케이 애쉬튼 형제님을 본부 주일학교 회장단에서 해임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분들의 훌륭한 봉사에 감사하는 의미로 손을 들어 그 뜻을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호명하는 분들을 칠십인 총관리 역원으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루벤 브이 알리아우드, 호르헤 엠 알바라도, 한스 티 보움, 엘 토드 버지, 리카르도 피히메네스, 피터 엠 존슨, 존 에이 맥균, 제임스 알 래스벤드, 벤저민 엠 지 타이, 앨런 알 워커.

찬성하시는 분들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다음 호명하는 분들을 지역 칠십인으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솔로몬 아이 알리체, 기에르모 에이 알바레즈, 대런 알바니, 줄리우스 에프 바리엔토스, 제임스 에이치 베커, 케빈 지 브라운, 마크 에스 브라이스, 에이 마르코스 카브랄, 던스턴 지비티 차담부카, 앨런 시 케이 칭, 크리스찬 시 치그번두, 폴 엔 클레이튼, 카림 델 발리, 히로유키 도먼, 머나드 피 도나토, 마크 디 에디, 재커리 에프 에번스, 헨리 제이 아이어링, 사펠레 파알로고 2세, 데이비드 엘 프리슈넥트, 존 제이 가에고, 이프라인 알 가르시아, 로버트 고든, 마크 에이 갓프레드슨, 토마스 헤니, 마이클 제이 헤스, 글렌 엠 홈스, 리차드 에스 허친스, 티토 이바네즈, 아키노리 이토, 제레미 알 재기, 켈리 알 존슨, 김현수, 에이치 모로나이 클레인, 이노키 에프 쿠푸, 스티븐 치 콩 라이, 빅터 디 라타로, 타르모 레프, 잇츠코틀 로자노, 케빈 제이 리스고, 에드가 피 몬테스, 에스 에프라임 음사네, 루이스 시 디 케이로스, 이파노메자나 라솔론드라이베, 에두아르도 디 레섹, 토마스 지 로먼, 라몬 이 사르미엔토, 조너선 에스 슈미트, 바이 시카해마, 더넬슨 실바, 루이스 시피나, 카를로스 지 수퍼트, 보이 알 테오알리, 서지오 알 바가스, 마르쿠스 자스.

찬성하시는 분들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은 표시해 주십시오.

마크 엘 페이스를 본부 주일학교 회장으로, 밀튼 다 로샤 카마르고를 제1보좌로, 쟈 에릭 뉴먼을 제2보좌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표시해 주십시오.

그밖에 현재 구성된 총관리 역원, 지역 칠십인, 본부 보조 조직 회장단을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들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은 표시해 주십시오.

넬슨 회장님, 역원 지지가 끝났습니다. 반대를 표하신 분들이 계셨다면 해당 스테이크 회장님께 연락하여 만나시기 바랍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여러분의 지속적인 신앙과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새로 부름받으신 칠십인 총관리 역원 분들과 새로운 본부 주일학교 회장단 여러분은 단상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 2018년 교회 감사부 보고서

보고자: 케빈 알 저건슨  
교회 감사부 관리 책임자

## 수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제일회장단

형제 여러분, 교리와 성약 120편에 기록된 계시에 따라 십일조 지출 평의회는 교회의 자금 지출을 승인합니다. 이 평의회는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 감리 감독단으로 구성됩니다. 교회는 승인된 예산과 정책 및 절차에 따라 기금을 지출합니다.

신뢰할 만한 전문가로 구성되었으며 모든 교회 부서에서 독립된 교회 감사부는 교회가 받은 현금과 지출, 그리고 교회 자산의 보호와 관련하여 모든 것이 올바르게 합리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를 감사할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 감사부는 실시된 감사 자료에 근거해 2018년 한 해 동안 있었던 현금 영수와 지출, 그리고 교회 자산이 모든 면에서 적합한 회계 관행과 승인된 예산 범위, 정책 및 절차에 따라 집행되고 기록되었음을 밝힙니다. 회원들에게 권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 역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활하고 부채를 피하며 필요할 때를 대비해 저축하는 관행을 따릅니다.

삼가 제출합니다.

교회 감사부

케빈 알 저건슨

관리 책임자 ■



엠 러셀 벨라드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대리

# 참되고 순수하며 단순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성역, 가정이 중심이 되고 교회가 뒷받침하는 복음 학습, 안식일 영적 예배 및 구원 사업의 교리적 기초가 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제가 1948년에 영국에서 선교사로 봉사했을 때가 71년 전이고, 캐나다 토론토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하기 위해 아내 바버라와 함께 가족을 데리고 캐나다로 간 것이 44년 전이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1976년 4월에 캐나다에서 봉사하던 중, 저는 칠십인 제1 정원회에 부름을 받았고, 1985년에 예상치 못하게도 십이사도 정원회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해임되는 이전 부름들과는 달리, 십이사도의 부름에서의 해임은 제가 세상을 떠날 때 이루어지기 전에 지금 당장 해임을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날이 오기 전에 제가 주님이 명하신 모든 일을 다하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43년간 총관리 역원으로 봉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성역을 베풀었던 특권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모든 자녀가 삶에서 평화와 기쁨과 행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더욱 온전히 깨닫게 됩니다.

선지자 리하이는 “사람이 존재함은 기쁨을 갖기 위함”이라고 가르쳤습니다.<sup>1</sup>

직장, 건강, 가족 관계에서의 예기치 못한 시련, 가난, 전쟁, 자연재해 등이 혼재하는 이 삶에서 우리가 평화, 기쁨,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데에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이 지상에서 우리 삶에 미치는 외부의 영향력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실한 제자가 되기 위해 노력할 때, 세상 풍파 속에서도 평화와 기쁨과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 자녀 중 한 명이 “아버지, 제가 과연 해의 왕국에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저 매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란다.” 형제 자매 여러분, 매일매일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아시며 사랑하심을 금방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이를 알게 되면, 여러분은 진정한 의미와 목적이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은 기쁨과 평화로 충만할 것입니다.

세상의 빛이신 구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를]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sup>2</sup>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께서 주신 이름이니,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은 주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아버지께서 주신 그 이름을 받들어야만 하느니라.”<sup>3</sup>

경전은 사탄이 사람들을 어둠 속으로 이끌고 싶어 한다고 가르칩니다.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의 빛과 진리를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합니다. 리하이가 그의 자녀들에게 가르친 것처럼 사탄은 “만인을 자기처럼 비참하게 되게 하려” 합니다.<sup>4</sup> 하나님 아버지의 “일”과 “영광”이 “사람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주는 것”이라면, 루시퍼의 “일”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비참과 끝없는 고통을 가져다주는 것입니다.<sup>5</sup> 죄와 범법은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의 빛이 흐려지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누리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입니다. 이 빛은 우리에게 평화와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주기 때문입니다.

지난 18개월 동안 주님께서는 당신의 선지자와 사도들에게 여러 훌륭한 변경 사항을 시행하도록 영감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변화 자체가 너무 들떠 나머지, 이러한 변경 사항의 영적인 목적이 간과되지는 않을까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되고 순수하며 단순한 복음이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지상에서 지킬 책임이 있습니다.”<sup>6</sup> 덧붙여서, 참되고 순수하며 단순한 복음은 “그리스도의 구원 교리”라고 말씀했습니다.<sup>7</sup>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신앙개조에서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온 인류가 복음의 법과 의식에 순종함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는다.”라고 가르쳤습니다.<sup>8</sup>

복음의 첫째 되는 원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회개, 침례, 성신의 은사,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조셉의 형제 하이럼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복음의 첫째 원리를 가르치고 또 다시 가르치십시오. 여러분에게 매일 그것에 관한 새로운 개념과 추가적인 빛이 밝혀질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가 더욱 넓어지고 또 더욱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더 명확하게 이해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sup>9</sup>

우리가 교회의 영적인 목적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리스도의 참되고 순수하며 단순한 가르침대로 생활하고, 구주께서 주신 두 가지 큰 계명, 즉 “네 마음을 다하[여] ...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하[며] ...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를 적용하는 것입니다.<sup>10</sup>

이 두 가지 계명에 순종하면 더욱더 평화와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봉사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얻을 수 없는 행복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성역, 가정이 중심이 되고 교회가 뒷받침하는 복음 학습, 안식일 영적 예배, 상호부조회와 장로 정원회에서 지원하는 휘장 양편에서의 구원 사업의 교리적 기초가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신성한 계명을 토대로 합니다. 이보다 더 근본적이고 근본적이며 단순한 것이 있습니까?

참되고 순수하며 단순한 복음 계획에 따라 생활하면, 우리는 배우자와 사별한 사람들, 부모를 여윈 아이들, 외롭거나 아프고 가난한 사람들을 방문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이웃을 섬길 때 우리 삶에 평화와 기쁨과 행복이 찾아옵니다.

안식일에 관한 조정 사항은 가정이 중심이 되고 교회가 그것을 뒷받침하는 학습과 복음 공부를 강조하여, 가정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을 굳건히 하고

우리 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어떤 것이 이보다 더 단순하고, 기본적이며, 깊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형제 자매 여러분, 가정에서 복음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이 우리 삶에서 기쁨과 행복을 찾는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구주께서는 안식일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진실로 이 날은 네 일을 쉬고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네 헌신을 바치도록 너희에게 정해진 날임이니라.”<sup>11</sup> 그분은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네 기쁨이 충만하게 되도록 할지니라. ... 기쁨과 기도[로 그리하라]. 너희는 감사함으로, 유쾌한 마음과 얼굴로 이러한 일을 행[해야 하며], 즐거운 마음과 유쾌한 얼굴로 [해야 하느니라].”<sup>12</sup>

이 계시에서 **기쁨, 감사, 유쾌한 마음, 즐거운 마음과 유쾌한 얼굴**, 이 몇 가지 주요 단어들이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체계는 이 말이 안식일을 지키면 우리 얼굴에 미소가 피어 오를 거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더 높고 더 거룩한 방법으로 성역을 행할 때, 교회 모임에 오는 모든 사람, 특히



새로운 회원들과 방문객들을 맞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모두 즐겁게 찬송가를 부르고, 열린 마음과 생각으로 성찬 기도문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금식 간증 모임에서는 감독단 일원이 행복의 계획과, 참되고 순수하며 단순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초점을 맞춘 짧은 간증을 나눔으로써, 신앙이 담긴 간증을 나누도록 이끕니다. 다른 모든 사람은 그 모범을 따라야 합니다. 금식 간증 모임은 이야기나 여행담을 나누는 곳이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초점을 맞춘 간결한 간증을 할 때, 그분은 우리가 서로 간증을 나누며 영적으로 거듭나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효과적인 성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때 가장 잘 이해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성역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성역을 행한다면, 더욱 훌륭한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큰 기쁨은 단순한 삶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신앙과 강한 간증을 쌓기 위해 우리가 받은 조정 사항 이외에 추가로 무언가를 더해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모임이나 기대 또는 요구 조건 등으로 일을 복잡하게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단순하게 하십시오. 단순함 안에서 여러분은 제가 말씀드린 평화, 기쁨, 행복을 찾을 것입니다.

교회 지도력의 목적은 『지침서 2권』에 다음과 같이 언급된 것처럼 분명하고 단순합니다.

“지도자들은 모든 회원이 필수적인 신권 의식을 모두 받고, 그와 관련된 성약을 지키며, 승영에 이르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게 되도록 격려한다. ...

**성인:** 성인들 모두가 의식을 받기에 합당하게 되도록 격려한다. 모든 성인들에게 자신의 조상에 대한 가족 역사 사업을 행하고 그들을 위해 성전 대리 의식을 행하도록 가르친다.

**청소년:** 각 청년들이 멜기세덱 신권을 받고 성전 의식을 받으며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기에 합당하게 되도록 준비하는 과정을 돕는다. 각 청년이 거룩한 성약을 맺고 지키며 성전 의식을 받기에 합당하게 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을 돕는다. 의미 있는 활동에 청소년들을 참여시켜 그들을 강화한다.

**모든 회원:** 신권 지도자 및 보조 조직 지도자, 와드 평의회, 와드 선교사 및 전임 선교사, 회원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조하고, 가족과 교회 단위 조직을 강화하며, 신권 활동을 촉진하고, 개종과 지속적인 활동 및 활동 촉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집합시키는 일에 서로 협력하며 균형 있게 노력을 기울이도록 돕는다. 자립하여 자신과 가족을 부양하고 주님의 방법대로 궁핍한 사람을 돕도록 회원들에게 가르친다.”<sup>13</sup>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저는 놀랍고도 특별한 많은 영적인 경험을 하는 축복을







마티아스 헬드 장로  
칠십인 정원희

받았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 당신의 교회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저는 저의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신성한 인도를 받았습니다. 제가 복음대로 생활함으로써 얻는 기쁨은 참되고 순수하며 단순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와 복음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저는 스펜서 더블유 김볼 회장님으로부터 러셀 엠 넬슨 회장님에 이르기까지 여섯 분의 선지자이자 교회 회장의 열쇠와 인도 아래 봉사해 왔습니다. 저는 그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지자이셨고 선지자이심을 간증드립니다. 그분들은 우리에게 교회와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리에 관한 핵심 원리를 가르쳐 오셨습니다. 넬슨 회장님은 숨이 찰 만큼 빠른 속도로 주님의 사업을 진전시키고 계십니다. 제가 숨이 차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그분은 사도들 중에서 저보다 나이가 많은 유일한 분이신데, 제가 그분을 따라가려면 숨이 가쁘기 때문입니다. 저는 신권 열쇠와 하나님의 선지자의 겉옷이 그분에게 주어졌음을 증거합니다. 넬슨 회장님은 참되고 순수하며 단순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이 교회는 그분의 교회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히 간증드립니다. 아멘 ■

주

1. 니파이후서 2:25.
2. 요한복음 12:46.
3. 교리와 성약 18:23~24.
4. 니파이후서 2:27.
5. 모세서 1:39.
6. Joseph F. Smith, "Principles, Not Popularity," *Improvement Era*, July 1906, 732.
7. Joseph F. Smith, "Principles, Not Popularity," 732.
8. 신앙개조 제3조.
9. "선교사로서 나의 목적은 무엇인가?"에 수록된 하이럼 스미스의 가르침,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선교 사업 지도서*(2004), 6쪽.
10. 교리와 성약 59:5~6; 또한 레위기 19:18; 신명기 6:5; 마태복음 22:36~40 참조.
11. 교리와 성약 59:10.
12. 교리와 성약 59:13~15.
13. *지침서 제2권: 교회 관리*(2010), 3.4.

# 영으로 지식을 구하십시오

우리는 이성적인 사고뿐만 아니라 아주 고요하고 작은 영의 음성을 통하여 진리를 분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저희에게 “연구와 또한 신앙으로 학문을 구하라”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sup>1</sup> 우리는 스스로의 논리적인 추론뿐만 아니라 성신의 인도와 영감을 통해서 빛과 지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인생에서 지식을 얻는 과정에서 항상 성신의 영감을 구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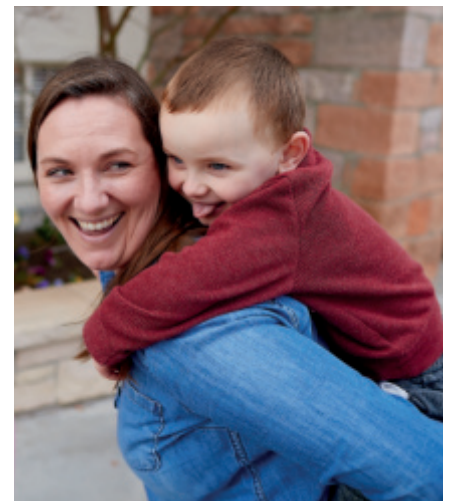
사랑하는 제 아내 아이린과 저는 31년 전 신희 시절에 교회에 가입했습니다. 둘 다 콜롬비아에서 성장했지만, 저희는 결혼 후 몇 달이 지나 제 직장 일로 독일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주 젊었으며 큰 소망과 기대를 품고 있었기에 그곳에서 특히나 설레고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제가 직장 일에 집중하는 동안, 제 아내는 방법이나 시기는 모르지만, 하늘로부터 어떤 메시지를 받게 될 거라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아내는 항상 그 특별한 메시지를 기다리면서 온갖 방문 판매원을 집 안으로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중에는 백과사전, 진공청소기, 요리책, 부엌 가전제품 등의 판매원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제 아내는 진한 색

양복을 입은 두 청년이 문을 노크했을 때 그들을 들어오게 해야 한다는 아주 분명하고 또렷한 인상을 받았다고 제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아내에게 하나님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하면서 제가 집에 같이 있을 때 다시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기대하던 메시지였을까요?

그들은 저희를 방문하기 시작했으며, 우리는 그들의 인도를 받아 경전을 읽으면서 우리 구주이자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한 분이신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곧 우리가 갓나가기였을 때 성약을 인식하지 못한 채로 침례 받았던 것을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침례를 받는 것 또한 이 새로운 교회의 회원이 된다는 뜻이기에 우리는 우선 실제로 교회에 관한 모든 것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몰몬경, 조셉 스미스 그리고 구원의 계획에 대한 선교사들의 이야기가 정말로 모두 참된지 아닌지를 알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는 주님의 말씀에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sup>2</sup> 그래서 우리는 아주 체계적인 방식에 따라 매우 이성적인 사고의 관점으로 교회의 열매들을 눈여겨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보였을까요? 저희가 본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생은 그저 고통과 비참함만이 아니라 기쁨을 느끼기 위한 시간임을 이해하는 친절하고 행복한 사람들과 훌륭한 가족들.
- 보수를 받고 일하는 성직자가 없지만, 회원들 스스로 임무와 책임을 받아들이는 교회.
- 예수 그리스도와 가족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교회, 한 달에 한 번씩 금식하면서 가난하고 궁핍한 이들을 돕기 위해 헌금하는 회원들이 있는 교회, 해로운 물질을 삼가도록 가르치며 건장한 습관을 권장하는 교회.

그뿐만이 아닙니다.

- 저희는 개인적인 성장, 교육, 근면과 자립을 강조하는 것이 맘에 들었습니다.
- 놀라운 인도주의 프로그램에 관해서도 배웠습니다.
- 아름다운 음악과 심오한 영적 원리들을 들을 수 있는 연차 대회에서도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모저모 살펴보아도 교회에서 결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여전히 침례를 받기로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침례 전에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머뭇거리는 동안에도 주님께서는 인내심을 가지고 저희를 준비시키시고 다듬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저희가 이성적인 사고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는 아주 고요하고 작은 영의 음성을 통하여 진리를 분별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깨닫도록 도우셨습니다.

그 음성과 결실을 맺게 한 느낌이 온 순간은 바로 저희가 복음을 공부한 지 10개월이 지난 어느 날 저녁 모사이아서 18장을 읽을 때였습니다. “너희가 … 서로의 짐을 [지고] … 또한 위로를 필요로 하는 자들을 위로하… 고자 한즉 … 이것이 너희 마음의 원하는 바일진대 … 주의 이름으로 침례 받음에 꺼릴 것이 무엇이 있느냐?”<sup>3</sup>

몰몬경의 그 구절은 저희의 마음과 영혼을 파고들었으며, 불현듯 침례 받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느낌과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이 구절에서 언급된 소망들이 저희 마음의 소망이었으며, 그런 소망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중요한 부분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모든 것을 속속들이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저희는 이미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항상 사랑 가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시는 손길에 의지했으며 그분이 앞으로도 저희를 계속해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바로 그날 침례 날짜를 잡았으며, 마침내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그 경험에서 배웠던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저희는 사랑이 가득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할 수 있다는 것과 그분은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는지 알고 계시며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도록 끊임없이 도우려 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희는 그분의 다음 말씀에서 심오한 진리를 확인했습니다. “내가 사람의 자녀들에게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 주되, 여기에서 조금 저기에서 조금 하리라. 내 교훈에 귀 … 기울이는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지혜를 배울 것임이요,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내가 더 줄 것[임이니라].”<sup>4</sup>

둘째, 저희는 우리 스스로의 이성적인 사고와 더불어 저희를 인도하고 깨우쳐 주며 지식을 얻게 해 주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과 생각에 말씀하시는 그분의 성령의 고요하고 작은 음성입니다.

저는 이 원리를 우리의 시각 능력과 비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육신의 눈을 하나가 아닌 두 개 주셨습니다. 우리는 눈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볼 수 있지만, 나머지 눈은 또 다른 관점을 제공합니다. 두 개의 관점이 뇌 속에 합쳐질 때, 우리 주변이 삼차원 이미지로 보이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정보의 근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육체적인 능력과 영적인 능력입니다. 우리 마음은 신체의 감각과 추론을 통해 무언가를 인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외에도 성신의





은사를 통해서 인지하는 두 번째 관점을 마련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분에게서 직접 오기 때문에 실제로 가장 중요하며 참된 관점입니다. 하지만 영의 속삭임은 종종 감지하기 힘들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 추가적인 근원을 잘 인식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 두 관점이 우리 영혼 속에서 합쳐질 때, 사물의 진면모를 보여 주는 완벽한 형상이 만들어집니다. 실제로, 우리 스스로의 이성과 직관으로만 인식한 어떤 “개념이나 믿음”이 성신이라는 추가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기만적이거나 명백히 그릇된 것으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로나이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성신의 권능으로 너희는 모든 것의 참됨을 알게 되리라.”<sup>5</sup>

교회 회원으로 31년을 보내면서, 저는 우리가 이성적인 사고에만 의존하여 성신의 속삭임과 느낌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이해력을 부인하거나 등한시한다면 인생을 오직 한쪽 눈만 가진 채 살아가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여러 차례 경험했습니다. 그렇지만 비유적으로 말해서, 우리는 실제로 두 개의 눈을 받았습시다. 우리는 오직 두 관점의 조화를 통해서만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진리와 만사를 제대로 보고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살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정체성과 목적을 전체적으로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일 년 전에 러셀 엠 넬슨 회장님께서 하신 다음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성신의 인도와 지침과 위안의 영향력 없는 영적으로 살아남는다는 것이 불가능할 것입니다.”<sup>6</sup>

저는 다음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 우리에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며, 우리 모두 신성한 계획의 일부로서 이 지상에 오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은 살아 계시며, 저의 구주이시자 구속주이십니다.
- 보잘것없던 시골 소년 조셉은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성신권의 모든 열쇠와 권능과 권세를 지닌 위대한 선지자가 되어 이 충만한 경륜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 물몬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

증인이며, 가족은 영원히 함께할 수 있습니다.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살아 계신 선지자 러셀 엠 넬슨 회장님을 통해 당신의 회복된 이 교회를 인도하십니다.

이것과 더불어 다른 많은 귀중한 진리들은 제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 필요한 토대와 근간이 되어 주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멋진 삶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연구와 또한 신앙으로 ... [배우려]” 할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게 많은 새로운 가르침들을 주실 것이며, 저는 그 가르침들이 무엇일지 무척 기대됩니다.

저는 이것이 참됨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주

1. 교리와 성약 109:7; 또한 교리와 성약 88:118 참조.
2. 제3니파이 14:16.
3. 모사이야서 18:8~10.
4. 니파이후서 28:30.
5. 모로나이사서 10:5.
6. 러셀 엠 넬슨, “교회를 위한 계시와 우리 삶을 위한 계시”, 리야호나, 2018년 5월호, 96쪽.



닐 엘 앤더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 신앙의 눈

우리가 선언문에서 받아들이고 싶은 부분만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영적 시야는 흐려지게 되고 지금 당장 이곳에서 하는 경험을 지나치게 중시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재판정에 있는 빌라도 앞으로 끌려가셨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업신여기며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를]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빌라도는 냉소적으로 물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나?”<sup>1</sup>

오늘날 세상에서 세속적인 마음을 가진 이에게 “진리가 무엇이나?”라는 질문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복잡할 수 있습니다.

“진리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인터넷에 검색하면 백만 개도 넘는 결과가 나옵니다. 휴대전화를 이용하면 우리는 도서관에 있는 책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보와 의견이 넘쳐 흐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유혹적이고 매혹적인 목소리가 어디서나 우리를 쫓아다닙니다.

오늘날 이런 혼란에 빠져서, 많은 사람이 2,500년 전에 프로타고라스가 젊은 소크라테스에게 했던 말, 즉 “당신에게 옳은 것은 당신에게 진리이고, 나에게 옳은 것은

나에게 진리이다.”<sup>2</sup>라는 말을 따르게 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을 통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의 축복으로 인해 우리는 완전하고 절대적인 진리가 있음을 겸손히 선언합니다. 이 영원한 진리는 하나님의 모든 아들과 딸에게 동일합니다.

경전은 “진리는 사물의 현재와 과거와 미래에 대한 지식”이라고 가르칩니다.<sup>3</sup> 진리는 과거와 미래를 아우르며 현재에 있는 우리의 좁은 시야를 넓혀 줍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sup>4</sup> 진리는 우리에게 영생으로 가는 길을 보여 주며, 그것은 오직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시고 그분의 속죄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죄 사함과 회개 저편에서의 불멸을 주십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부유하던 가난하든, 유명하던 유명하지 않든, 세련되었든 그렇지 않든 상관 없이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오히려 우리는 현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강화하고, 악이 아닌 선을 택하며,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일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과학과 의학의 혁신을 칭송하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이러한 발견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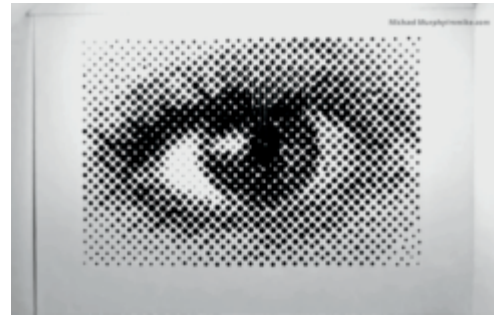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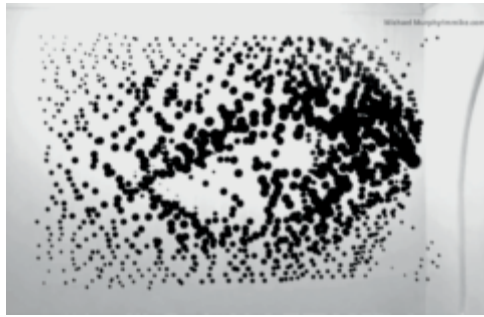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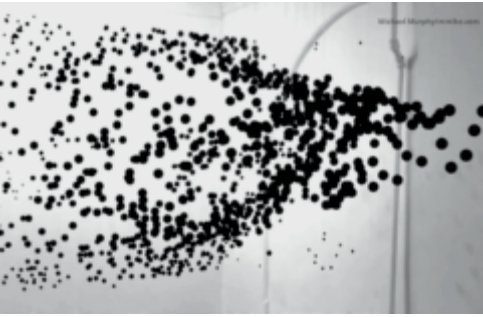
영원한 진리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가짜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사탄이 내세우는 논리는 언제나 같았습니다. 2,000년 전의 이 말을 들어 보십시오.

“너희가 보지 못하는 일을 너희가 알 수 없나니, ... 사람이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범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은 자기의 재능대로 변영하[느니라].”<sup>5</sup>







신앙의 눈을 갖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족 선언문」을 숙고한다면, 아름답게 연결된 그 원리들이 어떻게 서로를 뒷받침해 주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그분의 계획을 드러내 주는지를 더 잘 이해하게 된다.

“그리스도라 하는 존재가 ...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은] ... 이치에 닿지 아니하니.”<sup>6</sup>

“[너희가 믿는 것은] 어리석은 전통이며 너희 생각의 ... 혼란[이니라].”<sup>7</sup> 오늘날에 하는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회개된 복음을 통해 우리가 꼭 필요한 영적 진리들을 배우고 알 수 있는 방안을 주셨습니다. 즉, 거룩한 경전을 통해서, 개인적인 기도와 우리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살아 계신 선지자와 사도들의 권고를 통해서, 또 “모든 것의 참됨을 알게”<sup>8</sup> 도와주시는 성신의 인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진리들을 배웁니다.

### 진리는 영적으로 분별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구할 때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을 지닌 자]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sup>9</sup>

마이클 머피의 이 예술 작품을 살펴보세요. 이 시점에서 보면 이것이 사람의 눈을 표현한 작품이라고는 믿기가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점들을 다른 시점에서 보면 이 작품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신앙의 눈이라는 관점을 통해 하나님의 영적 진리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sup>10</sup>

경전, 우리의 기도, 우리 자신의 경험, 현대의 선지자 그리고 성신의 은사는 우리가 이 지상 여정에서 꼭 필요한 진리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관점을 갖게 해 줍니다.

### 신앙의 눈으로 본 가족 선언문

신앙의 눈으로 「가족 선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님은 다음과 같은 말로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을 소개하셨습니다. “우리는 진리라고 주장하는 많은 궤변들에 대해, 표준과 가치에 관한 많은 속임수에 대해, 서서히 세상을 오염시키는 많은 유혹에 대해 경고해야겠다고 생각해 왔습니다.”<sup>11</sup>

선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인간, 즉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사람은 모두 하늘 부모의

사랑하는 영의 아들과 딸이며, 따라서 각각 신성한 품성과 운명을 지니고 있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자연에서 우연히 생긴 존재가 아닙니다.

저는 “전세에서 영의 아들과 딸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영원하신 아버지로 알고 경배하였으며, 그의 계획을 받아들였다.”라는 이 부분을 정말 좋아합니다.<sup>12</sup>

우리는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했습니다. 개인의 고유한 정체성은 영원히 우리 내면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전세에서 우리가 이루었던 영적 성장은 지금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에 영향을 미칩니다.<sup>13</sup>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이 지상에서 시련과 고통, 그리고 슬픔을 겪을 것을 알았습니다.<sup>14</sup> 우리는 또한 구주께서 오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합당함을 증명하면 “[우리의] 머리 위에 영광이 영원무궁토록 더하여” 부활로 나아올 것을 알았습니다.<sup>15</sup>

선언문은 분명히 밝힙니다. “우리는 생명을 창조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셨음을 선언한다. 우리는 생명이 존엄한 것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서 생명이



참으로 중요하다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은 남편과 아내에게 자녀를 세상으로 데려오도록 격려하며 태아를 지키기 위해 나서도록 책임을 줍니다.

### 가족 선언문의 원리는 아름답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선언문에서 받아들이고 싶은 부분만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영적 시야는 흐려지게 되고 지금 당장 이곳에서 하는 경험을 지나치게 중시하게 됩니다. 신앙의 눈을 갖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언문을 숙고한다면, 아름답게 연결된 그 원리들이 어떻게 서로를 뒷받침해 주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그분의 계획을 드러내 주는지를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sup>16</sup>

주님의 선지자들이 그분의 뜻을 선포했을 때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면 그것이 이상한 일일까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의 음성을 즉시 거부하겠지만,<sup>17</sup> 다른 이들은 자신이 가진 진실한 질문, 즉 인내와 신앙의 눈으로 해결될 그 질문에 대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깊이 생각합니다. 만약 선언문이 다른 시기에 계시되었더라도, 지금과는 또 다른 질문들이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목적 중 한 가지는 우리가 가진 진실한 질문을 해결하도록 돕는 것입니다.<sup>18</sup>

교회의 회장으로 부름을 받기 전에, 러셀 엠 벨슨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은 앞을 내다봅니다. 그분들은 대적이 우리 앞길에 놓아두었거나 앞으로 놓아둘 끔찍한 위협을 봅니다. 선지자들은 또한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의도로** 귀 기울이는 사람들에게 예비된 위대한 가능성과 특권들을 내다봅니다.”<sup>19</sup>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가 하나되어 내는 목소리는 참되며 영적인 힘을 지녔음을 간증드립니다.

### 복음에서 멀어지고 있는 세상

저는 살아오면서 선언문에서 가르치는 많은 복음 원리와 관련해서 세상의 신념이 극적으로 변하는 것을 보아 왔습니다. 저의 십 대와 결혼 초기 시절에, 우리가 순결의 법이라고 부르는 주님의 표준, 즉 성적인 관계는 오직 합법적으로 결혼한 남녀 사이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님의 표준으로부터 세상의 많은 사람이 떠났습니다. 저의 이십 대와 삼십 대 시절에는 낙태가 더 많이 용인됨으로써 태아를 보호하는 신성한 일로부터 많은 이들이 떠나갔습니다. 최근에는, 결혼이 남자와 여자 사이의 신성한 결합이라는 하나님의 율법으로부터 많은 사람이 떠났습니다.<sup>20</sup>

주님이 정하신 범위에서 멀어지는 많은 사람을 볼 때면 구주께서 가버나움에서 자신의 신성을 선언하셨을 때 슬프게도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고

한 그날이 생각납니다.

그때 구주께서 열두 제자를 향해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sup>21</sup>

### 모두가 가족 선언문에 꼭 들어맞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현재 상황이 가족 선언문에 잘 들어맞지는 않지만, 남녀노소 구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실하며 진실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혼으로 삶이 흔들리는 자녀들, 순결의 법을 조롱하는 친구를 둔 청소년, 배우자의 불충실함과 이혼으로 크게 상처받은 아내와 남편들, 자녀를 가질 수 없는 부부, 회복된 복음에 대한 믿음을 함께 공유하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한 분들, 여러 가지 이유로 독신으로 지내는 형제 자매님들이 그렇습니다.

저에게는 거의 20년 동안 알고 지낸 진정으로 존경하는 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는 동성에게 끌리는 성향 때문에 결혼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는 성전에서 맺은 성약에 충실하고, 창의적이고 직업적으로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며, 교회와 지역사회에서 훌륭하게 봉사했습니다. 그는 최근에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순결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것에 공감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되]’도록 명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표준은 세상의 표준과 다르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따라 정해진 경계에서 인간의 법은 종종 벗어나곤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소망하는 자들에게는 분명 신앙과 인내와 부지런함이 필요합니다.<sup>22</sup>

제 아내 케시와 저는 한 미혼 자매님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사십 대 중반이신 자매님은 직업적인 재능을 타고나셨으며, 그분의 와드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계십니다. 그 자매님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오셨는데, 그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언젠가 남편과 자녀들이 생기는 축복을 받을 날을 꿈꿨습니다. 저는 아직 기다리는 중이에요. 때로는 제가 처한 상황 때문에 외롭고 홀대받는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집중하지 않고, 그 대신에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리고 어떻게 다른 이들을 도울지에 집중하려고 노력합니다.

저의 확대 가족에게, 그리고 와드와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잊혔거나 혼자 떨어져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와 우리는 모두 더 큰 가족의 일원이니까요.”

### 이해하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형제님은 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진정 이해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심을 간증드립니다.<sup>23</sup> 셋째마네 동산과 십자가 위에서의 희생으로 여러분이 깊이진 짐을 아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을 찾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신다면 저는 그분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혼자서 짊어지기 힘든 짐을 덜어 주시리라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구주께서는 여러분에게 영원한 친구를 주시고 봉사할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분이 여러분을 강한 성신의 영으로 채워 주시고, 여러분을 받아들임으로 보여 주실 것입니다. 성신의 동반함이나 영원한 축복을 부정하는 선택이나 대안은 어떠한 것도 고려할 가치가 없습니다.

저는 구주께서 살아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이 참으로 중요한 모든 진리의 근원이시며,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주

1. 요한복음 18:33, 36~38.
2. William S. Sahakian and Mabel Lewis Sahakian, *Ideas of the Great Philosophers* (1966), 28.
3. 교리와 성약 93:24.
4. 요한복음 14:6.
5. 엘마서 30:15, 17.
6. 힐라맨서 16:18.

7. 엘마서 30:14, 23, 27 참조.
8. 모로나이서 10:5.
9. 조셉 스미스 역, 고린도전서 2:11[고린도전서 2:11, 교회 영문 성경, 각주 c]; 고린도전서 2:14.
10. 고린도전서 2:14.
11. 고든 비 힐클리, “세상의 속임수에 굳건하게 맞섬”, *성도의 빛*, 1996년 1월호, 100쪽. 러셀 엠 넬슨 회장은 최근 가족 선언문과 관련된 역사적인 일화를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셰리 듀 자매는 다음과 같이 그 일화를 요약한다. (Sheri Dew, *Insights from a Prophet's Life: Russell M. Nelson* [2019], 208) “1994년 어느 날, 십이사도 정원회는 솔트레이크 성전의 전용 평의회실에서 가족을 둘러싼 이슈들에 관해 하루 동안 토의했다. 그들은 점점 더 세상에 만연하는 외설물에서부터, 가족을 약화시키는 여러 종류의 법률들이 제정될 가능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안을 숙고하였다. 그런 토론을 한 것이 처음은 아니었지만, 그날은 모든 안건이 이 중요한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하고 있었다. 십이사도는 교리와 정책들을 검토하였으며, 변경될 수 없는 것(교리)과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것(정책)을 함께 숙고했다. 또한 앞으로 다가올 것으로 보이는 이슈들에 대해서도 논의했는데, 여기에는 동성 결혼 및 성전환자의 권리에 대한 점점 커지는 사회적 압박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넬슨 장로는 이렇게 설명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여러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이 성적인 행동에 대한 모든 표준과 규제들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남녀라는 성에 혼란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가오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날의 길이 있는 논의와 더불어 얼마간의 시간 동안 여러 토론을 거친 결과, 십이사도는 가족에 관한 교회의 입장을 서술하는 문서를, 더 나아가 ‘선언문’을 작성하여 제1회화장단계 제출해야겠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12.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야호나, 2017년 5월호, 145쪽.
13. 델린 에이치 옥스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수많은 사람은 모두 아버지의 계획을 선택하였고 그것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우리는 또한 지상에 사는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에 관해 아버지와 성약을 맺었습니다. 우리가 영의 세계에서 했던 행동들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지상 생활에 영향을 줍니다.”(“위대한 행복의 계획”, *성도의 빛*, 1994년 1월호, 72쪽)
14. 델린 에이치 옥스, “진리와 계획”, *리야호나*, 2018년 11월호, 25~28쪽 참조.
15. 아브라함서 3:26.
16. 델린 에이치 옥스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충실한 후기 성도들은 거의 사반세기 전에 발표되어 이제는 여러 언어로 번역된 가족 선언문이 현재 세상의 가족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지탱하는 데 필요한 복음 진리를 주님께서 다시 강조하신 것이라 믿습니다. ... 저는 「가족 선언문」이 영원한 진리를 밝혀 주는 성명이자 영생을 구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를 위한 그분의 뜻을 간증합니다. 그 선언문은 지난 22년 동안 교회의 가르침과 관행의 근간이 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선언문을 그렇게 여기고, 가르치고, 그에 따라 생활하십시오. 그러면 영생을 향해 나아가갈 때 여러분은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 저는 이 「가족 선언문」을 우리가 어떻게 여기고 활용하는가가 바로 이 세대에게 주어진 시험 중 하나라고 믿습니다. 모든 후기 성도들이 그 시험에서 굳건히길 기도합니다.”(“구원의 계획과





다카시 와다 장로  
칠십인

# 그리스도의 말씀을 흡족히 취함

우리 마음을 준비한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흡족히 취하는 일은 어느 때에나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완전한 계획을 마련하셨습니다. 이생에서,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에게 나아와서 침례와 성신의 은사를 받고 복음에 따라 충실하게 생활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을 받아들이라는 권유를 받습니다. 니파이는 침례 받고자 하는 우리의 결정을 “협착하고 좁은 길에 들어서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모든 축복을 받기 위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함을 지니고 힘써 앞으로 나아가[며] ... 그리스도의 말씀을 흡족히 취하며 끝까지 견딜”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니파이후서 31:19~20)

더 나아가 니파이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흡족히 취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행하여야 할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일러” 주실 것이며(니파이후서 32:3), 우리가 “대적의 불화살”을 이길 힘을 얻을 것을 일깨워 줍니다.(니파이전서 15:24)

## 흡족히 취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어렸을 때 흡족히 취한다는 것은 단순히 밥과 초밥과 간장을 많이 먹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진정으로 흡족히 취한다는 것은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이상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굉장히 맛있고 풍성한 음식들



- 가족 선언문”, *리아호나*, 2017년 11월호, 30~31쪽)
17. 러셀 엠 벨슨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편협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 편협한 자들은, 그들이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존중해 주기를 바라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서는 존중해 주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우리의 입장은 순결의 법으로 귀결됩니다. 심계명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심계명은 결코 폐지된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을 변경할 권한이 없습니다.”(in Dew, *Insights from a Prophet’s Life*, 212)
  18. “전 세계에서 가족이 공격을 받고 있지만, 「가족 선언문」에 담긴 진리는 여러분을 강화해 줄 것입니다.  
고귀한 장자의 명분을 지닌 훌륭한 청년 여러분은 결혼의 정의에 대해 사회에서 벌이고 있는 논쟁이 미칠 크나큰 결과를 이해해야 합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논의에서는 동성 결혼이 가능하느냐를 따릅니다. 이것에 대해, 또는 다른 중요한 사안에 대한 교회 입장이 알고 싶다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깊이 생각해 보고, 다가올 이번 10월 교회 연차 대회에서 선지자의 메시지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그 영감에 찬 말씀들은 성신으로부터 오는 영감이 더해져 여러분에게 더 충만하고 참된 이해력을 가져다줄 것입니다.”(러셀 엠 벨슨, “고귀한 장자의 명분을 지닌 청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청년 성인을 위한 교회 교육 기구 영적 모임, 2013년 9월 6일], [broadcasts.ChurchofJesusChrist.org](http://broadcasts.ChurchofJesusChrist.org).)
  19. 러셀 엠 벨슨, “진정한 밀레니얼 세대로서 우뚝 서십시오”, *리아호나*, 2016년 10월호, 49쪽; 번역 수정.
  20. 벨슨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정부는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하고, 집행할 때, 사회 조류와 세상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정부에서 어떤 법률을 만들든, 결혼과 도덕성에 관한 주님의 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법률을 제정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는 여전히 죄입니다!”(“영원을 위한 결정”, *리아호나*, 2013년 11월호, 108쪽)
  21. 요한복음 6:66~69.
  22. 엘마서 32:41~43 참조: 우리의 신앙을 키우는 것에 관해 다른 위대한 기록인 엘마서 32장 중 마지막 세 절에서 신앙과 인내와 부지런함이라는 덕목들이 매 절 함께 언급된다는 점은 항상 나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23. 엘마서 7:12 참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도 고통을 겪으셨다. “그가 사명을 짊어지시리니, 이는 그의 백성을 결박하는 사망의 줄을 푸시려 함이요, 또 그들의 연약함을 짊어지시리니, 육체를 따라, 그의 심정을 자비로 충만하게 하사, 육체를 따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연약함을 좇아 어떻게 도울지 아시고자 하심이니라.”(연약함이라는 말은 질병, 약점, 고통, 부족함 등의 뜻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교리와 성약 88:6 참조: “그는 만물 아래[로] 내려갔고 ... 그리하여 그는 만물을 이해하였나니 이는 그가 만물 안에 그리고 만물을 통하여 있으려 함이니, 곧 진리의 빛이 되고자 함이라.”





먹으면서 기쁨과 자양분을 얻고, 가족 및 사랑하는 사람들과 축하하고 나누고, 사랑을 표현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를 드리고, 관계를 강화하는 경험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흡족히 취할 때 이와 같은 종류의 경험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경전을 흡족히 취한다는 것은 그저 경전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주고 구주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물론 경은 이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리하이가 꿈에서 “사람을 행복하게 해 줄 만큼 먹음직한 열매가 달린” 나무 한 그루를 보았던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열매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리하이가 그 열매를 맛보았을 때 “[그]가 이전에 맛본 그 어느 것보다도 더 감미로”웠고, “[그]의 영혼을 심히 큰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었으며 리하이는 그것을 자기 가족과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니파이전서 8:10~12)

우리는 또한 무언가를 흡족히 취할 때 우리 마음이 감사로 가득 차 있다면 음식의 양이나 종류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리하이의 가족은 광야에서 날고기를 먹으며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니파이는 이 어려운 시련을 설명하면서 “주의 복이 얼마나 컸던지” “우리의 여자들은 … 강건하였고” “불평 없이 여행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니파이전서 17:1~2)

흡족히 취하는 것에는 때때로 시험해

보는 것과 맛보는 것이 포함됩니다. 엘마는 우리 마음에 심어진 좋은 씨앗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시험해 볼 때 우리는 그 씨앗이 “기쁨을 주기” 시작함을 깨달을 것입니다.(엘마서 32:28~33 참조)

#### 그리스도의 말씀을 흡족히 취함

그리스도의 말씀을 흡족히 취할 때 받게 되는 축복은 강력하며 삶을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하기를 권고드리고 싶은 특별한 축복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말씀은 “계시를 받는 [우리의] 영적인 능력을 키우[도록]”(러셀 엠넬슨, “교회를 위한 계시와 우리 삶을 위한 계시,” *리아호나*, 2018년 5월호, 96쪽) 도와줄 수 있으며, 일생 동안 우리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여 줍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말씀이 “백성을 인도하여 의로운 일을 하게 하는 큰 경향이 있으[며]”, “칼”로 성취할 수 있는 어떤 것보다 더 강력하다고 가르칩니다.(엘마서 31:5)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지혜를 찾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시험할 때마다(엘마서 31:5) 저는 영감을 얻었고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으며, 유혹을 극복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주변의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더욱 커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선지자 러셀 엠넬슨 회장님은 “앞으로는 성신의 인도와 지침과 위안의 영향력 없이는

영적으로 살아남는다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교회를 위한 계시와 우리 삶을 위한 계시”, 96쪽)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시험할 때 필요한 계시가 오게 될 것이며 그 말씀은 우리가 시험하거나 상상할 수 있는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더 강력할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거나 자존감 부족으로 힘들어할 때 경전에 있는 “하나님의 기쁜 말씀”은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을 알려줄 것이며 우리 자신의 능력 이상의 힘을 줄 것입니다.(야곱서 2:8)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자각한 순간은 제가 경험한 가장 감미로운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십 대 초반에 저는 구주의 가르침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처음 신약전서를 읽었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은 참으로 저의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해 주었습니다. 저는 혼자자 아니며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저의 참된 정체성을 인식하자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한 저의 무한한 가능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노스도 또한 그리스도의 말씀의 깊이 생각하면서 개인적으로 깨달음을 얻었던 경험을 말해 주었습니다. “영생과 성도들의 기쁨에 관[한] 그 부친의 가르침이 “[이노스의] 마음에 깊이 스며들었”을 때 그의 영혼이 “주렸던지라, [그는 그]를 지으신 이 앞에 무릎을 꿇고 …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이노서 1:3~4) 그 기도에서 그는 구주를 알게 되었고, 우리가 큰 가치가 있고 사랑받는 존재이며 우리가 저지른 실수를 용서받을 수 있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셋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복돋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특정한 때와 장소에서 이노스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나누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그분의 일을 다 하실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들어 보라고 권유하려 노력하는 중에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 낙담했던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결과에 상관없이 우리에게 입을 열고 다른 이들과 복음의 메시지를 나누라고 권유하십니다.

2년 전에 주님께서는 저의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고 이것은 어머니가 침례를 받기로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이 오기를 거의 35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어머니께서 그 결정을 하실 수 있도록 많은 교회 회원들이 그리스도께서 하셨을 것처럼 어머니께 진심으로 성역을 베풀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어머니는 교회에 가야겠다고 느끼셨고, 그

느낌을 따르셨습니다. 어머니가 앞줄에 앉아서 성찬식이 시작되기를 기다리는데 4살 난 남자아이 하나가 어머니 앞에 와 서서 어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아이에게 미소를 지어 보이셨습니다. 그 어린 남자아이는 갑자기 어머니 앞을 떠나 저의 어머니가 앉아 있던 그 줄의 다른 쪽에 있는 자기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이 아이는 자기 자리에서 무언가를 집어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에게 찬송가 한 권을 건넨 아이는 다시 자기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예배실의 의자에 하나 건너 하나씩 찬송가가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셨습니다. 어머니는 바로 옆에 있는 의자에서 쉽게 찬송가 한 권을 집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가정과 교회에서 배운 순수하고도 친절한 그 소년의 행동에 큰 감명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께 매우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와서 구주를 따르라고 하나님께서 권유하고 계신다는 강한 느낌을 받으신 어머니는 침례를 받아야겠다고 느끼셨습니다. 이 어린 남자아이는 자기가 한 일을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라지 않고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생활했으며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아이의 친절이 어머니의 마음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아직 그분을 보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감명을 주고 그들의 눈을 뜨게 할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그들은 슬퍼했고 구주께서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슬픔에 잠겨서 살아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걷고 계심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분이 부활하신 구주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주님과 함께 앉아서 떡을 떼어 먹을 때 그때에서야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우리, 또는 우리의 친구들, 동료들, 그리고 이웃들이 주님과 함께 떡을 떼어 흡족히 취할 때 이해의 눈이 열릴 것입니다. 엠마오에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구주와 함께한 시간을 되새겨 보았을 때, 그들은 주님께서 성경을 풀어 주셨을 때 마음이 뜨거웠다고 말했습니다.(누가복음 24:27~32)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 결론

마지막으로, 저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도록 우리 마음을 준비한다면 어느 때에나 어떤 상황에서나 그리스도의 말씀을 흡족히 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흡족히 취하는 일은 삶을 지탱해 주는 계시를 불러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 앞에서 우리의 참된 정체성과 가치를 재확인해 주며 우리의 친구들을 그리스도와 영생으로 이끌어 줍니다. 니파이의 권고를 되풀이하며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소망의 완전한 밝은 빛과 하나님과 만인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함을 지니고 힘써 앞으로 나아가야만 하느니라. 그런즉 만일 너희가 힘써 앞으로 나아가되 그리스도의 말씀을 흡족히 취하며 끝까지 견딜진대, 보라, 이같이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영생을 얻으리라 하시느니라.”(니파이후서 31:2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데이비드 피 호머 장로  
칠십인 정원회

# 그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우리의 주의를 끌려는 수많은 음성이 공존하는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 처남이 제 아내에게 쪽지를 하나 주었는데, 제 아내가 오래전에 장모님에게 썼던 것이었습니다. 당시, 아내는 어린아이였습니다. 쪽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엄마, 제가 오늘 간증을 못 해서 죄송해요. 그렇지만 엄마를 사랑해요.” 점심을 먹으러 갔을 때, 이 일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리에 앉아 이렇게 쪽지를 적었습니다. “사랑하는 멜스 회장님, 오늘 말씀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회장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웬지 옳지 않은 일 같았습니다. 오늘 이 모임에서 다른 연사들이 전하신 말씀에 제 말씀을 더하게 되어 기쁩니다.

수년 전, 저는 갓 자격증을 딴 조종사가 운항하는 작은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이 끝날 무렵, 우리는 착륙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상으로 접근하는 동안, 저는 조종석 경보 장치에서 “고도를 높이라”는 경고음을 들었습니다. 조종사는 좀 더 노련한 부조종사에게 조언을 구했는데, 부조종사는 활주로에서 멀어지는 방향 아래쪽을 가리키며 “지금!”이라고 외쳤습니다.

우리 비행기는 꺾싸게 왼쪽 아래로

내려갔다 다시 적절한 고도로 올라가 착륙 절차를 되풀이한 다음,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 나중에 우리는 그 시각에 이륙 허가를 받은 다른 비행기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경보기 지시를 따랐더라면, 우리는 다가오는 비행기를 피하는 대신 그쪽으로 돌진해 버렸을 것입니다. 저는 이 경험에서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첫째,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우리의 시선을 끌려는 여러 음성을 듣게 된다. 둘째, 올바른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 우리의 시선을 끌려는 음성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우리의 시선을 끌려는 많은 음성이 있습니다. 쏟아지는 속보와 트윗, 블로그, 팟캐스트 및 알렉사나 시리 같은 음성 인식 서비스의 설득력 있는 조언 속에서 어느 음성을 따라야 할지 분간하기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다수의 의견이 진리의 가장 확실한 기준이라 믿으며 우리 인생이라는 배에 사공을 너무 많이 들이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며<sup>1</sup>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쪽을 택하기도 합니다.<sup>2</sup> 어떨 때는 쉬운 편을 택해서, 하나의 음성이나 사안에만 기대어 몰두하거나 전적으로 우리의 사고력에만 의존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방법이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우리는 이것들이 항상 믿을 만하지는 않다는 것을 경험으로 배웁니다. 인기 있는 방법이 늘 최선은 아닙니다. 둘 사이에서의 머뭇거림은 아무런 방향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쉽고 편안한 것이 중요한 것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한 음성이나 사안에만 치우치다 보면 온전히 이해하는 능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생각에만 기대다 보면 본인의 사고력을 과신하게 되어 오히려 생각이 둔해질 수 있습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릇된 음성에 이끌려 복음이라는 중심지를 이탈하게 되어, 신앙을 지키기 어렵게 되고, 허무감, 쓰라림, 불만만 남은 그런 곳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 그릇된 음성에 귀 기울이면

제 말씀을 비유와 경전에 나오는 예로 들려드리겠습니다. 흔히 등산가들은 8천 미터 이상의 고도를 “죽음의 지대”라 부릅니다. 이 정도 높이에 이르면 생명을 유지할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면에서도 죽음의 지대가 있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을 신앙이 없는 곳에서 지내면, 겉으로는 선의에 찬 듯한 음성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산소를 앗아갑니다.

물론경에는 그런 경험을 한 코리호어에 관한 기사가 나옵니다. 그의 가르침은 “속된 생각에 기쁨이 되었”기에 그는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sup>3</sup> 그는 부모와 선지자들이 자유를 억압하고 백성을 무지한 가운데 있게 하려고 고안된 어리석은 전통을 가르친다고 말했습니다.<sup>4</sup> 또한 그는 사람들이

무엇을 택하든 자유로이 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계명이란 사람들을 제약하기 위해 편의상 만든 굴레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라며 말합니다.<sup>5</sup>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존재가 불가능한 이를 믿는 데서 비롯된, “과도하게 흥분된 생각의 결과”였습니다.<sup>6</sup>

코리호어가 야기한 갈등이 거세지자 그는 결국 대판사와 대제사 앞에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크게 부풀린 말”을 하며 지도자들을 비난하고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그리하여 표적이 주어졌습니다. 그는 치심을 입어 말 못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코리호어는 자신이 속았음을 깨달았고 자신이 내쳐 버린 귀중한 진리를 두고 “나는 … 항상 알고 있었느니라”라고 탄식했습니다.<sup>7</sup>

그 후 코리호어는 먹을 것을 구걸하며 살다가 한 조람인 무리에게 짓밟혀 죽었습니다.<sup>8</sup> 그의 기사 마지막 구절에는 다음과 같은 엄숙한 고찰이 담겨 있습니다. “또 이로써 우리는 악마가 자기의 자녀들을 마지막 날에 도우려 하지 아니하고, 급히 지옥으로 끌어내림을 알게 되느니라.”<sup>9</sup>

### 올바른 음성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고자 하시기에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십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성신을 통해 주어지는 느낌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신은 신회의 세 번째 구성원입니다. 성신은 하나님과 아들을 증거하며,<sup>10</sup>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기 위해 보내졌고,<sup>11</sup> “[우리가 무엇을 행하여야 할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 줄 것]입니다.”<sup>12</sup>

영은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말하며, 한 사람에게 말하는 방법이 때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영이 우리와 소통하는 다양한 방식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일생에 걸쳐 추구해야 하는 일입니다. 때때로 영은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에]”<sup>13</sup> 작지만 영향력 있는 음성으로 말하여 “듣는 이들의 중심까지 꿰뚫”습니다.<sup>14</sup> 어떤 경우에는 성신이 주는 느낌이 “[우리] 생각을 사로잡”거나 “[우리] 느낌을 … 강하게 압박”합니다.<sup>15</sup> 어떤 때는 우리의 가슴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 지기도 합니다.<sup>16</sup> 또한 영이 우리의 영혼을 기쁨으로 채우고 우리의 마음을 밝혀 깨닫게 해 주거나,<sup>17</sup> 번민할 때 평강을 말해 주기도 합니다.<sup>18</sup>

### 그분의 음성을 찾아서

우리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찾게 될 것입니다. 기도할 때, 경전을 공부할 때, 교회에 참석할 때, 신앙 어린 토론에 참여할 때, 성전에 갈 때,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찾을 것입니다. 또한 바로 이 주말에 열리고 있는 이 연차 대회에서도 분명히 찾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열다섯 명의 형제들을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로 지지했습니다. 그분들은 자신들이 지닌 영성과 경험을 통해 특별한 시각을 부여받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절실합니다. 그분들의 메시지는 쉽게 찾을 수 있고 명료하게 전달됩니다. 그분들은 인기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시는 것을 말해 줍니다.<sup>19</sup>

이 중 어느 한 곳에서라도 그분의 음성을 구한다면 그것은 훌륭한 일입니다만, 여러 곳에서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더욱 훌륭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면 우리는 그 음성을 통해 주어지는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는] ... 자가 되지 말라.”<sup>20</sup>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도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주시하고 기다립니다. 우리는 고요하고 작은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 음성이 속삭일 때, 지혜로운 사람은 순종합니다.”<sup>21</sup>

### 지침이 더디게 오는 경우

직장 생활 초기에, 저는 새로운 직무를 맡아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니다. 당시 그것은 아내와 저에게 엄청난 결정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연구하고 금식하고 기도도 했지만 응답은 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결정을 내렸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안정감이 들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결정이 우리가 했던 가장 훌륭한 결정 중 하나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우리는 응답이 더디게 오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런 경우는 응답을 받기에 적합한 시기가 아니거나, 응답이 필요하지 않거나, 또는 하나님이 우리

스스로 결정을 내리도록 우리를 신뢰하시는 경우입니다.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님은 이런 경우에 감사해야 한다고 가르치시며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합당하게 생활하고 있고, 여러분이 하는 선택이 구주의 가르침과 일치하고 있으며, 행동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신뢰를 가지고 행하십시오. ...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아무런 경고의 느낌 없이 여러분이 너무 멀리까지 가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sup>22</sup>

###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모든 상충된 음성들 가운데 무엇을 따를지 결정해야 합니다. 세상이 내놓는 미덥지 않은 음성들을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결정을 인도하고 우리를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필요한 일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더욱 부지런히 그분의 음성을 구할수록 그 음성은 점점 더 듣기 쉬워집니다. 그분의 음성이 커져서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우리의 능력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구주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교훈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권고에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에게] 더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sup>23</sup> 저는 이 약속이 우리 모두에게 참되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약 1년 전에 저는 비극적인 교통사고로 제 형을 잃었습니다. 존 형은 젊은 시절에 장래가 촉망되었고 성취 능력도 탁월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나빠지고 정신이 쇠하면서 세상살이가 몹시 고단해졌습니다. 자신이 원한 것처럼 인생에서 치유되지는 못했지만, 형은 신앙에 충실했고 최선을 다해 끝까지 견디겠다는 의지가 확고했습니다.

형이 완벽하지 않았다는 건 알지만, 저는 형이 그와 같은 인내심을 보일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냉소적인 무리에 합류하도록 부추기는 음성이 많았지만, 형은 그러지 않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오히려 형은 자기 인생의 닳을 복음의 중심에 굳게 내리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형이 복음 가운데 산 것은 그곳이 주님의 음성을 찾을 수 있는 곳을 알았기 때문이었으며, 그곳이 자신이 가르침 받을 장소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 결론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끌려는 수많은 음성이 공존하는 세상에서,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를 수 있게 하셨음을 간증드립니다. 부지런히 노력한다면,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은 우리가 구하는 방향과 우리에게 필요한 힘과 우리가 모두 갈망하는 행복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주

- 열왕기상 18:21 참조.
- 요한계시록 3:15~16 참조.
- 앨마서 30:53; 또한 앨마서 30:18 참조.
- 앨마서 30:14, 23~24, 27 참조.
- 앨마서 30:17, 23, 27 참조.
- 앨마서 30:16; 또한 앨마서 30:13, 15, 26, 28 참조.
- 앨마서 30:31, 52; 또한 앨마서 30:23, 28, 43, 50, 53 참조.
- 앨마서 30:56, 58~59 참조.
- 앨마서 30:60.
- 니파이후서 31:18 참조.
- 요한복음 14:26.
- 니파이후서 32:5; 또한 니파이후서 32:1~4 참조.
- 교리와 성약 8:2.
- 제3니파이 11:3.
- 교리와 성약 128:1.
- 교리와 성약 9:8.
- 교리와 성약 6:14~15; 11:13 참조.
- 교리와 성약 6:22~23 참조.
- 교리와 성약 1:38 참조.
- 야고보서 1:22.
- 토마스 에스 몬슨, “영은 살리는 것임이리라”, 성도의 벗, 1997년 6월호, 4쪽.
- 리차드 지 스코트, “기도라는 하늘의 선물을 사용함”, 리아호나, 2007년 5월호, 10쪽.
- 니파이후서 28:30.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변경된 일요 모임을 통해, 주님의 만찬인 성찬은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의 신성한 초점이 됩니다.

합창단에 있는 청년들의 눈에 고인 눈물을 보니 저의 마음이 몽클해졌습니다. 그 눈물은 제가 드리는 어떤 말씀보다 더 훌륭한 설교입니다.

물가에 있던 침례 요한은 자신에게 침례를 받고자 간절한 마음으로 모여든 군중 너머로 멀리서 나사렛 예수를 보았습니다. 그의 사촌이기도 한 예수 역시 같은 의식을 받기 위해 결연히 나아오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경건하면서도, 곁에 있던 사람들에게 충분히 들릴 만한 음성으로 존경을 담아 말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sup>1</sup> 이 말은 2천 년 후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울림을 줍니다.

오래전부터 예수님의 예비자로 예언되었던 요한이 그분을 “여호와”, “구주”, “구속주”, “하나님의 아들” 등으로 칭하지 않았다는 점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시사합니다. 이들 모두 적절한 호칭이었는데도 말입니다. 요한은 오히려 자기 백성의 종교적 전통에서 가장 오래되었고, 아마도 가장 널리 알려졌을 표현을 골랐습니다. 그는 타락한 세상과 거기에 사는 모든 타락한 자의 죄와 슬픔을 위해 속죄에 바쳐지는 희생양의 상징을 사용했습니다.

이에 관하여 역사를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후 충격적인 미래에 부닥쳤습니다. 우리를 위해 필멸의 삶과 현세적 삶의 문을 열어 준 그들은 자신들을 위한 불멸과 영생의 문을 닫았습니다. 우리를 위해 의도적으로 범법을 선택한 결과, 그들은 이제 육체적 사망과 함께 하나님의 면전에서 영원히 분리되는 영적 추방을 겪어야 했습니다.<sup>2</sup> 그들은 무엇을 해야 했을까요? 이 곤경을 벗어나 하나님께 돌아갈 길이 있었던 것입니까?

에덴동산에서 받았던 가르침을 얼마나 기억할 수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순결하고 흠 없는 그들 양떼의 첫 새끼를 주기적으로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바쳐야 함을 분명 기억했습니다.<sup>3</sup>

후에 천사가 와서 설명한 바에 따르면, 이 희생은 하나의 모형으로, 나중에 오실 세상의 구주께서 그들을 위해 희생하실 것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천사는 말했습니다. “이 일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의 독생자의 희생하실 모형이니라. 그런즉 … 회개하고 영원토록 아들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를지니라.”<sup>4</sup> 다행히도, 곤경을 벗어나 하나님께 돌아갈 길이 있었던 것입니다.

전세에서 열린 천국 회의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에게 (그리고 우리를 비롯한 나머지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 곧 순결하고 흠 없는 그분의 장자가 도와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나중에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은 세상의 기초가 놓이던 때부터 죽임을 당하도록 예비되었던 것으로 묘사했습니다.<sup>5</sup> 필멸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자신들의 어린 양을 바침으로써, 아담과 그의 후손들은 기쁨 부음을 받은 자이신 예수님의 속죄 희생을 이해하고, 그것에 의존하고 있음을 나타냈던





것입니다.<sup>6</sup> 나중에는 광야의 성막에서, 그 이후에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서 이 의식이 행해졌습니다.

불행히도 흠 없는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치는 이 의식은 진정한 회개와 충실한 삶을 효과적으로 나타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구약전서의 많은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말입니다. 이러한 희생 제물을 바치는 데 수반되어야 할 도덕적인 결심은 때로는 돌 제단에 묻은 피가 마르는 그 짧은 순간만큼도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어찌 되었든, 첫 번째 세대에 가인이 자신의 동생 아벨을 살해한 것으로 보아, 그들의 도덕적 결심은 형제를 살해하는 것을 막을 만큼 오래가지 않은 것입니다.<sup>7</sup>

수 세기 동안 이러한 시련과 고난이 계속되다가 마침내 오랫동안 약속된 메시아인 예수께서 탄생하셨으니, 하늘의 천사들이 기뻐 노래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모든 유월절 양 중에서도 가장 순결하신 그분은 짧았던 지상 성역을 마무리하시며 자신의 죽음에 대비해 제자들을 준비시키고자 주님의 만찬인 성찬을 소개하셨습니다. 성찬은 에덴동산 밖에서 소개된 더욱 개인적인 형태의 희생 의식입니다. 성찬에도 여전히 제물과 희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식은 첫 번째 어린 양의 피를 흘리는 것보다 더 깊고, 자기 성찰적이며, 개인적인 의미가 담긴 상징으로써 집행됩니다. 부활하신 구주께서는 니파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더 이상 피 흘리는 것으로 내게 바치지 말지니라. …

… 이에 너희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을 내게 희생으로 드릴지니, 누구든지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내게로 오면 내가 그에게 불과 성신으로 침례를 줄 것이라. …

그러므로 … 회개하고 … 구원을 받을지이다.”<sup>8</sup>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가정에서의 복음 학습 강화에 새롭게 초점을 맞추는 것과 더불어, 주님은 여전히 “나의 거룩한 날에 기도의 집에 가서 네 성찬을 바칠지이다.”라고 우리에게 명함심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sup>9</sup> 일요일 모임 일정이 변경된 목적은 가정 중심의 복음 교육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모임 일정을 간소화함으로써 주님의 만찬인 성찬이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의 신성한 초점임을 적절히 강조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가능한 한 개인적인 방법으로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죄와 슬픔을 온전히 홀로 짊어지시고 상한 마음으로 돌아가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지운 짐을 지시고 돌아가셨기에, 우리는 당연히 그러한 순간에 경의를 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스러운 의식에 참여하기에 적절한 옷을 입고 일찍, 경건하게 예배에 나아오도록

권고받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안식일 복장”의 의미가 다소 사라졌지만, 우리가 예배해야 할 그분에 대한 존경심을 나타내기 위해 가능한 때와 장소에서 우리의 외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는 안식일 복장의 전통을 되살려야 합니다.

시간 준수에 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리저리 움직이는 아이들과 간식거리, 기저귀 가방을 들쳐 메고 겨우 교회에 도착하는 축복된 어머니들은 우리는 언제나 사랑으로 이해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안식일 아침에 어쩔 수 없이 우물에 빠진 소를 끌어내야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후자에 해당하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가끔** 늦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일요일마다** 소가 우물에 빠진다면 소를 팔거나 우물을 메울 것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성스러운 장소인 교회 건물에서 큰 소음을 줄여 주시기를



사도로서 요청합니다. 우리는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고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이는 교회에 참석하는 즐거움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위해 특별히 헌납된 공간에서까지 큰 소음을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기도와 계시, 평화로 특징지어져야 할 장소에서 때로 소란스럽고 불경스러운 모습을 보고 우리와 종교가 다른 방문객들이 당혹스러워하지는 않을까 저는 염려됩니다. 아마 하늘에서도 조금은 당혹스러우실 듯합니다.

감리자가 모임을 시작하기 훨씬 전부터 연단에 앉아 전주 음악을 들으며 경건하게 나머지 사람들이 따라야 할 모범을 보인다면, 그 성찬식의 영이 강화될 것입니다. 연단에서 잡담 소리가 들린다면, 회중 속에서도 잡담 소리가 들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저희는 예배의 영을 떨어뜨리는 공지를 하지 않으시는 감독단에 찬사를 보냅니다. 가령, 고대 주님의 성전에 사가라 같은 제사장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그는 대제사로서 생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의식을 집행하려는 참입니다. 그런데 그가 제단 앞에 멈추어 서서, 모형 자동차 경주가 6주밖에 남지 않았으니 등록을 서두르라고 알리는 모습을 저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이 제정하신 이 시간은 우리의 일주일 중 가장 성스러운 시간입니다. 계명에 따라, 우리는 교회에서 가장 보편적인 의식을 받기 위해 한자리에

모입니다. 마시려던 잔이 거둬질 수 있는지를 물으시고도, **우리를** 위해서는 그럴 수 **없음**을 아셨기에 담대하게 모든 것을 받아들여셨던 그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11세나 12세 집사들의 손으로 그 잔의 상징이 우리 자리를 향해 천천히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좋을 것입니다.

우리는 해결할 죄와 결점을 지닌 채, 주님께 우리의 회생물을 바치는 성스러운 시간을 맞이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곳에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상한 마음과 슬픈 심령을 지닌 우리 주변의 다른 이들에게 마음을 둔다면, 더 성공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회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앉은 자리에서 멀지 않은 곳의 누군가는 성찬 찬송 내내, 그리고 제사들의 성찬 기도 내내 걸으며, 또는 속으로 울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 사실을 조용히 알아채고 우리가 가진 작은 위안의 떡과 연민의 잔을 그들에게 바쳐야 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거나, 우리가 구속의 손길을 내밀지 않는다면 아마 다음 주에도 참석하지 **못할**, 눈물 흘리며 힘겨워하는 회원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교회 회원이 아니지만 **우리의 형제 자매들인 이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고통은 교회 안에서도 밖에서도 넘쳐납니다. 그러니 어느 곳으로 고개를 돌리더라도, 견디지 못할 만큼 무거운 고통을 지고 절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가슴앓이를 하는 이들이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항상 그[분]을 기억”할<sup>10</sup> 한 가지 방법은 위대한 치유자와 함께 짐 진 자의 짐을 들어 올리고 괴로워하는 자의 고통을 없애는 그 끝없는 과업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위대한 속죄를 통해 온 인류에게 주신 선물을 점점 더 성스럽게 받아들이겠다는 소망으로 매주 전 세계 곳곳에서 하나 될 때, 우리가 주님께서 겪으신 비통함과 깊은 슬픔에 대해 더 큰 눈물과 고통을 성찬 제단에 바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후에 성찰하고 기도하고 성약을 새롭게 하며, 그 성스러운 순간을 **통해서** 고난 중에 더 인내하고, 위안 중에 더 찬송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sup>11</sup> 우리가 모두 그런 인내와 위안, 기록함과 소망을 얻을 수 있기 바라며, 용서의 귀한 빵을 찢고 구속의 거룩한 포도주를 부으신 위대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 주

1. 요한복음 1:29.
2. 니파이후서 9:8~9 참조.
3. 모세서 5:5 참조; 또한 출애굽기 12:3~10 참조.
4. 모세서 5:7~8; 또한 모세서 5:9 참조.
5. 요한계시록 13:8 참조.
6. 경전 안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scriptures.ChurchofJesusChrist.org 참조.
7.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것은 궁극적으로 사탄의 지휘로 일어난 일이다. 역설적이게도, 이 일은 주님께서 아벨의 희생 제물은 받아들여졌던 반면 자신의 희생 제물은 거부하신 것에 대해 가인이 앞서 분노했던 일과 관련이 있을지 모른다. “하나님께서서는 … 그분의 아들을 선물로 하는 희생 제물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분은 … 인간이 주님의 면전에서 들어갈 수 있는 … 문을 열[어야] 하셨습니다.” … 이 속죄, 곧 구속의 계획을 믿는 신앙으로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희생 제물로 바쳤으며, 하나님은 이것을 받아들여셨습니다. 가인도 땅의 소산을 제물로 드렸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까. … [그는] 피 흘림이 [포함된] 희생 제물을 바쳐야 했습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 48쪽; 또한 107~108쪽 참조]
8. 제3니파이 9:19~20, 22.
9. 교리와 성약 59:9.
10. 모로나이서 4:3; 5:2.
11. “거룩함도 더욱”, 찬송가, 60장 참조.





## 신권 모임

게리 이 스티븐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 여러분의 신권 전략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입증할 여러분만의 전략서를 만드십시오.

지난 12월에 제일회장은 만 11세 남자 어린이는 “만 12세가 되는 해 1월 초에 ... 아론 신권 정원회에 참석하게 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표했습니다.<sup>1</sup>

다음 생일까지 초등학교에 머무를 줄 알고 있다가 이 소식에 깜짝 놀란 만 11세 어린이들은, 가장 최근에 성임된 집사로서 올해 초부터 일요일마다 성찬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가장 많이 놀란 쪽이 그 집사들일지 아니면 그들의 부모들일지 궁금합니다. 약 8만 명에 이르는 새로운 집사 중 다수가 오늘 저희와 이 훌륭한 컨퍼런스

센터에 함께하고 있거나 방송을 통해 이 모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신권 조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러한 변화의 결과, 이번 모임은 연차 대회 신권 총회에 참석한 아론 신권 소유자 수가 **역대** 최다인 모임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특별한 날을 맞아 저는 아론 신권 청년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말씀드리겠습니다.

### 스포츠에서 얻은 교훈

많은 청년들이 학생으로서 교내 방과 후 활동이나 교외 개인 수업, 팀 활동, 그룹 활동을 통해 각자의 재능, 관심사, 취미를 키워 나가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스포츠도 포함됩니다.

저는 평생 스포츠를 좋아해 왔기 때문에 자신의 운동 실력을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킨 사람들을 늘 존경해 왔습니다. 어느 분야든 **매우** 높은 경지에 오르기 위해서는 천부적인 재능뿐만 아니라 엄청난 양의 자기 단련과 희생과 수많은 시간의 훈련 및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선수들은 종종 코치에게서 혹평을 듣기도 하고, 미래에 더 큰 일을 성취하기 위해 지금 원하는 것을 기꺼이 미루기도 합니다.

우리는 프로 스포츠에서 최정상의 자리에 오르는 성공을 거둔 교회 회원들과

신권 소유자들을 알고 있습니다. 좋은 예가 많지만 시간 관계상 몇 분만 언급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운동 선수들을 알지도 모릅니다. 야구에서 제레미 거스리와 브라이스 하퍼, 농구에서 자바리 파커와 짐머 프레렛, 축구에서 리카르도 로하스, 럭비에서 윌리엄 호포아테, 미식축구에서 테이섬 힐과 대니얼 소렌슨. 이들은 저마다 자신의 스포츠 종목에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이 선수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눈부신 성공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완벽한 선수나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고 누구보다도 먼저 시인할 분들입니다. 이들도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복음대로 생활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쓰러지면 일어나고 끝까지 견디기 위해 노력합니다.

### 전략서를 연구한다

팀 스포츠에서는 특정 경기 상황에 맞춰 작전을 짜고 그것을 모아 전략서를 만듭니다. 선수들은 각각의 작전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익힙니다. 훌륭한 선수들은 전략서를 철저히 숙지하므로, 작전이 채택되면 거의 본능적으로 어느 위치에 가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정확하게 압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권 소유자인 우리도 정원회라는 팀이 있으며, 경전과 현대 선지자들의 말씀이라는 전략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팀원들을 강화하십니까?  
전략서를 얼마나 잘 숙지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임무를 충분히 이해하고 계십니까?

### 적과 맞서다

이 비유를 좀 더 확장시켜 보겠습니다. 유능한 코치는 자신의 팀원들의 강점과 약점뿐만 아니라 상대 팀의 강점과 약점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승리할 확률이 가장 높은 전술을 만들어 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이 어떤 유혹에 가장 취약한지 알고 있으며, 대적이 여러분을



어떻게 좌절시키고 낙담시킬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적과 마주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 알 수 있도록 자신만의 전술과 전략서를 만들어 두셨습니까?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있든, 혼자서 어떤 화면을 보고 있든, 여러 다양한 도덕적 유혹에 직면하게 될 때 어떤 전술을 써야 할지 알 것입니다. 친구가 술이나 마약을 권할 때, 어떤 작전을 쓸지 알 것입니다. 미리 연습했기에 이미 대처 방법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작전과 전략서, 그리고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단호한 결심만 있다면, 그 유혹은 여러분에게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행동할지 이미 결정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혹이 닥칠 때마다 매번 결정을 내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최근에 십이사도 한 분이 이러한 원리가 잘 드러나는 이야기를 들려 주셨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제사였던 그분은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같이 밥을 먹은 후 드라이브를 하고 있었는데 친구 한 명이 어떤 영화를 보러 가자고 했습니다. 문제는 그 영화가 부적절한 영화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분은 곧 무언의 압박을 느꼈고 그 상황이 걱정스러웠지만, 이런 경우에 대비하여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신권 전략서에 정확히 언급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용기를 내어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그 영화 별로야. 나는 그냥 집 앞에 내려 줘.”

친구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간단한 작전이 그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그날 밤 함께 있었던 친구 한 명은 그때 그 모범이 자신에게 큰 힘이 되었고, 그 덕분에 인생에서 그와 비슷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용감하게 대처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 전략서에 담긴 전술들

저는 동료 사도 몇몇 분들에게 여러분의 전략서에 담을 수 있는 작전 몇 가지를 추천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분들이 주신 영감에 찬 제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더 큰 빛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더 큰 간증을 얻기 위해 매일 기도한다.
- 부모님과 감독님, 청남 및 정원회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귀 기울여 듣는다.
- 외설물과 부도덕한 소셜 미디어 콘텐츠를 피한다.
-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 경전에 나오는 위대한 선지자들의 일화를 공부하고 그들의 훌륭한 성품을 본받는다.
- 봉사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축복한다.
- 여러분이 되고 싶은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는 좋은 친구들을 사귈다.
- FamilySearch 앱 전문가가 되어 자신의 가족 역사를 탐구한다.
- 악한 영향력을 피할 수 있는 피난처를 마련한다.
- 신권 정원회 회원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강화하도록 돕는다.

또 저는 우리가 조금 전 사진으로 보았던 운동 선수들과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그들이 자신을 프로 선수라는 **직업인**으로 인식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신권 소유자로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한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이제 그 선수들의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 이 사진은 짐사 시절 벡타이 매는 법을 배우던 짐머 프레딧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복음이 참되다는 지식과 이를 믿는 신앙에 크게 의지합니다. 그 지식과 신앙은 제가 ... 합당한 신권 소유자가 되고 무엇보다 긍정적인 모범이 되도록 인도해 주었습니다.
- 결혼해서 남편이 된 브라이스 하퍼는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부와 명예, 그리고 MVP 선정이 저를 행복하게 해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무언가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 제 자신을 준비시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옳은 길 위에 있고 영원한 가족이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입니다!”
- 선교사 시절 대니얼 소렌슨의 모습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훌륭한 작전집은 각 팀원의 재능과 강점을 잘 활용하는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르침을 연구하고 실천하면서 신권으로 봉사하기 위해 제



짐머 프레딧



브라이스 하퍼



대니얼 소렌슨



제레미 거스리





장점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 현재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는 제레미 거스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열두 살 집사였을 때 ... 저는 ‘이 생은 ...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할 시간이라’라고 영이 제게 증거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전략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행동으로 옮기고 구주를 통해 회개하는 것입니다. ... 전략서는 거룩한 경전들과 살아 있는 선지자들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이 사진은 자바리 파커가 장로 직분에 성임될 때의 모습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침례받겠다는 결정을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어떤 사람이 되었을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 제 삶에서 매일 저를 인도해 주시는

- 하나님이 계심에 정말 감사합니다.”
- 현재 지부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는 리카르도 로하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신권으로 [우리는] 그분의 사업을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수호하는 일에서 ‘강하고 담대하라’<sup>3</sup>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이 지식은 그가 경기장에서, 또한 신권 소유자로서 성공을 거두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 여기 선교사인 테이섬 힐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의 삶에서 훌륭한 전략서가 되어 왔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그 안에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저는 삶에서 큰 평안과 행복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제 노력을 기쁘게 여기신다는 것을 압니다.”
  - 이것은 네 세대가 함께한, 윌리엄 호포아테의 아들의 자녀 축복 사진입니다. 그는 이 복음이 “사탄의 전략을 판별하게 도와주었고 나아가 대적의 불화살을 견디며 다른 이들을 더 잘 섬기게 하는 영적인 힘을 제공해 주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자 그분의 거룩한 신권 소유자라는 자신의 **더 높고 더 거룩한** 정체성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영원한 정체성을 늘 기억하면서, 유혹과 역경이 닥칠 때 여러분을 인도해 줄, 신권 소유자를 위한 작전과 전략서를 만드십시오. 공격 및 방어 전술을 모두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공격 전술은 간증을 강화하고, 협착하고

좁은 길에서 벗어나지 않겠다는 결의를 다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는 규칙적인 기도, 경전 공부, 교회 및 성전 참석, 십일조 바치기,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소책자에 나오는 권고 따르기 등이 포함됩니다.

**방어 전술**에는 어떻게 유혹에 맞설지 미리 계획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표준을 낮추고 타협하라는 유혹에 직면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할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럴 때를 대비해 전략서가 필요합니다.

오늘 별로 기도하고 싶지 않은가요? 여러분이 미리 짜 놓았던 작전을 실행할 때입니다.

간증이 약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까? 그런 상황에 대비한 작전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 하나님의 시각에서 본 올스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신권 소유자입니다. 여러분은 쇠막대를 꼭 붙들겠다는 결심을 통해 여러분이 창조된 목적인 영원한 존재로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고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특별한 것 하나 없고, 뛰어난 재목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연약한 것들이 나아와 힘 있고 강한 것들을 부수리니”<sup>4</sup>

여러분이 연약하다고 느끼니까? 하찮은



자바리 파커



리카르도 로하스



테이섬 힐



윌리엄 호포아테



존재라 여겨집니까?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방금 출전 명단에 들어갔습니다.

자신이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까? 남보다 못한 사람으로 여겨집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상대인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 전장에 들어서는 다윗의 이야기만큼 훌륭한 예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 의지하며 계획을 마련해 둔 다윗은 자신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까지 구했습니다!<sup>5</sup> 여러분이 주님의 편에 서기 위해 용기를 낼 때, 그분께서는 여러분과 함께하실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sup>6</sup>

그분은 우리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 주시고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힘과 능력을 찾도록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sup>7</sup>

여러분의 믿을 만한 코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분들은 부모님, 감독님, 청남 지도자들입니다. 전략서를 공부하십시오. 경전을 읽으십시오. 현대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공부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입증할 여러분만의 작전을 수립하십시오.

여러분의 영을 강화하고 대적의 올무를 피하도록 여러분이 활용할 기술을 미리 숙지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 여러분을 쓰실 것입니다.

복음에서 떨어져 나가 길을 헤매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관중석에 앉아 멀리서 경기를 지켜보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코치가 그들을 경기에 내보내려 해도 선수 대기석에만 앉아 있으려고 합니다. **그들을 동료 팀원으로서 구조하고, 지지해 주고, 사랑하시기를 여러분에게 권유합니다.**

어떤 이들은 경기에 참가하여 뛰기를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재능이 얼마나 뛰어난지가 아니라 얼마나 기꺼이 경기에 참여하여 뛰기를 바라느냐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등번호가 불리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런 경전의 말씀을 알기 때문입니다. “만일 너희에게 하나님을 섬기려는 소망이 있을진대, 너희는 그 일에 부르심을 받으니라.”<sup>8</sup>

여러분은 출전 선수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권 전략서를 연구하고 그 작전을 실행할 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은 넘어지고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아주 아주 많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넘어지는 것은 여러분이 발전해 나가는 과정의 일부이며, 이를 통해 여러분은 성품을 다듬고 더욱 연민 어린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구주와 그분의 무한한 속죄는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통해 실수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줍니다.

위대한 선수들은 경기의 작은 요소 하나를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 수백 시간을 쏟습니다. 신권 소유자로서 여러분도 그와 같은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만일 넘어진다면, 회개하고 그 경험을 통해 배우십시오. 연습을 거듭하여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게 하십시오. 결국 모든 것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전략서를 공부하시겠습니까?

여러분께 촉구합니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sup>9</sup> 경기에 출전하십시오.

프로 스포츠에서 최정상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소수이지만,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일에서 그리스도를 따를 것을 선택한 사람들은 아주 많습니다.

사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사명입니다. 즉, 주님의 방법을 배우고, 제자의 길에 들어서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살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의지할 때 그분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시각에서 여러분은 올스타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자신이 지니고 있는 거룩한 신권에 합당하게 살겠다는 결심을 하고, 매일 여러분의 신성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노력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과 그렇게 하려는 소망이 생기도록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신권의 권능과, 살아 계신 선지자에 대해,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구주요 구속주로서 그분의 역할에 대해 제 간증을 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어린이와 청소년의 연령에 따른 진급”, 2018년 12월 14일자 제일회장단 서한.
2. 엘마서 34:32.
3. 여호수아 1:9.
4. 교리와 성약 1:19.
5. 사무엘상 17장 참조.
6. 로마서 8:31.
7. 이터서 12:27 참조.
8. 교리와 성약 4:3.
9. 교리와 성약 27:15~18 참조.





칼 비 쿡 장로  
충실인 정원회 회장단

# 정원회: 소속되어 하나가 되는 곳

주님께서서는 여러분이 강한 정원회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모으실 때, 자녀들에게는 소속되고 성장할  
곳이 필요합니다.

2010년, 진리를 찾던 안드레 세바코라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때껏 마음에서 우러나는 기도를 드러 본 적이 없었지만, 한번 시도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선교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안드레에게 물문경 사진이 나와 있는 전도 카드를 주었습니다. 무언가를 느낀 안드레는 선교사들에게 그 책을 팔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교회에 오면 무료로 그

책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sup>1</sup> 안드레는 당시 새로 조직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지부인 아프리카 보츠와나의 모추디 지부에 홀로 참석했습니다. 그 지부에는 사랑이 많고 유대가 돈독한 40여 명의 회원들이 있었습니다.<sup>2</sup> 그들은 다정하게 안드레를 맞아 주었습니다. 그는 선교사 토론을 마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멋진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침례를 받은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드레는 어떻게 계속 활동적으로 남았을까요? 그가 성약의 길에서 계속 발전하도록 도와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한 가지 답은 바로 그의 신권 정원회입니다.<sup>3</sup>

모든 신권 소유자들은 그들이 처한 상황에 상관없이 강한 정원회를 통해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론 신권을 소유하신 어린 형제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이 강한 정원회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이 정원회는 모든 청남 한 명 한 명이 소속감을 느끼는 곳이자 주님의 영이 임하시는 곳이며, 모든 정원회 구성원이 환영받고 소중한 존재로 존중받는 그러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모으실 때, 자녀들에게는 소속되고 성장할 곳이 필요합니다.

정원회 회장단은 저마다 영감을 구하고<sup>4</sup> 모든 정원회 구성원들 간에 사랑과 형제애가 함께하도록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새로운 회원이나 저활동 회원 및 특별한 어려움이 있는 회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십시오.<sup>5</sup> 신권 권능으로 강한 정원회를 만드십시오.<sup>6</sup> 강하고 단합된 정원회는 청남의 인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칩니다.

교회에서 가정이 중심이 되는 복음 학습에 관한 새로운 중점 사항을 발표했을 때,<sup>7</sup> 안드레와 같은 회원들을 떠올리며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공부하지 않거나 복음을 배우고 실천하는 환경이 아닌 가정에서 자라는 청소년들은 어떻게 할니까? 그들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무도 버려져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청남 청년 한 명 한 명을 사랑하십니다. 신권을 소유한 우리는 주님을 대신하여 일합니다. 우리는 가정이 중심이 되는 과정에서 뒷받침해 주는 교회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가정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할 때, 신권 정원회 및 지도자들과 친구들은 도움이 필요한 각 개인과 가정을 돌봅니다.

저는 이러한 것을 직접 목격했으며, 몸소 경험했습니다. 제가 여섯 살이었을 때, 제 부모님은 이혼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와 다섯 자녀를 두고 떠나 버리셨습니다.



보츠와나 모추디의 신권 정원회의 “형제들”.

어머니는 저희를 부양하기 위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어머니는 한동안 본업 외에도 부업을 하셔야만 했던 데다 교육까지 더 받아야 하셨습니다. 자녀들을 돌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부모님, 삼촌, 숙모, 감독님, 가정 복음 교사들이 나서서 천사와 같은 저희 어머니를 도와주셨습니다.

또한 저에게는 정원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저를 사랑하고 지지해 준, 친형제와 다른 없는 제 친구들에게 감사합니다. 저는 정원회에서 소속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 가정 환경 때문에 저를 앞날이 막막한 불우 아동으로 여긴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사실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신권 정원회는 그 가능성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제가 속한 정원회의 도움으로 저는 삶에서 해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앞날이 막막한 불우한 이웃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어떤 면에서는 그러한 이웃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 모인 우리는 모두 힘을 주고받을 수 있는 정원회에 속해 있습니다. 정원회는 “모두는 하나를 위해, 하나는 모두를 위해” 존재하는 곳입니다.<sup>8</sup> 그곳은 우리가 서로 가르치고, 봉사하며, 하나님을 섬기면서 단합과 형제애를 키우는 곳입니다.<sup>9</sup> 그곳은 기적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모추디에 살던 안드레의 정원회에서 일어났던 기적 중 몇 가지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들으시면서, 모든 신권 정원회를 강화해 주는 어떤 원리가 안드레의 정원회에 적용되었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드레는 침례받은 뒤 선교사들과 함께 네 명의 다른 청소년을 가르쳤고, 그들도 뒤이어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정원회에는 다섯 명의 청년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그리고 지부를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투소가 침례를 받으며 청년은 여섯 명이 되었습니다. 투소는 자신의 친구 세 명에게 복음을 나눴으며, 이제 청년 수는 아홉 명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이런 방식으로 모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한 번에 몇 명씩 친구에게서 초대를 받아 모이게 됩니다. 고대 사도 안드레는 구주를 알게 되었을 때 재빨리 자신의 형제인 시몬에게 가서 그를 “데리고 예수께로” 왔습니다.<sup>10</sup> 이와 비슷하게 빌립은 그리스도를 따른 지 얼마 되지 않아 자신의 친구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고 권유했습니다.<sup>11</sup>

모추디에서는 곧 열 번째 청년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선교사들은 열 한 번째 청년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친구에게서 복음의 영향력을 보고 침례를 받은 소년이 열두 번째 청년이 되었습니다.

모추디 지부 회원들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청년들은 “주께로 돌이켜 ... 교회에 연합”했습니다.<sup>12</sup>

물몬경은 그들의 개종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sup>13</sup> 투소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저는 물몬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 시간이 있을 때마다 집에서든 학교에서든 어디에서든지요.”<sup>14</sup>

친구들의 모범 때문에 복음에 관심을 두게 된 오라틸레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친구들이 눈 깜짝할 새에 달라지는 것 같았어요. ... 그들이 학교에 가지고 다니기 시작한 그 조그만 책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친구들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 되었는지를 볼 수 있었어요. ... [저도] 달라지고 싶었지요.”<sup>15</sup>

2년이 채 되지 않은 기간 동안 열두 명의 청년이 모여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가족 중 유일한 교회 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교회라는 가족 안에서 지부 회장인 라크웰라 회장<sup>16</sup>과 장년 선교사 부부인 테일러 장로 내외<sup>17</sup>를 비롯하여 지부의 다른 회원들에게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정원회 지도자인 주니어 형제<sup>18</sup>는 일요일 오후에 청년들을 집으로 초대했으며 그들의 멘토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 청년들은 함께 경전을 공부하고 정기적으로 가정의 밤을 했습니다.

주니어 형제는 그들을 데리고 회원, 선교사들이 가르치는 사람, 그 밖에도 방문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든지 방문했습니다. 열두 명의 청년이 주니어 형제가 모는 트럭 뒤에 뺨뺨하게 올라탔습니다. 그는 두세 명씩 짝을 지어 방문할 가정에 내려 주고 나중에 다시 데리러 왔습니다.

그 청년들은 이제 막 복음에 관해 배우는 중이었기에 많은 것을 알지는 못했지만, 주니어 형제는 그들에게 알고 있는 한두 가지를 방문한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어린 신권 소유자들은 가르치고 기도했으며 교회를 돌아보는 일을 도왔습니다.<sup>19</sup> 그들은 자신의 신권 의무를 완수했으며 봉사의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안드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놀았고, 함께 웃었고, 함께 울었고, 그렇게 형제가 되었습니다.”<sup>20</sup> 실제로 그들은 자신들을 “형제들”이라고 자칭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선교사로 봉사하자는 목표를 함께 세웠습니다. 그들은 가족 중 유일한 교회 회원이었기 때문에 극복해야 할 어려움이 많았지만, 서로 도와 해결해 나갔습니다.

그 청년들은 한 명씩 선교사 부름을 받았습니다. 먼저 선교 사업을 나간 청년들은 아직 준비 중인 친구들에게 편지를 보내 경험을 나누며 선교 사업을 하도록 격려했습니다. 그중 열 한 명의 청년이 선교사로 봉사했습니다.

이 청년들은 자신의 가족에게 복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이 선교 임지에서 가르친 사람들과는 다르지만 그들의 어머니, 자매, 형제, 친구들이 개종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으며 셀 수 없이 많은 이들의 삶이 축복받았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마 그런 기적은 이스라엘의 집합이 속히 이루어지고 있는 아프리카처럼 교회가 왕성히 자라는 곳에서만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추디 지부에서 적용된 원리들이 어디서나 적용 될 수 있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지역을 불문하고, 여러분의 정원회는 활동을 촉진하고 복음을 나눔으로써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한 명의 제자만 친구에게 손을 뻗는다 해도, 그 한 명은 두 명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명은 네 명이, 네 명은 여덟 명이, 여덟 명은 열두 명이 될 수 있습니다. 지부는 와드가 될 수 있습니다.

구주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두세 사람 [이상]이 ...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보라, 저기 내가 그들 가운데 있으리라”<sup>21</sup>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우리는 영의 속삭임을 따르고, 우정을 나누며, 진리를 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물론경을 읽으라고 권유하며,



그들이 우리 구주를 알기 위해 나아올 때 그들을 사랑하며 지지해 줄 수 있습니다.

모추디의 형제들이 함께 여정을 시작하지 1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지금도 그들은 여전히 형제들입니다.

카틀레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거리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마음만은 서로의 곁에 있습니다.”<sup>22</sup>

우리가 속한 신권 정원회에서 당신과 하나가 되라는 주님의 권유를 받아들여, 각각의 정원회가 소속감을 느끼는 곳이자 집합하고 성장하는 곳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이시며 이 일은 그분의 사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주

1. See Mark and Shirley Taylor, comp., *The Band of Brothers* (Mochudi Branch conversion stories and testimonies, 2012–13), 4, Church History Library, Salt Lake City.
2. 개인 서한, Letanang Andre Sebako, Band of Brothers resource files, 2011–19, Church History Library, Salt Lake City.
3.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어떤 사람이 신권을 소유하게 되면, 그는 자기 자신보다 더 큰 것에 속하게 됩니다. 그것은 자기 외부에 있는 것으로, 완전히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무리가 된 자매들”, *성도의 빛*, 1981년 4월호)
4. 러셀 엠 넬슨 회장은 계시를 구하는 방법에 관해 설명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루하루, 수개월에 걸쳐, 수년에 걸쳐 이 과정을 반복한다면, 여러분은 ‘계시의 원리 안에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위한 계시와 우리 삶을 위한 계시”, *리아호나*, 2018년 5월호, 95쪽; 또한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 132쪽 참조.)
5. *지침서 제2권: 교회 관리*(2010), 8.3.2 참조.
6. 감독단 일원과 고문 등 다른 사람들도 도움을 준다. 로널드 에이 래스벤드 장로는 2018년 3월 31일에 발표된 벨기세택 신권 정원회 재조직의 유익 중

하나를 이렇게 설명했다. “이 변화를 통해 감독은 장로 정원회 회장과 상호부조회 회장에게 더 많은 책임을 위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감독과 그의 보좌들은 그들의 주된 의무, 특히 청년들과 아론 신권을 소유한 청년들을 감리하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라! 당당한 군대”, *리아호나*, 2018년 5월호, 59쪽) 천사들도 도울 것이다. 아론 신권 소유자들은 천사의 성역의 열쇠를 지니고 있다.(*교리와 성약* 13:1 참조; see also Dale G. Renlund and Ruth Lybbett Renlund, *The Melchizedek Priesthood* [2018], 26)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통으로 [성역을 베푸는 천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때에는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든 그들은 항상 가까이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 그들의 임무가 매우 중대하며 온 세상에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때때로 그 메시지는 더 개인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때에 따라 천사는 경고하려는 목적을 지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위안을 주며 어려운 시기에 어떠한 형태로든 지비로운 돌보심과 인도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천사의 성역”, *리아호나*, 2008년 11월호, 29쪽) 여러분이 그러한 도움을 받기를 바란다면 “구[한다.] 그러하면 받”을 것이다.(*요한복음* 16:24)

7. 러셀 엠 넬슨, “개회 말씀”, *리아호나*, 2018년 11월호, 7~8쪽.
8. See Alexandre Dumas, *The Three Musketeers* (1844).
9. *지침서 제2권*, 8.1.2 참조.
10. *요한복음* 1:40~42 참조.
11. *요한복음* 1:43~46 참조.
12. 제3니파이 28:23
13. See D. Todd Christofferson, “The Power of the Book of Mormon” (2017 Seminar for New Mission Presidents, June 27, 2017).
14. Thuso Molefe, in Taylor, *The Band of Brothers*, 22.
15. Oratile Molosankwa, in Taylor, *The Band of Brothers*, 31–32.
16. Lucas Rakwela, Mochudi, Botswana.
17. Mark and Shirley Taylor, Idaho, USA.
18. Cilvester Junior Kgosiemang, Mochudi, Botswana.
19. *교리와 성약* 20:46~47, 53~54 참조.
20. 개인 서한, Letanang Andre Sebako, Band of Brothers resource files.
21. *교리와 성약* 6:32.
22. Katlego Mongole, in “Band of Brothers 2nd Generation” (unpublished compilation), 21.



김 비 클라크 장로  
칠십인 정원회

#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그분은 우리가 성약에 따라 생활하고 이스라엘 장로로서의 부름을 영화롭게 하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군중에 둘러싸여 가버나움 근처의 거리를 걷고 계셨을 때<sup>1</sup>, 12년 동안 심각한 병으로 고통받은 한 여인이 손을 뻗어 그분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녀는 즉시 치유되었습니다.<sup>2</sup>

경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에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아시고<sup>3</sup>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sup>4</sup>,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 보시니”<sup>5</sup>,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sup>6</sup>,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주니.”<sup>7</sup>

예수님은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sup>8</sup>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여인을 구하셨습니다. 그녀의 육신은 치유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그녀를 보려고 고개를 돌리셨을 때, 그녀는 그분을 믿는 신앙을 나타냈고 그분은 그녀의 마음도 치유해 주셨습니다.<sup>9</sup> 그분은 그녀에게 사랑으로 말씀하셨으며, 인정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게 해 주셨으며, 그분의 평안으로 그녀를 축복하셨습니다.<sup>10</sup>

형제 여러분, 거룩한 신권의 소유자로서 우리는 구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주님께서 이 사업의 책임을 이스라엘 장로들의 어깨에 확실히 부여하셨습니다.<sup>11</sup>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영감에 찬 명령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자매들과 함께 일하면서, 더 성스러운 방법으로 성역을 베풀고 휘장 양편에서 이스라엘의 집합에 박차를 가하며 우리의 가정을 신앙과 복음 학습의 성소로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 세상을

준비시켜야 합니다.<sup>12</sup>

모든 일에 그러하셨듯이 구주께서는 우리에게 방법을 보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아버지를 바라보고 섬기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섬겨야 합니다.<sup>13</sup> 구주께서는 선지자 조셉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든지 나를 바라보라. 의심하지 말며, 무서워 말라.

내 옆구리를 찌른 상처와 또한 내 손과 발에 있는 못 자국을 보라. 충실하라. 내 계명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는 천국을 상속받으리라.”<sup>14</sup>

전세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우리의 구주와 구속주가 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꼬”라고 물으셨을 때,<sup>15</sup> 예수께서 답하시기를,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sup>16</sup>

“아버지여,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영광이 영원토록 당신의 것이 되기를 원하나이다”<sup>17</sup>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필멸의 삶 내내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분은 겸손과 온유함과 사랑으로 아버지의 교리를 가르치셨고, 아버지께서 주신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의 일을 하셨습니다.<sup>18</sup>







예수님은 그분의 마음을 아버지께 바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느니라.]”<sup>19</sup>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느니라.]”<sup>20</sup>,

“내가 ...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sup>21</sup>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난을 겪으시며 그분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sup>22</sup>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무슨 생각을 하든지 나를 바라보라” 그리고 그분의 부활한 몸의 “상처를 보라”고 하실 때, 그 부르심은 죄와 세상으로부터 돌아서고 그분께로 향하며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라는 부르심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교리를 가르치고 그분의 방법대로 그분의 일을 하라는 부르심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우리의 뜻을 버리고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그분의 구속 권능을 통해 그분과 같이 되라는 부르심입니다.<sup>23</sup>

형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분은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하며 순종적이고 그분의 사랑으로 가득 찬 **주님의** 이스라엘 장로가 되도록 축복하실 것입니다.<sup>24</sup>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복음과 교회로부터 오는 기쁨과 축복을 휘장 양편에 있는 우리의 가족과 형제 자매들에게 가져다줄 것입니다.

러셀 엠 넬슨 회장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런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강건한 제자가 되는 것은 수월하게 혹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초점이 구주와 그분의 복음에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고정하다’는 영문 rivet의 번역어로 쓰임—울긴이] 우리의 **모든** 생각에서 그분만을 바라보는 것은 정신적으로 많은 노력을 요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우리의 의심과 두려움은 사라집니다.”<sup>25</sup>

**고정하다(Rivet)**라는 말은 훌륭한 말입니다. 그것은 단단하게 매는 것, 즉 끌어당겨 완전히 붙드는 것을 의미합니다.<sup>26</sup>

우리는 성약에 따라 생활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에 우리의 초점을 단단히 고정합니다.

우리가 성약에 따라 살 때, 그것은 우리가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매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춘, 간단한 신앙의 행동으로 가득 찬 성약의 삶이 됩니다.<sup>27</sup> 즉 **그분의** 이름으로 드리는 간절한 기도, **그분의** 말씀을 흠족히 취하는 것, 우리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 **그분께** 돌이키는 것,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 성찬을 취하고 **그분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 **그분의** 거룩한 성전에서 가능한 한 자주 예배드리는 것, 그리고 **그분의** 거룩한 신권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는 데 행사하는 것으로 말입니다.

이처럼 성약에 헌신하는 행동을 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구주의 구속하는 권능과 성결하게 하는 성신의 영향력을 향해 열립니다. 구주께서는 말씀에 말씀을 더하여 우리의 깊은 본성을 바꾸시고, 우리는 그분께로 더 깊이 돌이키게 되며 우리가



맺은 성약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sup>28</sup>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약속은 바위처럼 단단한 결심, 즉 우리의 가장 깊은 소망이 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은 우리를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채워 줍니다.<sup>29</sup> 성약은 더이상 따라야 할 규칙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감을 주고 우리를 인도해 주며 우리의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시켜 주는 사랑받는 원리가 됩니다.<sup>30</sup>

이러한 헌신의 행동은 나이에 관계 없이 모두가 할 수 있습니다. 아론 신권을 가진 청년 여러분, 오늘 밤 제가 말한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적용됩니다. 저는 여러분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매주 수백만 후기 성도들이 성스러운 의식에 참여하고 성약을 맺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성찬을 준비하거나 축복하거나 전달할 때, 성역을 베풀 때, 대리 침례를 행할 때, 활동에 친구를 초대할 때, 여러분이 속한 정원회의 일원을 구조할 때, 여러분은 구원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매일 성약에 따라 생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주님의 신뢰받는 종이 될 것이고, 미래에는 강인한 이스라엘의 장로가 될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벽차게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구주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sup>31</sup>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sup>32</sup> 예수님께서 그분의 아버지를 바라보고 위대한 속죄의 희생을 완수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 중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가끔 우리는 정체되기도 하고 마음이 흐트러지거나 용기를 잃기도 하며 실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그분은 우리를 들어 올려 주시고 죄를 씻어 주시며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오래 참으시며 친절하십니다. 그분의 구속하시는 사랑은 결코 끝나지 않으며 결코 시들지 않습니다.<sup>33</sup> 그분은 우리가 성약에 따라 생활하고 이스라엘 장로로서의 부름을 영화롭게 하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것 “곧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아버지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내심을 받은 생명과 빛, 영과 권능”<sup>34</sup>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신성한 빛과 권능이 우리의 삶에 흘러 들어오면, 세 가지 기적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계시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셨던 것처럼 보기 시작합니다. 즉, 외양의 아래에 있는 중심을 볼 수 있게 됩니다.<sup>35</sup>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볼 때, 그분은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분의 사랑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그분의 도움으로, 우리가 섬기는 이들이 구주를 볼 것이고 그분의 사랑을 느낄 것입니다.<sup>36</sup>

둘째, 우리는 신권 권능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을 축복하고 인도하며, 보호하고 강화하고 치유할 수 있고! ... 사랑하는 이들에게 기적을 가져다주고 결혼과 가정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권세와 권능을 갖게 됩니다.<sup>37</sup>

셋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그분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르칠 때 그분이 가르치실 것입니다. 우리가 위안을 줄 때 그분이 위안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할 때 그분이 축복하실 것입니다.<sup>38</sup>

형제 여러분, 우리에게 기뻐할 만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성약에 따라 살며 우리의 초점을 그분께 고정할 때, 우리는 자매들과 함께 좀 더 거룩한 방법으로 성역을 베풀 것이고 휘장의 양면에서 흠어진 이스라엘을 모을 것이며 우리의 가족을 강화하고 인봉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 세상을 준비시킬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간증드립니다.

우리가 모두 각자 무슨 생각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이 말씀을 마칩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제임스 이 탈매지는 이 치유가 일어났을 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지방”에 계셨다고 적었다. (예수 그리스도 [1988], 316쪽 참조)
2. 누가복음 8:43~44 참조; 또한 마태복음 9:20~21;



마가복음 5:25~29 참조.

- 3. 누가복음 8:46.
- 4. 마가복음 5:30.
- 5. 마가복음 5:32.
- 6. 누가복음 8:47.
- 7. 마가복음 5:33.
- 8. 누가복음 8:48.
- 9. 제임스 이 탈매지는 그 여인에게 육체적인 치유보다 더 가치가 있었던 것은 구주가 그녀의 마음의 소망을 인정해 주신 것과, 그녀의 신앙이 그분에게 받아들여졌다는 데 대한 그녀의 확신이었다고 적었다. (예수 그리스도, 321쪽 참조) 예수님은 그녀를 육체적, 영적으로 치유해 주셨고 그녀에게 구원으로 가는 길을 열어 주셨다.
- 10. 이 치유가 일어났을 때 회당장인 아이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 아이로의 딸을 죽음으로부터 살리려고 아이로의 집으로 가시던 길이었다.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신 그 여인은 자신의 병 때문에 회당에서 쫓겨났을 것이다. 예수님이 그녀를 치유하셨을 때, 그분은 아이로를 포함하여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에게 그녀가 사랑받는 딸이고 신앙의 여인이며 몸과 마음이 온전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해 주셨다.
- 11. 와드에 단일한 벨기세택 신권 정원회를 조직하도록 하는 변경 사항에 관한 논의는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 정원회"(리아호나, 2018년 5월호, 55~58쪽)를 참조한다. 이 변경 사항의 목적은 성역 웹사이트의 '자주 묻는 질문' 부분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다. "와드에 하나의 벨기세택 신권 정원회를 두는 것은 신권 소유자들을 하나로 단합함으로써 구원 사업의 모든 면에서 더 큰 성취를 거두기 위함이다. 여기에는 이전에 대제사 그룹 지도자가 이끌던 성전 및 가족 역사 사업 등이 포함된다."("성역: 자주 묻는 질문", 질문 8번, minist ering.ChurchofJesusChrist.org)

그에 따른 세부 변경 사항은 와드 선교 지도자와 새로운 와드 성전 및 가족 역사 지도자를 장로 정원회 회장단의 지휘 아래에 둔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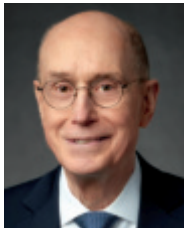
가정에 대한 성역은 이미 회장단의 지휘 아래에 있지만, 이번 변경으로 인해 장로 정원회가 상호부조회의 보조를 받아 구원 사업을 이끄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물론 와드 내의 구원 사업의 열쇠는 감독에게 있지만, 감독은 그 사업의 책임과 권세를 장로 정원회 회장에게 위임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감독은 자신의 가족에게 성역을 행하고, 청소년을 강화하고 이스라엘의 판사로서 봉사하는 데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

- 12. 러셀 엠 넬슨, "하나님의 일 부지런히 하세", 리아호나, 2018년 5월호, 118~119쪽; 러셀 엠 넬슨, "모범적인 후기 성도가 되십시오", 리아호나, 2018년 11월호, 113~114쪽; 쿤넬 엠 엘 쿡,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깊은 지속적인 개심", 리아호나, 2018년 11월호, 8~12쪽 참조.
- 13.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다. (요한복음 17:18 참조)
- 14. 교리와 성약 6:36~37.
- 15. 아브라함서 3:27.
- 16. 아브라함서 3:27.
- 17. 모세서 4:2.
- 18. 경전에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것과 아버지의 교리를 가르치시는 것에 관해 언급하신 것을 기록한 수많은 구절이 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5:19(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본 대로 행하시); 요한복음 5:36(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할 일을 주심); 요한복음 8:26(예수님은 아버지께 배운 것을 가르치심); 요한복음 14:28(예수님께서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라고 선언하심); 제3니파이 11:32(그분의 교리는 아버지께서 그분에게 주신 교리임) 참조.
- 19. 요한복음 14:31.
- 20. 요한복음 8:29.
- 21. 요한복음 6:38; 또한 요한복음 5:30 참조.
- 22. 누가복음 22:42.
- 23. 이 단락(교리와 성약 6:36~37 참조)의 보라라는 단어에는 주님의 부름에 응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는 '마주하다(혹은 향하다)', '관심을 가지다', '의지하다', '찾다',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다', '끝으로서 염두에 두다', '기대하거나 예상하다'라는 의미를 가진다. (see merriam-webster.com, "look")
- 24. 교리와 성약 121:41~42 참조. 경전에 언급된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은혜를 통해서 받는 영의 은사이다. 그 성품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그분의 장로들이 되게 한다.
- 25. 러셀 엠 넬슨,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우리 삶에 끌어오십시오", 리아호나, 2017년 5월호, 39쪽.
- 26. See merriam-webster.com, "rivet."
- 27. 성약의 삶의 개념에 관한 논의는 다음을 참조한다. see Donald L. Hallstrom, "Living a Covenant Life," *Ensign*, June 2013, 46–49. 이 기사는 도널드 엘 홀스트롬 장로가 2011년 5월에 브리검 영 대학교-아이다호에서 한 말씀에서 발췌한 것이다. 전문을 보고 싶다면, 다음을 참조한다. Donald L. Hallstrom, "A Covenant Life" (Brigham Young University - Idaho devotional, May 10, 2011), byui.edu.
- 28. 예레미야 31:31~33 참조. 이 기사에서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의 집에 새 언약을 맺으실 것이라고 공표하신다. 마음에 기록된 성약 혹은 우리의 마음에 살아 있는 성약의 이미지는 바울의 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고린도후서 3:3; 히브리서 8:10 참조) 돌이킴과 마음에 관한 논의는 다음을 참조한다.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주께로 돌이켰고", 리아호나, 2012년 11월호, 106~109쪽.
- 29. 빵을 축복하는 성찬 기도는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 사이의 성약 관계의 본질을 아름답게 표현한다.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성약을 맺지만, 그 성약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약속된 축복을 받을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이다. 그분은 중재자이다. 성찬식에서 우리는 아버지께 우리가 항상 그의 영(성신)과 함께 하도록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고자 하며, 항상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자 함을 증거한다. (이를 통해 사실상 그분과 새롭게 성약을 맺는다)

- 아버지의 약속에 포함된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고 강화하는 권능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러셀 엠 넬슨 회장은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기쁨의 근원이다"라고 가르쳤다. ("기쁨과 영적 생존", 리아호나, 2016년 11월호, 82쪽 참조)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단단히 고정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던 기쁨을 가져다 준다.
- 30. 에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은 태도와 성향이 변화하는 것의 영향을 잘 포착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순종이 더이상 번거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것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부여하실 것입니다." (in Donald L. Staheli, "Obedience—Life's Great Challenge," *Ensign*, May 1998, 82)
- 31. 요한복음 16:32.
- 32. 아버지와 아들께서 우리의 삶에 관해 가지는 걱정, 관심, 사랑, 관여에 관한 사실과 이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는 다음을 참조한다. 제프리 알 홀런드, "하나님의 위대하심", 리아호나, 2003년 11월호, 70~73쪽; 헨리 비 아이어링, "나와 동행하라", 리아호나, 2017년 5월호, 82~85쪽. 또한 마태복음 18:20; 28:20; 교리와 성약 6:32; 29:5; 38:7; 61:36; 84:88 참조.
- 33. 로마서 8:35~39; 고린도전서 13:1~8; 모로나이어 7:46~47 참조.
- 34. 교리와 성약 50:27 주님께서 성임받고 파송되는 자 모두에게 이 약속을 주시며 이 약속은 그에게 주어진 특정 임무와 관련되며 그것에 제한된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가 비록 가장 작은 자요 모두의 종일지라도, 가장 큰 자가 되도록 임명되느니라.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의 소유자니, 이는 모든 것 곧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아버지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내심을 받은 생명과 빛, 영과 권능이 다 그에게 약속되어 있음이니라. 그러나 모든 죄에서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된 자가 아니면, 어떠한 자도 모든 것의 소유자가 아니니라. 만일 너희가 모든 죄에서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지이다.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교리와 성약 50:26~29)
- 35. 사무엘상 16:7; 고린도전서 2:14 참조.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과 같이 보는 축복의 예는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이 감독이었을 때 범죄를 저질렀던 한 젊은이와 관련해 한 경험을 참조한다. 주님은 그때 아이어링 감독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를 보듯이 너도 그를 보게 하리라." ("나와 동행하라", 84쪽)
- 36. 이것은 구주께서 풍요 땅의 성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과 명령이다. 주님은 그들에게 일상을 살아가며 다른 이들에게 그분께 오라고 초대할 때 그분을 빛으로 들어 세상을 비출 수 있도록, 그분의 빛과 모범을 지니고 살도록 명하셨다.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 그렇게 살고 그렇게 초대했을 때, 사람들은 주님의 종들에게서 주님을 보고 느꼈을 것이다. (제3니파이 18:24~25 참조.)
- 37. 러셀 엠 넬슨, "신권 권능의 값", 리아호나, 2016년 5월호, 69쪽 참조.
- 38. 교리와 성약 84:88 참조.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 지지하는 신앙을 통해 받는 힘

손을 들어 지지함으로써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들을 지지하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저는 신권 지도자들이 자신이 봉사하는 사람들이 신앙으로 지지해 주는 데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분들의 목소리에서, 그들의 깊은 감사가 진심에서 우러나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에서 봉사하는 당신의 종들을 지지해 준 여러분에게 보내시는 감사를 전하려 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신앙으로 다른 이들을 지지하는 그 힘을 행사하고 키우기를 권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태어나기 전부터 그러한 힘을 나타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살았던 영의 세계에 관해 아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한 계획을 발표하셨으며, 우리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영의 형제였던 루시퍼는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그 계획에 반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이신 여호와와 그 계획을 지지했습니다. 루시퍼는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지지하는 여호와께서 승리하셨고, 그분은 우리의 구주가 되기를 자청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필멸의 상태에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를 지지했음을 보여 줍니다. 필멸의 삶에서 마주하게 될 어려움에 관해 거의 알지 못한 채,

행복의 계획과 그 계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지지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지지하는 신앙은 이생에서도 우리의 행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물몬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알기 위해 기도해 보라는 선교사의 권유를 받아들였을 때, 여러분은 주님의 종을 지지하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침례받으라는 권유를 받아들였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겸손한 종을 지지한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머리에 손을 얹고 성신의 은사를 주도록 했을 때, 여러분은 그 사람을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로서 지지했습니다.

그 이후로 여러분은 충실히 봉사함으로써 여러분에게 신권을 부여한 사람들과 여러분을 그 신권 직분에 성임한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지지했습니다.

신권과 관련된 경험을 하기 시작할 무렵에는, 그렇게 지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을 신뢰하는 단순한 행사였습니다. 이제 여러분 중에는 하나님의 종을 지지하는 것이 그 이상을 의미하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부르신 모든 사람을 지지할지 말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것이 어떤 부름이든지 말입니다. 세계 도처에서 이루어지는 대회에서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번 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모임에서는 하나님의 종인 남성과 여성들의 이름이 호명되고, 여러분은 손을 들어 지지하라는 권유를 받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을 지지하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반대로 신앙으로 지지하겠다고 정식으로 약속할 수도 있습니다. 손을 들어 지지함으로써,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들을 지지하겠다고 그분께 약속합니다.

이분들은 여러분처럼 불안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약속을 지키려면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음을 믿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약속을 지키면 영원한 행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슬픔과 상상할 수 없는 아픔까지도 겪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감독, 스테이크 회장, 총관리 직원 및 교회의 본부 직원들을 지지하는지를 묻는 질문을 받아 본 적이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대회에서 직원들과 지도자들을 지지하도록 요청받을 때나 감독이나 스테이크 회장과 접견할 때, 그런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깊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질문들을 미리 자문해 보기를 권고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최근에 했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여러분을 접견하실 것임을 염두에 두고, 그때 어떻게 답할 것인지 생각해 보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를 준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 해 볼 수 있습니다.

1. 내가 지지하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의 인간적인 약점에 대해 생각하거나 말할 적이 있는가?
2. 주님이 그들을 이끄신다는 증거를 찾아보았는가?
3. 그들의 지도를 충실하게 성심껏 따랐는가?
4. 그들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에 관해 이야기한 적이 있는가?
5. 그들의 이름을 언급하며 사랑을 담아 그들을 위해 자주 기도하는가?

우리 대다수는 이러한 질문들을 생각해 볼 때 다소 불편함이나 회개할 필요성을 느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을 불의하게 판단하지 말라고 명하셨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기가 힘듭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거의 모든 일에서 우리는 그들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삶 전반에 걸쳐 우리는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합니다. 그렇게 하는 데에는 많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 중에는 합리적인 것도 일부 있지만, 많은 경우 불합리한 이유들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조지 큐 캐넌 회장님의 말씀을 빌려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그분의 말씀에 진리가 담겨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이 정죄받아야 한다면 그들을 정죄하는 것은 당신만이 하실 수 있는 특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들을 권척하거나 정죄할 권리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신앙이 얼마나 강하든지, 신권 직분이 얼마나 높든지 간에,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비방하거나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권세 받은 자들에 대해 불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언짢게 하는 것입니다. 성신은 그러한 자에게서 물러갈 것이며 그는 어둠 속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 조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이해되지 않습니까?”<sup>1</sup>

제가 주의 깊게 관찰한 바에 따르면, 전 세계의 교회 회원들은 대부분 서로에게, 그리고 자신들을 감리하는 분들에게 충실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나아질 수 있으며, 나아져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지지하는 힘을 더욱 키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신앙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번 대회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네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연사들이 권유하는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찾아보고 오늘 당장 행동에 옮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들을 지지하는 우리의 힘이 커질 것입니다.
2. 연사들이 말할 때, 성신이 그들의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는 특정한 사람들의 마음에 전해 주시도록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알게 될 때, 그 지도자들을 지지하는 우리의 힘이 커질 것입니다.

3. 메시지를 전하는 특정한 연사들이 축복받고 강해지도록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강해진 것을 볼 때, 그들을 지지하는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며 이는 지속될 것입니다.
4. 연사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 기도에 대한 응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응답은 올 것이며, 응답이 올 때 주님의 모든 종들을 지지하는 우리의 신앙이 커질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지지하는 힘을 키우는 것 외에도, 그러한 힘을 키울 수 있는 또 다른 환경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더욱 큰 축복을 가져다줄 수 있습니다. 바로 가정과 가족입니다.

가정에서 아버지와 함께 사는 어린 신권 소유자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제 경험을 들어, 여러분의 지지하는 신앙을 느낀다는 것이 아버지에게 어떤 의미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아버지는 항상 자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에게는 여러분이 아는 것보다 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 아버지는 눈앞에 있는 문제를 헤쳐 나갈 방법을 알지 못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아버지에게 존경을 보인다면 아버지에게 도움이 조금 될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사랑을 보인다면 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델린 에이치 옥스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다음과 같은 진심 어린 말입니다. “아빠, 아빠를 위해 기도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아빠를 도와주실 거라고 느꼈어요. 모든 게 잘 될 거예요. 정말 그럴 거예요.”

이런 말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할 때에도 커다란 힘을 발휘합니다. 아들이 혹 영적인 문제에서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을 때, 그 아들은 자신이 실패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알기 위해 기도한 다음, 성신의 영감을 받아 놀라게도 여러분은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아들아, 나는 언제나 너를 지지한다. 주님은 너를 사랑하시며, 그분의 도움으로 너는 그분께 다시 돌아갈 수 있단다. 너는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할 것을 나는 안다. 사랑한다.”

신권 정의회와 가정에서 서로를 지지하는 신앙을 키우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시온을 건설하는 방법입니다. 그분의 도움으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온 마음과 능력과 생각과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려는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 안에서 성장할 때, 우리의 마음은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회개하도록 이끌 것입니다. 주님과 서로에 대한 자신감이 커질 것입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점점 하나가 되어 갈 것입니다.<sup>2</sup>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아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예수는 살아 계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교회는 그분의 교회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분의 신권이 있습니다. 주님은 신권을 행사하고 서로를 지지하는 힘을 키우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존중하실 것입니다. 이 간증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

주

1. *Gospel Truth: Discourses and Writings of George Q. Cannon*, ed. Jerreld L. Newquist (1974), 1:278.  
2. 교리와 성약 35:2 참조.

## 선택의 결과

**우리가 대안을 검토해 보고 그것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상고해 본다면 더 나은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미래에 관해 생각해 보게 되며, 필멸의 삶의 목적을 알게 되고, 필멸의 삶 이후의 삶이 존재함을 알게 됩니다. 회복된 복음은 미래에 관한 위대한 개념들을 가르쳐 오늘날 우리가 하는 행동의 지침이 됩니다.

반면에, 오로지 현재에만 관심을 기울이면서 오늘을 소비하고 즐기며,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미래를 고려한다면, 우리의 현재와 미래는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당면한 결정을 내릴 때, 우리는 항상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라고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1.

무언가를 하는 것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결정들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 해 전에 미국의 한 스테이크 대회에서 이런 선택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아름다운 대학 캠퍼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잔디밭에는 젊은 학생들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이야기한 연사는 그들이 아름다운 활엽수 나무 아래에서 놓고





있는, 크고 털이 무성한 꼬리가 있는 귀여운 다람쥐를 바라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다람쥐는 때로는 땅바닥에서, 때로는 나무 몸통 주위에서 오르락내리락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익숙한 광경이 학생들의 시선을 끌었을까요?

근처의 잔디밭에는 아일랜드 사냥개가 몸을 쪽 편 채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 사냥개는 학생들의 호기심의 대상이었고, 다람쥐는 그의 목표물이었습니다. 다람쥐가 나무 주위를 돌면서 잠깐씩 보이지 않을 때마다, 사냥개는 조용하게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걸보기에 무관심한 듯한 자세를 다시 취하곤 했습니다. 이것이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했습니다. 조용하게 그리고 꼼짝도 하지 않은 채, 학생들의 시선은 결과가 점점 뚜렷해지는 그 사건에 쏠렸습니다.

마침내 사냥개는 달려들면 물 수 있을 만큼 다람쥐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다음 순간 학생들은 놀라 비명을 지르며 달려가 개에게서 그 작은 동물을 떼어놓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다람쥐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 군중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언제든지 팔을 흔들거나 소리쳐서 다람쥐에게 경고할 수 있었지만,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결과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그저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아무도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예측했던 일이 벌어지고 나자, 모두가 결과를 막으려고 달려갔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들은 눈물 어린 후회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실화는 일종의 비유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자신의 삶에서,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삶과 환경에서 일어나는 일에 적용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나 소중한 여기는 물품에 위험이 드리우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침묵하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라고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그 결과가 즉각적이고 심각한 경우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아직 남아



있는 동안 적절하게 경고의 음성을 발하거나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가 방금 설명한 결정은 어떤 행동을 하거나 전혀 하지 않는 것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일반적인 것은 한 행동과 다른 행동 사이에서 하는 선택입니다. 여기에는 선과 악 사이의 선택이 포함되지만, 두 가지 선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경우가 더욱 빈번합니다. 이런 때에도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자문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리는 종종 시간을 보내는 방법에 관련된 두 가지 좋은 일 사이에서 많은 선택을 합니다. 비디오 게임을 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TV를 보거나 휴대 전화로 통화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 각각에 대한 “기회비용”이 존재합니다. 즉, 한 가지 일을 하는 데 시간을 보내면 다른 일을 할 기회가 사라집니다. 비록 그것이 그 자체로 완벽히 좋은 일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한 가지 활동에 시간을 쏟고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신중하게 평가해 보아야 합니다.

예전에 저는 “좋은 것,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저 어떤 것이 **좋다**는 이유만으로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우리가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좋은 일들을 다 하기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모자랍니다.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것들이 있으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활에서 우선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들입니다. ... 우리는 더 좋은 것 또는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 몇 가지 좋은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sup>1</sup>

긴 안목으로 보십시오. 현재 우리가 내리는 결정은 우리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교육을 받고, 복음을 공부하고, 성찬을 취함으로써 성약을 새롭게 하고, 성전에 참석하는 것의 중요성을 기억하십시오.

## II.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라는 질문은 우리가 자신을 규정하거나 생각하는 방식을 결정할 때에도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가 영생에 이를 잠재력과 운명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직업, 인종, 신체적 특징, 또는 명예를 포함하여 우리를 규정짓는 모든 다른 것들은 영원한 관점에서는 일시적이거나 사소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노력할 수 있는 목표에 한계를 두고 자신을 규정하거나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는 말을 보거나 읽게 될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주는 가르침과 권고를 왜 여러분의 지도자들이 전하는지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하며,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우리를 위한 그분들의 계획은 “위대한 행복의 계획”입니다.(앨마서 42:8) 그 계획과 그분들의 계명과 의식과 성약은 우리를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과 기쁨으로 인도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종으로서, 우리는 그분들이 성신을 통해 지시하시는 대로 가르치고 권고합니다. 우리는 참된 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모든 은사 가운데서 가장 큰 것”(교리와 성약 14:7)인 영생으로 가는 좁은 길로 그분들이 그려 주신 대로 여러분이 따라가도록 권고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바램이 없습니다.



## III.

현재 결정이 미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중요한 미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현재의 희생을 선택한 예화입니다.

콜롬비아 칼리에서 열린 스테이크 대회에서, 한 자매님이 가장 가까운 성전이 먼 페루에 있을 때, 그녀와 그녀의 약혼자가 성전에서 결혼하기를 얼마나 소망하였는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버스 요금을 마련하려고 오랫동안 돈을 모았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보고타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도착했을 때, 페루 리마로 가는 버스의 좌석이 모두 팔린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결혼을 미룬 채 집에 갈 수도 있었고 성전 밖에서 결혼할 수도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다른 대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들이 5일 밤낮을 버스 바닥에 기꺼이 앉아 가려고 한다면, 리마로 가는 버스에 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비록 몇몇 승객들이 기쁨 자리를 내어 주어, 그들이 몸을 펴고 누울 수 있었지만, 그녀는 그 여행이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자매님의 말씀에서 깊은 인상을 받은 부분은, 이 여행으로 복음과 성전결혼에 관한 그들의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녀가 남편과 함께 그렇게 성전에 가게 된 것에 감사하다고 한 말이었습니다. 주님은 희생에서 오는 성장으로 그들에게 보상하셨습니다. 그녀는 또한 그들의

5일간의 성전 여행이, 희생 없이 성전을 많이 방문하는 것보다 그들의 영성을 훨씬 더 많이 쌓게 했음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 간증을 듣고 몇 년 동안 그 젊은 부부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즉 성전에서 결혼하는 데 필요한 희생을 포기했다면, 그 부부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을지 궁금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삶에서 무수한 선택을 합니다. 일부는 크고 어떤 것은 작아 보입니다. 되돌아보면, 우리는 인생에서 우리가 한 선택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안을 검토해 보고 그것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상고해 본다면 더 나은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결과를 염두에 두고 시작하라는 러셀 엠 넬슨 회장님의 조언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sup>2</sup> 우리에게 그 결과는 항상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은사 가운데서 가장 큰 은사인 영생으로 향하는 성약의 길 위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간증하며, 그분의 속죄와 영원한 복음 진리들의 권능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합니다. 아멘. ■

## 주

1. 델린 에이치 욱스, “좋은 것,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리아호나*, 2007년 11월호, 104, 107쪽.
2. 러셀 엠 넬슨,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 *리아호나*, 2018년 4월호, 7쪽 참조.





#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총관리 직원 및 교회 본부 직원

## 제일회장단



달린 에이치 옥스  
제1보좌



러셀 엠 넬슨  
회장



헨리 비 아이어링  
제2보좌

## 십이사도 정원회



엠 엠 라셀 벨라드



제프리 알 홀런드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쿠엔틴 엠 쿡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닐 앤더슨



로널드 에이 래스밴드



게리 이 스티븐슨



데이비드 지 렌랜드



게릿 더블유 공



올리세스 소아레스

## 철심인 회장단



엠 엠트니 클래터버크



패트릭 키아른



캄 비 쿡



로버트 시 게이



토머스 엠 벤슨



조세 에이 테일러



카를로스 에이 고드디













러셀 엠 넬슨 회장

# 우리는 더 잘할 수 있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 진지하게 회개하는 시간이 여러분 삶에서 필수 불가결한 부분이 되게 하여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권능을 가지고 신권을 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신권 소유자들로 구성된 주님의 군대가 한 자리에 모인 이 장엄한 광경은 참으로 고무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선을 위해 싸우는 참으로 용맹한 군대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며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는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주님께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주셨던 다음 가르침에 마음이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세대에게 회개 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sup>1</sup> 경전에서 종종 반복되고 있는 주님의 이 선언은<sup>2</sup> 이런 자명한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모든 사람이 회개해야 하는가?” 답은 “그렇다”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형벌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면 피해야 하는 것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형벌이라는 이런 느낌은 사탄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sup>3</sup> 주님께서는 팔을 벌리고 서서<sup>4</sup> 기꺼이 우리를 치유하고, 용서하며, 깨끗이 하고, 강화하며, 정결하고 성결하게 하기를 바라시는 데도 말입니다.

신약전서에 나오는 회개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metanoeo* 입니다. 접두사 *meta-*는 “변화”를 뜻합니다. 접미사 *-noeo*는 “마음”, “지식”, “영”, “호흡”이란 의미를 지닌 그리스어와 연관되어 있습니다.<sup>5</sup>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회개하라”<sup>6</sup>고 명하셨을 때,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지식과 영, 심지어 호흡까지 바꾸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사랑하는 방식, 사교하는 방식, 봉사하고 시간을 보내는 방식, 아내를 대하는 방식, 자녀를 가르치는 방식, 그리고 우리 육신을 대하는 방식까지도 바꾸기를 바라십니다.

정기적으로, 매일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자유롭게 하고, 더 고귀하게 하며, 우리의 개인적인 진보에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회개는 일회성의 사건이 아니라 일련의 과정이며 행복하고 화평한 마음을 갖게 되는 열쇠입니다. 또한 회개는 신앙과 결부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권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sup>7</sup>

여러분이 성약의 길을 따라 부지런히 걷고 있든, 성약의 길에서 미끄러지거나 벗어났든, 또는 지금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곳에 있든간에 저는 여러분께 회개하기를 촉구합니다. 매일 회개할 때 임하는 강화하는 권능을, 매일 여러분이 조금 더 잘하게 되고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는 그 권능을 느껴 보십시오.

회개하기를 선택할 때, 우리는 변화하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주께서 우리가 될 수 있는 최고의 존재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주시도록 허락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분을 통해 오는 구속의 기쁨을 누리기로 선택합니다.<sup>8</sup> 회개하기로



선택할 때, 우리는 더욱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sup>9</sup>

형제 여러분, 우리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잘해야** 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죄와의 전쟁은 가상의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간증을 파괴하고 주님의 사업을 저해하려는 노력을 배가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종들을 강력한 무기로 무장시켜 우리가 주님에게서 오는 기쁨과 그분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막으려 합니다.<sup>10</sup>

대적의 뒷과 함정이 이야기하는 고통을 피할 수 있는 열쇠는 바로 회개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한 진보의 과정에서 지금 이 시기에 완전함에 이르리라고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분명 우리가 점점 더 정결해지기를 기대하십니다. 매일 회개할 때 정결함에 이르게 되며, 정결은 권능을 불려옵니다. 개인적인 정결은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 들린 강력한 도구가 되게 해 줍니다. 회개와 정결함을 통해 우리는 이스라엘의 집합을 도울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곧 신권의 권리는 하늘의 권능과 불가분하게 연계되어 있고, 하늘의 권능은 의의 원칙이 아니고서는 통제되거나 다루어질 수 없다 함이니라.”<sup>11</sup>

무엇이 하늘의 권능을 더 끌어내릴 수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무엇이 우리의 진보를 가로막고 있는지, 하늘의 권능을 더욱 끌어내리려면 무엇을 중단해야 하는지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무엇인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회개를 **막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십시오. 그런 다음, 바꾸고 변화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전보다 더 잘할 수 있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sup>12</sup>

우리를 발전과 진보로 이끌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우리가 우리 육신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저는 인간의 육신이라는 기적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육신은 위대한 창조물이며, 점진적으로 진보하여 궁극적으로 신성한 잠재력을 실현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육신 없이 진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의 은사를 부여하심으로써 우리가 더욱더 그분과 같이 되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를 밟게 하셨습니다.

사탄도 이를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전세에서 배도하여 자신이 육신을 얻는 특권을 영원히 박탈당했다는 사실에 분통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늘 분개하며 우리를 시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다수는 아닐지라도 사탄의 많은 유혹은 우리가 자신 혹은 다른 사람의 몸을 학대하도록 합니다. 사탄은 육신이 **없는** 비참한 상태에 있기에, 우리가 우리의 육신 **때문에** 비참해지기를

바랍니다.<sup>13</sup>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영원한 영이 거하도록 지어진 여러분만의 성전입니다.<sup>14</sup> 그 성전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몸과 용모를 가꾸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서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변은 그분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특별한 은사를 여러분이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 육신을 존중하는 방식에서 우리는 더 잘할 수 있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 잘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우리 아내, 딸, 어머니, 누나, 여동생부터 시작하여 우리 삶에서 여성을 존중하는 것입니다.<sup>15</sup>

몇 달 전, 저는 한 자매로부터 가슴 아픈 편지를 한 통 받았습시다. 그 자매는 이렇게 썼습니다. “[저와 제 딸들은] 우리 남편들과 아들들의 관심을 얻기 위해, 일주일 내내 24시간 계속되는 스포츠 경기 결과 알림과 비디오 게임, 주식 시장 업데이트 소식, [그리고] 온갖 스포츠 경기에 대한 끝없는 분석 및 시청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남편들과 아들들의 우선순위에서 떨어져 가고 있는 느낌이에요. [스포츠와 게임이] 그들의 우선순위를 차지해 버렸기 때문이죠.”<sup>16</sup>

형제 여러분, 신권을 소유한 자로서 여러분의 첫째 되는 가장 중요한 의무는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하고 돌보는 것입니다. 아내와 하나가 되십시오. 아내의 진정한 동반자가 되십시오. 아내도 여러분의 동반자가 되고 싶어 하게 만드십시오. 삶의 그 어떤 다른 재미와 흥밋거리도 아내와 영원한 관계를 맺는 일보다 우선해서는 안 됩니다. 텔레비전이나 휴대 전화, 또는 컴퓨터로 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아내의 복리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힘과 에너지를 어디에 쏟고 있는지를 면밀히 따져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아내의 마음이 같은 곳을







보도록 기도하십시오. 아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십시오. 아내의 조언을 구하고 귀담아 들으십시오. 아내의 조언은 여러분의 능력을 증대시킬 것입니다.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여성인 아내를 대했던 방식으로 인해 회개할 필요가 있다면, 지금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여성이 주님의 순결의 법에 따라 생활할 때 오는 축복을 누리도록 돕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결코 여성이 성전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원인 제공자가 되지 마십시오.

형제 여러분, 우리는 모두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소파에서 일어나, TV 리모컨을 내려놓고, 영적인 잠에서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지상에서 가장 중대한 사업에 매진해야 할 때입니다. “낮을 휘둘러 [우리의] 능력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거”들 때입니다.<sup>17</sup> 악의 세력은 전혀 없이 그 세력을 떨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서 이 전쟁터의 한 가운데서 즐기고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여러분의 지도력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정원화와 여러분 와드 또는 지부에 속한 회원들은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또한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은 여러분에게서 주님의 참된 제자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으며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전세에서

보였던 영적인 용맹함으로 인해 이 중대한 시기에 지상에 오도록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이제껏 지상에 온 사람들 중에 가장 뛰어나고 용맹스러운 자들입니다. 사탄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전세에서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구주의 재림 전에 어떤 일들이 완수되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간교한 술수를 연마한 사탄은 그가 하는 일에 능숙하며 절대 교화될 수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가 지닌 신권은 악마의 간계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부디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남성과 청년이 되시기를 여러분께 간청합니다. **매일** 진지하게 회개하는 시간이 여러분 삶에서 필수 불가결한 부분이 되게 하여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권능을 가지고 신권을 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앞으로 닥칠 험난한 세상에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영적으로 보호할 유일한 방법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복리보다 다른 이들의 복리를 우선하는 이타적인 남성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분은 영의 음성을 분명하게 듣고자 노력을 기울이는 남성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분은 성실하게 성약을 지키는 성약의 남성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분은 스스로를 성적으로 정결하게 지키겠다고 다짐한 남성, 갑자기 부탁을 받더라도 정결한 마음과 깨끗한 생각과 기꺼운 손으로 축복을 줄 수 있는 그런 합당한 남성을

필요로 하십니다. 주님께서서는 온 마음을 다해 회개하는 남성, 열의를 가지고 합당한 신권 소유자로 이루어진 주님의 군대의 일원이 되어 봉사하기를 원하는 남성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런 남성이 되도록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매일 회개할 수 있는 용기를 갖도록 축복하며, 충만한 신권 권능을 행사하는 법을 배우도록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아내와 자녀에게,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모든 사람에게 구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더 **잘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이런 노력을 기울일 때 삶에서 기적을 경험하게 되도록 축복합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님의 사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합니다. 아멘. ■

#### 주

1. 교리와 성약 6:9; 11:9.
2. 마가복음 1:4; 모사이아서 18:20; 엘마서 37:33; 제3니파이 7:23; 모로니아서 3:3; 교리와 성약 19:21; 44:3; 55:2 참조.
3. 교리와 성약 6:36 참조.
4. 신명기 26:8; 니파이후서 1:15; 물몬서 6:17; 교리와 성약 6:20 참조.
5. 러셀 엠 넬슨, “회개와 개심”, *리아호나*, 2007년 5월호, 103쪽 참조.
6. 예를 들어, 누가복음 13:3, 5 참조.
7. 니파이후서 9:23; 모사이아서 4:6; 제3니파이 9:22; 27:19 참조.
8. 러셀 엠 넬슨, “회개와 개심”, 103~104쪽 참조.
9. 제3니파이 27:27 참조.
10. 유다서 1:17~21; 니파이후서 2:25, 27; 28:20 참조; 또한 니파이전서 8:10~12, 21~23; 11:21~22; 12:17; 교리와 성약 10:22; 모세서 5:13 참조.
11. 교리와 성약 121:36.
12. 주님께서 계시와 현대의 가르침을 통해 주신 영감에 찬 다음 단어들은 영적인 성장에 대한 단어들이다. 더 높음, 더 거룩한, 가속하다, 증가하다, 강화하다, 더 위대함, 변형하다, 개조하다, 개선하다, 향상하다, 변화하다, 깊어지게 하다, 최대한 발휘하다. (러셀 엠 넬슨, “모법적인 후기 성도가 되십시오”, *리아호나*, 2018년 11월호, 113~114쪽 참조)
13. 우리는 “육체로 말할진대 사람은 자유로우며 ... 그들은 자유로이 만인의 크신 중보자를 통하여 자유와 영생을 택하거나, 그렇지 아니면 악마의 사로잡힘과 능력에 따라 사로잡힘과 죽음을 택할 수도 있으나, 이는 그가 만인을 자기처럼 비참하게 되게 하려” 한다는 것을 안다. (니파이후서 2:27)
14. 고린도전서 3:16~17; 6:18~20 참조.
15. 야곱서 2:35 참조.
16. 2019년 2월 4일에 받은 편지.
17. 교리와 성약 33:7.



일요일 오전 모임

데일 지 렌런드 장로  
십이사도 정월회

# 복이 많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은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바탕으로 하는 우리의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한 명 한 명을 축복하고자 하십니다.<sup>1</sup> 그러한 축복을 어떻게 접하고 얻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수 세기 동안 신학적 논쟁과 토론의 주제였습니다.<sup>2</sup> 어떤 이는 축복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린 것으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 어떤 이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어떻게 축복하실지 이미 정해 두셨으며 이러한 결정은 변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두 가지 입장은 모두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습니다. 하늘의 축복은 영광적으로 “선행상”을 모으거나, 축복이 걸린 복권에 당첨되기를 무기력하게 기다림으로써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 달리,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와 그분의 잠재적 상속자인 우리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는 훨씬 온당한 진리가 존재합니다. 회복된 진리에 따르면 축복은 절대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에서 우리나라의 우리의 행위는 축복을 얻기 위해 처음에도, 그리고 지속적인 과정 중에도 반드시 필요합니다.<sup>3</sup>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주어지는가에 관하여 숙고하면서, 하늘의 축복을 거대한 나뭇더미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이 나뭇더미 한가운데에는 소량의 불쏘시개가 쌓여 있고 그 위로 나뭇조각들이 한 겹 덮여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주위로는 잔가지, 작은 통나무, 큰 통나무들이 차례로 쌓여 있습니다. 이 나뭇더미에는 며칠 동안 빛과 열을 낼 수 있는 엄청난 양의 땀갈이 있습니다. 그 옆에는 끝에 인이 발린 성냥개비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sup>4</sup> 나뭇더미 속 에너지가 발산되려면, 그 성냥을 그어 불쏘시개에 불을 붙여야 합니다. 그러면 곧 불쏘시개가 타오르면서 더 큰 나뭇조각들로 불이 번질 것입니다. 일단 이 연소 반응이 시작되면, 나무가 다 타거나 산소가 차단될 때까지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성냥을 긋고 불쏘시개에 불을 붙이는

것은 나무에 잠재된 에너지를 발산되게 하는 작은 행동입니다.<sup>5</sup> 나뭇더미가 아무리 크더라도 성냥을 긋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성냥을 긋더라도 불쏘시개에 불을 붙이지 않으면 성냥에서만 나오는 빛과 열은 매우 적으며, 나무의 연소 에너지는 발산되지 못한 채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산소가 차단되면 연소 반응은 중단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은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바탕으로 하는 우리의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구주를 믿는 신앙은 행위와 권능의 원리입니다.<sup>6</sup> 먼저 우리가 신앙으로 행하면, 다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분이 생각하시는 가장 좋은 시기에 권능이 주어집니다. 이 순서는 매우 중요합니다.<sup>7</sup> 우리가 궁극적으로 받게 되는 축복에 비해 우리에게 요구되는 행위는 항상 매우 작습니다.<sup>8</sup>

약속의 땅으로 가던 고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타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 독사에 물린 백성들은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세가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단 놋뱀을 바라봄으로써 치유될 수 있었습니다.<sup>9</sup> 무언가를 바라보는





데 에너지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늦뎀을 바라본 이들은 모두 하늘의 권능으로 치유되었습니다. 그러나 불뎀에 물린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늦뎀을 바라보지 않고 죽음을 맞았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바라볼 신앙이 부족했거나<sup>10</sup> 그렇게 간단한 일로 약속된 치유를 얻을 수 있다고 믿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아니면, 일부러 완악한 마음을 먹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전한 권고를 거부했는지도 모릅니다.<sup>11</sup>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활성화하는 원리는 영원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축복을 얻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에 하늘에서 변경될 수 없게 선포된 율법이 있어 모든 축복은 이에 근거를 두나니—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어떠한 축복을 얻을 때에는 그것이 근거를 두고 있는 그 율법을 순종하였으므로 얻게 되는 것이니라.”<sup>12</sup> 축복은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개념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을 얻을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덕과 은혜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sup>13</sup> 그분이 치르신 속죄 희생의 광대함은 한없이 큰 나뭇더미와 같습니다. 우리의 소소한 행위는 그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행위가 아무것도 아니라거나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어둠 속의 성냥불은 몇 킬로미터 밖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는 하늘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불을 붙이려면 신앙의 소소한 행위가 필요합니다.<sup>14</sup>

하나님께 엎고자 하는 축복을 받기 위해 신앙으로 행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늘의 축복을 좌우하는 성냥에 불을 당기십시오. 가령, 기도의 목적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기꺼이 주시고자 하지만 우리가 구해야만 주어지는 축복들을 받기 위함입니다.<sup>15</sup>



에킨대, 엘마는 간절히 자비를 구했고 그의 고통은 사라졌습니다. 그는 더는 자신의 죄에 대한 기억으로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쁨은 고통을 압도했습니다. 모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간절히 기도한 덕분이었습니다.<sup>16</sup> 우리에게 필요한 활성화 에너지는 기도로 하나님께 진심으로 구하고, 응답에 대한 그분의 뜻과 시기를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기 위해 필요한 활성화 에너지를 얻으려면, 바라보거나 구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신앙으로 충만한 행동을 거듭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19세기 중반에 브리검 영은 한 무리의 후기 성도에게 북미의 건조 지대인 애리조나를 살펴보고 그곳에 정착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애리조나에 도착한 후에 물이 바닥나자 그들은 죽음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했습니다. 곧 비와 눈이 내렸고, 그 덕분에 그들은 통에 물을 채우고 가축을 먹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감사했으며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기뻐하며 솔트레이크시티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후 그들은 브리검 영에게 자신들의 원정을 상세히 보고하며 애리조나는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곳이라는 결론을 전달했습니다.

이를 들은 브리검 영은 방에 같이 있던 한 형제에게 그 원정과 기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대니얼

더블유 존스라는 이 형제는 간명하게 답했습니다. “저라면 통에 물을 채우고, 다시 계속해서 나아가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브리검 형제는 존스 형제에게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이분이 바로 애리조나로 가는 다음 여정을 이끄실 것입니다.”<sup>17</sup>

우리는 모두 굴하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며 다시 기도하여 축복을 얻었던 때가 있습니다. 마이클과 메리언 홈스는 이 원리가 잘 드러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마이클과 저는 지역 칠십인으로 함께 봉사했습니다. 모임에서 마이클이 기도를 부탁받을 때면 저는 항상 감동했습니다. 마이클의 깊은 영성을 잘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그의 기도를 듣는 것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러나 결혼 초기에 마이클과 메리언은 기도를 하지도, 교회에 참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린 세 자녀와 변창하는 건설 회사 때문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마이클은 자신이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감독님이 집으로 찾아와 그들에게 기도를 시작해 보라고 격려했습니다.

감독님이 떠난 뒤, 마이클과 메리언은 기도를 한번 해 보기로 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두 사람은 침상 곁에 무릎을 꿇었고, 마이클이 어색하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설픔게 몇 마디를 뱉은 뒤 갑자기 기도를 멈추고 말했습니다. “여보, 난 못 하겠어요.” 마이클이 일어서서

걸어 나가려는데 메리언이 그의 손을 붙잡고 끌어당겨 다시 무릎을 꿇게 하고는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할 수 있어요. 다시 해 보세요!” 마이클은 아내의 격려에 힘입어 짧게 기도를 마쳤습니다.

홈스 가족은 규칙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오라는 이웃의 초대도 받아들였습니다. 개회 찬송이 울려 퍼지는 예배당에 들어선 그들에게 영의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이것은 참되도다.” 나중에 마이클은 부탁한 사람도 보는 사람도 없었지만, 조용히 집회소에서 쓰레기 치우는 일을 도왔습니다. 그때 그는 분명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곳은 내 집이라.”

마이클과 메리언은 교회 부름을 받아들이고 와드와 스테이크에서 봉사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그리고 그들의 세 자녀와 인봉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자녀가 태어나 자녀 수는 모두 열둘이 되었습니다. 홈스 부부는 선교부 회장과 그 아내로 두 차례나 봉사했습니다.

그 서툰 첫 번째 기도는 작지만 신앙으로 충만한 행위였으며, 하늘의 축복을 불러왔습니다. 홈스 가족은 교회에 참석하고 봉사함으로써 신앙의 불꽃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여러 해 동안 헌신적인 제자로 살아온 그들의 삶은 오늘날까지도 영감을 주는 커다란 불길로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나무에 잠재된 에너지가 모두 발산되려면 불에 지속적으로 산소가 공급되어야 합니다. 마이클과 메리언 홈스 부부가 보여 준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불길이 계속해서 타오르게 하려면 지속적인 행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소소한 행위를 연료 삼아 역량을 기름으로써 성약의 길을 걷고,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을 받습니다. 신앙이라는 불에 산소를 공급하려면 끊임없이 행동해야만 합니다. 때로 우리는 먹을 것을 구할 장소에 관한 계시를 받기에 앞서 활과 화살을 만들어야 합니다.<sup>18</sup> 배를 지을 방법에 관한 계시를 받기에 앞서 연장을 만들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sup>19</sup> 무한한 기름과 밀을 얻기 위해

주님의 선지자가 명하는 대로 수중에 있는 적은 양의 기름과 밀만으로 조그마한 떡을 만들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sup>20</sup> 그리고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알”아야 하며,<sup>21</sup> 그분이 정하신 시기를 신뢰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무엇이라도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때는, 여러분이 그 축복이 근거를 둔 영원한 율법에 순종했기 때문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습니다.<sup>22</sup> 그러나 “변경될 수 없게 선포된” 율법은 우리의 시간을 따르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즉, 축복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주어집니다. 하늘의 본향을 찾던 고대의 선지자들조차<sup>23</sup>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습니다.<sup>24</sup> 하나님께 바라는 축복을 아직 받지 못했더라도 무엇을 더 해야 하나 궁금해하며 조바심 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 대신 조셉 스미스의 권고를 받아들여, “[여러분의] 능력 안에 놓여 있는 모든 일을 기쁘게 행”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 최대한의 확신을 가지고 가만히 서서 … [하나님의] 팔이 나타나는 것을 보”십시오.<sup>25</sup> 어떤 축복은 나중을 위해 보류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가장 용감한 자녀들에게도 해당됩니다.<sup>26</sup>

6개월 전, 교리를 배우고 신앙을 강화하며 개인과 가족을 강화하기 위해 가정이 중심이 되고 교회가 그것을

뒷받침하는 계획이 도입되었습니다. 러셀 엠 넬슨 회장님은 우리가 이 변화를 통해 영적으로 살아남고, 복음에서 더 큰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 깊이 돌이킬 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sup>27</sup> 그러나 이러한 축복을 얻는 것은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와서 나를 따르라—개인 및 가족』 교재를 펴고, 경전 및 『와서 나를 따르라』 다른 자료들과 더불어 그것을 공부할 책임이 있습니다.<sup>28</sup> 우리는 공부한 것을 가족 및 친구와 함께 이야기하고, 신앙의 불을 지피기 위해 우리의 안식일을 잘 계획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자료들에 잠재된 에너지를 그냥 묻어 둔 채 가정에 쌓아만 둘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체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 신앙으로 하늘의 권능을 활성화하기를 권고합니다. 성냥을 긋고 불을 지필 신앙을 행사하십시오. 인내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 필요한 산소를 공급하십시오. 이와 더불어, 성신이 여러분을 인도하시어 잠언에 묘사된 “충성된 자”와 같이 여러분께 “복이 많”기를 간구합니다.<sup>29</sup> 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고, 우리의 평안과 행복에 깊은 관심을 두시며, 우리를 축복하고자 하신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합니다. 아멘. ■







쉐린 유뱅크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1보좌

주

1. 교리와 성약 41:1; 78:17; 104:33 참조.
2. See, for instance, Craig Harline, *A World Ablaze: The Rise of Martin Luther and the Birth of the Reformation* (2017), 20. 아우구스티누스(354~430년)와 그의 경쟁자 펠라기우스(354~420년) 사이에 그런 논쟁이 있었다. 펠라기우스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은 분명 내면에 선한 일을 할 의지가 있으며, 그에 따라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모두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생각을 격렬히 반대했다. See also Eric Metaxas, *Martin Luther: The Man Who Rediscovered God and Changed the World* (2017), 296. 루터는 사람의 행위로써는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는 없으며, 신앙이 있을 때 은혜를 얻을 수 있고 선행은 그에 뒤따르는 것이라고 가르쳤다. “행위를 신앙에서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것은 불에서 열과 빛을 분리하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이다.”
3. 교리와 성약 82:10 참조.
4. 이것은 어디에 그어도 불을 붙일 수 있는 캠핑용 성냥을 말한다. 주방용 성냥처럼 현대에 사용하는 안전성냥은 성냥 끝이 아니라 성냥갑에 인이 달려 있다.
5. 이 행위들은 연소에 필요한 “활성화 에너지”를 구성한다. “활성화 에너지”라는 용어는 1889년에 스웨덴 과학자 스반테 아레니우스가 소개했다.
6. See *Lectures on Faith* (1985), 3.
7.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믿음으로 구하고”, *리아호나*, 2008년 5월호, 94쪽 참조.
8. 모사이야서 2:24~25 참조.
9. 민수기 21:6~9 참조.
10. 니파이전서 17:41 참조.
11. 니파이전서 17:42 참조.
12. 교리와 성약 130:20~21.
13. 니파이후서 10:24; 25:23 참조.
14. 엘머서 60:11, 21; 델린 에이치 옥스, “작고 단순한 일”, *리아호나* 2018년 5월호, 89~92쪽; 엠 러셀 벨라드, “열심히 노력하여”, *리아호나*, 2012년 11월호, 29~31쪽 참조.
15. 경전 안내서, “기도”; 또한 모로나이사서 7:48 참조.
16. 엘머서 36:18~21; 또한 이노소서 1:5~8 참조.
17. Daniel W. Jones, *40 Years Among the Indians* (1960), 222.
18. 니파이전서 16:23 참조.
19. 니파이전서 17:9 참조.
20. 열왕기상 17:10~16 참조.
21. 교리와 성약 101:16.
22. 교리와 성약 130:20~21 참조.
23. 히브리서 11:16 참조.
24. 히브리서 11:13.
25. 교리와 성약 123:17.
26. 제프리 알 홀런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 *리아호나*, 2000년 1월호, 42~45쪽 참조. 홀런드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어떤 축복은 곧 오며, 어떤 축복은 나중에, 그리고 어떤 축복은 하늘에 이를 때까지 오지 않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에게 축복은 반드시 옵니다.”
27. 러셀 엠 벨슨, “개회 말씀”, *리아호나*, 2018년 11월호, 6~8쪽.
28. 쿠엔틴 엘 쿡,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깊고 지속적인 개심”, *리아호나*, 2018년 11월호, 8~12쪽 참조.
29. 잠언 28:20.

# 그리스도: 어둠에 비치는 빛

만일 여러분 간증의 빛이 희미해지고 있으며 어둠이 다가오고 있다고 느끼신다면,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지키십시오.

상호부조회 건물에 있는 저의 사무실에서는 솔트레이크 성전이 아주 잘 보입니다. 매일 밤 해 질 무렵이면 시계처럼 규칙적으로 성전 외부등이 켜집니다. 성전은 창문 바로 바깥에서 저에게 변함없이 위안을 주는, 인도하는 빛과도 같습니다.

지난 2월의 어느 날 밤, 일몰 후에 저의 사무실은 특별히 더 어두웠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어두운 성전이 보였습니다. 외부등이 아직 켜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수년간 매일 저녁 바라보던 성전 첨탑이 보이지 않았습니니다.

빛이 있어야 할 자리에 드리운 어둠을 보며 저는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 중 하나는 빛의 근원, 즉 예수 그리스도와 지속해서 연결되어 있는 것임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힘의 근원이시고 세상의 빛과 생명입니다. 그분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아는 사탄은 모두가 직면하게 되는 세상의 압력을 그의 일에 이용하려 시도합니다. 그는 우리의 빛을 흐리게 하고, 연결을 끊고, 전원을 차단하여, 우리를 어둠 속에 혼자 남기려고 합니다. 이러한 압력은 인생에서 누구나 겪는 일이지만, 사탄은 우리를 고립시켜 오직 우리만이 그러한 것을 겪는 자라 속삭이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우리 중의 누군가는 비탄으로 무력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불행이 닥칠 때, 삶이 너무 힘들어서 숨조차 쉴 수 없을 때, 여기고로 가던 사람처럼 맛고 죽은 것처럼 버려졌을 때, 예수께서는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상처에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를 조심스레 일으켜 세우시며,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십니다.<sup>1</sup> 우리 중 슬픔에 잠겨 있는 이들에게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 너희 어깨에 놓인 짐을 가볍게 하리니 ... 너희 등에 그것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 ... 나 주 하나님은 진실로 내 백성을 그들의 고난 중에 돌아보는 줄을 너희로 분명히 알게 하려 함이니라.”<sup>2</sup> **그리스도는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우리 중의 누군가는 그저 너무 지쳐 있습니다**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힘보다 더 빨리 달음질함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 그런데도 저는 많은 사람이 너무도 빨리 달리고, 때로는 에너지와 감정이 거의 바닥나기까지 한다는 것을 압니다.”<sup>3</sup> 기대치가 우리를 압도할 때, 우리는 한걸음 뒤로 물러서서 무엇을 내려놓으면 좋을지 하나님 아버지께 여쭙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배우는 것은 우리가 삶에서 해야 할 경험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삶에 너무 지칠 때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sup>4</sup>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하기 위해 기꺼이 우리와 함께 멍에를 메고 끌고자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안식이 되십니다.**

**우리 중의 누군가는 스스로가 전형적인 틀에 맞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느낍니다. 신약전서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부류의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얼마나 애쓰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 세리, 어린이, 갈릴리 사람, 창녀, 여인, 바리새인, 죄인, 사마리아인, 과부, 로마 군병, 간음한 자, 의례적으로 부정하다고 여겨지던 자 등 말입니다. 거의 모든 기록에서 주님께서는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했던 누군가에게 다가가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여기고에 살던 삭개오라는 세리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기 위해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는 로마 정부에 고용되어 있었으며, 부패한 죄인으로 여겨졌습니다. 예수께서 나무 위에 있는 그를 보시고 불러 이르시기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sup>5</sup>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마음의 선한 바와 그가 다른 사람을 위해 행한 일을 보셨을 때, 예수께서는 그의 헌물을 받아들여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sup>6</sup>

그리스도께서는 니파이인들에게 친절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명하여 너희 중 아무도 가버리지 않게 하[느니라.]”<sup>7</sup>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는 강력한 통찰력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sup>8</sup> 하셨다고 선언했습니다. 서로에게 참된 사랑을 보이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후기 성도들에게 변함없이 요구되는 일입니다.<sup>9</sup> 예수께서는 삭개오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초대하십니다. “불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네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네]게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sup>10</sup> **그리스도는 나무 위에 있는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 중의 누군가는 의문으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저는 답을 찾을 수 없는 의문들로 낙심하고 짜증이 나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이른 아침에 저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저는 한 정자를 보았고 그 안에 들어가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다섯 개의 아치로 둘러 그 정자의 창문은 둘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밀실 공포를 일으킬 만한 그곳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아 꿈속에서 불평을 했습니다. 그때, 야렛의 형제가 인내심을 가지고 돌을 녹여서 투명한 유리로 만들었던 일이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상태가 변화된 암석입니다. 주님께서 야렛의 형제의 돌을 만지셨을 때 그것들은 어두운 배 안에서 빛을 발했습니다.<sup>11</sup> 갑자기 저는 다른 어떤 곳보다도 그 정자 안에 있고 싶은 소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곳은 제가 진실로 “볼”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저를 괴롭히던 의문들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잠에서 깨어난 후 다음과 같은 질문이 더 분명히 떠올랐습니다. “너는 야렛의 형제처럼 너의 돌들이 빛으로 바뀔 수 있도록 어떻게



신앙을 키워 나가겠느냐?”<sup>12</sup>

필멸의 상태인 우리의 뇌는 조금씩 차차 이해하고 뜻을 찾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필멸의 삶을 덮고 있는 휘장이 왜 것처럼 두터운지 저는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발전 과정에서 이생은 모든 대답이 주어지는 단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생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에 대한 우리의 확신과 소망을 발전시키는 단계입니다. 확신이 늘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오지는 않지만, 어둠 속에는 빛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요, 생명이요, 진리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sup>13</sup> 진리를 찾는 사람들의 눈에 처음에는 그것이 돌로 된 창문을 두려워하는 어리석은 밀실 공포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인내를 가지고 믿음에 바탕을 둔 질문을 한다면 예수께서는 우리의 돌로 된 창을 유리와 빛의 창으로 바꾸어 놓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시야를 밝히는 빛이십니다.

**우리 중의 누군가는 결코 충분히 선행할 수 없다고 느낍니다**

구약전서에 나오는 주홍색 염료는 색이 화려할 뿐만 아니라 착색 견뢰도가 높았습니다. 즉 그 선명한 빛깔은 양털에 달라붙어 아무리 여러 번 세탁해도 물이 빠지지 않았습니니다.<sup>14</sup> 사탄은 다음의 논리를 곧봉처럼 휘두릅니다. 주홍으로 물든 양털은 결코 다시 하얘질 수 없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길은 너희 길보다 ... 높음이니라.”<sup>15</sup> 그리고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그분의 주홍색 피가 우리를 순결한 상태로 되돌려 주는 것은 그분의 은혜로 인한 기적입니다. 이것은 논리적이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구주의 주홍색 피가 우리를 순결한 상태로 되돌려 준다.



않지만 그림에도 불구하고 참됩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희게 되리라.”<sup>16</sup> 주께서는 단호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 죄를 회개한 자, 그는 용서받으며, 나 주가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sup>17</sup> 달리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sup>18</sup> 너희는 실수를 저질렀고 모두 불완전하다.<sup>19</sup> 내게로 와서 회개하면,<sup>20</sup> 내가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sup>21</sup> 너희는 다시 온전하게 될 수 있다.<sup>22</sup> 내가 해야 할 일이 나에게 있느니라.<sup>23</sup> **그리스도는 양털을 희게 만드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실제로 어떤 단계를 밟아 나가야 할까요? 우리의 빛이 깜박일 때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에 다시 연결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러셀 엠 벨슨 회장님은 이것을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스러운 성약을 맺고 지키는 것입니다. ... 그 길은 복잡하지 않습니다.”<sup>24</sup> 그리스도를 여러분 삶의 중심으로 삼으십시오.<sup>25</sup>

만일 여러분 간증의 빛이 희미해지고 있으며 어둠이 다가오고 있다고 느낀다면,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질문을 여쭙보십시오. 인내를 가지고 돌을 유리로 녹여 내십시오.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돌이키십시오.

예수께서는 “나는 어둠에 비치는 빛이되, 어둠이 이를 깨닫지 못하느니라”<sup>26</sup>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아무리 노력해도, 어둠이 빛을 몰아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빛이 항상 여러분을 비출 것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솔트레이크 성전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사람들은 즉시 문제를 알아차렸고, 시설 관리자 발 화이트 형제님에게 연락했습니다. 성전 외등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요? 먼저, 성전 직원들은 직접 성전에 있는 모든 전기 배전반으로 가서 수동으로 불을 다시 켜었습니다. 그런 뒤 자동 전원 공급 장치의 배터리를 교체하고 무엇이 문제였는지 점검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불빛을 다시 켜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우리는 친구들이 필요하고 서로가 필요합니다. 성전 시설 직원들처럼 우리는 직접 가서 우리의 영적 배터리를 재충전해 주고 고장 난 곳을 수리함으로써 서로를 도울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개개인 이 발하는 빛은 나무에 걸린 전구 한 개의 불빛 정도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작은 빛을 밝힌다면 마치 성탄 절기의 템플스퀘어처럼 그 빛을 모두 모아 수백만의 사람들을 주님의 집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벨슨 회장님께서 격려하신 것 같이, 우리는 우리의 성약을 지키는 단순한 행위를 통해 구주의 빛을 우리 자신과 또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에게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그러한 충실한 행동을 권능과 기쁨으로 보상하십니다.<sup>27</sup>

저는 여러분이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간중드립니다. 주님께서서는 여러분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진보하고 계시니 계속 나아가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숨은 희생을 모두 보고 계시며 그것을 헤아려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들의 유익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수고는 헛되지 않으며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분의 이름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쿠엔틴 엘 쿡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향한 깊은 사랑

우리와 함께 계시다<sup>28</sup>는 뜻입니다. 그분은 분명히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설혹 너무 캄캄해 아주 멀리 볼 수 없을지라도 성약의 길에서 몇 걸음 더 나아가십시오. 빛이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저는 빛으로 가득 찬 예수님의 말씀이 참됨을 간증드립니다. “내게 가까이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가까이 가리라. 나를 부지런히 찾으라. 그리하면 나를 찾으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게 될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리리라.”<sup>29</sup>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주

1. 누가복음 10:30~35 참조.
2. 모사이야서 24:14.
3. 제프리 알 홀런드, “서로의 짐을 지고”, *리아호나*, 2018년 6월호, 30쪽.
4. 마태복음 11:28.
5. 누가복음 19:5.
6. 누가복음 19:9.
7. 제3니파이 18:25.
8. 사도행전 10:28.
9. 요한복음 15:12 참조.
10. 요한계시록 3:20.
11. 이터서 6:3 참조.
12. 이터서 4:7 참조.
13. 이터서 4:12.
14. See “Scarlet, Crimson, Snow, and Wool,” *Ensign*, Dec. 2016, 64–65.
15. 이사야 55:9.
16. 이사야 1:18.
17. 교리와 성약 58:42.
18. 이사야 1:18 참조.
19. 로마서 3:23 참조.
20. 제3니파이 9:22 참조.
21. 교리와 성약 58:42 참조.
22. 누가복음 8:48 참조.
23. 모세서 1:6 참조.
24. 러셀 엠 넬슨,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네 가지 선물”(제일회장단 성탄절 영적 모임, 2018년 12월 2일), [broadcasts.ChurchOfJesusChrist.org](http://broadcasts.ChurchOfJesusChrist.org).
25. See Russell M. Nelson, “Why Have Faith Now? LDS President Russell M. Nelson Explains during Phoenix–Area Visit,” *Arizona Republic*, Feb. 10, 2019, [azcentral.com](http://azcentral.com).
26. 교리와 성약 6:21.
27. 모사이야서 27:14 참조.
28. 마태복음 1:23.
29. 교리와 성약 88:63.

사랑은 사랑하는 선지자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적인 목적을 성취하는 일에서 가장 중요한 자질이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지금은 역사상 아주 특별하고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는 구주의 재림 전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 사는 축복을 받았습시다. 교회가 공식적으로 조직되기 일 년 전이자 이 경륜의 시대가 시작될 무렵이었던 1829년, 우리는 “기이한 일”이 “바야호로… 나타나려 [한대]”고 선포하는 소중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 계시는 누구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면 “하나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하는 눈과

함께 신앙, 소망, 자애와 사랑”을 지녀야만 그 일을 행하기 합당하게 됨을 확고히 했습니다.<sup>1</sup> 자애, 즉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은<sup>2</sup>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향한 그분의 영원한 사랑을 포함합니다.<sup>3</sup>

오늘 아침 저는 그러한 사랑이 선교 사업, 성전 및 가족 역사 사업, 그리고 가정이 중심이 되고 교회가 그것을 뒷받침하는 가족 종교 생활에서 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구주와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은<sup>4</sup> 2018년도에 발표된 조정 사항을 통해 사랑하는 선지자 러셀 엠 넬슨 회장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성역의 임무와 영적인 목적을<sup>5</sup> 성취하는 일에서 가장 중요한 자질이자 동기가 됩니다.

**흘어진 이스라엘을 모으기 위한 선교 사업**

저는 어린 시절에 선교 사업과 사랑의 상관관계에 관한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열한 살이었을 때, 저는 축복사였던 제 외조부로부터 축복사의 축복을 받았습니다.<sup>6</sup> 제 축복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언급되었습니다. “나는 그대가 이웃에 대한 큰 사랑을 지니도록 축복하노니, 이는 그대는 많은 영혼을 그리스도께 데려오도록 ...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부름을 받게 될 것이니라.”<sup>7</sup>

당시 저는 어린 나이였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복음을 나누는 일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15년 전에 저를 포함한 총관리 역원들이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를 집행하는 임무를 맡았을 때, 저희는 사랑이 오늘날 선교 사업에서 필수적인 자질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늘 그래 왔듯이 말입니다. 자애와 사랑을 포함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다루는 6장은 선교사들에게 꾸준히 사랑받는 단원입니다.

구주의 대표자로서 선교사 대부분은 이 같은 사랑을 느끼며, 그럴 때 그들의 노력은 축복받습니다. 주님의 사업을 돕는데 반드시 필요한 이러한 사랑을 회원들이 이해하게 될 때, 주님의 사업이 성취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사랑이 잘 드러난 사례를 경험한 적이 있었고, 감사하게도 거기서 저도 작은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제가 태평양 군도 지역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던



어느 날, 저는 알 웨인 슈트 회장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젊었을 때 사모아에서 선교사로 봉사했고, 시간이 흐른 뒤 선교부 회장이 되어 사모아에 돌아왔습니다.<sup>8</sup> 제게 전화했을 당시, 슈트 회장님은 사모아 아피아 성전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선교부 회장일 때 봉사했던 젊은 선교사 중에는 현재 태평양 지역 회장인 오 빈센트 할레크 장로가 있었습니다. 슈트 회장님은 빈센트와 그의 가족 모두를 아주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 할레크 가족의 대부분은 교회 회원이었으나, 가장인 빈센트의 아버지, (독일 및 사모아계) 오토 할레크 형제님은 회원이 아니었습니다. 슈트 회장님은 제가 미국령 사모아 지역의 스테이크 대회와 다른 모임에 참석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오토



알 웨인 슈트

할레크 형제님께 복음을 나누기 위해 저희가 그의 집에 머무르는 것이 어떨지 고려해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 메리와 저는 오토와 그의 아내 도로시의 아름다운 집에서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에 저는 복음 메시지를 나누었고 오토 형제님에게 선교사와 만나 보라고 권유했습니다. 그는 친절하지만 확고하게 제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많은 가족이 후기 성도여서 기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계 조상 중 일부가 사모아 지역의 초기 기독교 성직자였기 때문에, 그는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에 헌신하고자 했습니다.<sup>9</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좋은 친구로서 작별을 고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님이 피지 수바 성전의 헌납을 준비하실 때, 그의 개인 비서였던 돈 에이치 스타헬리<sup>10</sup> 형제는 몇 가지 준비 사항을 논의하고자 뉴질랜드에 있던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힝클리 회장님은 피지에서 미국령 사모아로 오셔서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 하셨습니다. 예전 방문 때 이용했던 특정 호텔이 숙소로 내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계획을 수정해도 되는지 물어보았고, 스타헬리 형제는 “형제님이 지역 회장이니 관찮을

겁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슈트 회장님에게 전화를 걸어 어쩌면 우리의 친구 오토 할레크 형제님을 영적으로 축복할 기회가 다시 한번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엔 고든 비헝클리 회장님이 선교사가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슈트 회장님에게 할레크 가족이 헝클리 회장님의 일행과 우리 모두를 수용할 수 있을지 물어보았습니다.<sup>11</sup> 헝클리 회장님 부부와 따님인 제인 자매님, 그리고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님 부부도 일행이셨습니다. 슈트 회장님과 할레크 가족은 필요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sup>12</sup>

피지에서서 성전 헌납이 끝나고 미국령 사모아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따뜻한 환대를 받았습니다.<sup>13</sup> 그날 저녁 우리는 수천 명의 사모아 회원들에게 말씀을 전했고, 그런 뒤 할레크 가족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 모였을 때, 헝클리 회장님과 오토 할레크 형제는 벌써 좋은 친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흥미롭게도 그들은 제가 일 년 전 오토 형제님과 나누었던 것과 거의 같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토 형제님이 우리 교회에 대한 존경을 표하면서도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충실하겠다는 것을 재차 확인했을 때, 헝클리 회장님은 오토 형제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토 형제님,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형제님은 교회 회원이 되셔야만 합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비유적인



표현을 쓰자면, 헝클리 회장님의 말씀으로 오토 형제의 마음이 열리고 그를 감싸고 있던 저항의 갑옷이 떨어져 나감을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시작이 되어 선교사들의 가르침과 오토 형제님의 영적인 겸손함이 더해져 오토 할레크 형제는 일 년이 조금 지나 침례와 확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시 일 년 후, 할레크 가족은 성전에서 영원한 가족으로 인봉되었습니다.<sup>14</sup>

이 경이로운 경험에서 저를 감동시켰던 것은, 슈트 회장님이 자신이 돌보았던 선교사 빈센트 할레크 장로에게 보여 준, 성역을 베푸는 위대한 사랑과, 영원한 가족으로 결합된 할레크 가족을 보고자 했던 그의 소망이었습니다.<sup>15</sup>

흘어진 이스라엘을 모을 때,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사랑을 마음에 지녀야 하며 단순한 책임감이나<sup>16</sup> 죄책감에서 벗어나 사랑의 마음으로 구주의 메시지, 성역, 그리고 사명을 세상과 나누는 신성한 동업에 참여해야 합니다.<sup>17</sup>

회원으로서는 우리는 단순한 권유를 통해 구주와 전 세계의 우리 형제 자매들에 대한 사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일요일 모임 일정은 회원들이 자신의 친구와 지인들에게 와서 보고 교회를 경험해 보도록 애정을 담아 성공적으로 권유할 훌륭한 기회를 제공합니다.<sup>18</sup> 먼저 영적인 성찬식이 열리는데, 부디 그 성찬식이 어제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스러운 성찬식이기를 바랍니다. 그런 뒤 50분 동안 신약전서와 구주에 관해, 또는 구주와 그분의 교리에 초점을 맞춘 연차 대회 말씀을 공부합니다.

몇몇 상호부조회 자매님들은 왜 신권 정원회의 형제들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에게 “집합”의 임무가 주어졌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그것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데, 벨스 회장님은 지난번 연차 대회에서 그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하셨습니다. 그분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여러분 없이 이스라엘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sup>19</sup> 오늘날 우리는 자매 선교사가 전체 전임 선교사의 약 30퍼센트를 차지하는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상호부조회의 자매들이 사랑으로 복음을 나누어야 할 동기를 추가로 부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는 우리, 즉 남자와 여자, 청소년과 아이들 개개인의 애정 어리고 연민 가득한 영적인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랑과 친절, 겸손을 보인다면 많은 이들이 우리의 권유를 받아들일 것입니다.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선택하는 이들도 여전히 우리의 친구로 남을 것입니다.



자신이 돌보았던 선교사 오 빈센트 할레크 장로를 위한 알 웨인 슈트의 성역을 베푸는 사랑으로 할레크 가족은 영원히 하나가 되었다.



## 이스라엘을 모으기 위한 성전 및 가족 역사 사업

사랑은 또한 휘장 저편에서 이스라엘을 모으는 성전 및 가족 역사 사업의 핵심 요소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직면했던 시련과 어려움에 대해 배울 때, 그분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감사하는 마음이 더욱 커집니다. 성전 및 가족 역사 사업을 하려는 우리의 노력은 일요일 모임 일정과 청소년 반과 정원회 진급에 관한 지침이 새롭게 조정됨에 따라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가 조상에 관해 배우고 휘장 저편의 이스라엘을 모으는 일에 좀 더 일찍부터 많은 주의를 기울이도록 돕습니다. 성전 사업과 가족 역사 사업은 모두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인터넷은 강력한 도구이며, 이제는 가정이 주된 가족 역사 센터입니다. 우리의 젊은 회원들은 가족 역사를 조사하는 일에 특화되어 있고, 그들이 사랑하고 존경하게 된 조상들을 위한 대리 침례 의식을 행하려는 영적인 동기를 부여받았습니다. 많은 11세 청소년들이 죽은 자를 위한 침례를 받을 수 있도록 방침을 변경한 이후로, 전 세계의 성전 회장들은 성전 참석자 수가 크게 증가했다고 보고합니다. 한 성전 회장은 우리에게 다음의 사실을 알렸습니다. “침례 의식 참여자 수가 놀랄 만큼 증가했고 ... 11세들이 참여함으로써 더 많은 가족이 성전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인데도, 그들은 그들이 행하는 의식의 목적과 경건함을 느끼는 듯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습니까?”<sup>20</sup>

저는 초등학교 및 청소년 지도자들이 지금처럼 계속하여 가족 역사와 성전 사업에 큰 노력을 기울이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상호부조회 자매님들과 신권 형제님들은 개인적으로, 또 어린이와 청소년이 휘장 저편의 이스라엘을 모으는 일에 도움을 주고 영감을 줌으로써, 사랑으로 성전 및 가족 역사의 책임을 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특히 가정에서,



그리고 안식일에 행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사랑을 담아 조상을 위한 의식을 행하는 것이 갈수록 더 사악해지는 세상에서 우리의 청소년과 가족을 강화하고 보호해 줄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러셀 엠 넬슨 회장이 성전 및 성전 사업과 관련하여 심오하고 중요한 계시를 받으셨다는 사실을 개인적으로 간증합니다.

###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 영원한 가족과 개인을 준비시킴

가정 중심의 복음 공부 및 복음 생활을 새롭게 강조하는 노력, 그리고 교회가 제공하는 자원은 영원한 가족과 개인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 그분과 함께 살도록 사랑으로 준비할 훌륭한 기회를 마련해 줍니다.<sup>21</sup>

남자와 여자가 성전에서 인봉될 때, 그들은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 안에서 거룩한 결혼의 반차, 즉 신권의 반차에 들어가게 됩니다.<sup>22</sup> 그들은 가족을 인도할 신권의 축복과 권능을 함께 받습니다.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에 명시된 것처럼 여자와 남자는 각각 다른 역할을 수행하지만,<sup>23</sup> 그들의 청지기 직분은 그 가치와 중요성에서 동등합니다.<sup>24</sup> 부부는 가족을 위한 계시를 받을 동등한 권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부부가 사랑과 의로움으로 함께 일할 때, 하늘이 그들이 내리는 결정을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개인적으로 또는 가족으로서 그들에 관한 주님의 뜻을 알고자 한다면 반드시 의로움, 온유함, 친절, 그리고 사랑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겸손과 사랑은 주님의 뜻, 특히 가족을 위한 그분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을 구별 짓는 특징입니다.

자신을 온전하게 하고, 성약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게 되며,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은 개인적인 책임입니다. 우리는 자립해야 하며, 우리를 둘러싼 폭풍우로부터 우리의 가정을 피난처이지<sup>25</sup> “신앙의 안식처”로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sup>26</sup> 부모는 자녀들을 사랑으로 가르칠 책임이 있습니다. 사랑이 가득한 집은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며, 문자 그대로 지상의 천국이 됩니다.<sup>27</sup>

제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셨던 찬송가는 “나의 집에 사랑이 차고 넘치면”입니다.<sup>28</sup> 어머니께서 “나의 집에 사랑이 차고 넘치면 모든 것 아름답고 즐거웁도다”라는 가사를 들을 때마다 감동하고 눈물을 보이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저와 제 형제들은 우리가 사랑이 넘치는 집에 살고 있음을 알았으며, 어머니께서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중 하나였습니다.<sup>29</sup>

사랑이 넘치는 가정의 분위기를 권장하는 것에 더하여, 넬슨 회장은 또한 우리의 주목적에 방해하는 미디어를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오셨습니다.<sup>30</sup>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 및 텔레비전을 우리의 종이 되게 하고, 그것들이 휘방꾼이나, 더 나아가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은 거의 모든 가정에 도움이 될 만한 변화일 것입니다. 모든 영혼, 특히 어린 아이의 영혼을 둘러싼 전쟁은 보통 가정에서 일어납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미디어의 내용이 건전하고, 나이에 적합하며,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사랑이 넘치는 분위기와 일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의 가르침은 분명하고 동기를 부여해야 하며<sup>31</sup>, 영적이고, 기쁨을 주고, 사랑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가 구주와 그분의 속죄에 대한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 그분을 휘장 양편에서 이스라엘을 모으려는 우리 노력의 중심으로 삼으며, 다른 사람에게 성역을 베풀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준비할 때, 대적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복음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평안이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 가정을 강화할 것을 약속드립니다.<sup>32</sup> 이러한 교리에 담긴 약속에 대해 간증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속죄의 희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증거합니다. 아멘. ■

주  
1. 교리와 성약 4:1, 5 참조.

2. 모로나이사 7:47.
3. 자애(Charity)와 사랑(Love),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선교 사업 지도서(2005), 118쪽 참조.
4. 신명기 6:5; 마태복음 22:36~40 참조.
5. "회원 선교 사업과 성전 및 가족 역사 사업에 관한 장로 정원회 및 상호부조회 회장단의 책임", 공지 사항, 2018년 10월 6일 참조.
6. 나의 외조부는 다른 스테이크 지역에 사는 손자 손녀에게 축복사의 축복문을 줄 수 있도록 승인을 받으셨다. 그 당시 나의 외조부는 병환 중이었고 곧 돌아가실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는 열한 살에 축복문을 받게 되었다.
7. 쿠엔틴 엘 쿡이 축복사 크로지어 킴볼에게 받은 축복사의 축복문, 1951년 10월 13일, 유타주 드레이크.
8. 뿐만 아니라, 알 웨인 슈트 회장은 아내 로나와 함께 중국 상하이, 싱가포르 아르메니아 및 그리스에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했다. 그는 로나와 사별한 뒤 레아 베이 로스벨과 결혼했고, 그들은 호주 브리즈번 선교부에서 봉사했다. 그들의 아홉 자녀 중 일곱 명이 전임 선교사로 봉사했다. 그가 사모아에서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했던 2년 동안, 존 에이치 그로버그 장로는 통가에서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었다. 두 사람이 임지에서 했던 경험들은 가히 전설적이었다.
9. 오토 할레크는 사모아 그리스도인 회중의 교회에서 평신도 지도자였다. 이 교회는 런던 선교회에 뿌리를 둔다. 그의 아버지는 독일 데사우 지방 출신의 독일 혈통이었다.
10. 돈 에이치 스타헬리 회장은 현재 유타 바운티폴 성전 회장으로 봉사 중이다.
11. 고든 비 헝클리 회장과 마조리 피 헝클리 자매, 그들의 딸인 제인 헝클리 더들러 자매,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와 페트리샤 터 홀런드 자매, 쿠엔틴 엘 쿡 장로와 메리 지 쿡 자매, 그리고 돈 에이치 스타헬리 형제가 모두 함께했다.
12. 오 빈센트 할레크 장로는 그의 아버지가 외국에 나가 있던 자신과 그의 형제 데이비드에게 돌아와서 집을 점검하고 회장이님에 도착할 때 집에 있으라고 권유했다고 내게 알려주었다. 할레크 장로의 말에 따르면 그의 아버지는 "그분들이 천사일 수도 있잖나"라고 말했다. 오토 형제는 그의 아들들에게 선지자를 모시려면 집을 완벽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13. 헝클리 회장은 풋볼 경기장에서 미국령 사모아의 국가 지도자들과 수천 명의 사모아인으로부터 환대를 받았다.
14. 부지런히 선교 사업을 하여 가족을 결속시키는 것은 사모아 및 다른 폴리네시아 사람들의 훌륭한 특징이다.
15. 슈트 회장은 많은 사랑과 존경을 받아 2006년 오토 할레크 형제의 장례식에서 말씀하도록 요청받았다.
16. "때로 처음에는 의무감이나 책임감만으로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봉사할 때도 ... 우리는 더욱 고귀한 무언가에 의지하여 '가장 좋은' 방식으로 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교린도전서 12:31]"(조이 디 존스, "그분을 위해", 리야호나, 2018년 11월호, 50쪽)
17. See Tad R. Callister, *The Infinite Atonement* (2000), 5-8.
18. 교회 회원들은 권유할 때마다 선교사와 협의하는 것이 좋다.
19. 러셀 엠 넬슨, "이스라엘의 집합에는 자매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리야호나, 2018년 11월호, 70쪽.
20. 솔트레이크 성전 회장 및 메이트르인 비 잭슨 워스 회장과 로즈메리 엠 워스 자매가 본부 초동회 회장단에 제출한 보고, 2019년 3월. 워스 부부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수요를 맞추기 위해 더 많은 XXXS 사이즈의 침례복을 주문해야 합니다!"
21. 러셀 엠 넬슨, "개회 말씀", 리야호나, 2018년 11월호, 6-8쪽 참조.
22. 교리와 성약 131:1~4 참조.
23.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야호나, 2017년 5월호, 145쪽 참조.
24. "모든 아버지는 가족의 족장이며 모든 어머니는 여족장의 동등한 자격으로 그들만의 부모님 역할을 수행합니다." (제임스 이 파우스트 "예언의 음성," 성도의 빛, 1996년 7월호, 6쪽).
25. 교리와 성약 45:26~27; 88:91 참조.
26. 러셀 엠 넬슨, "모범적인 후기 성도가 되십시오", 리야호나, 2018년 11월호, 113쪽.
27. "사랑 넘치는 우리 집", 찬송가, 166장 참조.
28. "나의 집에 사랑이 차고 넘치면", 찬송가, 174장.
29. 이 같은 사랑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교리와 성약 121:41~42에서 제시하는 방향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신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권능이나 영향력도 유지될 수 없고 또 되어서도 아니며, 다만 설득으로, 오래 참음으로, 온화함과 온유함으로, 그리고 거짓 없는 사랑으로, 친절함과 순수한 지식으로만 되어야 하니, 이러한 것들은 위선이 없이 그리고 간교함이 없이 영혼을 심히 크게 만드느니라"  
아이들을 지나치게 비판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실수와 부족한 지혜를 극복하려면 비판이 아닌 가르침이 필요하다. 죄를 지으면 징계를 받아야 한다. (교리와 성약 1:25~27 참조)
30. 러셀 엠 넬슨, "이스라엘의 집합에는 자매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69쪽; 또한 러셀 엠 넬슨, "이스라엘 시온 군대"(청소년을 위한 전 세계 영적 모임, 2018년 6월 3일), HopeofIsrael.ChurchofJesusChrist.org 참조.
31. 어떻게 보면, 가정은 모든 연령대의 아이들을 모아 놓고 가르치는 방 하나짜리의 학교와 같다. 우리는 열한 살짜리 아이를 가르치면서도, 세 살짜기 아이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32. 요한복음 17:3; 니파이후서 31:20; 모로나이사 7:47 참조.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 주께서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함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주님의 재림에 앞서 필요한 준비를  
갖추기 위해 유일하게 권한을 받고 위임을 받았습니다.

2주 후에 우리는 부활절을 기념하게 됩니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아버지 하나님의 실재성을 확인해 줍니다. 우리의 생각은 구주께 향하고, 우리는 “그분의 비길 데 없는 삶의 실재와 그분의 위대한 속죄 희생의 무한한 가치”를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sup>1</sup> 저는 우리가 앞으로 있을 그분의 재림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재림 때 “그분은 만왕의 왕[이자] 만주의 주로서 [다스리]실 것입니다.”<sup>2</sup>

저는 한번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아주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모인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인류에 대한 그들의 사랑은 오해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 주고 억압과 빈곤에서 사람들을 구해 내기 위해 열과 성을 다했습니다. 저는 그 대회에 참가한 많은 종교 단체들과 연합하여 진행한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우리 교회가 행한 수많은 인도주의 사업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리스도와 같은 봉사를 가능하게 해 주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들의 관대함에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그 순간 성신이 저에게 두 가지를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첫째는 현세적인 필요 사항에 관련된 영역은 필수적이며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다소 뜻밖이었지만, 강하고 명확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타적인 봉사를 넘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 세상을 준비시키는 것이 지극히 중요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분이 오실 때에는, 억압과 불평등이 그저 줄어들어 그치지 않고 사라질 것입니다.

“이리가 또한 어린 양과 함께 거할 것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울 것이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할 것이며, 어린아이가 그들을 인도할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그들이 해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임이니라.”<sup>3</sup>

가난과 괴로움이 그저 줄어들어 그치지 않고 사라질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sup>4</sup>

죽음으로 겪는 고통과 슬픔도 없어질 것입니다.

“그 날에 갓난아이는 늙기까지 죽지 아니하리니, 그의 생명은 나무의 나이와 같으리라.

그리고 그가 죽을 때에 그는 잠자지 않으리니 말하자면 땅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눈 깜박할 사이에 변화되어 붙들려 올려지리니, 그의 안식은 영화로우리라.”<sup>5</sup>



그러므로 여러분, 괴로움과 슬픔을 줄이기 위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고통과 악이 모두 사라질 그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기 위해 우리 자신을 더 부지런히 헌신하십시오. 그날에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지상에서 다스리실 것[이며] 땅이 새로워지고 낙원의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sup>6</sup> 그날은 구속과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전 영국 더럼 성공회 주교인 엔 티 라이트 박사는 불평등을 극복하고 모든 것을 바로잡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의 속죄와 부활과 심판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적절하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정하신 한 사람에게 의해 세상이 정당하게 심판받게 할 날을 정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람을 죽음에서 일으키심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이에 대한 확신을 심어 주셨습니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사실은, 특히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에 관한 사실은 세상이 단지 우연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확신의 기초입니다. 세상은 근본적으로 무질서하지 않습니다. 현세에서 정의를 행할 때, 우리는 결국에는 무너지고 말 건물을 떠받치려 하거나 폐차 직전인 자동차를 수리하는 것처럼 헛된 일에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셨을 때, 이 부활은 심판이라는 궁극적이고도 대우주적인 행위의 축소판으로서, 궁극적인 희망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사렛 예수가

실제로 메시아임을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선언하셨습니다. ... 역사상 가장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 자신은 잔인하고 부당한 심판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분은 역사상의 모든 무수한 잔인함과 부당함을 상징하고 끌어모으는 자리로 나아와, 그 혼란과 어둠과 잔인함과 부당함을 스스로 감당하시고 그것의 힘을 이기셨습니다.”<sup>7</sup>

앞서 언급한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대회에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가 주님의 재림에 앞서 필요한 준비를 갖추기 위해 유일하게 권한을 받고 위임되었음을 성신을 통해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교회는 실제로 그 목적을 위해 회복되었습니다. 현 시대를, 예언에 나오는 “때가 찬 경륜”의 시대, 즉 하나님께서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실 때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이 교회 이외의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sup>8</sup> 만약 그날을 준비하려는 목적으로 산 자와 죽은 자 모두를 위해 행해야 할 일을 완수하는데 열중하고 있는 단체를 이곳에서 찾지 못한다면, 방대한 시간과 기금을 성약의 백성이 집합하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는 데 기꺼이 사용하려는 조직을 이곳에서 찾지 못한다면, 다른 어떤 곳에서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은 1831년에 교회를 향해 다음과 같이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 왕국의 열쇠가 땅에 있는

사람에게 위임되었나니, 그 곳에서부터 땅 끝까지 복음이 굴러 나아가[리라.] ...

주를 불러 그의 왕국이 땅 위에 나아가게 하며, 그 주민이 이를 영접하고, 후일을 대비하게 하라. 그 날에 인자가 자기 영광의 광채를 입고 하늘에 내려와 땅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왕국을 맞이하리라.”<sup>9</sup>

우리가 그날을 위해 지금 준비하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한 백성이 되어 우리 자신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성약의 백성들을 모으고, 우리의 조상들인 “아버지들에게 한” 구원의 약속을 지킬 수 있습니다.<sup>10</sup>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이 모든 일의 상당 부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의 재림을 위한 중요한 요소는, 첫째, 그분이 오실 때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갖춘 한 백성이 지상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날 지상에 남아 있을 자들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때에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 주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되고, 눈과 눈을 마주 대하여 보고, 그들의 음성을 높이어 한 목소리로 이 새 노래를 부르리니, 이르기를, 주께서 시온을 다시 일으키셨도다. ... 주께서 만물을 하나로 모으셨으며, 주께서 위에서 시온을 데리고 내려 오셨고, 주께서 아래에서 시온을 데리고 올라 오셨도다.”<sup>11</sup>

고대에는 하나님께서 의로운 시온 성을 품안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sup>12</sup> 이와 반대로, 후기에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새로운 시온이 그분을 맞이할 것입니다.<sup>13</sup> 시온은 마음이 정결한 자요,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의롭게 거하며 그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는 백성입니다.<sup>14</sup>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시온 건설을 최대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sup>15</sup> 우리는 가정, 와드, 지부, 스테이크에 단합과 거룩함과 사랑을 통해 시온을 세울 수 있습니다.<sup>16</sup>

우리는 시온의 건설이 격동의 시기에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경전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진노의 날, 불타는 날, 황폐의 날, 울며 애곡하며 애통하는 날이라. 회리바람같이 그 날이 온 지면 위에 임하리라. 주가 이르노라.”<sup>17</sup> 그러므로 스테이크로 모이는 것은 “진노가 온 땅에, 섞인 것이 없이 쏟아져 내릴 때 폭풍우를 피하고 진노를 피할 방어진이 되[는] 피난처”로 모이는 것이 됩니다.<sup>18</sup>

이전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금식하고 기도하며, [우리] 영혼의 복리에 관하여 서로 말하기 위하여 … 또 … 주 예수를 기억하여, 떡과 [물]을 취하기 위하여 자주 함께 모입니다.”<sup>19</sup> 러셀 엠 벨슨 회장님이 지난 10월 연차 대회에서 설명하셨듯이, “오래전부터 추구해 온 교회의 목적은 모든 회원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를 믿는 신앙을 증진하도록 돕고, 하나님과 성약을 맺고 지키도록 도우며, 그들의 가족을 강화하고 인봉하는 것입니다.”<sup>20</sup> 이에 따라, 회장님은 교회에서의 통합 교육 과정을 활용하여 가정을 중심으로 매일 복음을 흡족히 취하는 것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그리고 성전 성약의 중요성을 강조하십니다. 우리는 주님께 관해서 알기 원하고,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sup>21</sup>

시온을 건설하는 데 밑거름이 되는 노력은 오랫동안 흠어져 있던 주님의 성약의 백성을 집합시키는 것입니다.<sup>22</sup> “우리는 이스라엘이 문자 그대로 집합하고 그 열 지파가 회복될 것[을] … 믿[습니다.]”<sup>23</sup>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는 모든 이들은 그분의 성약의 백성입니다.<sup>24</sup>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집에 속한 [그분의] 백성을 회복하도록”<sup>25</sup> 당신의 재림 이전에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될 것이며,<sup>25</sup> 그리고 나서야 끝이 오리라고<sup>27</sup> 친히 예언하셨습니다. 예레미야의 다음 예언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리라.”<sup>28</sup>

벨슨 회장님은 다음과 같이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집합은 오늘날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규모, 중요성, 장엄함에서 이것과 비견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선택[한]다면 그 일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sup>29</sup> 후기 성도는 언제나 선교 사업을 행하는 백성이었습니다. 회복의 초기부터 수십만 명이 선교사 부름에 응해 왔으며, 수만 명이 현재 봉사 중입니다. 쿠엔틴 엘리 쿡 장로님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모두 사랑이 깃든 단순하고도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교회에 함께 참석하거나 우리의 가정을 방문하거나 우리와 함께 한 무리에 속하도록 다른 이들을 초대함으로써 선교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물론경의 출판은 집합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신호였습니다.<sup>30</sup> 물론경 자체가 집합과 개종의 도구입니다.

죽은 자를 대신해서 행하는 위대한 구속의 노력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주님은 “신권을 드러내[고]”, “아버지들에게 한 약속들을 자녀들의 마음에

심[기]” 위해<sup>32</sup> “여호와와 크고 두려운 날”인 재림이 이르기 전에<sup>31</sup>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약속한 대로 실제로 왔습니다. 그날은 1836년 4월 3일이었고, 그 장소는 커틀랜드 성전이었습니다. 그 시간 그 장소에서, 엘리야는 정말로 약속된 신권, 즉 죽은 자를 구속하고 모든 세대를 거쳐 그리고 영원에 이르기까지 남편과 아내와 가족을 연합하기 위한 열쇠를 주었습니다.<sup>33</sup> 이 열쇠 없이는 창조의 목적이 좌절될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온 땅은 저주받거나 “완전히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sup>34</sup>

이탈리아 로마 성전 헌납식에 앞서 열린 청소년 영적 모임에서, 그곳에 참석한 수백 명의 청남 청년들은 벨슨 회장님께 그들이 준비했던 자신들의 조상 이름이 적힌 카드를 보여 드렸습니다. 그들은 성전이 열리자마자 그 조상을 위한 대리 침례를 행하기 위해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극도로 기쁜 순간이었습니다만, 이것은 이전 세대를 위해 시온을 세우는 노력을 가속화하는 한 예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택함받은 자들을 모으고 죽은 자를 구속하는 일에서 우리의 역할을 다하는 것을 포함하여 시온을 세우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하는 도중에, 우리는 잠시 멈추어 그것이 주님의 사업이며 그분께서 그 사업을 이끌고 계신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이 포도원의 주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이



“마지막 절기에” 포도원에서 우리의 힘을 다하여 일하라고 명하시고, 그분도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sup>35</sup> 아마도 그분께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일하도록 허락해 주신다고 말하는 편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느니라.]”<sup>36</sup> 그분은 때가 되어 그분의 일을 서두르고 계십니다.<sup>37</sup> 아무래도 불완전하게 마련인 우리의 수고, 즉 “작은 수단”을 이용하여, 주님께서는 큰일을 이루십니다.<sup>38</sup>

이 위대한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 구주가 재림하실 때 하늘 위의 시온과 연합할 지상의 시온이 세워지고 있으며, 점점 그 절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날을 위해 세상을 준비시키고 있으며, 또 그렇게 하도록 권한을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이 부활 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것이 예고하는 모든 일들, 즉 화평 가운데 천 년을 통치하기 위해 그분이 돌아오실 것과, 모든 자에게 의로운 심판과 완전한 정의가 임할 것, 이 지상에 살았던 모든 자가 불멸을 얻을 것과 영생의 약속이 주어졌음을 진심을 다해 기념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것이 바로잡힐 것이라는 궁극적인 확신을 줍니다.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 시온을 세우는 데 우리의 할 일을 다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살아 계신 그리스도: 사도들의 간증”, 리야호나, 2017년 5월호, 앞표지 안쪽.
2. “살아 계신 그리스도: 사도들의 간증”.
3. 니파이후서 21:6, 9; 또한 이사야 11:6, 9 참조.
4. 요한계시록 7:16~17.
5. 교리와 성약 101:30~31.
6. 신앙개조 제10조.
7. N. T. Wright, “Full of the Knowledge of the Lord” (sermon given at matins, Durham, England, Mar. 30, 2016), ntwrightpage.com.
8. 에베소서 1:10.
9. 교리와 성약 65:2, 5.
10. 교리와 성약 2:2.
11. 교리와 성약 84:98~100.
12. 경전에는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시온이 없어졌다. 이는 하나님이 시온을 자기 품 안으로 받아들였음이라.”(모세서 7:69)
13.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셨다. “또 의를 내가 하늘에서 내려보낼 것이요, 그리고 진리를 내가 땅에서 내보내어 나의 독생자에 대하여 곧 그의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과, 그러하도다, 또한 만인의 부활에 대해서도 증거하게 할 것이요, 내가 또 의와 진리가 마치 홍수와 같이 땅을 휩쓸게 하여 땅의 사방에서 나의 택한 자를 내가 예비할 곳, 거룩한 성으로 집합시키리라. 그리하여 나의 백성이 자기 허리를 동이고 나의 오는 때를 바라가 기다리게 하려 하노니, 이는 그 곳에 나의 성막이 있을 것임이요, 그 곳은 시온, 새 예루살렘이라

- 일컬어지리라. … 천 년 동안 땅은 안식을 누리리라.”(모세서 7:62, 64)
14. 교리와 성약 97:21; 모세서 7:18 참조.
  15.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년), 186쪽.
  16.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시온에 오라”, 리야호나, 2008년 11월호, 37~40쪽.
  17. 교리와 성약 112:24.
  18. 교리와 성약 115:6.
  19. 모로나이서 6:5~6; 또한 엘마서 6:5~6; 제4니파이 1:12 참조.
  20. 러셀 엠 넬슨, “개회 말씀”, 리야호나, 2018년 11월호, 7쪽.
  21. 에레미야 31:34; 요한복음 17:3; 교리와 성약 84:98 참조.
  22. 주님의 백향 받은 자들이 한 명씩 차례대로 시온의 스테이크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들”로 집합할 것이다.(교리와 성약 109:39; 또한 교리와 성약 124:36 참조)
  23. 신앙개조 제10조.
  24. 니파이후서 30:2 참조.
  25. 조셉 스미스—마태 1:31 참조.
  26. 교리와 성약 39:11.
  27. 조셉 스미스—마태 1:31.
  28. 에레미야 16:14~15; 또한 에레미야 23:7~8 참조.
  29. 러셀 엠 넬슨, “이스라엘의 희망” (전 세계 청소년 영적 모임, 2018년 6월 3일), HopeofIsrael.ChurchofJesusChrist.org; see also Russell M. Nelson, “Remnants Gathered, Covenants Fulfilled,” in Paul Y. Hoskisson, ed., *Sperry Symposium Classics: The Old Testament* (2005), 1–17.
  30. 제3니파이 21:1~7 참조.
  31. 말라기 4:5.
  32. 교리와 성약 2:1~2.
  33. 교리와 성약 110편 참조.
  34. 교리와 성약 2:3; 또한 말라기 4:6 참조.
  35. 야곱서 5:71~72 참조.
  36. 고린도전서 3:6.
  37. 교리와 성약 88:73 참조.
  38. 니파이전서 16:29 참조.





태드 알 콜리스터  
최근 해임된 본부 주일학교 회장

#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구주의 속죄는 그 범위 면에서 무한할 뿐만 아니라 개개인에게 개별적으로 그 영향력을 미칩니다.

이 부활 절기에 우리는 구주의 속죄를 특별히 더 기뻐하고 그에 대해 생각합니다. 속죄는 이 세상이나 우주에서 이제까지 알려진 것 중 가장 신성하고, 의식을 확장시키는, 강렬한 교리입니다. 속죄는 우리 삶에 희망과 목적을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란 무엇입니까?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셋째마네 동산에서 시작되어 십자가 위로 이어졌으며 구주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으로 마무리된 일련의 신성한 사건들입니다. 이는 우리 각자를 향한, 인간의 이해력으로는 가늠할 수 없는 사랑에서 우리나라 온 것이었습니다. 속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죄가 전혀 없고, 죽음을 포함한 모든 만물을 관장할 무한한 권능을 지녔으며, 우리의 모든 죄와 절고의 결과를 감내할 수 있는 한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만물 아래로 자신을 낮춘 존재가 필요했습니다.<sup>1</sup>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었고, 이것이 그분의 속죄였습니다.

그렇다면 속죄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면전으로 돌아가, 그분과 같이 되고,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다음의 네 가지 장애물을 극복함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1. 육체적 사망
2. 아담과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영적 사망
3. 우리의 고난과 연약함
4. 우리의 약점과 불완전함

그런데 구주께서는 어떻게 공의의 법을 깨뜨리지 않으면서 이를 성취하실 수 있었을까요?

어떤 사람이 짜릿한 공중 낙하를 느끼고 싶어서 별 생각없이 소형 비행기에서 즉흥적으로 뛰어내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뛰어내리자마자 그는 곧 자신의 행동이 어리석었음을 깨닫습니다. 안전하게 착륙하고 싶지만 한 가지 장애물이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구주는 그분의 속죄를 통해 영적인 낙하산을 제공하십니다.

있습니다. 중력의 법칙입니다. 날아오르려고 팔을 아주 빠르게 움직여 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부유하거나 활강하여 낙하 속도를 줄여 보려고 자세를 잡아 보지만, 중력의 법칙은 멈출 줄 모르고 무자비하게 그를 끌어당깁니다. 그는 이 기본적인 자연 법칙을 설득해 보려고 합니다. “이건 실수였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애원을 듣는 사람은 없습니다. 중력의 법칙에는 그 어떤 연민이나 예외도 없습니다. 그런데, 운 좋게도 이 사람은 갑자기 자신의 등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비행기에 함께 탔던 그의 친구가 이 어리석음의 순간을 감지하고, 그가 뛰어내리기 직전에 낙하산을 매어 준 것입니다. 그는 낙하산 줄을 찾아서 당깁니다. 안도의 한숨을 쉬며 그는 안전하게 지상으로 낙하합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건 중력의 법칙을 거스른 것인가? 아니면 중력의 법칙 안에서 낙하산이 작동하여 안전하게 착륙한 것인가?”

죄를 지을 때, 우리는 비행기에서 뛰어내린 그 어리석은 사람과 같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추락과 곤두박질뿐입니다. 우리는 공의의 법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으며, 그것은 중력의 법칙처럼 정확하고 냉혹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구주께서 자비롭게도 그분의 속죄를 통해 우리에게 영적 낙하산과 같은 것을 제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회개한다면(즉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을 하고 낙하산 줄을 당긴다면), 구주의 보호하는 힘이 우리에게 작용하여 우리는 영적으로 무사히 착륙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구주께서 우리의 영적 진보를 막을 수 있는 네 가지 장애물을 극복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1. 사망.** 주님은 그분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통해 사망을 극복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sup>2</sup>

2. **죄.** 구주께서는 회개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죄와 죄책감을 극복하셨습니다. 이사야가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라고 약속했던, 구주의 깨끗하게 하는 권능은 참으로 심오하고도 광범위합니다.<sup>3</sup>

저는 이따금 자신을 용서하는 것을 힘들어 하는 훌륭한 성도들을 만나곤 하는데, 그들은 고의는 아니지만 구주의 구속하는 권능에 제한을 두는 잘못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그들은 무한한 속죄를 어떤 이유에서든 자신의 특정한 죄나 약점에는 미치지 못할 유한한 속죄로 바꾸어 버립니다. 하지만 모든 죄와 약점을 아우르며, 다른 사람에게서 받은 학대나 고통마저도 포함하는 속죄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트루먼 지 매드슨은 우리에게 위안을 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속임을 당해 여러분이 너무 멀리 와 버렸으며 … 죄의 독성에 중독되어 다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었던 존재가 될 수 없다고 믿게 된 분이 계시다면 제 말을 들어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과 그 광범위한 지성이 닿을 수 없을 만큼 깊이 추락할 수는 없다는 점을 간증드립니다. 아주 작더라도 회개하고 노력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그분은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처한 상태가 아닌 **그 아래로** 내려가셨으며, 그렇기에 ‘만물 안에 그리고 만물을 통하여 … 진리의 빛이 되’셨습니다.[교리와 성약 88:6]<sup>4</sup>

구주의 속죄와 그 무한한 영향력을 이해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한 가지 이유는 속죄에 대한 이해가 커질 때 자신과 다른 이들을 용서하려는 소망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결케 하는 권능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종종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내가 지은 죄를 용서받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가 영을 느낀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또는 정결케 하는 과정이 시작되었다는

증거입니다.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이 성신의 영향력을 느꼈다면 … 속죄가 여러분의 삶에 작용하고 있다는 증거로 보아도 무방합니다.”<sup>5</sup>

어떤 이들은 “내가 용서받았다면, 왜 여전히 죄책감을 느끼는가?”라고 질문합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자비 안에서 죄책감에 관한 기억은 경고이자 일종의 영적인 ‘정지 신호’로서, 적어도 한동안은 또다시 유혹이 닥쳐올 때 “그 길로 가지 마. 그 길을 갈 때 찾아올 고통이 어떤지 알잖아.”하고 외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죄책감은 형벌이 아닌 보호 장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죄를 기억하면서도 죄책감을 벗어버리는 것이 가능할까요?

엘마는 회개하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자신의 죄를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 자비를 구하고 난 후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더 이상 내 고통을 기억할 수 없었노니, 참으로 나는 더 이상 내 죄의 기억으로 괴로움을 당하지 아니하였느니라.”<sup>6</sup>

그는 어떻게 자신의 죄를 기억하면서도 고통이나 죄책감에서는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에게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sup>7</sup> 경전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sup>8</sup> 한 점 부끄럼 없이 우리는 “나는 과거에 그런 죄를 저질렀던 사람이 아닙니다. 새롭게 변화된 존재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3. **우리의 고난과 연약함.** 엘마는 그리스도께서 “나아가사, 온갖 고통과 고난과 시험을 당하”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의 심정을 자비로 충만하게 하사, 육체를 따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연약함을 좇아 어떻게 도울지 아시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sup>9</sup>

그분은 이를 어떻게 성취하십니까? 그분은 때때로 우리가 겪는 고난을 없애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이를 견딜 수 있도록 우리를 강하게 하시며, 어떤 때는 우리가 그 고난의 일시적인 속성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영원한 관점을 갖게 해 주십니다. 약 두 달 동안 리버티 감옥에 투옥되었던 조셉 스미스는 결국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 하나님이지여, 당신은 어디 계시나이까?”<sup>10</sup>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그를 고난에서 구해 주시는 대신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내 아들이야, 네 영혼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역경과 네 고난은 잠시 뿐이리니, 그러고 나서 만일 네가 이를 잘 견디어내면, 하나님이 너를 높이 들어 올리실 것이요.”<sup>11</sup>

조셉은 이제 이 쓰라린 경험이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하나의 점에 지나지 않음을 이해했습니다. 이 깊어진 이해를 바탕으로 조셉은 같은 감방 안에서 성도들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지극히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의 능력 안에 놓여 있는 모든 일을 기쁘게 행하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최대한의 확신을 가지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 … 기를 바라노라.”<sup>12</sup> 구주의 속죄 덕분에 우리는 우리가 겪는 시련에 의미를 부여해 주는 영원한 관점과, 그 시련이 거두어질 것이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4. 우리의 약점과 불완전함.** 구주께서는 그분이 치르신 속죄를 통해 가능하게 하는 힘을 가지셨습니다. 때로 은혜<sup>13</sup>라고 일컬어지는 이 힘은 우리가 약점과 불완전함을 극복하도록 도울 수 있으며, 따라서 좀 더 그분과 같이 되고자 하는 과정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모로나이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와, 그의 안에서 온전하게 되고, … 그의 은혜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될지라.”<sup>14</sup> 우리를 발전시키고 온전하게까지 할 수 있는 그 가능하게 하는 힘을 받는 방법에는 최소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구원 의식입니다. 경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의 의식으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느니라.”<sup>15</sup> 가끔 우리는 의식을 마치 점검표처럼 생각합니다. 각 의식은 승영에 필요한 것이지만, 참으로 우리에게 좀 더 그리스도와 같이 되게 하는 신성한 능력을 줍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 우리가 침례를 받고 성신의 은사를 받을 때 우리는 깨끗해지며, 그러므로 조금 더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거룩해집니다.
- 그에 더하여, 성신을 통해 우리의 생각은 밝아지며 우리의 마음은 부드러워져서 좀 더 주님과 같이 생각하고 느낄 수



있습니다.

- 우리가 부부로서 인봉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왕위와 왕국과 통치권과 권세”를 받을 권리를 상속받습니다.<sup>16</sup>

이 가능하게 하는 힘을 얻는 두 번째 방법은 영의 은사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죄 덕분에 우리는 성신의 은사와 그에 동반되는 영적 은사를 받을 자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런 은사는 신성한 성품이며, 따라서 우리는 어떤 영의 은사를 얻을 때마다 좀 더 하나님과 같이 됩니다. 경전에서 여러 번에 걸쳐 우리에게 이런 은사를 구하라고 명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sup>17</sup>

조지 큐 캐넌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아, 도리가 없어. [이게 내] 천성인걸.’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 [우리의 약점을] 뿌리 뽑을 은사를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 우리 중 누구라도 결점이 있다면, 우리가 할 일은 자신을 온전하게 할 은사를 간구하는 것입니다.”<sup>18</sup>

요약하자면, 구주의 속죄는 우리에게 죽음 대신 삶을 주며, “화관을 주어 그 재를 대신하며”<sup>19</sup>, 상처 대신 치유를, 약함 대신 온전함을 줍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방해물과 어려움을 해결할 하늘로부터 온 방책입니다.

구주께서는 그분의 필멸의 삶 마지막 주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sup>20</sup> 구주께서 속죄를 이루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만 한다면,

그 어떤 외부적인 힘이나 사건, 또는 사람도, 그 어떤 죄나 죽음, 이혼도 우리가 승영을 이루는 것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지식이 있다면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또한 본향을 향한 이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구주의 속죄의 영향력이 그 범위 면에서 무한할 뿐만 아니라 개개인에게 개별적으로 미치고, 우리를 하나님 면전으로 돌아가게 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분과 같은 자가 되게 해 준다는 것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속죄가 가진 궁극의 목적임을 간증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제 감사와 확신을 담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

주

1. 교리와 성약 88:6 참조.
2. 고린도전서 15:20~22.
3. 이사야 1:18.
4. Truman G. Madsen, *Christ and the Inner Life* (1978), 14.
5. Henry B. Eyring, “Gifts of the Spirit for Hard Times,” *Ensign*, June 2007, 23.
6. 앨마서 36:19; 또한 앨마서 36:20~21 참조.
7. 앨마서 36:23; 또한 앨마서 36:24~26 참조.
8. 모사야서 27:26.
9. 앨마서 7:11~12.
10. 교리와 성약 121:1.
11. 교리와 성약 121:7~8.
12. 교리와 성약 123:17.
13. 경전 안내서, “은혜” 참조, scriptures.ChurchofJesusChrist.org.
14. 모로나이서 10:32.
15. 교리와 성약 84:20.
16. 교리와 성약 132:19.
17. 고린도전서 12:31; 모로나이서 10:30; 교리와 성약 46:8 참조.
18. 조지 큐 캐넌, “영적인 은사를 간구하십시오”, *리아호나*, 2016년 4월호, 80쪽.
19. 이사야 61:3.
20. 요한복음 16:33.



러셀 엠 넬슨 회장

#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부모가 계신 본향으로 돌아가는 성약의 길을 걷고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라고 우리에게 권고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와 제 아내 웬디는 이 안식일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지난 연차 대회 이후에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성전이 칠레 콘셉시온, 콜롬비아 바랑기야, 이탈리아 로마에서 헌납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성스러운 행사들에서 풍성하게 쏟아져 내리는 영을 느꼈습니다.

최근에 물몬경을 읽으며 기쁨을 느끼고 감추인 보화들을 찾아내신 많은 여성분(과 남성분)들께 축하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한 기적에 대한 보고를 통해 저 역시 감화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집사가 되어 일요일마다 합당하게 성찬을 전달하는 만 11세 청년들을 보며 감동을 받습니다. 이들은 이제 꿀벌반이 되어 열성적으로 배우고 봉사하는 만 11세 청년들과 함께 성전에 갑니다. 청년 청년들은 모두 명확하고 자신 있게 복음 진리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정 중심이 되고 교회가 그것을 뒷받침하는 교과 과정을 따르기 위해 부모와 함께 공부하면서 가정에서 복음을 가르치는 일을 돕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보면 기쁩니다.

우리는 네 살짜리 블레이크의 사진을 받았는데, 블레이크는 어느 토요일 이른

아침에 교회 서적을 집어 들고는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제 영에 밥을 줄 시간이에요!”

블레이크 형제님,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 진리를 흡족히 취함으로써 자신들의 영을 먹일 것을 선택하는 형제님과 여러 사람들을 생각하니 행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많은 사람이 성전에서 예배하고 봉사함으로써 하나님의 권능을 그들의 삶에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에 기쁩니다.

많은 분이 아시다시피, 3개월 전에 저희 가족은 제 딸 웬디를 필멸의 세상에서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암과 싸우던 웬디가 생의 막바지에 다다르게 되었을 때, 감사하게도 저는 웬디와 부녀간의 마지막 작별의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딸아이의 두 손을 잡고 제가 그



“영에 밥을 주어야” 했던 네 살 블레이크.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제가 그 아이의 아버지라 얼마나 감사한지를 말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넌 성전에서 결혼했고 네가 맺은 성약을 충실하게 지켰어. 너와 네 남편은 일곱 자녀를 가정으로 맞이했고 그 아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충실한 제자이자 용감한 교회 회원으로, 또 사회에 공헌하는 시민으로 키워 냈지. 그리고 그 아이들은 그와 똑 같은 자질을 갖춘 배우자들을 선택했어. 아빠는 네가 아주 아주 자랑스럽단다. 넌 내게 크나큰 기쁨을 안겨 줬단다!”

웬디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정말 애뜻하고 눈물 어린 시간이었습니다. 웬디가 67년을 사는 동안, 우리는 함께 일했고, 함께 노래했고, 자주 함께 스키도 뒀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 즉 성약, 의식, 순종, 신앙, 가족, 충실함, 사랑, 영생과 같은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웬디가 사무치게 그리웁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이 있기에, 우리는 웬디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맺은 성약을 계속 충실하게 지키며 웬디와 다시 만날 날을 고대하며 살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이곳에서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웬디는 그곳 낙원에서 주님을 위해 봉사하는 것뿐입니다.<sup>1</sup>

실은 연초에 아내와 함께 낙원에 다녀올 일이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파라다이스 말입니다. 공교롭게도, 그곳을 방문한 일정은 제 딸 웬디가 이생을 떠난 지 40시간이 채 안 되었을 때였습니다. 저희는 케빈 더블유 피어슨 장로님과 그분의 아내인 준과 함께 캘리포니아 치코 스테이크 성도들에게서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캘리포니아주 역사상 가장 파괴적이었던 대형 산불 때문에 그들이 입은 절망적인 손실 속에서도 그들이 보여준 크나큰 신앙과 성역, 기적들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용감한 초기 대응자들 중 한 명인 젊은 경찰관 존과 함께 길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2018년 11월





8일 금요일에 파라다이스를 덮친 짙은 어둠을 회상했습니다. 불길과 불덩이들이 마을을 휩쓸고 지나가며 토지와 재산을 재앙처럼 집어 삼켰고, 남은 것은 오로지 찻터미와 앙상한 벽돌 굴뚝 뿐이었습니다.

열다섯 시간 동안, 존은 위협적인 불덩이가 창같이 내리꽂히며 줄무늬를 만드는 지독한 암흑 속으로 차를 몰며 개개인과 가족들을 연이어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켰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놓은 채 말입니다. 그 고된 시련 가운데 존을 가장 공포로 내몬 것은 다음 질문이었습니다. “내 가족은 어디 있을까?” 비통함과 공포로 지나간 시간을 보낸 뒤에, 비로소 존은 자신의 가족이 안전하게 대피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 가족들의 행방을 염려했던 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오늘 이생의



넬슨 회장은 캘리포니아주 파라다이스를 방문하는 동안, 크나큰 신앙과 성역, 기적에 대해 들었다.

마지막을 맞이하며 “내 가족은 어디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실 만한 분들에게 말씀해야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반드시 도래할 그날, 이 필멸의 기간을 마치고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날, 여러분은 이 가슴 미어지는 질문을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내 가족은 어디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가는 길을 가르치십니다. 그분은 영원한 진보에 관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우리 중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무엇보다도, 그분은 이 모든 것의 핵심이자 종성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속주요, 치유자요, 구주이십니다.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래로,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는 그분을 따를 것을 선택하는 모든 사람을 돕기 위해 그분의 능하신 팔을 펼치셨습니다. 경전에는 모든 사람이 짓는 모든 종류의 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여전히 팔을 활짝 펴고 계시다고 거듭 기록되어 있습니다.<sup>2</sup>

우리 각자의 영은 가족 간의 사랑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자연스레 갈망합니다. 사랑이 속삭이는 노래들은 영원히 함께하길 원할 때 필요한 것은 오직 사랑뿐이라며 그릇된 믿음을 심어 줍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모든 사람은 죽음 이후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게 된다는 약속을 받았다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자면, 구주께서는 지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이 그분의 부활로 인해 부활하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은 분명하나,<sup>3</sup> 승영이라는 가장 높은 특권을 받으려면 더 많은 것이 요구됨을 매우 분명히 하셨습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문제이지만 승영은 가족의 문제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 보십시오. “모든 성약, 계약, 약정, 의무, 맹세, 서약, 의례, 결합, 결연 또는 기대는 맺어지고 세워지고 나서, ... 약속의 성령에 의하여 ... 인봉되[지 아니하면], ...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때나 그 이후에 아무런 효과나 효능이나 효력이 없나니, 이는 이 결과에 이르도록 맺어지지 아니한 모든 계약은 사람이 죽을 때 끝이 남이니라.”<sup>4</sup>

따라서, 가족이 영원히 승영하는 데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성약을 맺고, 그 성약들을 지키며, 필수적인 의식들을 받음으로써 **그려한** 특권을 누릴 자격을 갖추니다.

이것은 태초부터 이어져 온 진실입니다. 아담과 이브, 노아와 노아의 아내, 아브라함과 사라, 리하이와 새라이아 등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충실한 제자들은 모두 하나님과 **동일한** 성약을 맺었습니다.



그들은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회복된 교회 회원으로서 침례식과 성전에서 맺은 성약의 의식들을 **동일하게** 받았습니니다.

구주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그분을 따라 침례의 물로 들어오라고 권유하시며, 때가 되었을 때 성전에서 하나님과 더 많은 성약을 맺고, 그에 따르는 추가적인 필수 의식들을 받아 그에 충실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가족과 함께 승영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려면 이 모든 것이 필수적입니다.

제 마음에 있는 큰 걱정은 제가 사랑하고 흠모하고 존경하는 많은 이들이 그분의 권유를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서 나를 따르라”고 손짓하실 때<sup>5</sup> 그분의 청을 도외시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왜 눈물을 흘리시는지 알게 되었습니다.<sup>6</sup> 저도 그런 친구와 친척들을 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들은 훌륭한 남성과 여성들로서 가족에게 헌신하고 사회적인 책임을 다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시간과 정력과 자원을 후히 내놓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노고 덕분에 세상은 더 나은 곳이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성약을 맺지 않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가족과 더불어 그들을 승영하게 해 주고 서로를 영원토록 함께

뉘어 줄 의식들을 받지 않았습니다.<sup>7</sup>

정말이지 저는 그들과 만나서 주님의 가능하게 하는 율법을 진지하게 숙고해 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제가 어떻게 말해야 그들이 구주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제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될지, 그리고 성약을 지키는 여성과 남성이 어떻게 “충만한 기쁨”을 받을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될지 궁금합니다.<sup>8</sup>

그들은 내세에 자신들을 위한 처소, 즉 본인들처럼 훌륭하지만 하나님과 성약을 맺지 않는 것을 선택한 남자가 거하게 될 장소가 있긴 하나, 그곳은 가족들이 재결합하고 영원토록 살면서 발전할 특권이 주어지는 곳은 **아닙니다**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곳은 그들이 결코 끝이 없는 발전과 행복이라는 충만한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왕국이 **아닙니다**.<sup>9</sup> 그러한 궁극적이고 완벽한 축복들은 승영에 이른 해의 영광에서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훌륭하고 합당하고 자격을 갖춘 우리 가족들과 더불어 살 때에만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주저하는 제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해 주고 싶습니다.

“이생에서 자넨 어떤 경우에도 둘째가는

것에 만족한 적이 없어. 하지만 자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면, 그것은 곧 둘째가는 것에 머무는 것을 선택하는 거라네.

구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sup>10</sup> 하지만 자네가 하나님과 성약을 맺지 않는 것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곧 가장 보잘것없는 지붕 아래에서 영원무궁토록 사는 것에 만족하는 거라네.”

계속해서 저는 이런 말로 제 주저하는 친구들에게 애원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온 마음을 쏟아 보게. 그분께 이것들이 참된지 여쭙 보게. 시간을 내서 그분의 말씀을 공부하게. 정말로, 진심으로 연구하게! 가족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영원히 승영하고 싶다면 지금 그 값을 치러야 하네. 그 값이란 진지하게 공부하고 열렬히 기도하여 이 영원한 진리에 대해 알고, 그런 뒤 그에 따라 생활하는 것이네.

자신이 하나님을 믿기나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면 거기서부터 시작하게. 하나님과의 경험이 전무한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할 수 있다는 걸 이해하게. 그러니 그분과의 경험을 시작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게. 마음을 겸손히 하게. 자네 인생과 자네 주변 세상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인식할 눈을 달라고 기도하게. 그분이 정말 계시고 자네를 아시는지 알려 달라고 간구해 보게. 그분이 자네를 어떻게 여기시는지 여쭙 보게. 그런 다음, 귀 기울여 보게.”

제 소중한 친구 중 한 명 역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와 함께하기를 바랐고, 제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교리를 이해하고 복음 성약과 의식과 축복들을 배우기 위해 우리 선교사들을 만나 보라고 그를 독려했습니다.

친구는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선교사들이 권고한 과정을 밟으려면 인생에서 바껴야 할 부분이 너무 많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계명과 성약들은 내겐 너무 어려워. 게다가 난 십일조를 낼 형편도 못 되고 교회에서 봉사할 시간도 없어.” 그러더니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자녀가 내 아내와 내게 필요한 성전 의식을 해서 우리가 다시 함께할 수 있게 해 주게나.”

다행히도, 저는 이 사람의 판사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이생에서 필멸의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침례받고 신권에 성임되고 성전 축복들을 받을 기회가 있었으나 그 과정을 의식적으로 거절하기로 결정한 남자를 위해 대리 성전 사업을 하는 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 정말 의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부모가 계신 본향으로 돌아가는 성약의 길을 걷고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라고 우리에게 권고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와서 나를 따르라”고 권유하십니다.

이제 저는 그분의 교회 회장으로서 교회에서 멀어진 분들과 구주의 교회가 회복되었는지 아직 진지하게 알아보지 않은 분들께 간청드립니다. 여러분 스스로 알기 위해 영적인 노력을 기울이십시오. 바로 지금 시작하십시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니다.

저는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간증드립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교회와 그분의 충만한 복음은 현재와 내세에서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축복하기 위해 회복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 주
1. 엘마서 40:12~14 참조.
  2. 에레미야 27:5; 마태복음 23:37; 누가복음 13:34; 엘마서 5:33; 제3니파이 9:14 참조.
  3.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부활할 것이다.(엘마서 11:41~45; 40; 교리와 성약 76; 모세서 7:62 참조)
  4. 교리와 성약 132:7.
  5. 누가복음 18:22.
  6. 요한복음 11:35; 모세서 7:28~29 참조.
  7. 교리와 성약 76:50~70 참조.
  8. 교리와 성약 138:17.
  9. 모사이야서 2:41; 엘마서 28:12 참조.
  10. 요한복음 14:2.



일요일 오후 모임  
 달린 에이치 옥스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 회개를 통하여 정결하게 됨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덕분에 우리는 회개의 과정을 통하여 정결하게 될 수 있습니다.

지상에서 우리는 인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의 구속을 받습니다. 저는 십이사도부름받기 전에는 유타주 대법원의 판사로서, 현재는 제일회장단의 일원으로서, 이 각각의 법에 따라 중죄를 재판해 본 이례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인간의 법과 하나님의 법 사이의 차이점을 통해, 저는 예수 그리스도 속죄의 실재성과 그 권능에 더욱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법에 따르면, 가장 심각한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가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결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운 계획 아래서는 달라집니다. 저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을 지닌 모든 자”가 지은 죄를 위한 구주의 속죄 희생 덕분에 이 똑같은 중죄가 현재에서 용서받을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니파이후서 2:7) 그리스도는 구속하시며 그분의 속죄는 실재합니다.

구주의 애정 어린 연민은 방금 합창단이 부른 훌륭한 찬송가에 잘 드러납니다.

예수께 오라 어둠 속에서  
 헤맸지라도 살피시네  
 그의 사랑이 어둔 밤에서  
 밝은 낮으로 인도하리<sup>1</sup>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희생을 통해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그분]에게 나아[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교리와 성약 18:11; 또한 마가복음 3:28; 니파이전서 10:18; 앨마서 34:8, 16 참조) 앨마서에는 과거 사악하고 잔인했던 백성마저 회개하여 용서를 받은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앨마서 25:16; 27:27, 30 참조) 오늘 저는 파문되거나 제명되어 교회 회원 자격을 잃은 분을 포함하여 우리 모두에게 허락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지만 회개를 통하여 정결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전의 한 연차 대회에서 러셀 엠 넬슨 장로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sup>2</sup>

## I. 회개

회개는 우리 구주로부터 시작되며, 그것은 부담이 아닌 기쁨입니다. 작년 12월의 성탄절 영적 모임에서 러셀 엠 넬슨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일회성 행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끝이 없는 특권입니다. 그것은 진보를 위한 토대로, 마음의 평안과 위안과 기쁨을 얻는 방식입니다.”<sup>3</sup>

회개에 관한 가장 위대한 가르침은 몰몬경에 나오는 앨마가 교회 회원들에게 한 설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앨마는 후에 그들이 “심하게 믿지 않은 상태”였고, “교만 중에 자고하[였]”으며, “재물과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두고 있었다고 묘사했습니다.(앨마서 7:6) 이 회복된 교회의 회원은 각자 앨마의 영감 어린 가르침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서 시작합니다. 이는 “각 사람의 죄를 제하려 오시는 이가 그이시”기 때문입니다.(앨마서 5:48) 앨마가 가르쳤듯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으므로, 우리는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앨마서

5:51) 회개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모든 사람은 필멸의 경험을 하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끊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회개하지 않는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앨마서 5:31; 또한 힐라맨서 12:22 참조)

이러한 가르침은 태초부터 존재했습니다. 주님은 아담에게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런즉 모든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반드시 회개해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면 그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왕국을 기업으로 받을 수 없음을 네 자녀에게 가르치라. 이는 부정할 것이 그 곳에 거할 수 없음이니, 곧 그의 면전에 거할 수 없음이니라.”(모세서 6:57)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명하신 것을 행한 것이나, 하라고 명하셨지만 행하지 않은 것을 포함하여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이는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바로 어제 저녁, 넬슨 회장님은 우리에게 다음의 도전 과제를 주셨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모두 회개해야 합니다.”<sup>4</sup>

회개를 통해 정결해지려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버려야 하며 그 죄를 주님과, 필요한 경우에는 그분께서 부르신 지상의 재판관에게 고백해야 합니다.(교리와 성약 58:43 참조) 앨마는 우리 또한 “의의 일에서 결실을 거두”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앨마서 5:35) 이 모두는 경전에서 자주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라는 권고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안식일마다 성찬을 취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찬 의식을 통해 맺는 성약과 우리가 받는 축복은, 구주께서 우리에게 성취하도록 권고하신 그 온전함에 이르지 못하게 우리를 가로막는 모든 행위 및 욕구를 이겨 내도록 우리를 도와줍니다.(마태복음 5:48; 제3니파이 12:48 참조) 우리가 “모든 경건하지 아니한 것을 거부하고, [우리의] 능력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되고, 그분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 “거룩하며 흠 없게” 될 것입니다.(모로나이서 10:32~33)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 II. 책임과 지상의 심판

우리에게 이 지상 경험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의 한 가지 목적은 “주 [우리]의 하나님이 명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가] 다 행하는지를” “시험하”는 것입니다.(아브라함서 3:25) 이 계획의 일부로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이 선택하신 종들 앞에 책임을 지게 되며, 그러한 책임은 지상의 심판과 하늘의 심판을 모두 수반할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에서는 하늘의 인도를 구하는 지도자들에 의해 회원이나 예비 회원에 대한 지상의 심판이 집행됩니다. 영생으로 향하는 성약의 길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권능을 받기 위해 그분께로 나아오고자 하는 이를 심판하는 것이 그들의 책임입니다. 지상의 심판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을 준비가 되었는지 아닌지를 밝혀 냅니다. 이 사람이 성전 추천서를 받기에 합당한가? 교회 기록에서 제명되었던 이 사람이 다시 침례 받고 교회에 재입교할 수 있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충분히 회개하였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지상의 재판관이 어떤 사람에게 성전 의식의 특권처럼 더 많은 진보를 이를 기회를 승인할 때, 이는 그 사람이 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재판관이 그 어떠한 죄도 용서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스펜서 더블유 김볼 회장은 지상에서 “처벌이 철회”된 후에도 당사자가 “반드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최종적으로 회개를 구하고 용서 받아야 하며, 오직 그분만이 그 죄를 용서해주시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sup>5</sup> 만일 죄가 되는 행위나 욕망을 최후의 심판까지 회개하지 않고 내버려 둔다면,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정결하지 않은 상태에 머물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 마침내 정결해지는 것을 포함한 최종적인 책임은 우리 각자와 하나님 사이의 일입니다.

### III. 부활과 최후의 심판

경전에서 가장 흔히 다루어지는 심판은 부활 이후에 오게 될 최후의 심판입니다.(니파이후서 9:15 참조) 경전 곳곳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죽어야 하는 몸으로 행한 행위에 따라 심판받”기 위해(앨마서 5:15; 또한 요한계시록 20:12; 앨마서 41:3; 제3니파이 26:4 참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로마서 14:10; 또한 니파이후서 9:15; 모사이야서 27:31 참조) 모든 사람은 “그들의

행위에 따라”(제3니파이 27:15), 그리고 “그들 마음의 소원에 따라”(교리와 성약 137:9; 또한 앨마서 41:6 참조) 심판받을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의 목적은 우리가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 “더 이상 악을 행하고자 하는 의향이 없으며, 끊임없이 선을 행하고자 하”는 상태(모사이야서 5:2), 곧 앨마가 “마음[의] 크나큰 변화”라고(앨마서 5:14, 26) 묘사한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밝혀 내는 것입니다. 이 일의 심판자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요한복음 5:22; 니파이후서 9:41 참조) 그분의 심판이 끝나면, 우리는 모두 “그의 심판이 공의로우시다”라고 인정할 것입니다(모사이야서 16:1; 또한 모사이야서 27:31; 앨마서 12:15 참조).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는(니파이후서 9:15, 20 참조) 회개했거나 의로운 우리의 행위와 소망부터, 회개하지 않았거나 변화되지 않은 행위와 소망까지도 완벽히 아시기 때문입니다.

경전에는 이러한 최후의 심판의 과정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앨마는 우리 하나님의 공의가 부활 때에 “만물이 그 적절한 질서로 회복”되는 것을 요구한다고 가르칩니다.(앨마서 41:2) 이는 “만일 이 생에서 그 행위가 선하였고, 그 마음의 원하는 바가 선하였으면, 그들[은] … 마지막 날에 선한 것으로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앨마서 41:3) 마찬가지로, “만일 그 행위나 그들의 원하는 바가 악하면 그것이 그들에게 악으로 회복될 것”입니다.(앨마서 41:4~5; 또한 힐라만서 14:31 참조) 마찬가지로, 선지자 야곱은 최후의 심판에서 “의로운 자들은 그대로 의로울 것이요, 더러운 자들은 그대로 더러[울]”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니파이후서 9:16; 또한 몰몬서 9:14; 니파이전서 15:33 참조) 그것이 모로나이가 칭하는 “산 자와 죽은 자의 영원한 재판관이신 위대한 여호와와 기쁜 심판대”에 이르기 전에 거치게 되는 과정입니다.(모로나이 10:34; 또한 제3니파이 27:16 참조)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확실히 하려면, 우리는 최후의 심판 전에 회개해야 합니다.(몰몬서 3:22 참조) 앨마가 그의 죄 많은 아들에게 말했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숨길 수 없습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는 한 그것들이 마지막 날에 너를 치는 증거가 되리라.”(엘마서 39:8; 강조체 추가)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만 회개를 거쳐 필요한 정결함에 도달할 수 있으며, 이 필멸의 삶은 그 일을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어떤 회개는 영의 세계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가르침을 받으나(교리와 성약 138:31, 33, 58 참조), 그것은 현세에서의 회개만큼 확실하지 않습니다. 멜빈 제이 벨라드 장로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육신과 영이 하나로 합쳐져 있을 때 어려움을 극복하고 주님을 섬기기가 훨씬 쉽습니다. 이때가 인간에게는 더욱 순응적이고 수용적인 시기입니다. … 이 생은 회개하는 시간입니다.”<sup>6</sup>

회개할 때, 우리는 우리의 행위와 욕망을 비롯한 죄가 씻겨질 것이며, 우리의 자비로운 마지막 심판자가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확신을 주님으로부터 연습니다 (교리와 성약 58:42; 또한 이사야 1:18; 예레미야 31:34; 히브리서 8:12; 엘마서 41:6; 힐라맨서 14:18~19 참조) 회개를 통해 정결하게 된 우리는 베나민 왕의 표현처럼 “하나님과 함께 결코 끊이 없는 행복한 상태에 거하”는 영생을 누리기에 합당하게 됩니다.(모사이야서 2:41; 또한 교리와 성약 14:7 참조)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회복의 계획”(엘마서 41:2) 또 다른 부분인 부활은 “모든 것[을] 그 적절하고도 완전한 구조로 회복[할]” 것입니다.(엘마서 40:23) 이는 선천적인, 혹은 정신적 외상이나 질병으로

얻은 우리의 모든 신체적 결함과 기형의 완전한 회복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회복이 우리가 거룩하지 않거나 억제되지 않은 모든 욕망이나 중독으로부터 벗어나 온전하게 되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현대의 계시를 통해, 우리가 우리의 행위 뿐만 아니라 소원으로도 심판받을 것이며(엘마서 41:5; 교리와 성약 137:9 참조), 심지어는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정죄하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엘마서 12:14 참조) 주님에게 속했던 악마에게 속했던, 이생에서 우리 몸을 소유했던 같은 영이 “저 영원한 세상에서 [우리] 몸을 소유할 능력을 가질 것”이기 때문에(엘마서 34:34), 엠올레크는 우리가 “[우리의] 회개의 날을 [죽음의 순간]까지 미루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엘마서 34:33) 우리 구주는 우리를 악으로부터 정결하게 해 줄 권능을 가지고 계시며, 그럴 준비를 하고 서 계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최후의 심판에서 하나님 앞에 서기에 깨끗해지고 준비되도록, 그분의 도움을 구하여 우리의 사악하고 부적절한 생각과 소망을 회개할 시간입니다.

#### IV. 자비의 팔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모든 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사랑입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가장 바랄만한 것이며] … 영혼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니파이전서 11:22~23) 선지자 이사야는 사악한 자들에게도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 그가 긍휼히

여기시[고] …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는 확신을 주었습니다.(이사야 55:7) 엘마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보라, 그는 만인에게 초청을 보내시나니, 이는 자비의 팔이 그들을 향하여 퍼져 있음이라.”(엘마서 5:33; 또한 니파이후서 26:25~33 참조)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니파이 백성에게 “보라, 나의 자비의 팔이 너희를 향하여 펼쳐져 있나니, 누구든지 오는 그를 내가 영접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제3니파이 9:14) 이외에도 경전의 다른 많은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구주께서 팔을 활짝 펴시어 모든 남자와 여자를 영접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구주께서 세우신 사랑이 넘치는 조건을 따른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마련하신 가장 위대한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sup>7</sup>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덕분에 저는 “소망의 완전한 밝은 빛”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우리는 회개의 과정을 통하여 정결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증합니다. 우리는 다음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힘써 앞으로 나아가되 그리스도의 말씀을 흠족히 취하며 끝까지 견딜진대, 보라, 이같이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영생을 얻으리라.”(니파이후서 31:20) 우리가 모두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 주

1. “예수께 오라”, 찬송가, 77장.
2. 러셀 엠 넬슨, “회개와 개심”, *리아호나*, 2007년 5월호, 104쪽; 강조체 추가.
3. 러셀 엠 넬슨,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네 가지 선물”(2018년 제일회장단 성탄절 영적 모임, 2018년 12월 2일),
4. 러셀 엠 넬슨, “우리는 더 잘할 수 있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리아호나*, 2019년 5월호, 69쪽.
5. *The Teachings of Spencer W. Kimball*, ed. Edward L. Kimball (1982), 101.
6. Melvin J. Ballard, in Melvin R. Ballard, *Melvin J. Ballard: Crusader for Righteousness* (1966), 212–13.
7. See Tad R. Callister, *The Infinite Atonement* (2000), 27–29.





후안 파블로 비야르 장로  
칠십인 정원회

# 영적 근육을 단련시킴

근육에 관해 읽고 공부하는 것만으로는 근육을 단련하는 데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행위 없이 단지 신앙에 대해서 읽고 공부하는 것만으로는 신앙을 키우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는 육신을 가질 수 있는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육신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우리의 몸에는 600개가 넘는 근육이 있습니다.<sup>1</sup> 우리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에 충분한 상태를 유지하려면 여러 근육을 단련해야 합니다. 근육에 관해 읽고 배우는 데 상당한 정신력을 기울일 수 있겠지만 그것만으로 근육이 강해질 것이라고 여긴다면 매우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근육은 우리가 그것을 직접 사용할 때에만 더 강해집니다.

저는 영적인 은사도 이와 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은사도 단련되어야 강해집니다. 예를 들면 신앙의 영적 은사는 어떤 느낌이나 기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전에서 자주 “행사하다”라는 동사와 연결되어 등장하는 행동의 원리입니다.<sup>2</sup> 근육에 관해 읽고 공부하는 것만으로는 근육을 단련하는 데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행위 없이 단지 신앙에 대해서 읽고 공부하는 것만으로는 신앙을 키우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가 16살이던 어느 날, 당시 22살이던 큰 형 이반은 집에 와서 가족들에게 새로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바로 형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서 침례 받기로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은 다소 미심쩍은 눈길로 형을 보셨고 저는 무슨 상황인지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약 1년이 지난 후 형은 더욱 놀라운 소식을 우리에게 전했습니다. 교회의 선교사로 봉사하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2년 동안 우리가 그를 볼 수 없음을 의미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그 소식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형의 굳은 결심을 보았고 그래서 형과 형의 결정을 더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몇 달 후, 이반 형이 선교 사업을 하는

도중 저는 제 동창들과 여행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고등학생 시절의 마지막을 기념하는 뜻에서 해변에서 며칠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저는 선교사였던 형에게 편지를 써서 제 여름 여행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형은 답장에서 그가 제 여행 목적지로 가는 길목에 있는 도시에서 봉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가는 길에 형에게 잠시 들르기로 했습니다. 선교사들이 가족의 방문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은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버스에 앉아서 가는 동안 이반 형과 신나게 보낼 청명한 하루를 생각하던 것이 기억납니다. 같이 아침 식사를 하고 이야기도 하고 모래에서 놀고, 일광욕도 즐기며 보낼 즐거운 시간을 상상했습니다!

버스가 터미널에 다다랐을 때 저는 이반 형이 다른 젊은 남자와 나란히 흰 셔츠와 넥타이를 매고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버스에서 내렸고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형은 그의 동반자를 저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시간이 없었기에 저는 바로 형에게 그날의 계획을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반 형이 어떤 하루를





계획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저를 바라보고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지! 그렇지만 우선 해야 할 일들이 좀 있어. 우리랑 같이 갈래?” 저는 할 일이 다 끝난 후 해변을 즐길 충분한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는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는 형과 형의 동반자와 함께 그 도시의 거리를 10시간도 넘게 걸어 다녔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사람들에게 미소를 지었고, 만나 본 적이 없는 낯선 사람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우리는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했고, 모르는 이의 현관문을 두드렸으며, 형과 형의 동반자가 가르치는 사람들을 방문했습니다.

한 토론에서 형과 형의 동반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의 계획에 관해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이반 형은 잠시 말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놀랍게도 형은 정중하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에 대한 제 의견을 나눠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침묵이 감돌았고 모두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려웠지만 저는 마침내 입을 열었고 구주에 대한 저의 느낌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했던 말이 맞는지 틀렸는지도 몰랐습니다. 형은 저의 말을 전혀 정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제 생각과 느낌을 나눠 준 것에 감사했습니다.

함께했던 그 시간 동안 형과 형의 동반자는 단 1분도 저만을 위한 토론을 가르치지 않는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형과 나누었던 어떤 대화에서보다도 더 많은 지식을 얻었습니다. 저는 영적인 빛을 자신의 삶에 받아들일 때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목격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메시지에서 어떻게 희망을 찾는지를 보았고 제 자신과 바라는 것을 잊고 다른 이들에게 봉사하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저는 구주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sup>3</sup>고 가르치신 것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되돌아보면 그날 형이 저에게 신앙을 행동으로 옮길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제 신앙이 성장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함께 경전을 읽고 가르칠 사람을 찾고 간증을 나누고 다른 이들에게 봉사하는 등의 일을 하면서 저는 신앙을 행사했습니다. 그날 우리에게 일광욕을 즐길 기회는 없었지만 제 마음은 하늘에서 온 빛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저는 해변의 모래 한 알도 보지 못했지만 제 신앙이 작은 겨자씨 한 알처럼 자라는 것을 느꼈습니다.<sup>4</sup> 청명했던 그날 관광객으로 하루를 보내지는 못했지만 저는 훌륭한 경험을 했고 교회 회원도 아니었지만, 저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선교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 영적 근육을 강화할 기회

우리는 복음의 회복 덕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영적인 은사를 발전시키도록 어떻게 도우시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신체적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은사를 그저 주시기보다는 영적인 은사를 발전시킬 기회를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분의 영광과 조화를 이룬다면 우리는 그

기회를 파악하고 행동에 옮길 수 있습니다.

더 큰 인내심을 구한다면 응답을 기다리는 동안 인내하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웃을 더욱더 사랑하고자 한다면 교회에서 새로운 사람 옆에 앉음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의심이 일 때 앞으로 나아가려면 주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 우리는 영적 근육을 단련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힘의 원천이 되도록 발전시켜 나갑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큰 도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지자 모로나이를 통해서 하신 주님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또 만일 사람들이 내게로 오면 내가 그들에게 그들의 연약함을 보일 것이라. 내가 사람들에게 연약함을 주는 것은 그들로 겸손하게 하려 함이요, 내 은혜가 내 앞에 스스로 겸손하여진 모든 자에게는 족하니, 이는 만일 그들이 내 앞에 스스로 겸손하여 나를 믿는 신앙을 가지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연약한 것들을 강하게 되게 할 것임이니라.”<sup>5</sup>

저는 제 형 이반에게 감사합니다. 형은 제게 복음을 나누었을 뿐만 아니라 복음대로 생활하고 제 연약함을 인식하도록 간접적으로 권유해 주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와서 나를 따르라”<sup>6</sup>는 권유, 즉 구주처럼 행하고, 구하고, 사랑하라는 권유를 제가 받아들이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형과 함께 선교사 경험을 하고 몇 달이 지난 뒤, 저는 침례를 받고 선교 사업을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 함께 러셀 엠 벨슨 회장의 권고를 받아들여 마음을 다해 구주께로 나아가십시오.<sup>7</sup> 영적 움직임이 더 필요한 근육들을 찾아내어 단련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은 단거리가 아닌 장거리 경주 즉, 마라톤입니다. 중요한 영적 근육을 더





게릿 더블유 공 장로  
십이사도 정원희

# 선한 목자, 하나님의 어린 양

강하게 만들어 주는, 작지만 지속적인 영적 활동들을 잊지 마십시오. 신앙을 키우고자 한다면 신앙이 필요한 일들을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녀들임을 간증합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는 우리에게 길을 보여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자발적으로 그분의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구주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완벽한 모범을 따르고 그분과 그분의 속죄에 대한 신앙을 행사하며 우리가 축복받은 모든 영적인 은사를 키워 나가도록 권유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주

1.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표제어: “인간의 근육 체계”, 2018년 4월 26일 최종 수정, britannica.com/science/human-muscle-system.
2. 예를 들어 엘마서 5:15; 32:27; 34:17; 모로나이서 7:25; 교리와 성약 44:2 참조.
3. 마태복음 16:24.
4. 누가복음 17:6 참조.
5. 이터서 12:27.
6. 누가복음 18:22.
7. 러셀 엠 벨슨, “하나님의 일 부지런히 하세”, 리야호나, 2018년 5월호, 118~119쪽.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음성과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찾고 모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성역을 베푸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잠들기가 어려워 머릿속으로 양을 세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보송보송한 양이 울타리 너머로 뛰어오르면, 우리는 숫자를 셉니다. 1, 2, 3, ... 245, 246, ... 657, 658 ...<sup>1</sup>

저의 경우에는 양을 세어도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한 마리라도 잃어버리거나 앓을까 걱정이 돼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왕이 된 목동과 함께 우리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이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쉼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도다.”<sup>2</sup>

이 부활 절기에, 우리는 선한 목자이시며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분을 찬양합니다. 그분의 신성한 모든 호칭 중에서, 이보다 더 사랑을 잘 나타내거나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구주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로 언급하시고 선지자들이 그분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증거했다는 사실에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이 역할들과 상징들은 강력하게 서로를 보완해 줍니다. 누가 각각의 소중한 양을 선한 목자보다

더 잘 구조하겠으며, 누가 하나님의 어린 양보다 우리에게 더 나은 선한 목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며”, 하나님의 독생자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꺼이 순종하며 그분의 생명을 바치셨습니다.<sup>3</sup>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라고 증언하셨습니다.<sup>4</sup>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버릴 권능뿐만 아니라 다시 취할 권능도 가지고 계셨습니다.<sup>5</sup> 아버지와 함께, 우리 구주는 선한 목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특별하게 축복해 주십니다.

선한 목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음성과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찾고 모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성역을 베푸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먼저 그분께서는 그분의 음성과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르며] ... 양들[은] 그[분]의 음성을 [압니다.]”<sup>6</sup> 그리고 “그[분은] 자기의



이름 곧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sup>7</sup>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진정한 의도를 가지고 노력할 때,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을 섬기도록 영감이 옵니다.<sup>8</sup> 우리가 공부하고 상고하며 기도할 때, 정기적으로 성찬과 성전 성약을 새롭게 하고, 모든 이에게 그분의 복음과 의식으로 나아오도록 권유할 때, 우리는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러셀 엠 넬슨 회장님은 우리에게 회복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신 이름, 즉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로 부르도록 권고하십니다.<sup>9</sup>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행하든지 내 이름으로 행할지니, 그러므로 너희는 교회를 내 이름으로 칭할지니, 또 내 이름으로 아버지를 부를지니라. 그리하면 그가 나로 인하여 교회에 복을 주시리라.”<sup>10</sup> 우리는 세상 곳곳, 우리의 마음과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를

부르며, 가정이 중심이 되고 교회가 그것을 뒷받침하는 예배, 복음 공부, 건전한 가족 활동의 관대한 축복에 감사를 드립니다.

둘째, 선한 목자는 우리를 찾고 모아서 그분의 한 우리 안에 들게 하십니다. 그분은 물으십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백 마리가 있는데 그중의 하나를 잃으면 아흔아홉 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sup>11</sup>

구주는 잃어버린 하나와 나머지 아흔아홉에게 손을 뻗치시는데, 대부분 이 일을 동시에 하십니다. 우리는 성역을 행할 때, 길 잃은 한 사람을 애타게 찾고자 노력하는 동안에도, 굳건하고 흔들리지 않는 아흔아홉을 여전히 염두에 둡니다. 주님은 우리를 땅 사방<sup>13</sup> 모든 곳에서<sup>12</sup> 찾아 구해 주십니다. 그분은 거룩한 성약과 속죄의 피로 우리를 모으십니다.<sup>14</sup>

구주는 신약시대의 제자들에게 “이 우리에게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sup>15</sup> 부활하신

주님은 미 대륙에서 리하이의 성약의 후손들에게 “너희는 나의 양이라”고 증언하셨습니다.<sup>16</sup> 그리고 예수님은 다른 양들도 그분의 음성을 들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sup>17</sup>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증거하는 또 하나의 성약으로서 몰몬경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모든 사람을 교회에 받아들이라고 하십니다.<sup>18</sup> 그리스도의 교리는 물에 의한 침례와 불과 성신에 의한 침례를 포함합니다.<sup>19</sup> 니파이는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가 거룩하심에도,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을진대, 오 그리할진대, 거룩하지 못한 우리가 참으로 물로 침례를 받을 필요가 얼마나 더 있겠느냐!”<sup>20</sup>

오늘날, 구주께서는 우리의 행위와 그리스도를 닮아 가는 우리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이 그분께 나아와 그분을 따르도록 권유하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와서 그분 안에서 사랑, 치유, 유대감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과 그분께 속한 성약을 찾고 맺으십시오. 성전에서 행해지는 성스러운 구원 의식은 모든 가족에게 축복이 되며 따라서 휘장 양편에서 이스라엘의 집합을 이루게 됩니다.<sup>21</sup>

셋째, “이스라엘 목자”로서<sup>22</sup>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어떻게 사랑으로 성역을 행하는지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분을 사랑하는지 물으실 때, 구주께서는 이렇게 요청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 내 양을 치라. ... 내 양을 먹이라.”<sup>23</sup> 주님은 그분의 목자들이 그분의 양들을 보살필 때, 그분의 우리 안에 있는 이들은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sup>24</sup>

선한 목자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잠이 들거나,<sup>25</sup> 양들이 흩어지게 하거나, 길을 잃게 하거나,<sup>26</sup> 자기 이익만 추구하여 제 길만 찾아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십니다.<sup>27</sup> 하나님의 목자들은 강화하고 고쳐 주며 상한 자를 싸매 주며, 떠나버린 자를 돌아오게 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아야 합니다.<sup>28</sup>



주님은 또한 “양을 돌보지 아니[하는]” 샅꾼과<sup>29</sup> “양의 옷을 입고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인 “거짓 선지자”에 대해 경고하십니다.<sup>30</sup>

우리의 선한 목자는 우리가 의지와 신앙을 가지고 개인의 도덕적 선택 의지를 행사할 때 기뻐하십니다. 주님의 우리 안에 있는 이들은 그분의 속죄 희생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주를 바라봅니다. 우리는 수동적으로, 맹목적으로, 또는 “소심하게”가 아니라, 마음과 생각을 다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원하며, 서로의 짐을 나눠지고, 서로의 기쁨에 함께 기뻐하며 그분을 따르겠다고 성약을 맺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그분의 뜻을 아버지의 뜻에 바치셨기에, 우리는 경건하게 그분의 이름을 받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모으고 그들에게 성역을 베푸는 그분의 사업에 기쁘게 동참하고자 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완전하고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으셨고 이제 영광스럽게 부활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하나님의 완전한 어린 양이십니다.<sup>31</sup>

하나님의 어린 양이 희생하실 것은 태초부터 예견되었습니다. 천사는 아담에게 그가 바치는 제물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희생하실 모형”이라고 했으며, 이 사실은 우리에게 “회개하고 영원토록



아들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도록] 인도합니다.<sup>32</sup>

친하 만민을 위해 성약의 축복을 쌓은 조상 아브라함은 자신이 낳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이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이 ...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sup>33</sup>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예임된 사명을 미리 보고 기뻐했습니다. 구대륙에 있던 요한과 신대륙에 있던 니파이는 “하나님의 어린 양”,<sup>34</sup> “참으로 영원하신 아버지의 아들 ... 세상의 구속주”에 대해 간증했습니다.<sup>35</sup>

아빈아다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희생에 대해 “우리는 모두 양같이 그릇 행하였으며, 우리는 다 각기 제 길로 돌이켰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도다”라고 간증했습니다.<sup>36</sup> 엘마는 하나님의 아들의 크고도 마지막이 되는 희생을 “그 모두보다 더욱 중요한 일 ... 한 가지”라고 했습니다. 엘마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믿는 신앙을 가질지니”, “와서 두려워 말라”라고 격려했습니다.<sup>37</sup>

제 사랑하는 한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관한 소중한 간증을 어떻게 갖게 되었는지 제게 알려 준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짓는 죄는 언제나 큰 벌을 가져온다고 믿으며 자랐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 그녀는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회개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실 수 있는지, 자비가 공의를 어떻게 충족시키는지 이해하고 알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의 기도는 영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경험으로 응답되었습니다. 절박한 상황의 한 청년이 식료품 가게에서 음식 두 봉지를 훔쳐서 뛰쳐 나왔습니다. 그는 혼잡한 거리로 달려갔으며, 가게의 관리인이 쫓아가서 그를 붙잡고는 소리를 지르며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뜻밖에도 제 친구는 겁에 질린 그 청년을 도둑으로 판단하는 대신, 그를 향해 생각지도 못했던 강렬한 연민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안위는 걱정하지 않은 채 그녀는 다투고 있던 두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음식값을 치르겠습니다. 그 사람을 보내 주세요. 부탁이니 제가 음식값을 내게 해 주세요.”

성신에 의해 인도되고 전에는 느껴 보지 못한 사랑으로 충만해진 제 친구는 “그 청년을 돕고 구해 주고 싶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제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가 이해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그리고  
어떻게 그녀의 구주이자 구속주가 되기 위해  
순수하고 완전한 사랑으로 기꺼이 희생하려  
하셨는지, 그리고 자신에게 왜 구주이자  
구속주이신 그분이 필요한지를 말입니다.<sup>38</sup>

우리가 이렇게 노래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보아라 선한 목자는,  
잃은 양 찾아가서,  
기쁨으로 데려와서,  
보화를 간직하네.<sup>39</sup>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구주는 우리가  
언제 외로우며, 약해지며, 확신이 없어지며,  
두려워하는지 아십니다. 니파이는 시현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의 권능이 “어린 양의  
교회의 성도들과 … 주의 성약의 백성 위에  
내려오을” 보았습니다. “온 지면에 흠어[져]  
있긴 했으나, “그들[은] 큰 영광 중에 의와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sup>40</sup>

희망과 위안이 담긴 이 약속은 우리  
시대에도 해당됩니다.

여러분은 가족, 학교, 직장 또는 지역  
사회에서 유일한 교회 회원입니까? 때때로  
여러분의 지부가 작거나 고립되어 있다고  
느낍니까? 낯선 언어나 관습이 통용되는

새로운 곳으로 이사 왔습니까? 혹시 생활  
환경이나 여건이 바뀌었고,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과 마주하고 있습니까? 구주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우리가  
누구이든,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로 다음과  
같은 확신을 주십니다. “그는 …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sup>41</sup>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선한 목자는  
그분의 음성과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분의 백성을 찾아 모으시며,  
그들에게 나아오십니다. 살아 있는 그분의  
선지자와 우리 각자를 통해, 주님께서서는 모든  
이에게 그분의 회복된 충만한 복음과 그분의  
성약의 길에서 평화와 목적과 치유와 기쁨을  
찾도록 권하십니다. 주님은 모범을 통해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그분의 사랑 안에서  
성역을 베풀라고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의  
신성한 사명은 예임되었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이를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무한하고 영원한 그분의 속죄는 행복의  
계획과 창조의 목적에서 중심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가슴에 품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과  
어린 양을 겸손히 좇는 자”가 되고,<sup>42</sup>  
언젠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sup>43</sup>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sup>44</sup> 어린

양의 만찬에 초대받게 되기를 기도합니다.<sup>45</sup>

목자와 어린 양으로서 그분은 우리에게,  
다시 와서 “참된 지식, 곧 [우리]의  
구속주시오 [우리]의 크고 참되신 목자에  
대한 지식에 이르[라]”고 말씀하십니다.<sup>46</sup>  
그분은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되리라]”고  
약속하십니다.<sup>47</sup>

이 부활 절기를 맞이하여 우리는 그분을  
다음과 같이 찬양합니다.

“어린 양은 … 합당하도다”<sup>48</sup>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호산나[로다]”<sup>49</sup>

저는 우리의 완전하신 선한 목자, 곧  
하나님의 완전한 어린 양을 증거합니다.  
그분은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 성스럽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주

1. 잘 알려진 노래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걱정 때문에 잠들 수 없을 때,  
양을 세는 대신 축복을 세지.  
축복을 세면서 잠이 드네.  
(Irving Berlin, “Count Your Blessings Instead of  
Sheep” [1952])
2. 시편 23:1~3.
3. 요한복음 3:16.
4. 요한복음 10:11.
5. 요한복음 10:15, 17~18 참조.
6. 요한복음 10:3~4.
7. 엘마서 5:38; 또한 엘마서 5:37~39, 59~60 참조.
8. 모로나이사서 7:13; 교리와 성약 8:2~3 참조.
9. 러셀 엠 넬슨, “교회의 정확한 명칭”, 리아호나,  
2018년 11월호, 87~89쪽 참조.
10. 제3니파이 27:7; 강조체 추가.
11. 누가복음 15:4, 강조체 추가; 또한 교리와 성약  
18:15 참조.
12. 에스겔 34:12; 또한 예레미야 31:10; 에스겔 34:6,  
11~14; 미가 5:8; 마태복음 10:6; 15:24 참조. 이러한  
분산에 관한 예언과 성약 백성의 집합에 관한 예언  
및 약속은 러셀 엠 넬슨 회장을 비롯한 선지자들이  
다뤄 온 일관된 주제이다.
13. 니파이전서 22:25.
14. 히브리서 13:20 참조.
15. 요한복음 10:16; 또한 제3니파이 15:21; 16:1, 3;  
교리와 성약 10:59~60 참조.
16. 제3니파이 15:24; 또한 제3니파이 15:17, 21 참조.
17. 제3니파이 16:1, 3 참조; 또한 교리와 성약 10:59~60  
참조.
18. 모사이야서 26:21 참조.
19. 니파이후서 31:13~14, 21 참조.
20. 니파이후서 31:5; 또한 엘마서 7:14 참조.
21. 말라기 4:5~6; 요한복음 15:9~13; 모사이야서 25:18;  
힐라맨서 11:21; 또한 러셀 엠 넬슨, “이스라엘 시온  
군대”(청소년을 위한 전 세계 영적 모임, 2018년 6월  
3일), HopeofIsrael.ChurchofJesusChrist.org 참조;  
러셀 엠 넬슨, “흠어진 이스라엘의 집합”, 리아호나,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 모든 필요한 것을 얻도록 준비되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을 배우고 사랑해야 할 개인적인 책임을 다하고자 힘쓸 때, 축복이 올 것입니다.

최근 몇 차례의 연차 대회에서 발표된 일련의 변경 사항들에서 알 수 있듯,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프로그램과 활동은 점점 더 가정이 중심이 되고 교회가 그것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러셀 엠 벨슨 회장님은 이렇게 권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일이 많습니다. … 비타민을 드시고 휴식을 취해 두십시오. 앞으로 더 흥미진진해질 것입니다.”<sup>1</sup>

주님의 회복된 교회에서 계속되고 있는 이러한 변화들의 기본적인 결과와 의미에 관해 함께 생각해 보는 동안, 성신의 도움이 함께하기를 바라고 또 간구합니다.

## 가정이 중심이 되고 교회가 그것을 뒷받침하는 복음 학습

최근에 있었던 한 신권 지도자 대회에서, 제 동반자셨던 크레이그 시 크리스틴슨 장로님은 가정이 중심이 되고 교회가 그것을 뒷받침한다는 원리를 강조하시고자 두 개의 간단한 질문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분의 제안에 따르면, 일요일에 교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오늘 교회에서 구주와 그분의 가르침에 관하여 무엇을 배웠나요?”라고 묻는 대신, 우리는 교회 모임에서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가정에서 구주와 그분의 가르침에 관해 무엇을 배웠나요?” 우리는 안식일을



- 2006년 11월호, 79~82쪽.
22. 시편 80:1.
  23. 요한복음 21:15~17; 또한 장 전체 참조.
  24. 예레미야 23:4.
  25. 나훔 3:18 참조.
  26. 예레미야 23:1; 50:6, 44 참조.
  27. 이사야 56:11; 에스겔 34:2~6 참조.
  28. 에스겔 34:2~6 참조.
  29. 요한복음 10:13.
  30. 제3니파이 14:15; 또한 마태복음 7:15; 엘마서 5:60 참조.
  31. 니파이후서 9:10~12 참조. 하나님의 어린 양은 육체적인 죽음과 영적 분리를 이김으로써 모든 이의 집합을 가능하게 하셨으므로 현재와 영원에 걸쳐 한 목자입니다.
  32. 모세서 5:7~8.
  33. 창세기 22:7~8; 또한 야곱서 4:5 참조.
  34. 요한복음 1:29; 니파이전서 11:21.
  35. 니파이전서 11:21, 27.
  36. 모사이야서 14:6; 또한 이사야 53:6 참조.
  37. 엘마서 7:7, 14~15.
  38. Pornthip “Tippy” Coyle 와의 대화, 2019년 2월, 허락을 얻어 게재함.
  39. “사랑해 목자의 마음”, 찬송가, 144장. 우리의 목자와 그분의 양을 강조하는 다른 찬송가들은 다음과 같다. “주는 내 목자 되시어”, 찬송가, 98장.  
주는 내 목자 되시어  
품밭에서 먹이시며  
내 부족 채워 주시고  
날 인도하여 주시네  
밝은 날에는 인도하고  
고요한 밤엔 보호하시네  
“영감으로 가르치는 축복”, 찬송가, 168장.  
길 잃은 어린 양 찾아  
보호하게 하소서  
목자되어 어린 양  
먹이게 하옵소서  
“신권을 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이”, 찬송가, 199장.  
후기의 일 시작되니  
홀어진 이스라엘 무리  
시온에 모여 주께 찬양하라  
홀어진 양 떼들 너희 목자의 말을 다 와서 들으라
  40. 니파이전서 14:14; 또한 니파이전서 13:35, 37: “명백하고 귀한 … [기록]들이 … 어린 양의 은사와 권능에 의해 … 나아오게 되리라. … [우리가] 끝까지 견딜진대 … 어린 양의 영원한 왕국에서 구원받으리니.” 참조.
  41. 이사야 40:11.
  42. 힐라맨서 6:5.
  43. 요한계시록 21:27 참조.
  44. 요한계시록 15:3; 교리와 성약 133:56 참조.
  45. 요한계시록 19:9; 교리와 성약 58:11 참조; 또한 요한계시록 7:17: “이는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요한계시록 22:1: “수정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참조.
  46. 힐라맨서 15:13.
  47. 모로나이서 10:32~33 참조.
  48. 요한계시록 5:12.
  49. 교리와 성약 109:79.



합당하게 지킴으로써, 또 새로운 교과 과정과 변경된 모임 일정을 통해 가정과 교회에서 복음을 더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모든 회원은 주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며, 합당한 권세에 의해 구원과 승영의 의식을 받을 개인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헌신적인 제자가 되어 끝까지 용감하게 견디기 위해 알고 행해야 할 모든 것을 교회라는 조직에서 일일이 가르쳐 주고 일러 주리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sup>2</sup> 그보다는, 자신이 옳다고 아는 대로 생활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 배워야 할 것을 배울 개인적인 책임이 우리 각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배움과 삶과 성장을 위한 궁극적인 장소는 우리의 가정입니다.

조셉 스미스는 어린 시절에 가족으로부터 하나님에 관해 배웠습니다. 그는 서로 다른 많은 기독교 종파 가운데서 진리를 찾고, 부지런히 경전을 상고하며, 하나님께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자신을 위한 그분의 뜻을 발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께서 성스러운 숲에 나타나신 뒤, 어린 조셉 스미스는 곧장 집으로 돌아와 제일 먼저 어머니와 이야기했습니다. 그

일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벽난로에 기대어 있을 때, 모친은 무슨 일인지 물으셨다. 나는 이에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게 잘 되었어요—전 정말 괜찮아요.’라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나서 나는 내 모친께 말씀드리기를 ‘... [저] 스스로 알게 되었[어요.]’라고 하였다.”<sup>3</sup> 조셉의 경험에는 배움에 관해 우리 모두가 따라야 할 훌륭한 모범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스스로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서 근간이 되는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분과 같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분은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꼭 필요한 기회들을 주십니다. 점점 더 혼란스럽고 사악해지며 “동요”하는<sup>4</sup> 세상에서, 진리에 따라 배우고 생활하겠다는 우리의 결심은 더욱더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교회 모임에 참석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악한 날에 ... 대적”할 수 있을 만큼<sup>5</sup> 온전히 영적으로 발전하고 보호받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과 의로움으로 양육[할] ... 거룩한 의무”가 있습니다.<sup>6</sup> 교회의 영감받은 지도자와 교사, 그리고 활동들은 영적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개인과

가족들의 노력을 뒷받침합니다. 우리는 모두 성약의 길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동안 도움이 필요하지만, 영적인 힘과 끈기를 키울 궁극적인 책임은 우리 개개인에게 있습니다.

선지자 리하이의 아들이었던 니파이의 경우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아버지가 생명나무의 시현에서 배운 것들을 성신의 권능에 의해 스스로 보고 듣고 알고자 소망했습니다. 니파이는 분명 어린 시절에 “훌륭하신 부모”의<sup>7</sup> 모범과 가르침이 필요했고, 또 그로 인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조셉 스미스와 마찬가지로, 니파이도 스스로 배우고 알기를 갈망했습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오직 다른 사람이 가르치거나 말해 주는 것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회복된 복음에 관한 지식을 얻는다면, 우리는 그분과 그분의 영광스러운 후기의 사업에 관한 간증을 모래 위에 쌓는 것입니다.<sup>8</sup> 복음의 빛과 지식은 다른 사람에게만 의지하거나 빌릴 수 없습니다.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에게라도 말입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모든 후기 성도는 “우리를 이 세상에 오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sup>9</sup> 스스로 이해해야 한다는 의미심장한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미래에 하나님과 천사와 맺게 되는 관계에 대해 아담의 시대로부터 기록된 모든 기록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해하는 부분은 극히 적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체험을 읽거나 ‘그들에게’ 주어진 계시를 읽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의 참된 관계나 우리의 상태를 모두 이해할 수 있는 폭넓은 시각을 갖게 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이러한 지식은 그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의식들이 주는 경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sup>10</sup>

이 장엄한 영적 목적을 개인과 가족이 성취하도록 돕기 위해서, 때가 찬 경륜의 시대라는 이 특별한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프로그램과 활동이 더욱 더 가정이 중심이 되고 교회가 그것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 가정이 중심이 되고 교회가 그것을 뒷받침하는 배움의 결과

복음 학습이 더욱 가정이 중심이 되고 교회가 그것을 뒷받침하는 환경이 마련될 때 파생되는 몇 가지 기본적인 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극적인 선교사 훈련원은 우리 가정에 있습니다. 프로보와 마닐라, 멕시코시티 등지에 있는 선교사 훈련원은 가정의 선교사 훈련원을 보조하는 곳입니다. 가장 큰 가르침을 얻는 주일학교 수업은 우리가 거주하는 집에서 행하는 개인 및 가정 학습 중에 이뤄져야 합니다. 그리고 집회소에서는 도움은 되지만 2차적인 역할을 하는 주일학교가 열립니다.

이제 가족 역사 센터도 우리 가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집회소에서는 가족 역사를 조사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필수적인 성전 준비반 또한 우리 가정에서 열립니다. 그리고 집회소에서는 중요하지만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성전 준비반이 정기적으로 열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는<sup>11</sup> 안식처로 가꾸는 것은 이 후기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영적인 힘과 보호를 얻고자 할 때, 가정이 중심이 되고 교회가 그것을 뒷받침하는 배움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이러한 배움이 더욱 필수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 가정이 중심이 되고 교회가 그것을 뒷받침하는 배움과 성전 준비

주님의 집에서 성스러운 의식을 받고 성약을 맺고자 할 때, “가정이 중심이 되고 교회가 그것을 뒷받침하는” 원리가 개인적인 준비와 합당성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 준비는 진정 우리 가정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이뤄집니다. 그러나 교회의 많은 회원들은 성전 밖에서 성전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할 때 무엇이 적절하고 무엇이 적절하지 않은지를 확신하지 못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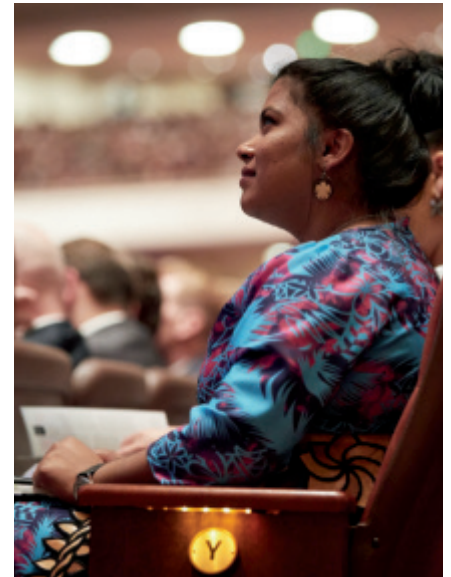
에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은 이런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습니다.

“성전은 성스러운 곳이며, 성전 의식에는 성스러운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성전이 신성하다는 이유로 우리 자녀들이나 자손들에게 성전에 관하여 말하기를 꺼릴 때가 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이 성전에 가고자 하는 진정한 소망을 키우지 못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맺을 성약과 임무에 대하여 준비할 수 있는 배경 지식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채 성전에 가게 됩니다.

저는 **적절한 이해력과 배경 지식**이 우리의 청소년들이 성전 참여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한 이해가 있다면,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우리 청소년들의 마음속에도 자신의 신권 축복에 대한 열망이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sup>12</sup>

다음 두 가지 기본 지침은 벤슨 회장이 강조하신 적당할 지식과 이해력을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침 1.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거룩한 집에 관해 경건하게 말해야 합니다. 신성한 성전 의식에서 받은 성약과 관련된 특별한 상징을 사람들에게 말하거나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밝히지 않겠다고 성전에서 구체적으로 약속한 거룩한 정보에 관해 이야기해서도 안 됩니다.

지침 2. 성전은 주님의 집입니다. 성전에 있는 모든 것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우리는 성전 의식과 성약의 기본적인 목적과, 그와 관련된 교리 및 원리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워드 더블유 헌터(1907~1995) 회장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성전 안에서 가진 영적인 느낌을 우리 자녀와 나누도록 합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의 집의 목적에 관하여 적절하게 말하여 줄 수 있는 것들을 더욱더 성실하고 편안하게 가르치도록 합시다.”<sup>13</sup>

선지자 조셉 스미스부터 러셀 엠 넬슨 회장님까지 여러 세대가 흐르는 동안, 교회의 지도자들은 성전 의식 및 성약의 교리적인 목적에 관해 방대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sup>14</sup> 우리는 책, 오디오, 비디오 및 기타 여러 형태로 존재하는 풍부한 자료를 통해 예비 의식, 엔다우먼트, 결혼 및 기타 인봉 의식들에 관해 배울 수 있습니다.<sup>15</sup> 우리가 순종의 법, 희생의 법, 복음의 법, 순결의 법, 그리고 헌납의 법을 지키겠다는 성약을 맺고 준수함으로써 구주를 따르는



것에 관한 자료들도 있습니다.<sup>16</sup> 교회의 모든 회원은 [temples.ChurchofJesusChrist.org](http://temples.ChurchofJesusChrist.org)에 있는 훌륭한 자료들을 숙지해야 합니다.

교회는 성전에 대해 대중이 알 수 있도록 정확하고 적절하며 유용한 정보들을 출판합니다. 러셀 엠 넬슨 회장님은 그런 정보들과 성전 의식의 신성한 본질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고 강조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회원들에게 경전 안내서를 펴고 ‘기름 붓다’, ‘성약’, ‘희생’, ‘성전’ 등 성전과 관련된 내용을 읽어 보시도록 권고합니다. 출애굽기 26~29장과 레위기 8장도 읽어 볼 수 있습니다. 값진 진주의 모세서 및 아브라함서와 구약전서는 성전 사업이 고대부터 시행되었으며 그 의식들이 지속되어 왔다는 점을 뒷받침해 줍니다.”<sup>17</sup>

여러분의 자녀가 이렇게 질문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학교에서 누가 그러는데, 성전에서는 이상한 옷을 입는데요. 정말 그래요?” [temples.ChurchofJesusChrist.org](http://temples.ChurchofJesusChrist.org)에는 “Sacred Temple Clothing[성스러운 성전 의복]”이라는 짧은 동영상 있습니다. 매우 잘 만들어진 이 자료에는 사람들이 고대부터,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라는 내면 가장 깊은 곳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신성한 음악과 다양한 형태의 기도, 상징적인 종교 의상, 몸짓, 의식 등을 어떻게

받아들여 왔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의 영광스러운 축복을 받기 위해 가정을 중심으로 준비가 이루어지는 동안, 교회는 기본 지침과 이런 동영상과 같은 훌륭한 자료로 그 준비 과정을 뒷받침해 줍니다. 다른 유용한 자료들을 더 많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sup>18</sup>

주님의 영의 온유함으로 견고자 힘쓸 때,<sup>19</sup> 우리는 성스러운 성전 의식과 성약에 관해 이야기할 것과 이야기하지 말아야 할 것 사이의 필요한 균형을 가정에서 이해하고 실천하는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 약속과 간증

여러분 중에는 과연 내가 가정이 중심이 되고 교회가 그것을 뒷받침하는 복음 학습을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러워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가정에서 자신만 교회 회원인 분도 계실 것입니다. 배우자에게 지지받지 못하거나, 홀로 자녀를 기르거나, 후기 성도로서 독신으로 혹은 이혼한 상태로 생활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러한 원리가 나에게 적용될지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우리가 할 수 있을까?”라고 묻는 부모도 계실 것입니다.

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가능하게 하는 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서 실현되고 눈으로 확인되리라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문이 열릴 것입니다. 빛이 비칠 것입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커져서, 부지런하고 끈기 있게 인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을 배우고 사랑해야 할 개인적인 책임을 다하고자 힘쓸 때, 이를 보상에 줄 축복이 오리라는 것을 기쁘게 증거합니다. 우리는 진정 “모든 [필요한] 것을 얻”도록 “준비”될 수 있습니다.<sup>20</sup>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약속드리며 간증합니다. 아멘. ■

### 주

1. Russell M. Nelson, in “Latter-day Saint Prophet, Wife and Apostle Share Insights of Global Ministry,” Newsroom, Oct. 30, 2018, [newsroom.ChurchofJesusChrist.org](http://newsroom.ChurchofJesusChrist.org)
2. 교리와 성약 121:29 참조.
3. 조셉 스미스—역사 1:20.
4. 교리와 성약 45:26.
5. 에베소서 6:13.
6.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아호나*, 2017년 5월호, 145쪽.
7. 니파이전서 1:1.
8. 마태복음 7:24~27; 제3니파이 14:24~27; 18:13 참조.
9.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 211쪽.
10.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 419쪽; 강조체 추가, 번역 수정.
11. 교리와 성약 101:22.
12.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에즈라 테프트 벤슨(2014)*, 174쪽; 강조체 추가; 또한 에즈라 테프트 벤슨, “나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성전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벗*, 1986년 4월호, 4쪽 참조.
13.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하워드 더블유 헌터(2015)*, 184쪽.
14. 예시를 보려면 다음을 참고한다. James E. Talmage, *The House of the Lord* (1912), 99–101.
15. 다음 참조: James E. Talmage, *The House of the Lord*, 89–109; 러셀 엠 넬슨, “성전 축복을 위한 개인적인 준비”, *리아호나*, 2001년 7월호, 37~39쪽; Boyd K. Packer, *The Holy Temple* (1980), 153–55.
16. See *The Teachings of Ezra Taft Benson* (1988), 121; James E. Talmage, *The House of the Lord*, 100; *Preparing to Enter the Holy Temple* (pamphlet, 2002).
17. 러셀 엠 넬슨, “성전 축복을 받기 위해 준비하십시오”, *리아호나*, 2010년 10월호, 46쪽.
18. 예를 들어, 이탈리아 로마 성전 투어 영상을 시청하거나 성전에 관한 선지자의 가르침을 공부한다. ([temples.ChurchofJesusChrist.org](http://temples.ChurchofJesusChrist.org) 참조)
19. 교리와 성약 19:23 참조.
20. 교리와 성약 109:15.





카일 에스 맥케이 장로  
칠십인 정원회

# 하나님의 직접적인 선하심

우리가 주님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중일지라도 즉시 이루어지는 축복들이 있습니다.

수년 전, 다섯 살짜리 아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제가 알아낸 게 있어요. 아빠에게 금방은 저한테 진짜로 긴 시간이예요.”

주님이나 그분의 종들이 “이제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아니하여” 또는 “때가 그리 멀지 아니하였음이니라”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말 그대로 평생 혹은 그보다 더 긴 시간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sup>1</sup> 그분의 시간, 그리고 흔히 일컫는 그분의 시기는 우리의 시간이나 시기와는 다릅니다. 인내가 핵심입니다. 우리가 인내하지 않는다면, 생명과 구원에 이르는 데 필요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발전시킬 수도, 나타내 보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우리가 주님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중일지라도 즉시 이루어지는 축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엘마와 그의 백성이 레이맨인들에게 사로잡혔을 때, 그들은 주님께서 구조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들이 즉시 구조되지는 않았으나, 인내심을 가지고 구조를 기다리는 동안 주께서는 몇 가지 즉각적인 축복을 통해 그분의 선하심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분은 레이맨인들의 마음을 즉시 부드럽게 하셔서 레이맨인들이 그들을 죽이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엘마의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그들의 짐을 가볍게 하셨습니다.<sup>2</sup> 그들이 마침내 구조되었을 때, 그들은 제이라헤틀라로 여행하여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청중에게 그들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제이라헤틀라 백성은 놀라워했고, “그들이 엘마와 그의 형제들을 ... 속박의 손아귀에서 건져 내신 **하나님의 직접적인 선하심**과 그의 권능에 대하여 생각했을 때, 참으로 그들의 소리를 높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sup>3</sup>

진정한 의도와 마음의 뜻을 다하여 그분께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선하심이 임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구원이 너무 멀게만 느껴지고, 고통이 지속되고 극심해지는 것 같은 때조차 절박한 심정으로 간구하는 자들이 포함됩니다.

이는 축축하고 차디찬 지하 감옥에서

죽음의 문턱에 이르는 고초를 겪었던 젊은 선지자가 결국 이렇게 울부짖었던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오 하나님이지여, 당신은 어디 계시나이까? ... 어느 때까지 당신의 손이 멈추어 계시...겠나이까? 참으로 오 주여, 어느 때까지 [그러하시겠나이까]?”<sup>4</sup> 이에 대한 응답으로, 주께서 조셉을 곧바로 구조해 주시지는 않았으나, 그 즉시 평강을 내려 주셨습니다.<sup>5</sup>

또한 하나님께서는 중국에는 우리를 구하시리라는 희망을 즉시 안겨 주시기도 합니다.<sup>6</sup> 무슨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앞에는 언제나 희망이 밝게 미소 짓고 있습니다.<sup>7</sup> 희망은 우리 바로 앞에 있습니다.

더욱이, 그분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나의 자비는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리라].”<sup>8</sup>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저는 바울과 더불어, 어떠한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는 것을 간증드립니다.<sup>9</sup> 때때로 우리의 죄가 우리를 그분의 영광 떨어지게 할 수 있지만, 죄조차도 우리를 그분이 지니신 지속적이고 직접적인 아버지의 신성한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는 “그가 실로 즉시 [우리를 축복하]시는 몇 가지 방법과 수단입니다.”<sup>10</sup> 이러한 원리가 가까이 와닿도록 돕기 위해, 하나님의 직접적인 선하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두 사람의 경험을 여러분께 나누고자 합니다.

에밀리는 십 대 초반이었을 때부터 약물 남용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시험 삼아 해 보던 것이 습관으로 굳어졌고,



그 습관은 결국 이따금씩 건강을 되찾았던 시간을 제외하고는 결국 수년 동안 그녀를 속박했던 중독으로 이어졌습니다. 에밀리는 특히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부터 자신의 문제를 용의주도하게 숨겼습니다.

그녀가 경험한 구조 과정의 초반에는 그것이 전혀 구조라고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정기 검진을 받고 있던 그녀가 별안간 구급차에 실려 입원 치료 시설로 후송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녀들과 남편과 가정으로부터 격리된다는 생각이 들자 공황상태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차갑고 어두운 병실에 홀로 남은 에밀리는 침상 위에 웅크린 채 흐느꼈습니다. 판단력이 흐려지자, 끝내 방 안과 그녀의 영혼에 가득한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숨이 멎을 듯한 어둠에 휩싸인 에밀리는 실제로 그날 밤 자신이 고독히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그녀는 사력을 다해 침상에서 간신히 내려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전의 기도에 이따금씩 섞여 있던 가식이라고는 조금도 없이 그녀는 주께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는 필사적으로 간청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부디 도와 주세요. 혼자이고 싶지 않아요. 제발 제가 이 밤을 잘 넘길 수 있게 도와 주세요.”

그러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 옛날의 베드로를 붙잡으셨듯이, 손을 뻗어 그녀의 쇠약한 영혼을 즉시 붙들어 주셨습니다.<sup>11</sup> 놀라운 평온함과 용기, 확신, 그리고 사랑이 에밀리에게 밀려왔습니다. 병실은 더 이상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고, 그녀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열네 살 이후로는 처음으로 모든 일이 잘되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어”난 에밀리는<sup>12</sup> 평온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너희가 회개하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아니하면, 즉시로 위대한 구속의 계획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sup>13</sup>

에밀리가 치유받고 궁극적으로 구조되기까지는 수 개월에 걸친 오랜



치료와 교육 그리고 상담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 임했던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녀가 버텨 내도록 도와 주었고 때로는 그녀를 이끌어 가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 선하심은 에밀리가 남편과 자녀와 함께 영원히 인봉되기 위해 성전에 들어가는 과정에도 계속하여 그녀에게 임했습니다. 제이라헤믈라 백성처럼, 이제 그녀는 속박으로부터 자신을 구조해 준 하나님의 직접적인 선하심과 권능을 되새겨 보면서 감사를 드리곤 합니다.

이제 용감하게 신앙을 지킨 또 다른 분의 예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13년 12월 27일 토요일에, 알리시아 슈로더는 그녀의 집에 불쑥 찾아온 가까운 친구 손과 샬라 칠콧 부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알리시아의 감독이기도 했던 손은 그의 휴대 전화를 그녀에게 건네면서 침통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알리시아, 이 전화를 받아 봐야 할 것 같군요.”

전화를 건 사람은 알리시아의 남편 마리오였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학수고대했던 스노우모빌 여행을 위해 자녀 몇 명을 데리고 외딴 곳으로 떠나 있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마리오는 심각한 부상을 당했고, 열 살 난 아들 케이럽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마리오가 눈물을 쏟으며 알리시아에게 케이럽의 사망 소식을 알리자, 대부분의 사람은 결코 경험하지 못할 만큼의 충격과 공포가 그녀를 엄습했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비통에 온몸이 마비되어 움직일

수도, 말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칠콧 감독 부부는 얼른 그녀를 일으켜 세우고는 꼭 안아 주었습니다. 그들은 한동안 함께 눈물을 흘리며 애도했습니다. 그런 후 칠콧 감독은 알리시아에게 축복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하나님의 직접적인 선하심을 어느 정도 이해하지 않고서는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칠콧 감독은 알리시아의 머리 위에 손을 살며시 얹고, 떨리는 목소리로 축복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알리시아는 마치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듯한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우선, 알리시아 수전 슈로더라는 그녀의 이름이 들렸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감독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세를 불러오는 말이 들렸습니다. 그녀의 이름과 하나님의 권능이 들리던 바로 그 순간, 알리시아는 형언할 수 없는 평안과 사랑, 위안과 더불어 웬지 모를 기쁨으로 가득찼습니다. 그러한 느낌은 그녀와 함께했습니다.

물론 알리시아와 마리오, 그들의 가족은 여전히 케이럽의 죽음을 애도하고 그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힘든 일입니다! 제가 그녀와 대화를 나눌 때마다, 알리시아는 자신이 얼마나 그 아이를 사랑하고 그리워하는지 이야기하며 눈시울을 붉히곤 합니다. 또한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어떻게 위대한 구조자께서 어느 때보다 절망적이었던 시기에 그분의 직접적인 선하심을 보여 주시는 것을 시작으로, “이제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아니하여” 이루어질 행복한 재회에 대한 밝은 희망을



주시며 그녀의 모든 시련을 이겨 내도록 도와 주셨는지 말해 줍니다.

저는 인생의 경험들이 때로는 혼란과 어려움을 야기하는 나머지, 에밀리와 알리시아에게 온 것과 같은 평안을 받아들이거나 인식하거나 기억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일을 겪어 왔습니다. 저는 그러한 시기에 우리가 다만 보전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직접적인 선하심을 분명히 보여 주는 부드럽고도 강력한 증거라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보전하신 바로 그 하나님에 의해” 사로잡힘에서 나날이 벗어나게 되었음을 기억하십시오.<sup>14</sup>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대한 구조자이심을 간증드립니다. 또한 여러분이 진정한 의도와 마음의 뜻을 다하여 그분께 향한다면, 그분께서 여러분의 삶이나 기쁨을 약화하거나 파괴하려고 위협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여러분을 구해 주실 것임을 그분의 이름으로 약속드립니다. 그러한 구조는 여러분의 바람보다 더 오랜 시간, 어쩌면 평생 혹은 그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궁극적인 구원의 날이 이를 때까지 여러분께 위로와 용기와 희망을 드리고, 또 여러분을 돕고 강화하고자,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선하심**에 기대시기를 권고합니다. 그에 대한 저의 간증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예를 들어, 엘마서 7:7; 9:26; 교리와 성약 88:87 참조.
2. 모사이야서 23:28~29; 24:14~15 참조.
3. 모사이야서 25:10; 강조체 추가.
4. 교리와 성약 121:1~3.
5. 교리와 성약 121:7 참조.
6. 엘마서 58:11 참조: “참으로 그리하매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그가 우리를 구하시리라는 확신을 주셨나니, 참으로 … 우리로 하여금 그의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바라게 하셨느니라.” 또한 교리와 성약 121:7~8 참조.
7. “우리 인도하실 선지자 주신, 찬송가, 6장 참조.
8. 이사야 54:10; 강조체 추가.
9. 로마서 8:39.
10. 모사이야서 2:24.
11. 마태복음 14:31 참조.
12. 엘마서 5:7.
13. 엘마서 34:31.
14. 니파이전서 5:15.



로널드 에이 래스번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 영성과 보호의 요새를 지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생활하고, 구주의 속죄에 의지하여 두려움이 아닌 신앙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대적에 맞서 강화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대회가 끝나 가는 지금, 저는 지난 이틀간 이 연단을 통해 권고와 진리, 계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말씀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종들에게 가르침 받았습니. 주님은 후기의 계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신의 음성으로 한 것이나 나의 종들의 음성으로 한 것이나 같으니라.”<sup>1</sup>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성도들을 바라보며, 또 전 세계에서 연차 대회를 시청하실 회원들을 상상하며, 저는 물론경에 기록된 집합이 떠오릅니다. 그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뒤 니파이 백성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은 백성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시고 이렇게 격려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집으로 가서, 내가 말한 것을 깊이 생각하며, 너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구하라.”<sup>2</sup>

“[여러분의] 집으로 가서 … 깊이 생각”하는 것은 이 성스러운 자리에서 선지자들과 교회의 지도자들이 전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위한 다음 단계입니다. 예언된 바과 같이 악마가 “사람의 자녀들의 마음 속에 맹위를 떨쳐, 선한 것에 대하여 노하도록 그들을 충동[하는]” 시대에<sup>3</sup> 그리스도가 중심인 가정은 지상에서 하나님 왕국을 지키는 요새입니다.





역사적으로, 사람들은 적을 막기 위해 요새를 지었습니다. 보통 그러한 요새에는 망대가 있었고, 그곳에서 선지자와 같은 파수꾼이 위협적인 세력과 다가오는 공격을 경고했습니다.

유타의 초기 개척 시대에 저희 증조부이신 토머스 래스번드와 그분의 가족은 유타의 아름다운 와사치 산맥에 있는 히버 밸리에 최초로 정착한 무리에 있었습니다.

1859년에 제 증조부는 히버 요새를 짓는 것을 도우셨는데, 그것은 정착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요새는 미루나무를 나란히 세워 외벽을 형성한 단순한 구조물이었습니다. 요새 안으로는 그 외벽을 그대로 이용하여 통나무 집들이 지어졌습니다. 개척자들은 그곳에 뿌리 내리고 주님을 예배하는 동안 이 구조물 덕분에 안전하고 무사하게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은 세상의 악에 맞서는 요새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법을 배우고, 함께 경전을 공부하고 기도하며, 성약의 길에 머물도록 서로 도움으로써 그분께 나아갑니다. **와서 나를 따르라** 교과 과정을 통해 가정에서 이뤄지는 개인 및 가족 공부를 새롭게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더 깊이 개종하고 더욱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sup>4</sup>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바울이 말한 대로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어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입니다.<sup>5</sup> 대적의 공격에 맞서고, 또 그것을 막아 내기 위해 우리는 그 힘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바탕으로 헌신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성신이 평화롭게 함께함을 느낄 것입니다. 성신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고, 주님의 축복을 얻기 합당하게 생활하도록 격려하며,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증거합니다. 이 모든 일은 우리 자신의 가정이라는 요새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가정의 힘은 그 테두리에 속한 우리 개개인의 영적인 힘에 달려 있습니다.

넬슨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앞으로는 성신의 인도와 지침과 위안의 영향력 없이는 영적으로 살아남는다는 것이 불가능할 것입니다.”<sup>6</sup> 오늘날 주님의 살아 있는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이자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라는 요새의 망대 위에 선 파수꾼인 넬슨 회장님은 다가오는 적을 내다보십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 사탄과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누가 적인지는 전세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사탄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삼 분의 일은 승영에 대한 그분의 약속을 거부했습니다. 그때부터 대적의

수하들은 아버지의 계획을 선택하는 충실한 이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사탄은 자신의 날이 정해져 있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압니다. 그는 간사하고 교활하나 승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 한 명 한 명의 영혼을 취하기 위해 싸움을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안전을 위해 대적이 뿔지 못할 영성과 보호의 요새를 지어야 합니다.

간교한 뱀인 사탄은 우리가 경계를 늦출 때, 실망하거나 낙담할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숨어듭니다. 사탄은 아침, 편안함에 대한 약속, 안락, 슬픔을 무마하는 일시적인 쾌락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는 교만, 불친절, 부정직, 불만족, 부도덕을 합리화하며, 우리는 점차 “감지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sup>7</sup> 영이 우리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이같이 악마[는] [우리]의 영혼을 속여, 조심스럽게 [우리]를 인도하여 지옥으로 내려”갑니다.<sup>8</sup>

반면, 우리는 보통 다음과 같은 말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매우 강하게 영을 느낍니다.

*내 주는 강한 요새요  
능력의 성이 되시네  
세상의 환난 질고로  
이겨 내시는 주님<sup>9</sup>*

우리는 영적인 힘이 깃든 요새를 세울 때, 진군하는 대적을 피해 그를 등지고 영이 주는 평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유혹을 받자 사탄에게 물러가라고 하신 우리 주님, 즉 구주의 모범을 따를 수 있습니다.<sup>10</sup> 우리는 각자 인생의 경험을 통해 그렇게 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물론경에는 이런 의로운 목적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모로나이 장군이 간사하고 피와 권력에 굶주린



아멜리카이아의 공격에 대비해 니파이 백성들을 준비시킬 때의 일입니다. 모로나이는 니파이 백성을 보호하여 “그들이 주 그들의 하나님을 위해 살며, 그 원수들이 그리스도인들의 대의라 일컫는 바를 지키도록” 요새를 지었습니다.<sup>11</sup> 모로나이는 “신앙 안에서 견고한 사람”이었고<sup>12</sup> 충실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불의를 물리”켰습니다.<sup>13</sup>

전쟁에 나온 레이맨인들은 니파이인들의 준비 태세를 보고 매우 놀랐으며, 싸움에서 패했습니다. 니파이인들은 “그 비길 데 없는 권능으로 저들의 원수의 손에서 저들을 건지신 주 그들의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sup>14</sup> 그들은 밖으로는 보호의 요새를 쌓았고, 안으로는 영혼 깊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쌓았던 것이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우리 자신을 강화함으로써 “하나님의 손에 든 도구가 되어 이 큰 일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sup>15</sup> 경전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은 아버지 리하이에게 아들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 “그 기록을 찾아 이 곳 광야로 가지고 내려”오게 하도록 명하셨습니다.<sup>16</sup> 리하이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 다. 그 이유와 방법을 궁금해하지도 않았습니 다. 니파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가 가서 주께서 명하신 일들을 행하겠나이다.”<sup>17</sup>

우리는 니파이처럼 자발적인 신앙으로 행합니까? 아니면, 신앙이 부족하여 결국 주님께 등을 돌렸던 니파이의 형제들처럼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편에 더 가깝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마음”으로 순종할 것을 요청하십니다.<sup>18</sup>

우리는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약속된 땅으로 가고자 준비하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와 너와 함께 하느니라.”<sup>19</sup>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믿고 백성에게 권고했습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sup>20</sup> 주님은 요단강을 가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계속된 방랑을 마쳤습니 다.

우리는 물몬경의 선지자 아빈아다이처럼 진리를 수호해야 합니다. 체포되어 노아 왕과 그의 사악한 제사들 앞에 끌려간 아빈아다이는 십계명을 가르친 뒤,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 내려오사,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리라”는 것을 힘주어 설교했습니다.<sup>21</sup> 그런 후, 깊은 신앙으로 “하나님이시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외친 뒤<sup>22</sup> “불에 타 죽음을 당”했습니다.<sup>23</sup>

우리는 성찬을 취하고 성전에서 예배함으로써 성약을 맺고 새롭게 해야 합니다. 성찬은 일요 예배의 핵심이며, 우리는 성찬을 통해 “항상 그의 영광 함께”하리라는 약속을 받습니다.<sup>24</sup> 그리고 이 성스러운 의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고, 그분을 따르며, 그분처럼 우리도 이 신성한 사업에서 책임을 다하기로 약속합니다. 성전에서는 “이 세상의 것들을 제쳐”둘 수 있으며,<sup>25</sup> 주님의 임재와 모든 것을 초월하는 그분의 화평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과 가족, 그리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누릴 영생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최근 로마에서 벨슨 회장님이 “이 성전에서 뻗어 나갈 선한 영향력은 가늠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합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sup>26</sup>

우리는 매사에 고결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결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분별력과 자제력을 길러야 합니다. 그리고 고대에 교회의 사도였던 베드로의 다음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sup>27</sup>

우리는 부지런히 요새를 강화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 가며, 그분의 진정한 제자로서 그분께 영혼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분의 간증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요새로,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 줍니다. 허버 요새를 짓던 제 증조부와 그 동료 개척자들은 한 번에 하나씩 통나무를 세워 “서로 연결”함으로써 요새를 만들어<sup>28</sup> 보호받았습니다. 간증도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 중심에 진리를 가르치며 우리의 영혼에 말씀하실 때,<sup>29</sup> 우리는 각자 성령으로부터 증거를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생활하고, 구주의 속죄에 의지하여 두려움이 아닌 신앙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대적의 간계에 대비하여 강화됩니다. 우리는 간증으로

말미암아 하늘로 연결되며, “모든 것의 참됨”을 축복으로 얻습니다.<sup>30</sup> 그리고 마치 개척자들이 요새를 통해 보호되었듯이, 구주의 다정한 팔에 안전하게 둘러싸이게 됩니다.

선지자 이더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더 나은 세상, 곧 참으로 하나님 우편의 처소를 바랄 것이요, 이 소망은 신앙에서 비롯하여, 사람의 영혼에 닿아 되어, 그들로 확실하고 굳건하며, 늘 선행이 넘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라 하였더라.”<sup>31</sup>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주님과 그분의 복음을 신뢰하며 앞으로 나아가시도록 축복합니다. 복음 안에서 힘겨워하는 이들을 안아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영성과 보호의 요새로 돌아오도록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의 힘으로 다정히 이끌어 주십시오. 만사에 “주 예수를 닮”고자 힘쓰고,<sup>32</sup> 악과 유혹을 피하며, 우리 사랑하는 선지자께서 어제 주신 권고대로 회개하고, 정직하십시오. 의롭고 순결하며, 연민과 사랑을 보이십시오. 그리고 진정한 제자로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간증, 우리의 가정과 가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 됨은 악한 자의 권능으로부터 우리를 감싸고 지켜 주는

개인적인 요새가 될 것입니다. 이를 주님이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엄숙히 증거합니다. 아멘. ■

주

1. 교리와 성약 1:38.
2. 제3니파이 17:3
3. 니파이후서 28:20.
4. 『와서 나를 따르라—개인 및 가족: 신앙전서』(2019), v쪽.
5. 고린도후서 5:17.
6. 러셀 엠 벨슨, “교회를 위한 계시와 우리 삶을 위한 계시”, *리아호나*, 2018년 5월호, 96쪽.
7. 니파이전서 17:45.
8. 니파이후서 28:21.
9. “내 주는 강한 요새요”, 찬송가, 41장.
10. 누가복음 4:8.
11. 엘마서 48:10.
12. 엘마서 48:13.
13. 엘마서 48:16.
14. 엘마서 49:28.
15. 엘마서 26:3.
16. 니파이전서 3:4.
17. 니파이전서 3:7.
18. 교리와 성약 46:7.
19. 여호수아 1:9.
20. 여호수아 3:5.
21. 모사야서 15:1.
22. 모사야서 17:19.
23. 모사야서 17:20.
24. 교리와 성약 20:77.
25. 교리와 성약 25:10.
26. Russell M. Nelson, in Tad Walch, “President Nelson Refers to Apostles Peter, Paul during Rome Temple Dedication,” *Deseret News*, Mar. 10, 2019, [deseretnews.com](http://deseretnews.com).
27. 베드로전서 5:8.
28. 에베소서 2:21.
29. 시편 51:6 참조.
30. 모로나이서 10:5.
31. 이터서 12:4.
32. “주 예수를 닮으려고”, *어린이 노래책*, 40쪽.





러셀 엠 넬슨 회장

# 폐회 말씀

하나님 아버지와 휘장 양편에 있는 그분의 자녀들을 섬기기 위해 우리 삶을 헌납하고 또 재헌납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역사적인 대회를 마치고 주님께서 주신 그분의 영감과 보호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훌륭한 지침을 받고 고양되었습니다.

연사들은 말씀 주제를 배정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사들은 각자 자신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인 계시를 구했습니다. 그 주제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모습은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공부하실 때, 주님께서 그분의 종들을 통해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시는지를 알고자 구하십시오.

음악은 영광스러웠습니다. 각 대회 모임에서 주님의 영을 느낄 수 있도록 자신의 음악적 재능을 나눠 주신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께서 모든 모임에서 그분께 올린 기도과 모임 회중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대회는 참으로 우리 모두에게 영적 잔치였습니다.

우리는 모든 회원의 가정이 참으로 주님의 영이 거하는 신앙의 안식처가 되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분쟁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정은 연구와 기도와 신앙이 사랑과 어우러진 지상의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어 우리가 어디에 있던 그분을 증거하고 대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은 그분의 자녀들이 준비되고, 자격을 갖추며, 엔다우먼트를 받고, 인봉되고, 거룩한 성전에서 맺은 성약에 충실하여 그분께 돌아오기를 **선택**하길 바라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162개의 헌납된 성전이 있습니다. 초기의 성전들은 사랑하는 개척자들의 신앙과 비전의 상징으로서 있습니다. 개척자들의 손으로 세워진 그 성전들은 하나하나가 그들의 큰 희생과 노고의 결과물입니다. 그 각 성전은 개척자들의 가장 찬란하고도 놀라운

업적입니다.

그 성전들을 잘 관리하는 것은 우리의 성스러운 책임입니다. 그러므로 이 초기의 성전들은 곧 새단장과 보수를 하게 되고, 일부는 대규모 재건 공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능하다면 각 성전의 영감을 주는 미적 요소와 오래전 그 세대 특유의 솜씨와 기술과 같은 독특한 역사성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유타 세인트조지 성전에 대한 세부 사항은 이미 발표되었습니다. 솔트레이크 성전, 템플스퀘어, 그리고 교회 본부 건물 주변의 인접 광장에 대한 개보수 계획은 2019년 4월 19일 토요일에 발표될 것입니다.

유타주의 맨타이 성전과 로건 성전도 향후 몇 년 안에 개보수 공사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 성전들의 세부 계획 역시 준비되는 대로 발표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각 성전은 잠시 문을 닫게 됩니다. 교회 회원들은 주변의 다른 성전에서 계속하여 성전 예배와 봉사 기회를 누릴 수 있습니다. 각 계획이 완료되면 각각의 역사적인 성전은 재헌납될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성전을 교회에서 가장 성스러운 건축물로 여깁니다. **새로운** 성전에 대한 건축 계획을 발표할 때, 그 순간은 우리의 성스러운 역사의 일부로



남습니다. 이제 주의 깊고 경건하게 들어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지역에 대한 성전 건축을 발표하게 된다면, 그저 고개를 숙이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를 부탁드립니다. 큰 환호성으로 인해 이 대회와 주님의 거룩한 성전의 성스러운 특성이 반감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다음 지역에 새로운 성전 건축 계획을 발표하게 되어 기쁩니다.

미국령 사모아 파고파고, 일본 오키나와, 통가 네이아푸, 유타 투엘레밸리, 워싱턴 모세레이크, 온두라스 산페드로, 칠레 안토파가스타, 헝가리 부다페스트.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래된 성전과 새로운 성전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 각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임을 행동으로 보여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에 대한 신앙과 신뢰를 통해 우리 삶도 개보수되고 새롭게 단장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회개함으로써 그분의 속죄의 권능을 경험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회장 양편에 있는 그분의 자녀들을 섬기기 위해 우리 삶을 헌납하고 또 재헌납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 대한 제 사랑과 축복을 남기며, 이 주님의 교회에 계시가 계속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계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고 위대하신 여호와께서 사업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sup>1</sup>

여러분을 축복하며,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제 간증을 전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교회는 그분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 142쪽.

# 2018년 통계 보고서

교회 회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일회장단은 2017년 12월 31일 일요일을 기준으로 교회의 성장 및 현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통계 보고서를 발표했다.

교회 단위 조직	
스테이크	3,383
선교부	407
지방부	547
와드 및 지부	30,536
교회 회원	
총 회원 수	16,313,735
기록상의 새로운 자녀	102,102
침례받은 개종자	234,332
선교사	
전임 선교사	65,137
교회 봉사 선교사	37,963
성전	
2018년에 헌납된 성전 (칠레 콘셉시온, 콜롬비아 바랑키야 성전)	2
2018년에 재헌납된 성전 (텍사스 휴스턴, 유타 조던리버 성전)	2
연말 기준 운영 중인 성전	161



## 연차 대회에서 소개된 일화 색인

다음은 연차 대회에서 소개된 일화를 선별한 목록이다. 이 내용은 개인 학습, 가정의 밤, 그리고 그 밖에 복음을 가르치는 여러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다. 숫자는 각 말씀이 실린 첫 장을 나타낸다.

닐 엘 앤더슨	(34) 동성애 성향이 있는 형제가 성악에 충실함을 보여준다. 미혼인 자매가 봉사에 초침을 맞춘다.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81) 이탈리아의 청소년들이 러셀 엠 넬슨 회장에게 그들의 조상을 위해 준비한 성전 카드를 보여 준다.
칼 비 쿡	(51) 보츠와나에서 서로를 강화하고 개심하도록 돕는 “형제들”이 선교사로 봉사하면서 수많은 이들의 삶을 축복한다. 신권 정원회가 힘을 합쳐 어린 시절의 칼 비 쿡 장로를 돕고 축복해 준다.
쿠엔틴 엘 쿡	(76)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의 권유로 오 빈센트 할레크 장로의 아버지가 침례를 받게 된다.
베키 크레이븐	(9) 열차 기관사가 선로에 있는 차를 들이받기 전에 방향을 틀러 하지 않았다고 목격자가 불평한다.
쉐런 유뱅크	(73) 솔트레이크 성전의 야간 외동이 커지지 않는다. 쉐런 유뱅크가 꿈을 통해 자신의 신앙을 키우는 소망을 갖게 된다.
게릿 더블유 공	(97) 게릿 더블유 공 장로의 친구는 줌도독에게 연민을 느낀 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를 이해하기 시작한다.
브룩 피 헤일즈	(11) 브룩 피 헤일즈의 두 아들은 기도의 응답을 통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알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이 자신이 시력을 잃은 사실을 받아들이는 충실한 여성의 좌우명이 된다.
마티아스 헬드	(31) 마티아스 헬드 부부는 학습과 영을 통해 진리를 분별한 후 교회에 가입한다.
데이비드 피 호머	(41) 데이비드 피 호머 장로가 작은 비행기를 타는 중에 올바른 목소리를 듣는 것의 중요함을 알게 된다. 데이비드 피 호머 장로 부부는 기도에 대한 응답이 천천히 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데이비드 피 호머 장로의 형이 역경에도 끝까지 버틴다.
카일 에스 맥케이	(105) 약물 남용으로 고군분투하는 한 여성과, 아들이 사고로 죽은 어머니가 위대한 구원자에게서 위안과 지지를 얻는다.
러셀 엠 넬슨	(67) 어머니와 딸들이 아버지와 아들들의 관심을 얻기 위해 스포츠 및 게임과 경쟁한다고 느낀다.  (88) 러셀 엠 넬슨 회장과 딸 웬디는 “아버지와 딸의 마지막 이별의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에 관해 이야기한다. 사람들은 산불에서 피하도록 도운 경찰관이 “내 가족은 어디 있는가?”라며 궁금해한다. 러셀 엠 넬슨 회장의 친구가 복음의 축복을 받기 위한 변화를 거부한다.
달린 에이치 옥스	(60) 다람쥐에게 몰래 다가가는 개를 지켜보는 대학생들이 “이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라는 의문을 품지 않는다. 성전에서 결혼하기 위해 5일 밤낮으로 버스를 타고 간 콜롬비아인 부부가 성전 결혼과 복음에 관한 생각을 바꾸게 된다.
데일 지 렌런드	(70) “서툴렀던 첫 번째 기도”를 통해 저활동 회원이 교회에서 “이곳은 내 집이라”라는 느낌을 받는다.
올리세스 소아레스	(6) 홀어머니가 자녀의 마음에 복음의 축복을 심어 준다.
게리 이 스티븐슨	(47) 후에 십이사도가 된 고등학생이었던 제사가 부적절한 영화를 보지 않겠다고 함으로써 다른 친구에게 용기를 준다.
후안 파블로 비야르	(95) 어린 시절의 후안 파블로 비야르 장로는 선교사인 형과 하루를 전도하며 보낸 후 침례를 받고 선교 사업을 나가기로 한다.
다카시 와다	(38) 타카시 와다 장로의 어머니는 한 남자아이의 친절한 행동을 통해 주님으로부터 감명을 받고 교회에 가입한다.
더블유 크리스토퍼 와델	(19) 더블유 크리스토퍼 와델 장로의 형이 가족과 친구들의 노력으로 죽기 직전에 복음을 다시 받아들인다.



## 루벤 브이 알리아우드 장로

칠십인 총관리 역원

루벤 알리아우드는 14세 때 1년 동안 아르헨티나에 있는 집을 떠나 미국에 있는 삼촌과 지냈다. 그의 아버지 루벤 레이날도 알리아우드는 사망했고, 루벤의 “반항심”은 날로 커졌다.

그런 그를 걱정하던 어머니 마리아는 그를 텍사스주 휴스턴으로 보내 그곳에 살던 오빠 마누엘 부스토스의 가족과 함께 살게 했다. 그녀가 오빠 가족에게 부탁한 한 가지 조건은 “후기 성도의 신앙을 내 아들에게 전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창 고민 중이던 십 대 소년은 복음의 영에 마음이 끌렸다. 그는 교회가 부스토스 가족을 어떻게 기도와 봉사를 통해 단합시키는지를 관찰했으며, 자기 방 책꽂이에 꽂힌 수많은 물몬경을 눈여겨보지 않을 수가 없었다.

호기심에 물몬경을 한 권 꺼내 본 그는 물몬경이 참된지 기도들 통해 알 수 있다는 모로나이의 약속을 발견하게 되었다.

새로 부름을 받은 칠십인 총관리 역원은 이렇게 말한다. “그 약속에 마음이 몽클했습니다. 그 책을 읽어 보고 싶었습니다.”

그는 모로나이의 약속을 마음에 담았고, 확신을 주는 응답을 받았으며, 삼촌에게 침례 받고 싶다고 말하여 그를 놀라게 했다. 마누엘 삼촌은 바로 루벤을 아르헨티나로 돌려보내 어머니의 허락을 구하게 했다. 그는 곧 침례를 받았다. 그 이후로 회복된 복음이 알리아우드 장로의 삶에서 중심이 되었다.

루벤 빈센트 알리아우드는 1966년 1월 8일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태어났다. 그는 1992년 12월 17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성전에서 파비아나 베넷 라마스와 결혼했다. 슬하에 여섯 자녀를 두었다.

알리아우드 장로는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벨그라노 대학에서 법학 학위를 받았고, 형법을 전문으로 하여, 법조계 경력을 다양하게 쌓았다. 그는 1998년부터 Alliaud & Asociados의 전무 이사로 일했다.

그는 지역 칠십인, 아르헨티나 코르도바 선교부 회장, 스테이크 회장, 고등평의원, 감독, 장로정원회 회장, 우루과이 몬테비데오 선교부 선교사 등으로 봉사했다. 부름을 받을 당시 그는 종교 교육원 교사, 아르헨티나 선교사 훈련원 회장단 제1보좌역, 홍보 담당자로 봉사하고 있었다. ■



## 호르헤 엠 알바라도

칠십인 총관리 역원

미겔 알바라도와 이리스 알바라도 부부는 아들 호르헤가 6세였던 1977년에 푸에르토리코에서 교회에 들어왔다. 어린 호르헤는 그 후 2년 뒤에 침례를 받았고, 안식일 예배에 절대로 빠지지 않았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개종은 제가 16세가 되었을 때 일어났습니다”라고 새로 부름받은 칠십인 총관리 역원은 말한다.

고등학교 시절, 그는 고향인 폰세에서 세미나리 반의 회장으로 봉사하기 시작했다. 학생들은 그해에 물몬경을 공부하고 있었다. 그가 맡은 새로운 책임 때문에 그는 자신을 돌아보는 질문을 하게 됐다.

“저는 자문해야 했습니다. ‘나는 물몬경이 참되다는 것을 실제로 알고 있는가?’ 이 책이 참되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면서 제가 어떻게 세미나리반 반장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자신의 물몬경을 들고, 처음으로 물몬경을 진지하게 읽기 시작했다.

“저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으며, 그때 이 책이 참됨을 알았습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알바라도 장로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 것은 물몬경이다.

그는 플로리다 템파 선교부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면서 가르쳤던 모든 사람과 물몬경을 나누었다. 이후에 그는 이 책을 아내와 세 명의 자녀와 함께 공부했다. 푸에르토리코 산후안 선교부 회장으로, 선교사들에게 물몬경을 사랑하고 나누도록 도전 과제를 주었다.

이제 칠십인 총관리 역원으로서 알바라도 장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물몬경에서 인생을 바꾸는 진리를 발견해 볼 것을 권유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

호르헤 미겔 알바라도 파조는 1970년 11월 21일에 태어났다. 1992년 12월 19일, 그는 워싱턴 D.C. 성전에서 카리 루 리오스와 결혼했다.

푸에르토리코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공부한 후에 푸에르토리코와 미국 본토에서 경영과 관련된 여러 직종에서 근무했다. 가장 최근에는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교회 본부에서 자립 지원 서비스의 국제 관리자로 근무했다.

알바라도 장로는 지역 칠십인, 스테이크 회장, 고등평의원, 지부 회장, 워드 선교 지도자 등의 부름에서 봉사했다. ■





## 한스 티 보움 장로

칠십인 총관리 역원

한스 티 보움 장로가 여덟 살이었을 때 그의 가족은 암스테르담에서 네덜란드 남부에 있는 브레다라는 도시로 이사를 했다. 인도네시아에서 성장한 네덜란드인인 그의 부친은 개종자였으며, 가족들이 대도시를 떠나 조상들이 뿌리내리고 살았던 곳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가족과 함께 그 작은 지부에서 보낸 시간 덕분에 보움 장로는 교회에서 봉사하는 법을 훈련받았다. 그는 평생 동안 교회에서 봉사해 왔으며 새로운 칠십인 총관리 역원 부름에서도 계속 봉사할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오늘날의 제가 있게 해 준 모든 것과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 덕분입니다. 그리고 제게 배우고 성장할 기회를 주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1963년 7월 13일 암스테르담에서 한스 보움과 안키 보움의 자녀로 태어난 한스 테오도루스 보움은 보움가의 네 자녀 중 둘째이다. 그의 부모는 가정에서 복음을 가르쳤으며 자녀들에게 열심히 일하도록 격려했다.

보움 장로는 18세에 영국 런던 동 선교부에서 봉사했다. 선교 사업을 마친 지 몇 달 후, 그는 교회 청년 성인 대회에서 미래의 아내인 아리나 요하나 “마르한” 브룩지터를 만났다. 그들은 1984년 7월 27일 네덜란드 룬에서 결혼했고, 사후 후 영국 런던 성전에서 인봉받았다. 부부는 슬하에 세 아들을 두었다.

보움 장로는 마르크하흐 고등학교의 교장 비서로 일했고 베네룩스 프랜차이즈 개발의 채용 담당으로 일했다. 총관리 역원으로 부름을 받을 당시 그는 맥린 에이전시의 판매 책임자로 일하고 있었다.

보움 장로는 지역 칠십인, 스테이크 회장단 보좌, 스테이크 청남 회장단, 지부 회장, 지부 회장단 등으로 봉사했다. 부름을 받을 당시 그는 종교 교육원 교사 및 네덜란드 헤이그 성전에서 성전 의식 봉사자로 봉사하고 있었다. ■



## 엘 토드 버지 장로

칠십인 총관리 역원

토드 버지는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서 주님의 뜻을 찾는 방법을 배웠다. 그는 평생 결정을 내릴 때마다 그 가르침을 적용하며 실천하려고 노력해 왔다.

세월이 흘러서 아내와 다섯 명의 자녀를 거느리고 안정된 생활을 하던 차에, 그는 은행 및 금융 분야에서 쌓고 있던 직장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영적인 느낌을 받았다. 직업을 바꾸어 새로 경력을 쌓으려면 상당한 희생이 필요할 터였다.

직업을 바꾸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이고 많이 준비한 끝에, 버지 장로는 자신에게 조건해줄 수 있는 특별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이 사람은 버드 장로에게 은행 직에 계속 남아 있는 편이 좋겠다고 제안하며, 그렇게 하면 사람들을 상담하고 도와줄 기회가 많으리라는 사실도 상기시켜 주었다. “비즈니스 분야에 청렴한 사람들이 필요하다”라고 그 사람은 말했다.

버드 장로는 그 만남을 주님께서 베푸신 공훈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제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분께서 알고 싶어 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께서서는 일단 제 마음을 아시고 나자, 희생을 요구하지 않으셨으며, 저는 직업을 바꾸지 않고도 그분께서 목표하시는 대로 저를 사용하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력 덕택에 비즈니스 세계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고 일본에서 복음을 나눌 기회도 가질 수 있었다.

로런스 토드 버지는 1959년 12월 29일 캘리포니아주 피츠버그에서 로웰 켄슨과 디애나 프라이스 버지의 자녀로 태어났다. 그는 브리검 영 대학교 1학년 때 로리 케이프너를 만났다. 그가 일본 후쿠오카 선교부에서 봉사하고 돌아온 지 8개월 만에 그들은 유타주 로건 성전에서 결혼했고, 슬하에 여섯 자녀를 두었다.

버지 장로는 1984년에 경제학 학사 학위를 받고 BYU를 졸업한 뒤, 베인앤컴퍼니 일본 지사, 씨티 은행 N.A., GE 캐피탈 등에서 근무했다. 그는 2003년 도쿄 스타 은행의 사장 겸 CEO가 되었고,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이사회 의장직을 역임했다.

버지 장로는 지역 칠십인, 일본 도쿄 선교부 회장, 스테이크 회장, 감독, 장로 정원회 회장, 스테이크 청남 회장 등으로 봉사했다. ■



## 리카르도 피 히메네스 장로

칠십인 총관리 역원

칠레 안토파가스타의 교회 회원들은 2019년 4월 연차 대회를 오랫동안 기억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그곳에 세워질 성전이 이 대회에서 발표되었고 그곳 출신인 리카르도 피 히메네스 장로가 칠십인 총관리 역원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다.

히메네스 장로는 자신이 새로 받은 부름의 책임에 관해 숙고하며, “주님의 부름에 응한다면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에서 믿음과 용기를 얻는다.(토마스 에스 몬슨, “봉사하도록 부름받음”, 성도의 빛, 1996년 7월호, 44쪽)

그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과거에 그 말씀을 여러 번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 자신에게 그것을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그러니 그저 가서 그분이 바라시는 바를 행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리카르도 파트리시오 히메네스 살라사는 1971년 11월 28일에 리카르도 벤저민 히메네스 히메노와 미르토 루시스카 아말리아 살라사 시노리니의 두 자녀 중 맏이로 태어났다. 그는 11세에 교회에 들어왔으며, 부모가 이혼한 후 어머니를 따라 누이와 함께 칠레 산티아고로 이사했다.

그는 1995년 산티아고에서 삼촌과 함께 지내면서 그가 다니던 와드에 참석하기 시작한 카테린 이보네 카라사나 수니가를 만났다. 그들은 1997년 9월 12일 칠레 산티아고 성전에서 인봉을 받았고, 슬하에 두 자녀를 두었다.

히메네스 장로는 1997년에 산티아고 대학에서 회계 및 감사 학사 학위를 받았고, 2003년에 칠레 대학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광업 분야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으며, 나중에는 라틴 아메리카의 정보통신업체인 컴퓨터 사이언스 코퍼레이션의 재정 담당 이사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2012년에 다시 광산업으로 돌아왔는데, 처음에는 시에라 고다 광업에서, 그 후에는 로빈슨 제바다 광산 회사에서 일했다.

히메네스 장로는 부름을 받을 당시 스테이크 회장단 보좌로 봉사하고 있었다. 그는 또한 남미 남 지역 칠십인, 스테이크 회장, 고등평의원, 감독, 감독단 및 와드 청남 회장단 보좌, 칠레 콘셉시온 선교부 전임 선교사 등으로 봉사했다. ■



## 피터 엠 존슨 장로

칠십인 총관리 역원

시설 관리자 겸 택시 운전사의 아들인 피터 엠 존슨은 브리검 영 대학교 하와이에서 주는 농구 장학금을 받고 입학한 후, 한 종교 교육원 교사와 만나게 되었다.

그는 “형제님은 지금 당장 교회에 들어오게 될 거예요. 아니면, 시간이 좀 걸려서라도 그렇게 될 거예요.”라고 예언했다.

그 교사의 말이 맞았다. 1여 년이 지난 후에 피터는 “금식하고 기도한 후 응답을 받았다.” 그는 1986년 8월 16일에 침례를 받았다.

피터 매튜 존슨은 맥킨리 존슨과 제네바 파리스 룡의 다섯 자녀 중 넷째로 1966년 11월 29일 미국 뉴욕주 퀸스에서 태어났다.

그가 11살이었을 때, 그의 부모는 이혼했고 어머니는 하와이로 이사했다. 1년 후, 피터는 네이션 오브 이슬람(미국에서 이슬람교 선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웁킨이)에 가입하여 무슬림이 되었다. 이 협회를 통하여 그는 인도와 지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를 했다.

피터는 15살 때, 하와이로 가서 어머니와 함께 살았다. 그곳에서 그는 운동, 특히 농구를 알게 되었고 대학 교육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이 되고, 앨라배마 버밍햄 선교부에서 선교사로 봉사하고, 1990년 스테파니 린 채드윅과 성전 결혼을 하는 장정에 들어서게 되었다. 남유타 주립 대학에서 농구를 하면서 만난 이 부부는 슬하에 네 자녀를 두었다.

존슨 장로는 자신이 받은 칠십인 부름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저는 주님을 섬기기 위해 이곳에 있습니다. 국적이나 문화 또는 출신과 관계없이 제 임무는 온 마음과 생각과 힘을 다해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그의 백성들에게 표하는 것입니다. 구주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존슨 장로는 남유타 주립 대학에서 회계학 학사 및 석사 학위를 받았고, 애리조나 주립 대학에서 회계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BYU-하와이 부교수, 브리검 영 대학교 조교수, 앨라배마 대학교 부교수 등을 역임했다. 그는 지역 칠십인, 스테이크 회장, 스테이크 재정 서기, 와드 선교 지도자 등으로 봉사했다. ■





## 존 에이 맥쿤 장로

칠십인 총관리 역원

존 에이 맥쿤 장로는 직장 생활을 하던 초기에 한번은 자기 상사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대화를 나누는 도중에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 관해 잘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 금세 분명해 졌다. 그의 상사는 맥쿤 장로에게 후기 성도들은 왜 춤도 추지 않고 쿠키도 먹지 않느냐고 물었다.

“보다시피 저는 쿠키를 먹습니다.” 맥쿤 장로는 나온 배를 쓰다듬으며 상사에게 미소를 지었다. “저희를 다른 누군가와 혼동하신 것 같군요.”

이야기를 나누면서 맥쿤 장로는 교회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았다. 그 대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또 다른 대화로 이어졌고 맥쿤 장로는 언제라도 복음을 나눌 수 있도록 준비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맥쿤 장로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어떤 기회를 맞든지,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에게는 직업과 직장 생활이 있어요. 그것은 가족을 부양하게도 해 주지만 복음을 나눌 기회도 제공합니다. 복음을 나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지닌 일차적인 책임입니다.”

존 앨런 맥쿤은 1963년 6월 2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크루즈에서 클리퍼드와 조앤 슈티즈 맥쿤의 자녀로 태어났다. 그는 주로 미국 오리건주 니사에서 성장했다.

맥쿤 장로는 일본 후쿠오카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한 후, 1984년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데브라 앨렌 킹스버리와 결혼했다. 두 사람은 슬하에 4자녀를 두었으며, 미국 유타주 미드웨이에 살고 있다.

맥쿤 장로는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재무학으로 이학 학사 학위를 받았으며, 후에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 캠퍼스(UCLA)에서 재정학으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97년부터 2012년까지 캐피털 투자 자문 회사의 수석 부사장 겸 전무 이사로 일했다. 그 후 그는 유타주 프로보 선교부 회장을 역임한 후 여러 후기 성도 자선 단체와 주요 기증 물품을 연결해 주는 기증자 연락 담당자가 되었다.

맥쿤 장로는 새로운 부름을 받았을 당시 지역 칠십인으로 봉사하고 있었다. 그는 또한 스테이크 회장, 감독, 감독단 및 지부 회장단 보좌, 장로 정원회 회장 등으로 봉사했다. ■



## 제임스 알 래스밴드 장로

칠십인 총관리 역원

제임스 알 래스밴드 장로는 몇 년 전 스테이크 회장단으로 부름을 받으면서, 자신이 준비가 안 됐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 부름은 아무래도 실수로 온 것 같아.”라고 그는 생각했다.

열아홉 살에 전임 선교사로 한국 서울에 갈 준비를 하러 프로보 선교사 훈련원에 들어가면서도 그는 이와 비슷한 부족함을 느꼈었다. “이 일을 어떻게 해내지?” 하고 고민했다.

두 경우 모두 대답은 한결같았다. “계속 행하라. 기쁨이 찾아올 것이다.” 그의 어머니 표현을 빌리자면, “주님께도 완벽한 사람이 막 다 동나셨나 보다. 그러니 너라도 가서 하렴.”

래스밴드 장로는 칠십인 총관리 역원이라는 새로운 부름을 받아들이는 지금도 어느 정도 그런 망설임이 들지만 그래도 정답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나아가 행하며 그분의 아들과 그분의 아들의 속죄 희생에 대한 치유와 기쁨의 메시지를 나누기만을 바라십니다.”

제임스 리처드 래스밴드는 1963년 3월 20일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제임스 이 래스밴드와 이스터 래스밴드의 자녀로 태어났다. 그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페블 비치에서 성장했는데, 집이 바닷가에서 180m가량 떨어진 곳에 있었다.

래스밴드 장로는 브리검 영 대학교 1학년 때 매리 다이앤 윌리엄스를 만났다. 그들은 그가 이스라엘에서 5개월간 공부하는 동안 그리고 그가 한국 서울 선교부에서 봉사하는 동안 내내 편지를 주고받았다. 그들은 1984년 8월 11일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성전에서 결혼했으며, 슬하에 네 자녀를 두었다.

그는 선교 사업을 마치고 돌아온 후, 1986년에 BYU에서 영어와 근동학으로 학사 학위를 받았고, 1989년 하버드 법학 대학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시애틀에서 5년간 변호사로 개업했다가, 1995년에 BYU로 돌아와 제이 르우벤 클라크 법학 대학원의 교수직을 맡았다. 그는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법학 대학원 학장으로 재직하며 BYU의 학술 부회장을 역임했다.

래스밴드 장로는 지역 칠십인, 스테이크 회장, 스테이크 회장단 보좌, 고등평의원, 감독, 와드 청남 회장 등으로 봉사했다. ■



## 벤저민 엠 지 타이 장로

칠십인 총관리 역원

벤저민 엠 지 타이 장로의 친할아버지는 2차 세계 대전 때 홍콩을 침략한 일본군에게 잡혀 투옥되었다가 처형당했다.

수십 년 후 타이 장로가 브리검 영 대학교의 학생 와드에서 장로 정원회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었을 때, 그는 일본에서 온 미래의 아내 나오미 토마를 만나게 되었다. 나오미는 상호부조회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었다.

벤저민이 명에 칠십인이었던 아버지 퀵 위엔 타이 장로에게 나오미와 교제 중이며 그녀와 결혼하고 싶다고 했지만, 그의 아버지는 아무런 악감정을 보이지 않았다. 사실, 나오미의 부모인 리쿠오와 후미코 토마 부부가 벤저민의 부모를 만나기 위해 홍콩으로 왔다. 나오미의 부모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덕분에 양가의 자녀들이 결혼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두 사람은 1995년 12월 23일,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결혼했고, 슬하에 여섯 자녀를 두었다.

타이 장로는 "우리는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졌지만, 공통된 신앙과 희망이 있다."라고 말한다. 타이 장로는 이제 이러한 공통된 신앙과 희망이 전 세계에 있는 후기 성도들과 그를 이어 주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벤저민 밉 지 타이는 1972년 5월 20일 홍콩에서 퀵 위엔 타이와 웨이 화 타이의 아들로 태어났다. 가족들은 타이 장로가 십 대 시절을 보내게 된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로 이주할 때까지 부친의 직업 때문에 전 세계 곳곳에서 살았다. 그의 부모는 집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쓴 서예 족자를 걸어 두었다.(여호수아 24:15) 이 말씀이 타이 가족의 가훈이 되었다.

타이 장로는 호주 멜버른 선교부에서 봉사한 후, 1996년에 BYU에서 운동학 학사 학위를 받았고, 2003년 UCLA(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일본과 홍콩에 있는 투자은행 및 부동산 개발 분야에서 일했다.

타이 장로는 지역 칠십인, 지방부 회장, 지방부 회장단 보좌, 지방부 집행 서기, 장로정원회 회장, 지부 회장 및 주일 학교 교사 등으로 봉사했다. ■



## 앨런 알 워커 장로

칠십인 총관리 역원

앨런 알 워커 장로는 새로운 문화에 대해 배우고 그것에 몰두하는 것이 평생의 취미가 되었으며, 이러한 그의 특성은 그가 칠십인 총관리 역원으로 봉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앨런 로이 워커는 빅토르 에이드리언 워커와 크리스티나 오피리야 스페로 워커 사이에서 1971년 1월 2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태어났으며, 북미와 남미의 여러 지역에서 성장기를 보냈다.

그는 아르헨티나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후, 가족과 함께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으로 이주했고, 후에는 부친의 직업 때문에 멕시코 멕시코시티로 이사했다.

그는 "영어를 배운 것이 엄청난 축복이 되었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복음 속에서 성장함으로써 그는 간증을 키우고 어린 나이부터 선교 사업을 준비할 수 있었다. 워커 장로는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1학년을 마친 뒤 테네시 내슈빌 선교부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했다.

부친이 심각한 사고를 당한 까닭에 워커 장로는 선교 사업을 끝낸 뒤 복학하려던 계획을 미루고 아버지의 회복을 돕기 위해 아르헨티나로 돌아갔다. 그때 그는 종교 교육원 무도회에서 이네스 마르셀라 술레를 만났다. 그들은 만난 지 8개월만인 1993년 8월 12일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성전에서 결혼했다. 결혼식 다음 날 신혼부부는 미국 유타주 프로보로 이사했고, 그곳에서 워커 장로는 경제학을 공부하고 1996년에 학사 학위를 받았다.

워커 장로는 그 후 3년간 씨티은행에서 기업 은행가로 일했고, 6년간 남미 남 지역에서, 11년간 멕시코 지역에서 교회의 회계 담당관으로 일했으며, 최근에는 남미 남 지역의 사무국장으로서 일했다. 2010년에는 멕시코 몬테레이 동 선교부를 감리하는 부름을 받았다.

워커 부부는 딸과 함께,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여행하며, 새로운 장소와 사람들을 알아 가고 있다.

워커 장로는 칠십인 총관리 역원으로 부름을 받기 전에 지역 칠십인, 스테이크 회장단 보좌, 고등평의원, 감독, 감독단 보좌 및 와드 선교 지도자를 비롯한 다양한 교회 부름을 수행했다. ■





## 마크 엘 페이스

본부 주일학교 회장

접견 중에 교회의 새로운 본부 주일학교 회장으로 봉사하는 부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마크 엘 페이스 형제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겠다고 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 제게 하라고 하시는 일이 무엇이든지 저는 기쁘게 그 일을 행하겠습니다.”라고 그는 기도했다. “저는 제가 온전히 헌신하리라는 것을 압니다.”

페이스 형제는 자신의 새로운 부름에서 주된 소망은 교회의 회원들을 축복하고, 지원하며, 격려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가 가진 것을 모두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그는 새로운 본부 주일학교 회장단으로서 말했다.

마크 레너드 페이스는 1957년 1월 1일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로린 벨슨과 메릴린 헤이모어 페이스 사이에서 태어났다. 당시 페이스 형제의 아버지는 아르헨티나 선교부를 감리하고 있었다.

페이스 형제는 장래에 아내가 될 엔 마리 랑엘란을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만났는데, 둘은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이었고, 같은 반이었다. 이후에 그 도시의 다른 고등학교에 다니던 두 사람은 합동 세미나리 활동에서 다시 만났다. 페이스 자매는 가족과 함께 노르웨이로 갔으며, 그녀의 아버지는 노르웨이 오슬로 선교부를 감리했다. 그동안 페이스 형제는 스페인 마드리드 선교부에서 봉사했으며, 그들은 몇 년간 서로 편지를 주고받았다. 그들은 1978년 11월 21일에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결혼해 슬하에 일곱 자녀를 두었다.

페이스 형제는 1980년 유타 대학교에서 경제학 학사학위를 받고 졸업했으며 1982년에는 하버드 경영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뉴욕시에 있는 프라이스 워터하우스에서 짧은 기간 일한 후,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보이어사에 들어가 1984년부터 2012년까지 상업용 부동산 개발 분야에서 일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선교부의 회장으로 3년간 봉사한 후 그는 2015년에 가드너사에 들어가 부동산 개발 사업을 했다.

새로운 부름을 받을 당시 페이스 형제는 지역 칠십인으로 봉사하고 있었다. 그는 이전에 스테이크 회장단 보좌, 고등평의원, 감독, 감독단 보좌, 장로 정원회 회장, 와드 청남 회장 및 스카우트 지도자 등의 부름에서 봉사했다. ■



## 밀튼 카마르고

본부 주일학교 회장단 제1보좌

이전에 다른 교회의 목사였던 헬리우 다 로샤 카마르고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서 침례를 받기로 결심하는 데에는 거의 1년이 걸렸다. 얼마 후에 그의 아내인 나이르 벨미라 다 로샤 카마르고도 또한 남편의 모범을 따라 침례 받기로 결심했다.

그 당시 나이르는 밀튼이라고 이름 지을 아들을 임신하고 있었다. 카마르고 부부가 함께 교회에 들어오기로 한 결심은 그들 가족의 장래 세대에 영원한 축복이 되었다.

밀튼 다 로샤 카마르고 형제는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1958년 3월 10일에 태어났다. 본부 주일학교 회장단의 제1보좌로 2019년 4월 6일에 지지받은 카마르고 형제는 교회의 회원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축복이었다고 말한다.

“주님은 우리 개개인을 아십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우리 각자에 대한 그분의 계획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큼니다.”

카마르고 형제는 1970년대 후반에 그의 아버지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선교부를 감리하는 동안 그의 아내 페트리샤를 만났다. 카마르고 형제가 포르투갈 리스본 선교부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고 돌아온 지 1년쯤 된 1980년 1월 4일에 두 사람은 결혼했다. 슬하에는 세 자녀가 있다.

결혼 초기에 카마르고 부부는 리우데자네이루에 살았고, 그곳에서 카마르고 형제는 인스티투투 밀리타르 지 엔제냐리아에서 토목 공학 학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이후에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카마르고 형제는 다른 사람들을 교육하는 데에 자신의 시간과 힘을 헌신하면서 경력을 쌓았다. 그는 로리트 브라질 온라인 교육, 유니베르시다드 테크놀로지아 데 멕시코를 포함한 여러 대학교에서 일했으며, 가장 최근에는 BYU-Pathway Worldwide에서 교과 과정 부학장으로 일했다.

카마르고 형제는 지역 칠십인,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 남 선교부 회장(1977~2000년), 브라질 선교사 훈련원의 회장단 보좌(2002~2005년), 감독, 스테이크 선교부 회장, 장로 정원회 회장 등의 부름에서 봉사했다. ■



## 젠 이 뉴먼

본부 주일학교 회장단 제2보좌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에서 봉사하던 젊은 선교사 시절, 젠 이 뉴먼은 자신의 신앙을 강화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게 되었던 특별한 영적 경험을 하게 되었다. 그는 물몬경에서 우리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을 심는 것에 관한 선지자 엘마의 말씀을 읽었을 때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엘마서 32:28; 33:22~23 참조)

“저는 만일 너희가 너희의 마음에 그 씨를 위한 자리를 내어준다면, 그 씨는 자랄 것이고 너희는 실제로 그 부푸는 움직임을 느끼게 되리라는 부분을 읽었습니다.”라고 뉴먼 형제는 말했다. “저는 그 부분을 읽었을 때 영이 바로 저에게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너무나 강하게 간증했음을 기억합니다. 저는 그 부푸는 움직임을 느꼈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그 느낌을 절대로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 경험 외에도 다른 여러 경험은 뉴먼 형제의 복음에 대한 간증이 확고해지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그가 평생을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봉사하도록 준비시켰다.

젠 에릭 뉴먼은 1960년 4월 16일 미국 아이다호주 제롬에서 조지 레이먼드와 도라 워커 뉴먼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미국 네바다주 오버턴에서 자랐다. 그의 아버지는 개종자였고, 그의 어머니는 여러 세대에 걸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이었다.

그는 어린 나이에 간증을 발전시켰으며, 프랑스와 벨기에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했다. 뉴먼 형제는 선교 사업을 한 후에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불문학 학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자신이 공부한 분야를 너무나 좋아해서 불어 교사가 되는 것도 고려해 보았지만, 그 대신에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경력을 쌓기로 결정했다. 그는 30년이 넘게 연쇄 창업가로 일하면서 성공적으로 여러 개의 소프트웨어 회사들을 설립했다. 현재 그는 유타 알파인에 있는 세이지크리크 파트너라는 기술 컨설팅 회사에서 동업자로 일하고 있다.

뉴먼 형제는 루시아 프라이스와 1984년 8월 18일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성전에서 결혼했다. 슬하에 여섯 자녀를 두었으며, 유타주 엘크리지에 거주하고 있다.

뉴먼 형제는 스테이크 회장, 감독, 와드 청남 회장, 스카우트 지도자, 성전 봉사자 등의 부름에서 봉사했다. 2006년에서 2009년까지, 그는 네브래스카 오마하 선교부의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했다. ■



## 넬슨 회장의 성역이 계속되다

**20** 18년 10월 연차 대회 직후, 러셀 엠 넬슨 회장은 페루, 볼리비아, 파라과이, 우루과이 및 칠레를 방문하여 회원과 선교사들을 만나고, 천오백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 전역에 방송된 청소년 영적 모임을 비롯한 영적 모임들을 가졌다. 그는 회원들에게 스페인어로 말씀했으며, 칠레 콘셉시온 성전을 헌납하고 지역의 정부 지도자들과의 만남을 가졌다.

지난 2018년 10월 연차 대회에서 넬슨 회장이 주었던 다음 네 가지 도전 과제와 관련된 경험을 나눠 달라는 그의 권유에 수천 명의 여성들이 소셜 미디어로 응했다. (1) 소셜 미디어 및 부정적인 매체로부터 10일간 금식하기, (2) 2018년 연말까지 물몬경 읽기, (3) 성전에 정기적으로 참석하기, (4) 상호부조회에 온전히 참여하기. 넬슨 회장은 “제 권유에 응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각 권유로 여러분이 구주와 더 가까워졌기를” 바란다는 소망을 나타냈다.

넬슨 회장은 암과의 용감한 사투 끝에 사망한 그의 딸인 웬디 넬슨 맥스필드의 장례식을 감리했다. 그는 말했다. “영원한 관점을 지닐 때, 우리가 흘리는 슬픔의 눈물은 기대의 눈물로 거듭날 것입니다.” 그는 캘리포니아 산블로 페허가 된 파라다이스시의 두





러셀 엠 벨슨 회장과 칠십인 정원회의 엔리케 알 팔라벨라 장로가 환영 속에 페루 리마에서 열린 영적 모임에 참석했다.

개의 단위 조직을 아우르는 치코 스테이크 회원을 위한 특별 모임 중에 그의 딸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모두가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의 기분이 나아지기를 바라다면, 여러분 자신을 잊고 다른 누군가에게 봉사하십시오.”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벨슨 회장은 경기장에 모인 6만 5천 명의 사람들에게 “휘장 양 편에 있는 이스라엘을 집합시키도록 도와”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벨슨 회장은 Arizona Republic 신문의 객원 칼럼에 “[주를] 바라보고 그분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두십시오”라고 기고하여 사람들을 격려했다. 그는 주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인터뷰 방송에 참여하고, 시민 단체, 교육계 및 종교계 인사들과 여러 연회 모임을 가졌으며, 청년 독신 성인들과 함께 질의 응답 모임을 가졌다.

2018년 1월 14일에 성립된 이래로, 벨슨 회장은 5대륙, 16개국 및 준주, 24개 도시를 방문하는 가운데 88,515 킬로미터를 여행했다. ■

## 영감받은 지침

### 지금까지 러셀 엠 벨슨 회장이 회장직에 있는 동안

- 신권 정원회가 재조직되었다.
- 성역이 가정 복음 교육과 방문 교육을 대체했다.
-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새로운 개인 발전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중이다.
- 찬송가와 어린이 노래책의 개정판이 준비 중이다.
- 감독의 청소년 접견을 위한 새로운 지침이 정해졌다.
- 교회를 온전한 이름으로 부르는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선교사 부름이 온라인으로 게시된다.
- 물론 태버네클 합창단은 태버내클 합창단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 가정이 중심이 되고 교회가 그것을 뒷받침하는 복음 공부 시작되었으며, 정규 안식일 모임이 두 시간으로 변경되었다.
- 새로운 성전 27곳이 발표되었다.
- 교회의 패전트(아외국)가 세 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중단되었다.
- 초등회가 청소년으로 진급하거나, 청년이 신권 성임을 받거나, 청소년이 성전 추천서를 받기 위해 그해 생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이제 1월에 받을 수 있다.
- 자매 선교사들이 이제는 정장 바지를 입을 수 있다.
- 성전 사업과 관련된 세부 사항이 조정되었다.
- 새로운 선교부가 조직되었고, 경계 재조정이 있었으며, 선교사 훈련원 두 곳이 문을 닫았다.
- 성 소수자 부모의 자녀들도 이제 축복과 침례를 받을 수 있으며, 동성 결혼에 관한 정책이 명확해졌다.

벨슨 회장은 주님이 지시하실 때 앞으로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을 약속했다. ■

## 세미나리 교육 과정이 **와서 나를 따르라** 과정과 일치하도록 변경됨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세미나리 학습이 **와서 나를 따르라** 교육 과정 및 일정과 일치하도록 곧 변경될 예정이다. 이 변화로 가정과 주일학교, 세미나리에서 동일한 내용을 배우게 되어, 가정이 중심이 되고 교회가 그것을 뒷받침한다는 접근 방법을 복음 학습에 더 잘 적용하게 될 것이다.

2020년부터, 그해의 **와서 나를 따르라** 과정과 같은 경전을 세미나리반에서 공부하게 된다. 학사 일정과 관계없이, 세미나리 학습 과정은 연초에 시작하는 연례 일정을 따른다.

세미나리 학습은 계속해서 경전에 기반을 두는 반면, 교과 과정은 교리에 더욱 기반을 둬으로써, 교회 내에서 선교 사업과 결혼, 봉사를 하도록 청소년을 강화하고 보호하며 준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교회 지도자들의 동영상 링크와 더불어, 변경에 대한 홀런드 장로의 말씀을 포함한 더 자세한 기사는 [ChurchofJesusChrist.org/go/519122](https://www.ChurchofJesusChrist.org/go/519122)에서 읽을 수 있다.



## 헌납식에서 “전례 없는 미래”를 말하다

**러** 셀 엠 넬슨 회장은 2019년 3월 이탈리아 로마 성전 헌납식에서 “교회는 전례 없고 비할 데 없는 미래를 맞이할 것”이라며, “우리는 지금 앞으로 다가올 일을 준비할 뿐입니다”라고 말했다.

헌납식에서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의 모든 회원이 처음으로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한자리에 모였다. 넬슨 회장은 “현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우리는 오래전에 사도들이 나누었던 것과 똑같은 메시지, 곧 하나님은 살아 계시며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메시지를 오늘도 나누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성전을 헌납하는 것 외에도, 넬슨 회장은 해당 성전 구역의 청년들에게 말했으며 프란치스코 교황과도 만났다. 이 만남은 교회 회장으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수장가 처음으로 갖는 공식적인 만남이었다. ■

이탈리아 로마 성전에 관한 내용과 로마와 관련된 사진은 [ChurchofJesusChrist.org/prophets-and-apostles](https://www.ChurchofJesusChrist.org/prophets-and-apostles)에서 볼 수 있다.



# 새로운 정책, 절차, 자료

**성**전에 대한 성명서. 제일회장단은 2019년 1월 2일에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수 세기에 걸쳐 언어, 건축 방법, 의사소통 및 기록 보관을 포함한 성전 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이 주기적으로 조정되어 왔습니다. 선지자들은 주님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계속해서 그러한 조정 사항을 지시하시리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어린이 및 청소년 진급.** 이제 어린이가 초동회를 마치고 청소년이 청녀반 또는 정원회 내에서 다음으로 진급할 때 개개인의 생일이 아닌 연령대를 기준으로 함께 진급한다. 이는 또한 청소년이 만 12세가 되는 해의 1월부터 제한 사용 성전 추천서를 받을 수 있으며, 청남은 만 12세가 되는 해 1월에 아론 신권에 성입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봉사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 후기 성도 자선회는 JustServe.org와 협력하여 사람들이 지역 사회에서 봉사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온 세상의 훌륭한 대업에 기여하도록 #YouCanDoSomething 사업을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봉사하려면 LDSCharities.org에서 “How to Help[도움 주기]” 페이지를 방문한다.

**새로운 성역 자료.** This Is Ministering(ministering.ChurchofJesusChrist.org) 웹사이트에 더 다양한 기사와 동영상이 게시되었다. 본 사이트에 나오는 자료는 독자가 동정의 손길을 내밀고, 더욱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며, 귀 기울여 듣는 기술을 향상하는 것 이외에도 많은 면에서 도움을 준다. 새로운 자료에는 리아호나 잡지에 게재된 성역의 원리 기사, 성역에 관한 연차 대회 말씀과 더불어, 나눌 만한 동영상, 인문문, 및

경전 구절이 포함되어 있다.

**학대 피해자를 위한 희망과**

**치유.** 교회의 새로운 웹사이트인

abuse.ChurchofJesusChrist.org는 학대 피해자 및 학대를 예방하는 데 보탬이 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자료와 실질적인 도구를 제공한다. 또한 제일회장단은 2019년 3월 26일자로 서신을 발표하여 학대로 고통받는 이들을 돕기 위해 사랑을 품고 다가가도록 교회 지도자들을 격려했다. 이 서한에는 감독과 스테이크 회장단이 성적 학대의 피해자들에게 권고하는 법과 교회 회원들과 접견하는 방법에 대해 갱신된 지침이 실려 있다. 또 교회는 “Protect the Child[어린이를 보호함]”라는 동영상을 출시했으며, 학대에 관한 복음 주제 관련 글을 갱신했다.

**새로운 기능 및 앱.** 복음 자료실 앱 최신 업데이트에서 소개된 학습 계획 기능을 통해 복음 자료실 앱에 있는 어떤 자료에 대해서든 학습 일정을 세울 수 있게 되었다. ‘받을 수 있는 의식’ 기능은 FamilySearch의 새로운

도구로서, 성전에 가져가기 위한 이름을 찾는 것을 단순화하여 여러분이 가족에게 봉사하고 성전의 축복을 누릴 시간을 더 많이 가지도록 돕는다. FamilySearch에는 “조상이 걸은 곳 걸어 보기”처럼 어린이들이 가족 역사에 참여하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가정에서 할 수 있는 20여 개에 달하는 활동이 소개되어 있다. 이 활동은 10개 언어로 이용할 수 있다.

**대규모 공연 행사를 권장하지 않다.**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문화 및 역사 축제는 바람직한 반면, 교회는 이제부터 패전트와 같은 대규모 공연 행사를 권장하지 않는다. 다음 패전트는 계속해서 열린다. 미국 일리노이주 나부 패전트, 교회 본부가 지원; 미국 애리조나주 메사 패전트, 지역 지도자가 감독; 영국 패전트, 지역 지도자가 감독, 4년 주기. 교회는 또한 성전 헌납식 이전에 교회 지도자들과 청소년이 영적 모임을 하도록 헌납식 이전에 열렸던 청소년 문화 행사를 중단한다. ■



어린이와 청소년은 한 반 또는 정원회에서 다음으로 진급할 때 생일이 아닌 연령대를 기준으로 진급한다.



솔트레이크 성전을 포함하여 개척 시대에 건립된 성전이 개보수되며, 추가로 8개의 성전이 새로이 건축될 예정이다.

## 8개의 새로운 성전과 역사적인 성전들의 복원 계획이 발표되다

**러**셀 엠 넬슨 회장은 솔트레이크 성전 복원에 관한 세부 내용과 함께, 개척 시대에 건립된 4개의 성전 복원 계획과 8개의 새로운 성전 건립 계획을 발표하면서 2019년 4월 연차 대회를 마무리했다.

새로운 성전은 미국령 사모아 파고파고, 일본 오키나와, 통가 네이아푸, 유타 투엘레밸리, 워싱턴 모세레이크, 온두라스 산페드로, 칠레 안토파가스타,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건립될 예정이다.

솔트레이크 성전 복원을 위한 계획에는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 교회 본부 건물 근처에 있는 템플 스퀘어 및 인접한 광장의 보수 공사도 포함된다. 미국 유타주 세인트조지, 맨타이, 로건에 있는 성전도 가까운 시일에 보수될 예정이다. 넬슨 회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각 성전은 잠시 문을 닫게 됩니다. 교회 회원들은 주변의 다른 성전에서 계속하여 성전 예배와 봉사 기회를 누릴 수 있습니다. 각 계획이 완료되면 각각의 역사적인 성전은 재현날될 것입니다.”

2018년 1월 교회 회장이 된 이후 넬슨 회장은 27개의 새로운 성전을 발표했다. 2018년 10월 연차대회 이후 새로운 성전이 이탈리아 로마, 콜롬비아 바랑기야, 칠레 콘셉시온에서 헌납되었다. ■

성전 전체 목록과 현황은 [temples.ChurchofJesusChrist.org](http://temples.ChurchofJesusChrist.org)에서 볼 수 있다.

## 성 소수자 부모의 자녀 및 동성 결혼 내 구성원을 위한 정책

**자**신을 성 소수자라고 밝히는 부모는 이제부터 합당한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에게 그들의 유아 자녀에 대한 축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자녀가 만 8세가 되면 제일회장단의 승인 없이 침례를 받을 수 있음을 제일회장단 제1보좌인 맬린 에이치 옥스 회장이 연차 대회 지도자 모임 중에 발표했다.

뿐만 아니라, 동성간의 결혼은 여전히 “심각한 범법”으로 여겨지지만, 이제 교회 선도 절차상 “배도”로 다루지는 않을 것이다. 옥스 회장은 “이성에 또는 동성에 관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부도덕한 행위는 종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다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제일회장단은 공식 성명을 통해 이 정책의 변경은 “결혼과 관련된 교회 교리나 순결과 도덕성과 관련된 하나님의 계명에 변경이 있음을 뜻하지 않는다. 구원의 계획에 대한 교리와 순결의 중요성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옥스 회장은 본 정책이 해당 가족에게 도움이 될 것이며, “이에 더하여 지도자들은 우리 회원들이 더 큰 이해와 연민과 사랑을 보이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선의를 지닌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존중과 이해가 커져야 한다”고 말했다. ■



## 정확한 명칭을 강조함

**예** 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를 적절한 이름으로 칭하기 위해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다음과 같이 변경 시행된다.

### 웹 사이트 변경

- LDS.org를 대신하여 ChurchofJesusChrist.org를 교회 공식 웹 사이트 이름으로 대체한다.
- 앞으로 몇 달 후에는 Newsroom, ChurchofJesusChrist.org가 MormonNewsroom.org를 대체하게 된다.
- Mormon.org는 후에 ComeUntoChrist.org로 대체되며, Mormon.org는 주로 교회에 속하지 않은 시청자를 대상으로 더욱 개인적인 경험을 전할 수 있도록 재구성 중이다.

### 소셜 미디어 채널의 변경 사항

- 교회의 모든 주요 소셜 미디어 계정은 구주의 교회라는 이름을 강조하기 위해 변경되었다.
- 회원들은 교회 뉴스와 업데이트되는 소식을 접하고 교회에서 공동체와 연결 고리를 형성하기 위해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Inspiration & News[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영감과 소식]이라고 하는 새로운 페이스북 그룹에 가입할 수도 있다.

### 모바일 앱의 변경 사항

- '성스러운 음악'이 'LDS Music'을 대신한다.
- 복음 자료실 앱은 변경되지 않는다. 우리가 모두 구주의 교회인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라는 이름을 강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때, 추가적인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다. ■

## 수천 명에게 내민 인도주의적 지원 노력

**교**회의 인도주의 사업부인 후기 성도 자선회는 지난해 141개국 2,885개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1,900개의 인도주의 협력 단체들과 함께 일했다. 2019년 2월 19일에 발표된 2018년 후기 성도 자선회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후기 성도 자선회는 1985년부터 197개국 및 지역에서 현금, 물품 및 현물 기부 등을 비롯해 22억 달러 이상의 지원을 제공했다고 한다.

교회 인도주의 지원 노력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 대한 연민과 사랑에서 비롯되었으며,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고, 자립심을 고취하고, 자원봉사 활동과 봉사를 증진하는 3가지 지도 원리를 강조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토대로 한 이러한 원리들은 인종, 종교 또는 국적에 상관없이 개인과 가족에게 힘을 준다.

교회는 자원봉사 활동을 비롯해 응급 상황에 대한 대응, 시각 장애인을 위한

봉사, 산모 및 신생아 치료, 깨끗한 물 및 위생, 예방 접종, 휠체어 및 보행 보조 기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사회의 해결책 및 자원을 활용하여 음식을 자급하고 난민들에게 즉각적인 도움과 장기적인 도움을 주도록 돕고 있다. 교회는 또한 노숙자, 난민 정착 및 기타 필요 사항을 돕기 위해 미국과 캐나다의 43개 주와 지방에서 실시하는 지역 사회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1보좌이며 후기 성도 자선회 회장인 웨런 유펜크 자매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2018년 인도주의 사업의 성공에 기여하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와 연대감을 느낍니다.” 이 보고서야말로 수만 명의 사람이 보인 친절을 나타낸다고 그녀는 말했다. ■

보고서 전문을 보고

싶다면 [ldscharities.org/bc/content/ldscharities/annual-report/2018/LDS\\_Charities\\_2018\\_English.pdf](https://ldscharities.org/bc/content/ldscharities/annual-report/2018/LDS_Charities_2018_English.pdf)를 참고한다.



인도네시아의 한 간호사가 최근 아이를 낳은 산모 옆에 서 있다. 이 출산 센터의 간호사들은 후기 성도 자선회가 운영하는 유아 호흡 돕기 코스를 수료했다.



가나의 한 젊은이가 후기 성도 자선회 기술자의 도움으로 휠체어를 몸에 맞도록 조정된 후 웃고 있다.

## 선교사 소식

**가족과의 연락.** 선교사들은 이제 편지 및 이메일 외에도 문자 메시지, 온라인 메시지, 전화 및 화상 통화를 통해 매주 준비일에 가족과 연락할 수 있다.

**예비 선교사를 위한 계획 도구.** 교회의 선교사부가 제공하는 새로운 온라인 선교 사업 계획 도구는 예비 선교사가 주께 봉사할 최상의 준비를 갖추게 될 시기를 정하는 과정에서 더욱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심사숙고하도록 돕는다.

**선교사로 봉사하기.** 2019년 1월부터, 청년 교회 봉사 선교사를 “봉사 선교사”라고 부른다. 선교 사업에 지원하는 모든 청년 성인들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포털을 사용하며, 전도 선교사 혹은 봉사 선교사를 막론한 모든 선교사 부름은 선지자로부터 온다. 여러 가지 이유로 전도 선교사로 봉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함당한 청년 성인들은 봉사 선교사로 부름받을 수 있다.

**자매 선교사가 바지를 입을 수 있게 되었다.** 자매 선교사가 자신의 재량으로 평상시에 바지를 착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성전, 일요일 예배 모임, 지도자 대회 및 지역 대회, 침례식, 선교사 훈련원 영적 모임에 참석할 때는 계속해서 치마나 원피스를 입어야 한다. 정장 바지를 입으면 모기를 매개로 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추운 기후에서 더 따뜻하게 지낼 수 있으며, 자전거를 타기도 더 쉬워진다.

**선교부 신설 및 경계 조정.** 4개의 선교부가 새로 문을 열었으며, 12개 선교부는 기존 선교부와 통합한다. 이는 봉사하는 선교사의 수에 따라 정기적으로 변경된다. 새로운 선교부는 콩고 민주 공화국 긴샤사 동, 과테말라 안티과, 페루

리마탐보, 필리핀 안티폴로 선교부이다. 선교부 회장은 신설 또는 통합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해당 지역 선교부에서 봉사하는 선교사의 부모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선교사 훈련원 수가 조정된다.** 전 세계의 선교사 훈련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아르헨티나, 스페인, 칠레 및 도미니카 공화국의 선교사 훈련원이 문을 닫는다. 이로 인해 교회는 브라질, 콜롬비아, 영국, 가나, 과테말라,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필리핀, 미국 유타주 프로보,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11곳의 선교사 훈련원을 운영하게 된다.

**안전에 관한 비디오.** 새로운 12부짜리 비디오 시리즈인 *The Safety Zone*이 현재 봉사 중인 65,000명의 전임 선교사와 더불어 앞으로 봉사할 이들의 안전을 증대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첫 번째 비디오는 선교사 부름을 받은 예비 선교사가 선교사 훈련원에 입소하기 전에 그들의 부모와 함께 시청하도록 고안되었다. 선교사는 선교사 훈련원에서 첫 번째 비디오를 재시청하고, 나머지 11편도 함께 시청하게 된다. 선교사들은 봉사 중에도 정기적으로 안전 교육을 받게 될 것이다. ■



## 쿠웨이트가 공식적으로 교회를 인정하다

**교** 회가 쿠웨이트 정부로부터 교회 조직과 현지 지도자들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을 받았다. 거의 300명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들이 쿠웨이트에 살면서 일하고 있으며, 이들은 전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 왔다. 정부의 공식적인 인정으로 현지 지도자들은 쿠웨이트에 사는 회원들의

필요 사항에 더 잘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바레인 마나마 스테이크, 쿠웨이트 와드의 테리 해러딘 감독은 쿠웨이트 정부가 예배의 자유를, 특히 국외 노동자들에게 쿠웨이트에서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해 준 것에 감사를 표했다. 또한 국가 내에서 종교적인 관용을 고취한 것에 대해 감사했다. ■



# 와서 나를 따르라 연차 대회 말씀을 통해 배우기



살아 있는 선지자와 교회 본부 지도자들의 가르침은 우리가 주님의 일에 참여하려고 할 때 영감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매달 둘째 및 넷째 일요일에 장로 정원회와 상호부조회 회장단은 회원들의 필요와 영의 인도에 기초하여 모임에서 토론할 연차 대회 말씀을 선택한다. 때에 따라, 감독 또는 스테이크 회장이 토론할 말씀을 제안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지도자들은 제일회장단 및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원이 전한 말씀을 주로 다뤄야 한다. 그러나 가장 최근 연차 대회에서 나온 말씀이라면 무엇이든 토론할 수 있다.

지도자와 교사들은 회원들이 선정된 말씀을 미리 입도록 격려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장로 정원회 및 상호부조회 모임에 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지침서 제2권: 교회 관리』, 7.8.1, 9.4.1, ChurchofJesusChrist.org를 참고한다.

## 가르칠 준비를 함

다음의 질문은 교사가 연차 대회 말씀을 가르칠 준비를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다.

1. 연사는 우리가 무엇을 이해하기를 바라는가? 연사는 어떤 복음 원리를 가르치고 있는가? 그 원리는 우리의 장로 정원회나 상호부조회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2. 연사는 자신의 메시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어떤 경전 구절을 인용했는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읽을 만한 다른 경전 구절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몇 가지 구절은 말씀의 미주나 경전 안내서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3. 회원들이 그 말씀을 더 깊이 숙고하도록 도우려면 어떤 질문을 해야 하는가? 그들이 자신의 삶과 가정, 그리고 주님의 사업이 이 말씀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아는데 어떤 질문이 도움이 되겠는가?
4. 모임에 영을 초대하기 위해 그 외에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토론을 향상하기 위해 이야기나 비유, 음악 및 예술 작품을 포함하여 무엇을 사용할 수 있겠는가? 연사는 무엇을 사용했는가?
5. 연사가 권유한 것이 있는가? 회원들이 이러한 권유에 따라 행동하려는 소망을 갖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

---

---

---

---

---

---

---

---

---

## 활동 아이디어

회원들이 연차 대회 말씀을 통해 배우도록 도울 방법은 많다. 다음은 몇 가지 예시이다.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장로 정원회나 상호부조회에서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아이디어가 있을 수도 있다.



- **그룹별로 토론한다.**  
회원들을 소그룹으로 나눈다. 각 그룹별로 연차 대회 말씀의 다른 부분을 배정해 준 뒤 읽고 토론하게 한다. 그런 후 각 그룹이 배운 진리를 나누어 달라고 한다. 또는 연차 대회 말씀의 서로 다른 부분을 읽은 회원들로 새로운 그룹을 만들어 배운 점을 서로 나누게 할 수도 있다.
- **질문에 답한다.**  
회원들에게 연차 대회 말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해 보라고 한다. 이 말씀에서 어떤 복음 진리를 찾았는가? 이러한 진리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어떠한 권유와 약속된 축복이 주어졌는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기를 바라시는 일에 관해 무엇을 가르치는가?
- **인용문을 나눈다.**  
회원들에게 연차 대회 말씀에서 구원 사업에서 자신이 맡은 책임을 다하도록 영감을 준 인용문을 나누어 달라고 한다.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과 성역 대상자를 포함하여 누군가를 축복하기 위해 이 인용문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지 곰곰이 생각해 보도록 격려한다.
- **실물 공과를 한다.**  
몇몇 회원에게 연차 대회 말씀을 가르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가져오라고 미리 부탁한다. 모임에서 그 물건들이 어떻게 말씀과 관련이 있는지 설명해 달라고 한다.
- **가정에서 가르칠 공과를 준비한다.**  
회원들에게 짝을 지어 연차 대회 말씀을 기초로 가정의 밤 공과를 계획해 보라고 한다. 어떻게 하면 그 가르침을 우리 가족과 관련 지을 수 있는가? 성역 대상자들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나눌 수 있는가?
- **경험을 나눈다.**  
연차 대회 말씀 내용 중 몇 구절을 함께 읽는다. 회원들에게 그 구절이 가르치고 있는 교리를 설명하거나 강화하는 예를 경전이나 자신의 삶에서 찾아 나눠 달라고 한다.
- **성구에 관해 배운다.**  
회원들에게 연차 대회 말씀에서 언급된 성구를 읽어 보라고 한다. 그들이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 어떻게 그 성구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는지 토론하게 한다.
- **답을 찾는다.**  
연차 대회 말씀을 사용하여 답할 수 있는 몇 가지 질문을 미리 만든다. 깊이 생각하게 하거나 복음 원리를 적용하도록 격려하는 질문에 초점을 둔다.(구주께서 보여 주신 방법으로 가르침, 31~32쪽 참조) 그런 다음 회원들이 한 가지 질문을 선택하여 말씀에서 답을 찾게 한다. 소그룹으로 모여 자신이 생각하는 답을 토론하게 한다.
- **구절을 찾는다.**  
회원들에게 말씀을 훑어보면서 자신에게 의미 있는 구절을 찾아보라고 한다. 그들에게 찾은 구절과 그 구절이 중요한 이유를 설명해 보게 한다. 이러한 가르침은 우리가 주님의 일을 성취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 **무언가를 만든다.**  
회원들이 연차 대회 말씀에서 짧지만 영감을 주는 구절을 찾아 포스터나 책갈피를 만들어 보게 한다. 자신이 만든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눌 기회를 준다. ■



안전한 품에 안겨  
(내 독자도 그들  
가운데 있었으니),  
줄리 로저스

“고통은 교회 안에서도 밖에서도  
넘쳐납니다. 어느 곳으로 고개를  
돌려도, 견디지 못할 만큼 무거운  
고통을 지고 절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가슴앓이를 하는 이들이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항상 그  
[분을] 기억할’ 한 가지 방법은  
위대한 치유자와 함께 짐 진 자의  
짐을 들어 올리고 괴로워하는 자의  
고통을 없애는 그 끝없는 과업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4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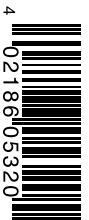
© JULIE ROGERS, 복사 금지



러셀 엠 넬슨 회장은 교회 제189차 연차 대회 of 마지막 모임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오래된 성전과 새로운 성전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 각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임을 행동으로 보여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에 대한 신앙과 신뢰를 통해 우리 삶도 개보수되고 새롭게 단장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회개함으로써 그분의 속죄의 권능을 경험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휘장 양편에 있는 그분의 자녀들을 섬기기 위해 우리 삶을 헌납하고 또 재헌납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교회

KOREAN



4

5